

제5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224호(제1 발표장), 219호(제2 발표장)

주제 : AI시대 국어학 연구의 나아갈 방향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		제1 발표장	사회: 윤혜영(한라대)	
10:10 10:30	등록 및 접수			
10:30 ~ 10:40	개회사		김용경(경동대)	
제1부	1분과 의미론	사회: 김혜령(고려대)	2분과 문법론	사회: 오현아(강원대)
10:40 ~ 11:10	동사 '값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발표: 전기량(동국대) 토론: 김숙정(호남대)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과 지식 관련 의미 발표: 조찬우(고려대) 토론: 함병호(동국대)	
11:10 ~ 11:40	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 연구 발표: 조남민·손달임(한기대/항공대) 토론: 방영심(상명대)		한국어 처소 구문의 격교체에 대하여 발표: 이준희(동국대) 토론: 도재학(경기대)	
점심 : 11:40~13:00				
제2부	특강		사회: 김용경(경동대)	
13:00 ~ 14:00	ChatGPT와 언어 연구		임준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식 : 14:00~14:10				
제3부	주제발표		사회: 허재영(단국대)	
14:10 ~ 14:50	형태소 임베딩 정보를 이용한 합성성 문제 검토 임근석(국민대)		김건희(강원대)	
14:50 ~ 15:30	AI 기반 글쓰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김한샘(연세대)		지현배(동국대)	
15:30 ~ 16:10	한국어 교육용 챗봇 설계 및 수업 활용 방안 이진(연세대)		박정아(경희대)	
휴식 : 16:10~16:20				
제4부	3분과 국어사	사회: 김현주(공주교대)	4분과 담화화용론	사회: 전영옥(상명대)
16:20 ~ 16:50	훈민정음 해례본 366문장 체제, 최초 번역 내용과 의미 발표: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토론: 정수현(호서대)		추론적 상황에 사용되는 '-는 게' 구성에 대하여 발표: 박창영(안양대) 토론: 김민국(경상국립대)	
16:50 ~ 17:20	'해치다'의 어휘사 발표: 허인영(인하대) 토론: 성우철(고려대)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예상 쟁점 탐색 발표: 신희성(고려대) 토론: 김병건(건국대)	
연구윤리교육			발 표: 김홍범(한남대)	
총회 및 우수논문 시상식			사 회: 윤혜영(한라대)	

차 례

【제1 분과 의미론】

전기량(동국대)	동사 ‘값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3
김숙정(호남대)	토론	20
조남민·손달임(한기대/항공대)	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 연구	22
방영심(상명대)	토론	36

【제2 분과 문법론】

조찬우(고려대)	‘-더러{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과 지식 관련 의미	39
함병호(동국대)	토론	51
이준희(동국대)	한국어 처소 구문의 격교체에 대하여	52
도재학(경기대)	토론	73

【특 강】

임준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ChatGPT와 언어 연구	79
----------------	----------------------	----

【제3 분과 주제발표】

임근석(국민대)	형태소 임베딩 정보를 이용한 합성성 문제 검토	108
김건희(강원대)	토론	126
김한샘(연세대)	AI 기반 글쓰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128
지현배(동국대)	토론	144
이진(연세대)	한국어 교육용 챗봇 설계 및 수업 활용 방안	145
박정아(경희대)	토론	160

【제4 분과 국어사】

김슬옹(세종국어화원)	훈민정음 해례본 366문장 체제, 최초 번역 내용과 의미	163
정수현(호서대)	토론	203
허인영(인하대)	‘헤치다’의 어휘사	204
성우철(고려대)	토론	220

【제5 분과 담화화용론】

박창영(안양대)	추론적 상황에 사용되는 ‘-는 게’ 구성에 대하여	226
김민국(경상국립대)	토론	237
신희성(고려대)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예상 쟁점 탐색	239
김병건(건국대)	토론	268

【연구윤리교육】

김홍범(한남대)	한말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271
----------	---------------------	-----

제1 분과

의미론

동사 ‘값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전기량(동국대)

— < 차 례 > —

1. 서론
2. [은닉]의 ‘값다’
3. [염습·매장]의 ‘값다’
4. [저장·보관]의 ‘값다’
5. 결론

1. 서론

이 글은 중세 한국어의 동사 ‘값다’와 현대 한국어의 ‘갈무리, 갈무리하다’의¹⁾ 의미적 관련성에 주목하여 ‘값다>갈무리(하다)’의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 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세 한국어의 동사 ‘값다’를 살펴보자.

(1) 가. 모뎨 갈모매 비야호로 잇부믈 고평도다(藏身方告勞) <1481두시언해_7:21a>

나. 돌 가운데 파란 옥이 갈맷도다(石中에 藏碧玉이로다) <1482금강경삼가해_2:56b>

다. 倉은 갈물 씨니 나들 갈물 씨라 <1459월인석보_9:38a>

라. 殮 갈물 럽 <1559훈몽자회(내각문고본) 中:35b>

15-16세기 자료에서 ‘값다’는 주로 ‘藏’이나 ‘殮’, ‘屏, 倉’에 대응하여 쓰인다. (1가)는 ‘몸을 감춤에(감출 때에) 힘들을 고평한다.’의 의미로 이때의 ‘값다’는 ‘감추다’로 해석된다. (1나)는 ‘돌의 가운데 파란 옥이 숨어 있다’의 의미로 이때의 ‘값다’는 ‘숨다’ 정도로 해석된다. (1다)는 ‘倉은 저장·보관한다는 것이니 낱을 저장·보관하는 것이다’로 이때의 ‘값다’는 ‘저장·보관하다’ 정도로 해석된다. (1라)의 ‘값다’는 ‘殮’, 즉 ‘염습하다’의 의미이다. (1)을 통해 15-16세기의 ‘값다’의 의미를 ①‘-을 보이지 않게 하다’, ②‘-을 저장·보관하다’, ③‘죽은 이의 시신을 닦다’로 파악하고 이를 각각 [은닉], [저장·보관], [염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값다’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 의미는 일부 단어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갈무리(하다)’이다. 현대 한국어 ‘갈무리(하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이 글은 2023. 5. 13. 237차 <통사론 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이하 ‘갈무리(하다)’로 표기.

(2)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사전>의 ‘갈무리(하다)’의 의미

사전	뜻풀이
<표준>	①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②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③통신상에 보이는 자료들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일.
<고려>	①물건 따위를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모아서 보관함. ②일 따위를 수습하고 처리하여 끝맺음을 잘함.

(2)에서 보듯이 현대 한국어의 ‘갈무리(하다)’는 ①‘(물건 등을) 정리, 보관하다’, ②‘(어떤 일을) 마무리하다’, ③‘(파일을) 저장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값다’의 [은닉], [저장·보관], [염습]이 ‘갈무리(하다)’의 [저장·보관], [마무리] 등에 일부 남아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저장·보관]을 제외하고는 ‘값다’와 ‘갈무리(하다)’의 의미 차이가 얼마간 있는 것으로 보여 ‘값다>갈무리(하다)’의 과정에서 일어난 형태 변화만큼이나 의미 변화도 상당히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 변화 과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중세 한국어에서 ‘값다’의 각 의미에 따른 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은닉]의 ‘값다’

2.1. 자타 양용 동사 ‘값다’

[은닉]의 ‘값다’는 ‘-을 숨기다’란 의미의 타동사와 ‘-이 숨다’란 의미의 자동사로 쓰였다.(3)은 타동사 ‘값다’가 [은닉]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3) 가. 黃面老子 | 나트시니 摩醯ᄃᆞᆫ 눈 알핀 몸 갈몰 짜 업스니라(黃面老子 | 現也ᄃᆞᆫ시니 摩醯眼前엔 藏身無地니라) <1482금강경삼가해 3:9a>

나. 北斗ᄃᆞᆫ 소매 모몰 값게 ᄃᆞᆫ시니(無蹤跡ᄃᆞᆫ야 不覺潛身北斗藏ᄃᆞᆫ샷다 ... 且喝得虛空ᄃᆞᆫ샤 令北斗裡藏身ᄃᆞᆫ시니) <1482금강경삼가해 4:37b-38a>

다. 師子 | ... 堀에 드러 모몰 갈마는 ᄃᆞᆫ오샤 妙를 得ᄃᆞᆫ니 네브터 오매 象王의 아로몰 許티 아니ᄃᆞᆫ니라. 【堀에 난 師子는 化門이라 堀에 드러 몸 갈모든 自受用 三昧라. 象王은 權敎ᄃᆞᆫ 菩薩을 가즐비시니 師子 | 堀에 드러 몸 갈든 고든 象王도 쏘 여서 보디 몬홀 시라】 (師子兒 | ... 入窟藏身ᄃᆞᆫ야는 獨得妙ᄃᆞᆫ니 從來不許象王知ᄃᆞᆫ니라 堀에 난 師子는 化門이라) <1482남명집언해 하:36a-36b>

라. 衆이 뒤쫓느니 업과 톱과 갈모미 어려워 저푸미 ᄃᆞᆫ마 이도다(衆隨後ᄃᆞᆫ느니 牙爪를 難藏이라 威已就ᄃᆞᆫ도다) <1482남명집언해 하:36b>

마. 氣韻을 갈만 수물 아니 쉬드시 ᄃᆞᆫ터시디(屏氣ᄃᆞᆫ샤 似不息者 | 러시디) <1518번역 소학 3:4b>

바. 사르미 도흔 곧 잇거든 퍼내여 니르며 사르미 사오나온 고디 잇거든 쁘려 갈몰 디니라 (人有好處揚說着 人有歹處掩藏着) <1517번역노걸대_권하:44a>

사. 道는 므스매 값업슨 구스를 갈맺느니(道卽心藏無價珍ᄃᆞᆫ니) <1482남명집언해_상:32b>

아. 겨르러이 ᄃᆞᆫ오샤 거르니 鶴이 곧ᄃᆞᆫ야 하늘과 싸괘 가도몰 몬거니 宇宙 | 잇

데 能히 갈무리오(閑獨步 ㅎ니 快如遼天鵬 ㅎ야 乾坤이 收不得이어니 宇宙 | 豈 能藏이리 오) <1482금강경삼가해 2:55b>

자. 물 뉘누리는 기괴 마리 줍기고 藤入 너추른 고바 비야물 갈맷도다(碾渦深沒馬 藤蔓曲藏 蛇) <1481두시언해(초간)15:8b>

차. 니셋는 두들근 물 드로물 값고 프리프리에 두두룩흔 된 건네뛰유물 放縱히 ㅎ는다(纍纍 禪阜藏奔突 往往坡陁縱超越) <1481두시언해(초간)17:26a>

(3)의 예들은 ‘NP1이_{AGT} NP2를_{THM} 값다_{숨기다}’란 논항 구조를 갖는다. 이때 ‘값다’의 대상인 NP2는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 모두 올 수 있다. NP2가 구체 명사인 경우 (3가, 나, 다)에서 보듯이 특히 유정물의 ‘몸’인 경우가 많다. ‘몸’이 아닌 경우에는 (3라, 마)와 같이 유정물의 ‘몸’과 관련된 것이 많다. (3라)는 ‘몸’의 일부인 ‘어금니와 발톱’이고, (3마)는 신체 활동의 산물인 ‘숨’이다. 즉 ‘값다’의 대상인 NP2는 행위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곧 행위주인 NP1의 존재와 관련된 NP1의 일부이다.

(3가-마)와 달리 (3바)의 NP2는 NP1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것이다. (3바)의 NP1은 사람, NP2는 추상물인 ‘사람의 단점’이다. 이처럼 NP2가 NP1의 별개의 대상인 경우 추상적 성격을 가진 NP1이 의인화되어 구체물(3사) 또는 추상물(3아)를 대상으로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3자, 차)는 어떤 풍경이나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3자)의 NP1은 덩굴, NP2는 뱀이고, (3차)의 NP1은 언덕, NP2는 ‘말 달림(말이 달리는 모습)’이다. 화자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NP1이 NP2를 값-’으로 표현한 것인데 (3자, 차)의 NP1은 행위주가 아닌 장소(LOC)이다.

(4)는 자동사 ‘값다’가 [은닉]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NP1이_{AGT} (NP2에_{LOC}) 값다_{숨다}’의 논항 구조를 가진다. ‘무엇이 어디에 숨다’, ‘무엇이 숨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 NP1은 유정물과 무정물, 추상물이 모두 가능하다.

(4) 가. 바람 값은 가까운 물₃에 값고 (風駕藏近渚) <1481두시언해(초간)_12:31b-32a>

나. 죽근 마레 값는 龍이 사라 鱗鱗 ㅎ는다(死水에 藏龍이 活鱗鱗 ㅎ는다) <1482금강경삼가해4:12a>

다. 傳傳으로 널오되 東柯谷에 두서 열 지비 기괴 값다 ㅎ는다(傳道東柯谷 深藏數十家) <1481두시언해(초간)13:40a>

라. 누네 ㅁ득흔 欸 光明이 값물 고디 업스리라(滿目寒光이 無處藏 ㅎ리라) <1482금강경삼가해2:10a>

마. 오직 阿賴耶識 죽사릿 굽기 값모물 가줄비시니라(唯藏於阿賴耶識生死窟穴也 ㅎ시니라) <1463법화경언해2:128a>

바. 鳳이 값니 불근 하늬 나조히오(鳳藏丹霄暮) <1481두시언해(초간)16:3b>

사. 피사리는 나직 값도다 (山精白日藏) <1481두시언해(초간)15:9b>

아. 물러가 값는 雨師를 츠기 너기고(退藏恨雨師) <1481두시언해(초간)10:25a>

(4가, 나, 다)는 ‘NP1이_{AGT} NP2에_{LOC} 값다_{숨다}’의 예로 ‘값다’의 장소가 명시된 경우의 예이다. (4가)는 ‘바람에 원앙이 가까운 물가에 숨어 있고, 비에 제비는 깊은 나뭇가지에 모여 있다’ 정도로 해석되고, (4나)는 ‘죽은 물에 숨어 있는 용이 살아 헤엄친다’ 정도로 해석된다. (4다)는 ‘전해오는 말로 동가곡에 수십 가옥이 깊이 숨어 있다 한다’의 의미로 이때의 ‘집’은 건축물이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4라, 마)는 ‘NP1이_{AGT} NP2에_{LOC} 값

다_{숨다}’의 구조는 아니지만, NP1과 NP2를 찾을 수 있다. (4라)는 ‘눈에 가득한 찬 광명이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의 의미로 NP1은 ‘광명’, NP2는 ‘곧’이 해당한다. (4마)는 ‘아뢰야식이 생사의 구멍에 숨음을 비유하셨다’의 의미로 NP1은 ‘아뢰야식’, NP2는 ‘굶기’이다. (4가-마)에 쓰인 ‘값다’는 ‘NP1이 NP1의 몸(또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하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바-자)는 ‘NP1이_{AGT} 값다_{숨다}’의 예이다. (4가-마)와 마찬가지로 ‘NP1이 NP1의 몸(또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하다’의 의미로 이해된다. 다만 (4가-마)와 달리 NP1_{AGT}이 숨는 공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4바)의 ‘봉황’, (4사)의 ‘피사리(산의 정령)’, (4아)의 ‘우사(비의 신)’이 숨는 장소를 알 수 없다. (4가-마)와 (4바-자)는 NP1이 숨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4가-마)는 NP1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인지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4바-자)는 NP1이 숨은 장소를 알 수 없어 그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바-자)의 NP1이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상이다.

한편 (4)에서 NP1이 유정물인 경우에는 NP1이 자신의 몸(또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숨긴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자동사 ‘값다’의 주어 NP1은 행위주이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동사 ‘값다’가 재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 이는 타동사 ‘값다’의 대상이 ‘몸’이라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2.2. ‘값다’와 ‘값초다’³⁾

[은닉]의 ‘값다’와 비교할 만한 형태로 ‘값초다’가 있다. 15-16세기의 ‘값초다’는 ‘具’나 ‘藏’에 대응하여 나타난다. ‘값초다’가 ‘藏’에 대응할 때에는 ‘-을 값추다’ 즉 [은닉]을 나타낸다. 또한 ‘-을 보관하다/간직하다’란 의미로 쓰여 [저장·보관]을 나타낸다. ‘값다’와 다른 점은 ‘염습하다’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5)는 ‘藏’에 대응하는 [은닉]의 ‘값초다’와 ‘값다’의 예이다. ‘값추다’, ‘숨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5) 가. 새 우러 제 모뎨 값초느니(鳥呼藏其身) <1481두시언해(초간)7:24a>

나. 미햇 鶴은 물근 새배 넷고 피사리는 나지 값뎨도다(野鶴清晨出 山精白日藏) <1481두시언해(초간)15:9b>

‘값초다[藏]’는 15세기 일부 문헌에서부터 ‘값초다’로 쓰였다가 16세기에는 ‘값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후 ‘값초다(18세기)를 거쳐 값추다(19세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6)은 ‘값추다’ 또는 ‘숨기다’로 해석되는 ‘값초다’, ‘값초다’, ‘값초다’의 예이다.

(6) 가. 곳 닐굽 줄기를 가져 겨샤되 冑기 出숨을 저썩바 瓶기 소매 값초아 뎨더시니(密持

2) ‘He shaves every morning.’에서 ‘shave’의 주어 ‘He’는 행위주이자 대상이다. 이처럼 어떤 동사의 행위(작용)가 영향을 미치지 그것이 주어에게 해당할 경우 그 동사는 재귀성을 가진다고 하고, 이를 재귀 동사(Reflexive verb)라고 한다. 자타양용동사인 [은닉]의 ‘값다’가 자동사로 쓰일 경우 행위주와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자동사 ‘값다’는 재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가)를 타동사 ‘값다’가 쓰인 문장으로 바꾼다면 ‘브르뎨 駕鴛이 갓가온 冑기 자기(自己)를 값뎨고’나 ‘브르뎨 駕鴛이 갓가온 冑기 자기(自己) 모뎨 값뎨고’정도가 될 것이다.

3) ‘값초다’는 ‘藏’에 대응하는 ‘값초다’로부터 ‘값초다>값초다>값초다’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형태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具’의 의미로도 ‘값초다’가 쓰이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藏’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 ‘값초다’를 대표형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七莖青蓮花過 畏王制令 藏著瓶中) <1459월석인석보1:09b-10a>

나. 한 모던 이를 숨겨 근출씩 일후미 覆 | 오 <1463법화경언해6:175a>

다. 어던 사름이 아익게 노호옴을 금초아 두디 아니하며 (仁人之於弟也애 不藏怒焉하며) <1588소학언해4:37b>

‘감추다’의 의미로 쓰이는 [은닉]의 ‘금초다’는 ‘값다’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값다’와 차이가 있다. 첫째, (6다)와 같이 ‘ㄱ초다’는 감정을 대상으로 취할 수 있지만 ‘값다’는 그렇지 않다. 둘째, [은닉]의 ‘값다’가 자타 양용동사인 것과 달리 ‘금초다’는 타동사로만 쓰였다. 셋째, ‘값다’와는 달리 ‘금초다’는 ‘몸’을 목적어로 취하는 일은 드문 편이다. 넷째, ‘값다’가 목적어로 주어의 몸 또는 이와 관련된 것을 취하는 일, 즉 ‘NP1이_{AGT} NP2를_{THM} 값다_{숨기다}’에서 NP2는 NP1의 몸 또는 일부인 것에 비해 ‘금초다’의 NP2는 NP1과 전혀 다른 별개인 예가 다수이다. 다섯째, ‘값다’에 비해 ‘금초다’는 ‘덮다, 들다, 가리다, 숨다’ 등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함께 쓰여 ‘감추는 방법’을 표현하는 일이 많다. (7)에서 보듯이 ‘가려 감추다(7가), 감추어 들다(7나), 들어 감추다(7다), 몰래 감추다(7라)’ 등 대상을 어떻게 감추는지를 나타낸다.

(7) 가. 혼 念이 迷妄호물 브터 이를 受하며 이를 取야 제 ㄱ리와 ㄱ출씨라(由一念迷妄호야 受此取此호야 以自蔽藏也 | 라) <1462능엄경언해10:86b-87a>

나. 陰賊이 ㄱ초아 두피 잇다가 發하면 제 害호느니_陰賊이 藏覆호야 잇다가 發하면 則自害호느니 <1462능엄경언해8:94b>

다. 賈는 두피 ㄱ초아 값 기드리느니니 商估는 商人이라 닐오미 곧호니라(賈는 以覆藏待價 | 니 商估는 猶商人也 | 라) <1463법화경언해2:187b>

라. 마초아 아로되 안 ㅁ스매 我執이 손지 구더 그스기 ㄱ초아(驗得內心애 我執이 猶堅호야 潛藏相續호야) <1465원각경언해 하3-1:50b>

2.3. [은닉]의 ‘값다’의 사어화(死語化)

[은닉]의 타동사 ‘값다’는 ‘藏’의 역어(譯語)로 15-16세기 자료에서 ‘ㄱ초다, 근초다, 금초다’에 비해 활발히 쓰였으나 17세기 이후부터 ‘금초다’보다 현저히 덜 쓰이기 시작하여 결국 사어화 된다.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값다’가 나타난 자리에 ‘금초다’가 쓰이기도 하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음 몇 가지 내용을 통해 대략 17세기 중후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원문을 두고 이전 시기의 것은 ‘값다’(8가), 이후 시기의 것은 ‘금초다’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8나).

(8) 가. 사르미 도흔 곧 잇거든 퍼내여 니르며 사르미 사오나온 고디 잇거든 ㅼ려 값물 디니라(人有好處揚說着 人有歹處掩藏着) <1517번역노걸대_하:44a>

나. 사름이 도흔 곳디 잇거든 내여 니르며 사름이 사오나온 곳디 잇거든 금출 씨시니라 (人有好處揚說着 人有歹處掩藏着) <1670노걸대언해_하:40a>

둘째, ‘금초다’가 ‘몸’을 목적어로 취하는 것은 15-16세기 자료에서 매우 드물었지만(1회), 17세기 이후부터는 ‘몸’을 목적어로 취하는 예를 다수 볼 수 있다.

- (9) 가. 羅天大醮_{호는}壇場 우회 가 몸을 금초와(到羅天大醮壇場上藏身) <1677박통사언해_하 :19a>
 나. 나가거든 반드시 눈썹 덮고 엿보거든 반드시 몸을 금출디니라(出必掩面_{호며} 窺必藏形이니라) <1736여사서언해2:02ㄱ-02b>
 다. 향원의 수플 스이에 몸을 금초와 든넛는디라 <18세기형세언6:03a>
 라. 티져 큰 그르스 몸의 감초미 넷 사람의 중히 너기는 빅어늘_藏器於身古人所重 <1852태상감응편도설3:23b>

셋째, 한자 학습서나 유해류(類解類) 등에서 ‘藏’에 대한 훈이 ‘값다’에서 ‘금초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가)에서 보듯이 18세기 초까지 ‘값다’가 ‘藏’의 훈으로 쓰였으나 (10나)와 같이 18세기 후반의 어휘집 등에서는 ‘금초다’ 등이 쓰였다.⁴⁾ 이는 18세기 초까지는 ‘藏’의 훈으로 ‘값다’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라면 그 이후 시기부터는 ‘藏’의 훈으로 ‘금초다’가 더 일반적으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10) 가. 갈물 장 <1575광주천자문,2a>, 갈물 장 <1576년 신증유합 하37a>, 갈물 장 <1583석봉천자문(내각문고본),2a>, 갈물 장 <1583석봉천자문(박찬성본),2a> 갈물 장 <1601이해룡천자문,2a>, 갈물 장 <1634천자문(갑술중간본),2a>, 갈물 장 <1650석봉천자문(경인중보본),2a>, 갈물 장 <1661천자문(칠장사판),1b>, 갈물 장 <1691석 봉천자문(신미하중간본),2a>, 갈물 장 <1730천자문(송광사판),1b>, 갈물 장 <1735 이무실천자문(초간본),1b>, 갈물 장 <17XX천자문(궁내청서릉부분),1b>, 갈물 장 <17XX석봉천자문(영남대본),2a>, 갈물 장 <17XX천자문(청계사판),1b>
 나. 藏 금출 장 <1780년대왜어유해하:03b>, 금출 장 <1780년대 천자_주 2a> 藏着 금초다 <1778방언유해4:29a> 藏着 감초다 <1790년몽어유해상:22b> 감초다 <1880한불사전:126> 감출 장 <1918 초학 108> 감츄을 장 <1922 속한 8b>

[은닉]의 ‘값다’가 점차 사라지고 ‘금초다’가 남게 된 이유와 관련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 (12) 가. [은닉]의 ‘값다’가 사라지고 ‘금초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나.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은?
 다. [藏]의 의미인 ㉠[은닉]과 ㉡[저장·보관] 중 ‘금초다’가 [은닉]의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은닉]의 ‘값다’가 사라지고 ‘금초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값다’와 ‘금초다’의 의미가 상당히 중복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 두 단어는 [은닉]의 의미 말고도 [저장·보관]의 의미도 공유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두 단어가 가진 의미가 상당히 겹칠 경우에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형태가 각각 존재하지 않도록 둘 중의 하나가

4) 이 글에서는 (12)와 같은 천자문, 어휘집 등에 ‘값다’가 18세기 초반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은닉]의 ‘값다’가 18세기 초반까지 쓰였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18세기 초반까지 ‘값다’가 쓰인 것은 특히 <천자문>인데, <천자문>은 이본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결국 이전 시기의 <천자문>을 참고하여 나온 것이므로 다른 문헌들에 비해 더욱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學’의 역어로 ‘비호다’와 ‘니기다’는 본래 ‘~을 몸에 배게 하다, 익숙하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만, ‘비호다>배우다’는 점차 몸으로 익히는 것보다는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의미가 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처음 습득할 때 사용하게 되었다. ‘니기다>익히다’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처음 습득한 뒤 그 기능을 몸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할 때 사용한다(박진호 2015: 626-626).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은 ‘검초다’의 형태 변화이다. 어휘의 형태, 의미 변화는 해당 어휘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어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세 한국어의 ‘어리다’가 ‘어리석다[偶]’의 의미로 쓰이다가 ‘나이가 적다[幼]’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젊다’의 의미 역시 변화하였다. ‘젊다’의 경우 ‘나이가 적다[幼]’와 ‘나이가 한창때에 있다[靑, 壯]’의 의미를 모두 지닌 것이었는데 ‘어리다’가 ‘나이가 적다[幼]’의 의미로 쓰임에 따라 ‘젊다’는 ‘나이가 한창때에 있다[靑, 壯]’의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13) ‘어리다’와 ‘젊다’의 의미 변화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이후	
[偶]	어리다		[偶]	어리다		[偶]	어리석다>어리석다
[幼]	젊다		[幼]	젊다		[幼]	어리다
[靑]		[靑]	[靑]		젊다>젊다		

‘젊다’와 ‘ㄹ초다’의 의미 변화 양상도 이러한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ㄹ초다’는 ‘具’와 ‘藏’의 의미로 모두 쓰이다가 ‘藏’의 의미로 쓰이는 ‘ㄹ초다’가 ‘ㄹ초다>근초다>검초다’로 형태 변화하게 되었다. ‘藏’의 의미를 ‘검초다’가 전담하게 되면서 ‘具’의 의미를 가지는 ‘ㄹ초다/ㄹ초다’와 혼동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즉 ‘검초다’의 형태, 의미가 안정화됨에 따라 ‘검초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 부담량이 큰 ‘젊다’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⁵⁾

(14) ‘젊다’와 ‘ㄹ초다’의 의미 변화

15세기		→	16세기-17세기		→	18세기 이후	
[藏]	젊다		[藏]	젊다		[藏]	젊다
[具]	ㄹ초다		[具]	근초다, 검초다		[具]	검초다>검추다
			[具]	ㄹ초다		[具]	갓추다>갓추다

한 가지 짚어볼 것은 ‘藏’의 의미에는 [은닉]과 [저장·보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具’와 ‘藏’ 중에서 ‘藏’의 의미만을 전담하게 된 ‘검초다’가 그 중 특히 [은닉]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검초다’에는 없고 ‘젊다’에만 존재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젊다’와 ‘검초다’는 [은닉]과 [저장·보관]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검초다’와 달리 ‘젊다’는 ‘염습하다’ 또는 ‘매장하다’란 의미가 더 존재했다. ‘매장하다’ 즉, 땅에 무엇을 묻는 행위는 비유적으로 무엇을 감추는 행위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⁶⁾ ‘젊다’가 [은

5) 다의어가 의미 분화하여 의미 부담량을 덜어 단의화하는 예로는 중세 한국어의 ‘늙다’를 들 수 있다. ‘늙다’는 ‘나이가 한창때를 지나다[老]’와 ‘해가 저서 어두워지다[暮]’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만, [暮]의 의미는 ‘저물다’에 넘겨주고 [老]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

6) ‘묻다’의 대상과 장소가 추상물일 경우 ‘감추다, 숨기다’의 의미가 더 드러난다. ‘우리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 묻어두자’, ‘가슴속에 비밀을 묻다’, ‘나는 형의 말을 비밀로 묻어 두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한 일들을 과거

닉]의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얼마간 존재했다는 점에서 ‘곰초다’가 [은닉]을 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은닉]의 ‘값다’와 ‘곰초다’ 중에서 ‘곰초다’의 사용역이 보다 넓었던 것도 지적할 만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값다’는 ‘몸’ 또는 ‘몸의 일부’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던 것에 비해 ‘곰초다’는 ‘몸’ 이외에도 취할 수 있는 목적어의 범위가 더 넓었다. ‘숨다’를 제외하고 ‘값다’와 공기할 수 있었던 서술어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서 ‘곰초다’는 ‘똥다, 똥다, 가리다, 숨기다’ 등 다양했다.

3. [염습·매장]의 ‘값다’

(15)는 ‘염습하다’ 또는 ‘매장하다’의 의미로 쓰인 ‘값다’의 예이다. 본래 논항 구조는 ‘NP1이_{AGT} NP2를_{THM} 값다_{염습하다·매장하다}’이겠으나 ‘염습하다’의 그 대상이 죽은 이라는 것이 당연히 연상되므로 NP2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며, NP1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닉]의 ‘값다’와 다르다. 따라서 [염습·매장]의 ‘값다’는 ‘(NP1이_{AGT}) (NP2를_{THM}) 값다_{염습하다·매장하다}’의 구조로 나타난다.

(15) 가. 殮 갈물 럼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中:35b>

나. 여든 나래야 갈므니 느치 사랏느듯 흐더라(凡八十日乃就斂 顏色如生) <1579삼강행실도(동경대본)_忠:19b>

다. 사람 시켜 관재를 사다가 신체를 갈마 본가로 보내려 흐딕 <17XX후수호던 045>

라. 여덟 히를 시러 물값디 묻혀야 나지며 바미며 불러 우로디 (八年을 下得營葬 하여 晝夜에 號哭호디) <1481내훈_권1:72b>

마. 그 분묘 터홀 점복혀야 값소으며(卜其宅兆而安厝之 혀며) <1590효경언해_1:26a>

바. 옥둥의셔 죽느니 출하리 이 집의셔 죽으면 열은 널의나 녀허 갈물 거시오 <17XX후수호던,119>

(15가, 나, 다)는 ‘염습하다’의 의미로 쓰인 ‘값다’의 예이다. (15라, 마, 바)는 ‘값다’가 염습의 과정 이후 ‘매장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15가)는 <훈몽자회>에서 ‘殮’을 ‘값다’로 풀이한 예이다.⁷⁾ (15나)는 ‘80일에야/80일만에 (시신을) 염습하니 (시신의) 낮이 살아있는 듯 했다’의 의미로 이때의 ‘값다’도 ‘염습하다’의 의미이다. 다른 판본들에서는 이때의 ‘갈므니’를 ‘斂혀다, 녀습혀다’로 언해하였다.⁸⁾ (15다)는 ‘사람 시켜 관재(棺材)를 사다가 신체를 염습하여 본가로 보내려 하니’ 정도의 의미이다. 문맥상 ‘시신을 정돈하여 관에 담아 본가로 보내고자 하니’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 (15라)에서 보듯이 ‘값다’는 ‘묻-’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8년을 능히 파묻지 못하여 낮이며 밤이며 불러 울되’의 의미로 이때의 ‘물값디’는 매장하다의 의미이다.⁹⁾ (15마)의 ‘값다’는 ‘안치하다, 안장하다’ 정도의 의미로 원문의

속으로 묻어 두고 싶어 했다.’ 등

7) ‘殮’을 ‘값다’로 풀이한 것은 <훈몽자회>가 유일한데 18세기까지의 <훈몽자회> 이본들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8) ‘여든 나래야 값혀니 느치 산 듯 흐더라 <1490 삼강_런던 19b>’, ‘팔십일만에 다시 내여 녀습혀니 열골이 사라실 적 깃더라 <1797 오륜 45b>’.

9) ‘여덟 히도록 영장(營葬)을 묻혀야 나자 바미 우로디 <1518 번소 9:32b>’, ‘여덟 히를 시러곰 밭장을 경영티 묻혀야 나지며 밤의 불지져 울오디 <1588 소언 6:29 7-29b>’, ‘여덟 히를 시러 물값디 묻혀야 나지며 바미여 불러 우로디 <1611내훈(중간) 권1:65b>’.

‘安厝^ᄒ며’를 언해한 것이다.¹⁰⁾ (15바)의 ‘값다’도 ‘매장하다’의 의미로 이해된다. 염습한 이후 땅에 묻는 것이 장례 절차이므로 염습한 시신을 관에 넣는다는 의미보다 ‘시신을 관에 넣어 묻다’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염습하다’는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힌 뒤 염포로 묶다’란 의미로 죽은 이를 매장하기 전 시신을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장례 절차상 시신을 염습한 이후 매장이 진행되므로 ‘값다’가 ‘염습하다’에서 ‘시신을 매장하다·묻다’란 의미로 환유적 의미 확장을 거치게 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과정은 자료상 분명히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값다’가 ‘염습하다·매장하다’란 의미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은 <언해태산집요>에 쓰인 ‘값다’의 예이다. ‘값다’가 ‘매장하다, 묻다’란 의미로 쓰인 것은 (15라, 마, 바)와 같으나 ‘값다’의 대상이 ‘태의[胎衣]’ 곧 ‘태반’이라는 점이 다르다. (15)와 달리 ‘값다’의 대상이 시신이 아닌 ‘태반’이므로 ‘NP2를_{THM} 값다_{매장하다}’에서 NP2가 항상 드러난다.

- (16) 가. 헝다가 정월의 병디과 임디에 잇거든 임디예랑 산부의 자리 보고 병디예랑 티의 를 값미 가^ᄒ니(如正月在丙壬可於壬位安 產婦床帳丙位藏胎衣 若值閏月看節氣分用) <1608언해태산집요 63b>
- 나. 더러운 므스를 다 티의 값는 방수를 조차 원근을 헤디 말고 버리라(不淨之水並隨藏胎衣方不拘遠近棄埋之) <1608언해태산집요 64a>
- 다. 아기 나홀 자리 보며 티의 값기 길^ᄒ 방쉬라(安產藏胎衣吉方) <1608언해태산집요 64b>

(16가)는 ‘(‘안산방위도’를 보고) 정월에 자리에 병지와 임지가 있거든 임지에는 산모의 자리를 두고, 병지에는 태반을 묻을 자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고 (16나)는 출산 이후와 관련된 설명으로 ‘더러운 무엇을(무엇이든) 다 태반 묻는 방향을 따라 원근(遠近)을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는 의미이다. (16다)는 ‘아기 낳을 자리 보며 태반 묻기(묻기에) 길한 방향이다’의 의미이다. (16)은 출산 이후 태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로 원문에서 모두 ‘장태(藏胎)’를 볼 수 있다. ‘장태(藏胎)’ 또는 ‘안태(安胎)’란 출산 후 태반을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¹¹⁾

(15)와 (16)의 ‘값다’에서 공통적으로 ‘매장하다·묻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5)의 ‘값다’가 어떤 이의 사망 이후 그 사람의 ‘몸’을 닦거나 땅에 묻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라면, (15)의 ‘값다’는 출산 이후 태아의 ‘몸’의 일부였던 ‘태반’을 땅에 묻는 행위를 의미한다. ‘값다’의 대상(THM)이 몸 또는 몸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관련된 사건이 죽음과 탄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죽음과 탄생에 관련한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일을 수습, 정리하는 과정에서 ‘값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부터 ‘값다’가 ‘수습하다, 정리하다’란 의미로 쓰이게 되는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이때 ‘값다’가 몸 또는 몸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은닉]의 ‘값다’와 유사하다.

(17)은 ‘수습하다, 마무리하다’의 의미로 이해되는 ‘값다’의 예이다.

10) <효경언해> 초간본에서는 ‘安厝^ᄒ며’를 ‘값소오며’로 언해하였으나 이후 판본에서는 ‘安厝^ᄒ며’로 풀이하였다.

11) 1980년대까지 출산 이후에 태반을 좋은 날과 좋은 방향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태반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땅에 묻는 것, 불에 태우는 것, 물에 띄워 보내는 것 등이다. 세 가지 방법 중 사람들은 주로 불에 태우는 방식을 선호되었다. 태반을 땅에 묻는 것을 장태(藏胎) 또는 안태(安胎)라고 하는데 이는 지역별, 계층별로 상당히 제한된 사례에 적용되었다. 왕실에서 특별히 태반을 깨끗한 향아리에 담아 명산에 묻는 방법으로 태반을 처리하였는데 ‘안태(安胎)’라고 한다(김지영 2014: 48-55).

- (17) 가. 내 울면 무르실 거시니 너는 물나이다 ㅎ라 내 굿틀 갈므리라 <17XX빙빙던 096>
 나. 임의 그릇된 일을 닐너 빨디업고 이제 설어 그를 갈므리니 <17XX빙빙던 144>

(17가)는 ‘내가 울면 물으실 것이니 너는 모릅니다 해라. 내가 끝을 수습할 것이다/마무리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이고 (17나)는 ‘이미 그릇된 일을 일러 쓸데없고 이제 거두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니/정리할 것이니’ 정도의 의미이다. 이때의 ‘값다’는 ‘거두다, 치우다, 정리하다’의 의미를 가진 ‘설다’와 함께 쓰여 ‘정리하다, 마무리하다’란 의미를 나타낸다. (15), (16)을 통해 [염습·매장]의 ‘값다’의 대상이 ‘죽은 이의 몸’에서 ‘태아 몸의 일부’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염습·매장] → [매장]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의 발생 이후 이에 대한 [수습·정리]란 의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보았다면 (17)에서는 ‘값다’의 대상이 어떤 일(17가)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17나)로 확대됨에 따라 [수습·정리]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이 구체물에서 추상물로 확대되면서 그 의미도 [염습·매장]에서 [매장]으로, [매장]에서 [수습·처리]로 변화한 것이다. [수습·처리]는 ‘값다’의 대상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추상물일 수록 ‘일의 정리, 마무리’의 의미로 쓰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염습·매장]의 ‘값다’의 의미 확장 양상

논항 구조	NP2	‘값다’의 의미	비고
(NP1이 _{AGT}) (NP2를 _{THM}) 값다 _{염습하다·매장하다}	죽은 이의 몸	[염습·매장]	죽음
↓			
NP2를 _{THM} 값다 _{매장하다}	태아 몸의 일부	[매장]	탄생
↓			
(NP1이 _{AGT}) NP2를 _{THM} 값다 _{수습하다·마무리하다}	일/글/의식	[수습·정리]	사건

3.1. ‘값다’와 ‘갈망ㅎ다’

‘값다’는 ‘갈망ㅎ다’의 형태로 17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갈망ㅎ다’는 ‘갈망’에 동사 파생 접미사 ‘-ㅎ-’가 결합한 것으로, ‘갈망’은 ‘값-’에 명사 파생 접미사 ‘-앙’이 결합한 것이다.¹²⁾

12) ‘갈망(ㅎ다)’의 ‘갈망’을 ‘값+-앙’으로 이해할 경우 주목할 것은 접미사 ‘-앙/영’이 결합한 파생 명사들과 얼마간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앙/영’이 들어간 파생 명사는 어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가. N+ -앙/영: 고풍, 도랑, 벼랑, 마당, 구멍 등
- 나. Ad+ -앙/영: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거명 등
- 다. V+ -앙/영: 시령, 두령, 이영 등

(가)는 각각 명사 ‘골[谷], 돌ㅎ[渠], 별ㅎ[崖], 말[場], 구무/굴[穴]’ 등 명사 어근에 ‘-앙/영’이 결합한 것이다. ‘갈망’은 어근이 동사인데 (가)는 명사라는 점에서 다르다. ‘갈망’은 사태를 나타내지만 (가)의 예들은 모두 개체를 의미한다. (나)는 각각 형용사 ‘빨강-[赤], 노랑-[黃], 파랑-[靑], 하양-[白], 검-[黑]’에 ‘-앙/영’이 결합한 것이다. 형용사를 어근으로 취했다는 점에서 ‘갈망’과 다르다. (다)는 각각 ‘진-[載], 두르-[圖], 니-[蓋]’에 ‘-앙/영’이 결합한 것이다. 동사를 어근으로 취했다는 점에서 ‘갈망’과 유사하나 (가)와 마찬가지로 ‘시령, 두령, 이영’ 등은 구체적인 사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갈망’과 다르다.

- (19) 가. 므룻 送終호는 禮호 【죽거든 갈망호는 네라】 <1658경민편언해(중간본),35b>
 나. 갈망호다, 갈망못호다 <1880년 한불자전 :134>

(19가)의 ‘갈망호다’는 ‘송종(送終)’은 ‘장사(葬事)에 관한 온갖 일’을 의미한다. ‘송종하는 예’를 ‘죽거든 갈망하는 예’라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갈망호는 예’는 사람이 죽고난 뒤 장례를 치르는 일에 관한 예법이라 이해할 수 있다. (19가)의 ‘갈망호다’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일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15)와 유사하다. 따라서 ‘갈망호다’가 ‘값다’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값다’가 ‘어떤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일을 수습하다/정리하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19가)를 ‘송종하는 예는 (사람이) 죽거든 (그에 관한 일(장례))을 수습, 정리하는 예법이다’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5), (16)에서의 ‘값다’가 시신이나 태반 등 구체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19가)의 ‘갈망호다’는 장례 의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7)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9)의 두 예를 제외하고는 ‘갈망’ 또는 ‘갈망호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자료부터이다. ‘갈망호다’의 예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渴望호다’와의 동음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渴望호다’는 17세기 초반까지 쓰이다가 이후에는 ‘갈망호다²⁾’의 형태로 더 자주 쓰이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갈망(渴望)호다²⁾’와 ‘갈망호다¹⁾’의 동음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갈망호다¹⁾’이 점차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20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갈망하다¹⁾’은 ‘갈망’의 앞에 ‘끝, 뒤’ 등의 형태를 붙인 형태로 나타난다.¹³⁾ (20)은 ‘갈망하다’ 또는 ‘뒤갈망, 뒤스갈망, 뒷갈망’의 예인데 모두 어떤 일의 ‘수습, 정리, 마무리’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뒷갈망, 끝갈망’의 경우 특히 [마무리]의 의미를 나타낸다.

- (20) 가. 곳곳에 굴을 파고 벗집호로 우홀 一時 갈망한 오막집들이 보히엇다 <1924 동아일보 02.04.>
 나. 목 뒤에 잇는 뼈까지 부러트리코 일신에 상처가 잇게 한 후 뒤갈망 엇지 할 수 업서 <1921 조선일보 03.19.>
 다. 시국의 턱자가 될 터이라고 예언을 하여 내려온 말을 뒤갈망할 도리가 업서서 천신만고로 지내던 차경석은 <1925 조선일보 12.19.>
 라. 약은 숨씨이나 뒤에 가서 갈망을 못해 노흐면 <1930 조선일보 05.28>
 마. 뒤스갈망을 못할 것이니까 자연히 해결되게 할 도리는 그것 밧게 상책이 업다고 <1931 조선일보 02.25.>
 바. 뒤갈망 收拾이 벌서부터 藏相의 골치를 때리는 모양 <1937 조선일보 05.22.>
 사. 끝갈망하다: 뒷일을 마감하다. <1940 조선어사전 :259>
 아. 뒷갈망: 뒷일을 마감하는 것. <1940 조선어사전 :459>
 자. 고국으로 도라가게 한다 하야도 러비는 둘째 문테이오 몸갈망부터 할 수가 업다 한다. <1923 동아일보 09.30.>
 차. 압길의 갈망을 못하야 갈팡질팡하다가 <1926 조선일보 08.10.>
 카. 갈망하다: 일을 해내다. 일을 감당하다. <1940 조선어사전 :38>

13) 동음 관계에 있는 동일한 품사의 두 단어가 동음 충돌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주로 둘 중 한 단어의 형태가 변화하거나, 두 단어의 형태가 모두 바뀌게 된다(최태영, 1972: 243). 예를 들어 중세 한국어의 ‘돌호[石]’과 ‘돌호[渠]’의 동음 충돌 결과 ‘돌호[渠]’ ‘-양/영’과 결합한 ‘도량’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나, ‘ㄱ[分]’과 ‘ㄱ[支]’가 동음 충돌하여 각각 ‘가루’와 ‘갈래’로 형태 변화한 것이 그 예이다. 앞에서 설명한 ‘ㄱ초다’가 ‘금초다’로 변화한 것도 이와 같이 볼 수 있다.

(20가)에서는 홍수로 인해 무너진 집을 잠시 수습하였다는 의미이고, (20나)는 살인 용의자가 살해 후 현장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의미, (20다)는 사이비(似而非) 교주가 자신의 말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모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수습하다, 처리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20나-바)에서 보듯이 ‘뒤’와 함께 쓰여 더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20라)는 ‘뒤+갈망’이 출현하게 된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는 예이고, ‘해결’과 함께 쓰인 (20마)의 ‘뒤스갈망’이나 ‘수습’과 함께 쓰인 (20바)의 ‘뒤갈망’은 ‘어떤 일의 수습, 정리’라는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20사-아)는 <1940 조선어사전>에 쓰인 ‘갈망(하다)’의 관련 형태들로 ‘갈망’이 ‘끝-, 뒤-’와 함께 쓰여 ‘뒷일을 마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 한편 (20자)의 ‘몸갈망’이나 (20차)의 ‘갈망’은 (20카)와 같은 의미로 어떤 일에 대한 수습, 처리, 마무리란 의미를 넘어 ‘어떤 일을 감당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4. [저장·보관]의 ‘값다’

(21)은 [저장·보관]의 ‘값다’의 예이다.

(21) 가. 倉은 갈물씨니 나들 갈물씨라 <1447석보상절9:20a>

나. 如來入 舍利窟 天下에 八萬四千 고들 갈믄니(藏如來舍利於天下) <1459_월인석보 2:68a>

다. 물잇 生肉 니그닌 다 기피 갈마 칙칙기 덩디 마를 디니(皆不用深藏密蓋) <1466 구급방언해下:61b>

라. 사르미 서근 조홀 갈마 마드기 두게코져 흐더니라(意待犬戎滅 人藏紅腐盈) <1481_두시언해(초간)24:22a>

마. 씨 보미 나며 녀르메 길며 마술히 가드며 겨스레 갈믄며(至春生夏長하며 秋收冬藏하며) <1482금강경삼가해2:6b>

바. 비록 마올의 거두고 겨울의 갈물 새라도(雖秋斂冬藏之時) <1758종덕신편언해 御製序:1b>

사. 해 갈마 뒷논 더러우물 떠러버리도다(擺落多藏穢) <1481두시언해(초간)24:28a>

아. 能히 제 體를 諸法中에 갈믄며 能히 諸法을 제 體入 內에 값다 흐니라(與前義 互爲能所 故云 能藏自體 於諸法中 能藏諸法 於自體內) <1459월인석보11:65b>

(21가)는 ‘倉庫’에 대한 협주로 ‘倉은 보관하는 것이니 낱알(곡식)을 보관하는 것이다’의 의미이다. ‘倉’을 ‘값다’로 풀이하여 ‘보관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1나)는 ‘여래의 사리를 천하에 팔만 사천 곳에서 보관하니’의 의미이고 (21다)는 ‘무릇 생고기 익은 것은 다 깊이 저장하여 빈틈없이 덮지 말 것이니’의 의미이다. (21라)는 ‘사람이 썩은 조(붉은 조)를 저장하여 가득히 두게 하고자 했다’ 정도의 의미, (21마)는 ‘이로써 봄에 (만물이) 나

14) <우리말샘>에서 찾을 수 있는 ‘갈망’과 관련한 형태는 ‘갈망, 뒷갈망, 끝갈망, 말갈망, 비갈망, 눈갈망, 앞갈망, 바람갈망’ 등이다. ‘갈망, 뒷갈망, 끝갈망, 말갈망’ 등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수습·처리·마무리’란 의미를 가진다. 북한어인 ‘비갈망, 눈갈망’은 ‘비가 오기 전, 눈이 오기 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발생 전과 관련되어 있다. ‘앞갈망’은 ‘자기에게 생기는 일을 감당하여 처리하다’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앞가림’ 등과 관련이 있다. 한편 북한어에서 ‘앞갈망’은 ‘몸의 앞을 가리는 일’이란 의미이고, ‘바람갈망’은 ‘덮거나 쓰거나 입거나 하여 바람과 찬 기운을 막음’의 의미인데 모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다, 방어하다’ 등의 의미이다.

며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며 겨울에 저장하고'의 의미이다. (21바)는 '비록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할 때라도'의 의미이고 (21사)는 '많이 간직해 둔 더러움을 떨어버리도다' 정도의 의미이고 (22아)는 '또 능히 자기의 몸을 제법중에 지니며, 또 능히 제법을 자기의 몸안에 지닌다고 한다'의 의미이다.

[저장·보관]의 '값다'의 논항 구조는 'NP1를_{THM} (NP2에_{LOC}) 값다_{저장하다·보관하다}'이다. NP1은 주로 농작물이나 고기 등 구체물인 경우가 많지만 (21사, 아)와 같이 추상물인 경우도 존재한다. NP2는 수의적으로 드러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뉘는데, 주로 NP1이 농작물 등에 관련된 것이면 NP2가 잘 쓰이지 않고, NP1이 농작물 등 이외의 구체물이거나(21나), 추상물인 경우(21아)에는 NP2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NP2는 구체적인 장소일 때도 있고 (21나), 추상적인 장소일 때도 있음(22사, 22아). NP1과 NP2가 모두 추상물인 경우에 '값다'는 '지니다, 간직하다' 정도로 이해된다.

4.1. '값다'와 '갈무리'

현대 한국어의 '갈무리(하다)' [저장·보관]이란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단어가 [저장·보관]의 의미를 가진 '값다'와 깊은 관련이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상에서 '갈무리(하다)'의 형태와 관련된 '값다'의 변이형을 쉽게 찾기 어렵다. 다만 다음 (22)의 예를 통해 '갈무리(하다)'가 '갈무리-' 등의 형태에서 원순모음화를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22)에서의 '값다'는 [저장·보관]이 아닌 '정리하다·마무리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지만 현대 한국어의 '갈무리'에도 '마무리' 등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¹⁶⁾

- (22) 가. 내 울면 무르실 거시니 너는 물나이다 흐라 내 굿틀 갈무리라 <17XX빙빙던 096>
 나. 임의 그릇된 일을 닐너 빨티업고 이제 설어 그를 갈무리니 <17XX빙빙던 144>

20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보이는 '갈무리(하다)'는 [저장·보관], [마무리], [파일 저장]의 의미로 쓰인다. [저장·보관]의 '갈무리(하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3) 가. 지나 청피 무는 몸이 몹시 단단하고 갈무리(貯藏)에 가장 좋으니 <1954 동아일보 08.01.>
 나. 농가에서는 "곡식 거두어 도리기" "과일 갈무리" "보리갈이" "지붕이기" 등등으로 <1955 동아일보 11.01.>
 다. 농촌은 수확과 갈무리에, 도시는 김장에 한창 그러고 보면 <1960 동아일보 10.23.>

15) '갈무리(하다)'에 대해 <표준>에서는 '값+-우리'의 구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규환(2022: 44)에서는 '갈무리'의 내적 구조를 '값+-우리'로 분석할 수 없고 '[[값+-올-]#이]'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백문식(2018: 26), 김무림(2020: 69-70)에서도 볼 수 있다. 위의 분석 모두 '갈무리'가 '값다'로부터 파생된 명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볼 것은 '갈무리'와 마찬가지로 '갈무리' 역시 개체가 아닌 사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르'와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가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 '갈무리'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6) 아래의 예는 현대 한국어의 '갈무리(하다)'와 형태상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과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어떤 일의 마무리'로 이해할 수 있다.

즈식이 뿔타 언근 업손 말을 내어 나중을 어이 갈무리 흐듯 이 터로 싱도로이 구다가 <연대미상 서궁일기 13a>

라. 먹이를 먹지 않는 대신에 이들 동물은 겨울잠을 자기전에 지방(기름기)를 몸속에 많이 갈무리해서 <1956 조선일보 11.25>

마. 줄기나 뿌리같은 저장부(貯藏部)=갈무리하는 부분)에 넣어두게 됩니다. <1957 조선일보 03.31.>

(23)은 ‘갈무리(하다)’가 [저장·보관]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23가, 나, 다)와 같이 ‘농작물을 저장하다’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23다, 라)와 같이 동물, 식물의 영양분을 저장하다란 의미로도 쓰인다. 이전 시기에는 ‘갈무리’의 행위주가 주로 사람이었던 것에 비해 (24라, 마)에서 보듯이 동물, 식물 등이라는 점이 다르다.

한편 (24)의 예는 [저장·보관]의 의미와 관련이 있으나 (23)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 ‘갈무리(하다)’의 예이다.

(24) 가. 세계적인 學術 연구자료가 수많이 갈무리되었다는 <1963 동아일보 05.08.>

나. 꽃고추 갈무리에 고춧잎 저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63 동아일보 09.23.>

다. 유희부인이 그렇게 말하고 나더니 이윽고 갈무리를 열고 <1978 동아일보 10.05.>

라. 항상 몸 갈무리를 생명같이 다듬어 왔다는 것을 새삼 깨우치게 된다. <1991 조선일보 06.25.>

(24가)는 ‘갈무리(하다)’의 대상이 학술연구자료인 예이다. 구체물(문서)로 존재하는 ‘학술연구자료’라기보다 학술연구의 성과가 누적되었음을 의미한다. (24나)는 ‘갈무리’와 ‘저장’을 구분하여 쓴 것이다. (24다)의 ‘갈무리’는 ‘저장의 행위’의 의미가 아닌 ‘저장소’ 자체를 의미한다. (24라)의 ‘몸 갈무리’는 ‘몸에 갈무리하다’의 의미가 아닌 ‘몸을 갈무리하다’의 의미이다. ‘갈무리’의 대상이 ‘몸’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24라)의 ‘갈무리’는 ‘몸을 간수하다’의 의미 즉, ‘몸을 잘 보호하여 지키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22), (23)의 예로부터 구체물과 추상물이 모두 ‘갈무리(하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24)에서 [저장·보관]의 의미와 관련이 있되 이전 시기의 용법과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갈무리’가 [파일 저장]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을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일 저장]의 의미는 PC용어의 순화어로 제시된 ‘갈무리’로부터 온 것이다(오규환 2002: 42).

(25) 가. 이들은 프로그램을 「폴그림」, 그래픽에디터를 「그림틀」, 통신용 용어인 캡처를 「갈무리」 등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데 <1992 경향신문 05.29.>

나. ‘하늘소’ 회원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캡처는 ‘갈무리’ 등으로 순우리말로 고쳐 부르는 등 <1992 한겨레 06.02.>

다. 게다가 멋진 장면은 따로 갈무리해서 편집할 수 있다. <1994 경향신문 09.24.>

라. 정부 발표문도 원문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자료 내용이 길면 갈무리까지 된다.<1994 경향신문 08.27>

(25)는 [파일 저장]의 의미로 쓰이는 ‘갈무리’의 예이다. (25가)를 통해 오늘날 [파일 저

17) 해당 문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부터 여자는 자기 몸을 노출함을 수치스러워하고 옷차림부터 단정히 여미어 왔다. 항상 몸 갈무리를 생명 같이 다듬어 왔다는 것을 새삼 깨우치게 된다.’

장]의 의미를 갖는 ‘갈무리’가 ‘capture’의 순화어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capture’를 우리말로 ‘갈무리’라 칭하게 됨에 따라 ‘capture’ 이후 그 내용을 저장하는 것까지 ‘갈무리’의 의미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파일 저장]의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한편 컴퓨터 작업 후에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는 작업의 맨 마지막 단계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갈무리(하다)가 [마무리]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염습·매장]의 ‘값다’에 대해 설명하였듯이 ‘값다’가 ‘어떤 사건이 끝난 이후 이와 관련된 일을 수습하다, 처리하다, 마무리하다’의 의미로 예가 확인되므로 ‘값다’가 이미 [마무리]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을 수습하다, 처리하다, 마무리하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던 ‘갈망(하다)가 ‘갈망(渴望)하다’와의 동음 충돌 결과로 ‘뒷갈망’, ‘끝갈망’의 형태로 쓰이게 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결국 ‘뒷갈망, 끝갈망’ 등도 사어화되면서 이들이 가진 ‘어떤 일의 [마무리]’란 의미가 ‘갈무리’에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6)은 20세기 초반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갈무리’의 예이다.¹⁸⁾ (26라)를 제외한 (26가, 나, 다)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갈무리’를 검색하여 나온 가장 이른 시기의 ‘갈무리’의 예들인데 [마무리]의 의미로 쓰인 ‘갈무리’의 예가 가장 먼저 확인된다.

- (26) 가. 정읍 차경석은 대시국을 꿈꾸다가 나중 갈무리로 ‘시국 대동단’을 꾸미여 <1926 조선일보 01.05.>
- 나. 대강 탁자 위를 갈무리한 뒤에 지문 검사하려고 꺼내 놓 것을 집어 가지고 침실로 올라왔다. <1934 조선일보 09.02.>
- 다. 뒷갈무리를 해 두어야만 할 판입니다. <1938 태평천하(채만식),065>
- 라. 해서 막 부득이 이놈의 뒤갈무리를 허는데 <1939 동아일보 09.01.>
- 마. 뒤갈무리: 「뒷갈망」의 사투리. <1940 조선어사전 :457>

(26가)는 ‘갈무리’에 ‘나중’과 ‘갈무리’가 함께 쓰인 예이다. ‘나중 갈무리’는 어떤 사건의 뒷마무리 정도의 의미이다. (26나)는 탐정 소설의 한 장면으로 ‘대강 탁자 위를 정리한 뒤에 지문 검사하려고 꺼내놓은 것을 집어 침실로 올라왔다’의 의미이다. (26다, 라, 마)는 ‘갈망’을 대신해서 ‘갈무리가’ 그 자리에 쓰인 예이다. ‘갈망(하다)가 소멸하면서 그 의미를 ‘갈무리’가 가지게 된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떤 일의 [수습·처리], [마무리]란 의미로 쓰이던 ‘갈망(하다)’의 사어화로 해당 의미를 ‘갈무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①‘값다’가 ‘어떤 일의 수습, 처리, 마무리’ 등의 의미로 쓰였다는 점, ②‘갈망(하다)’와 ‘갈무리(하다)가 ‘값다’로부터 파생된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5. 결론

		논항 구조 및 의미	비고
값다001 [은닉]	값다	NP1이 _{AGT} NP2를 _{THM} 값다 _{습기} 예: 師子 堀에 드러 몸 갈믄 고든	cf. 김초다
		NP1이 _{AGT} (NP2에 _{LOC}) 값다 _{습다} 예: 브르멧 鴛鴦은 갓가온 몫 ₂ 새 갈멧고	

18) 이 글에서 제시한 20세기의 예들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검색을 통한 것이다. 20세기의 자료가 보완된다면 다른 의미의 ‘갈무리’의 예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마무리]란 의미를 가지는 예가 가장 먼저 나온다.

값다002 [염습·매장]	값다	(NP1이 _{AGT}) (NP2를 _{THM}) 값다 _{염습하다·매장하다} 예: 여든 내려야 갈므니	
		NP2를 _{THM} 값다 _{매장하다} 예: 티의를 갈므미 가흐니	
		(NP1이 _{AGT}) NP2를 _{THM} 값다 _{수습하다·마무리하다} 예: 내 굿틀 갈므리라	
	갈망 (하다)	NP2를 _{THM} 갈망 _{흐다} _{수습하다·마무리하다} 예: 죽거든 갈망 _{흐는} 네라	cf. 渴望 _{흐다}
NP2를 _{THM} X갈망(하다) _{마무리하다} 예: 뒷갈망, 끝갈망			
값다003 [저장·보관]	값다	NP1를 _{THM} (NP2애 _{LOC}) 값다 _{저장하다·보관하다} 예: 如來入 舍利를 天下애 八萬四千 고들 갈므니	
		NP1를 _{THM} (NP2애 _{LOC}) 갈무리(하다) _{저장하다·보관하다} 예: 과일 갈무리	
	갈무리 (하다)	NP1를 _{THM} 갈무리(하다) _{수습하다·마무리하다} 예: 탁자 위를 갈무리한 뒤에	cf. 갈망(흐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값다 001	값다	[은닉]			消		
값다 002	값다	[염습·매장]	[매장]	[수습·정리]	消		
	갈망(하다)	-			[수습·정리]		[마무리]
	X-갈망(하다)	-					
값다 003	값다	[저장·보관]	消				
	갈무리(하다)	-	미상	미상	미상	[저장·보관]	
		-				[수습·정리], [마무리]	

■ 참고문헌

- 김무림(2020), 『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 김지영(2014),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藏胎儀禮)’: 문화적 실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세계』 45, 효원사학회, 39-76.
- 박진호(2015),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언어』 40-4, 619-632.
- 백문식(2018), 『우리말 어원 사전』, 박이정
- 오규환(2022), 「한국어 명사 ‘갈무리’의 형성과 변화」, 『우리말연구』 69, 29-48.
- 최태영(1972), 「同音語 衝突 原理考」, 『국어국문학』 59·60, 243-268.

■ 토 론

“동사 ‘값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에 대한 토론

김숙정(호남대)

이 연구의 목적은 중세 국어 동사 ‘값다’의 의미를 파악하고, 현대 국어의 단어 ‘갈망(하다)’, ‘갈무리(하다)’로까지 이어진 의미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다의어의 의미 변화를 살피는 일은 구조적이며 동시에 섬세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를 충실히 실현한 연구라 판단된다.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정의어로서의 ‘은닉’

서론에서 중세 국어 동사 ‘값다’의 용법을 ‘감추다(숨기다)’, ‘숨다’, ‘저장·보관하다’, ‘염습하다’로 정리하여 소개한 뒤, 다시 그 의미를 [은닉], [저장·보관], [염습] 세 가지로 평정하였다. ‘숨기다’와 ‘숨다’를 하나의 의소로 평정한 것이다. ‘값다’가 해당 의미를 자타 양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면, 이를 하나의 의소로 묶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개념을 [은닉]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은닉(隱匿)’은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숨고 숨기다’로, 분석의 내용에 대응된다. 하지만 현대 국어 명사로서의 ‘은닉’은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의 의미로 쓰이는데, 의미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쓰임이 부정적인 상황에 한정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숨다’와 ‘숨기다’를 하나의 의소로 묶을 수 있는 근거를 ‘숨다’에 전제된 재귀성에 두었는데, 현대 국어 단어 ‘은닉’에서는 재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역이 한정되지 않으며 재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로 정의어를 변경하거나, ‘은닉’의 의미가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2. ‘埋’와 ‘葬’의 분리 가능성

[염습]으로부터 확장된 ‘값다’의 의미를 [매장]으로 기술하였다. 매장(埋葬)에서 ‘매(埋)’는 ‘장(葬)’의 방식에 해당한다. ‘매’와 ‘장’의 의미를 분리한 이유는, ‘값다’의 의미에서 ‘매’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라~바)는 [매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시된 예문들인데, 원문(‘영장(營葬)’, ‘안조(安厝)’에는 [(땅에) 묻다]를 의미하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의 예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16)에 제시된 ‘값다’는 모두 ‘장(藏)’을 언해한 것이다. 15라)에서 ‘영장(營葬)’을 ‘묻값-’으로 언해한 것 역시, ‘묻-’과 ‘값-’의 의미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강하게 한다(물론 ‘묻값다’가 동의중복합성어일 수도 있다).

‘값다’에서 [(땅에) 묻다]의 의미를 제외하면, ‘장태(藏胎)’를 태를 묻는 행위로 한정하는 기술도 불필요해진다. 각주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례나 장태의 방식은 다양하다. 다만 묻는 방식이 오랜 기간 가장 격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반화되었을 뿐이다. 즉, [염습]에서 환유를 거쳐 확장된 의미를, [매장]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인 [장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5)와 16)의 원문에 [(땅에) 묻다]를 뜻하는 한자가 없는 것도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값다’와 ‘갈망하다’의 의미 영역을 달리 분석할 필요도 없어진다.

3. 마지막 표의 해석

결론에서 앞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수습·정리], [마무리]는 값다002와 값다003에 각기 제시되어 있다. ‘갈망하다’가 가진 [수습·정리], [마무리]와 ‘갈무리하다’가 가진 [수습·정리], [마무리]가 별개의 파생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본 것인가? ‘값다’만으로 표를 정리한 뒤, ‘갈망하다’와 ‘갈무리하다’로의 연계성을 별도로 정리하여도 그림이나 표에 차이가 없을지 궁금하다.

4. 4라)의 문형 분석

[숨다]의 의미로 쓰인 ‘값다’를 둘로 나누었다. 4가~마)는 NP2가 확인되는 예문이고, 4바~아)는 NP1이 숨은 장소를 알 수 없어 그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예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4라) ‘눈에 가득히 찬 광명이 값을(숨을) 곳이 없으리라’에서는 ‘광명’의 존재가 인지되므로 4바~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곳’을 ‘값다(숨다)’의 NP2로 처리하는 것도 어색하다.

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 연구*

- 개념적 은유의 양상과 함축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조남민(한기대) · 손달임(항공대)

< 차 례 >

1. 서론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분석 자료 및 방법
4. 여성에 대한 은유 표현 분석
5. 결론

1. 서론

신문이 제공하는 기사 혹은 사설은 당대 정치적, 사회문화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초 정보가 된다. 수용자들은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신문이라는 필터를 통해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그 결과 시기마다 여론이 조성되고 당대의 담론이 형성된다. 신문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향하지만 언론사의 성향, 편집자 및 기자의 시각과 태도, 미디어의 자본주의적 속성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주관적 속성을 갖는다. 특히 사설은 해당 언론사를 대표하는 논설 주간(主幹), 혹은 당대의 저명한 학자, 정치가 등이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글인데, 근대에는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그 이후에는 특정 어젠다를 대중에게 알리거나 설득하기 위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신문 기사보다 글쓴이의 견해가 강조되며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설은 특정 대상이나 사안에 대한 당대의 담론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내는데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갖는 사회적 위상, 즉 신문은 공공성, 객관성, 건전성, 도덕성, 정확성 등에 기반한 내용과 언어 사용이 전제된다는 대중의 인식을 고려했을 때, 사설담론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와 사고의 위계성 문제는 기타 장르의 글보다 대중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주요 일간지의 사설 담론 중 ‘여성 정치인’을 주제나 소재로 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성(femininity)’이란 사전적으로 여성의 본성이나 본바탕을 의미하거나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뜻하며,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여성의 물리적 특성인 해부학적 구조, 외모, 생리적 특징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특성인 성격체성, 성역할, 정적 지향, 사회적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성성에 대한 인식은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속성을 갖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도 19.1%로 2003년(13.0%)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디어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여성’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정치인’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

* 이 글은 2023. 5. 13. 237차 <통사론 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는 듯하다. 이에 이 연구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사설 담론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정치인 관련 사설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적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정치 관련 사설문에서 여성은 어떻게 개념화되는가
(개념적 은유의 유형과 구조)

연구문제 2. 신문 사설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은유의 방식은 어떠한가?
여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여기에 담긴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여성성에 대한 언어적 연구들은 크게 ‘여성어 연구’와 ‘여성에 대한 언어 표현 연구’로 구분된다. 그중 ‘여성에 대한 언어 표현 연구’의 범주에는 호칭어나 지칭어, 친족어 등과 같이 여성을 가리키는 말에 대한 연구(김미진, 2010; 서민정, 2008; 양명희, 2012; 이수연, 2010; 정유진·강범모, 2015; 조남민, 2010), 여성의 직업, 직급, 직위 등을 나타내는 말에 대한 연구(박은미, 2013), 여성을 비유하거나 묘사, 설명하는 말에 대한 연구(조남민, 2020)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말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말,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인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여성성의 굴절 현상을 다룬다. 이러한 언어 표현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양상은 남녀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여성어에 의미 손상이 일어나 여성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여성어 연구가 최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에 비해, ‘여성에 대한 언어 표현 연구’,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언어 표현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반면 여성에 대한 은유 표현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 은유 이론의 도입 이후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주로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개념적 영역(목표 영역)이 어떤 근원 영역으로 사상되는지 살핌으로써 우리 사회가 성(性)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해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전해영(1997)에서는 속담, 속언에서 여성이 주로 사물, 동물, 식물, 음식 등으로 사상(mapping)되며 이는 문화적으로 여성을 비인격적, 비주체적,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여성의 활동 영역을 한정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리우팡·임태성(2021)도 한국어와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여성 은유 표현에 주목하였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여성 은유는 사물, 식물, 동물 등을 근원 영역으로 지위, 운명, 역할, 영향, 능력, 외모, 나이, 인성, 언행 등을 중심으로 여성을 개념화되며, 여성의 불리한 지위와 수동적인 존재 양상 및 마음과 인성의 부정적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는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은폐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해영(2005)에서는 한국어의 일상 표현에서 ‘여자/남자’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언어 구성을 통해 살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은유의 유형으로 볼 때 ‘여성/남성’을 물건, 음식, 동물, 정복 대상, 물질 등으로 인지하는 방식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은유 구성을 보이는 동사의 용례와 빈도를 살핀 결과 여자의 경우 상품이나

장신구로 보는 이해 방식인 ‘사다’와 ‘팔다’, ‘구하다’, ‘끼다’ 등이 고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남자에게서는 이 동사를 발견할 수 없으며, 남자의 경우 ‘선택하다’, ‘택하다’, ‘고르다’ 등을 비롯한 단어들이 고빈도를 보인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 TV 방송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동물로 개념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은유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떠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지를 분석한 연구(유희재, 2017), 1920년대 대중잡지인 『신여성』의 여성 은유 표현들을 분석함으로써, 일상 언어에 내재하는 여성에 대한 개념적 은유의 양상을 살피고 당시 사회에서 신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논의한 연구(강소영, 2010)도 언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읽어내려 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개념화 방식은 다른 언어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Kövecses(2006)는 영어의 비속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비속어에서 여성은 사물(Thing), 음식(Food), 동물(Animal), 친족관계(Kinship, Relatives)를 통해 이해되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통해 여성을 대변하는 환유적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고정관념(Social Stereotype)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Rodriguez(2007)에서도 여성 잡지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주로 음식, 아기, 신체의 일부, 동물, 귀족, 초자연적인 존재 등으로 개념화됨을 밝혔다. 조윤경(2020)은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여성 은유를 찾아 관습, 비판습적 표현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의 양상을 살피고, 여성은유에 나타날 수 있는 카테고리인 신, 인간, 동물, 식물, 사물로 크게 분류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인간 영역에서 구현될 때 타자화되거나(A woman is other) 부정적 이미지나 뉘앙스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받은 여성이 가치 없는 여성으로(An educated woman is a worthless woman), 강한 여성은 우는 여성으로(A strong woman is a woman weeping) 개념화되기도 하고, 매춘부(whores), 창녀(prostitutes, sluts) 혹은 거짓말쟁이(liars)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에 대한 ‘언어 표현’에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 신문, 잡지, TV 등의 미디어가 공적 영역의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여성 스포츠 선수에 관한 기사나 광고 등이 경기력이나 경기 결과보다는 스타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논의(조은혜 외, 2021; 유상건, 2016; 문보라, 2015), 여성 방송인의 역할이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핀 논의(김훈순, 1997; 김태희 외, 2012; 박덕춘, 2011; 김경희 외, 2016; 양우정 외, 2012; 정동훈 외, 2010)를 예로 들 수 있다.

여성 정치인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프레임에 집중한 연구(박정의, 2008; 현경미 외, 2005), 여성 정치인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대중의 수용 태도에 관한 연구(정현욱 외, 2012), 대중매체와 언론인들이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현하는지에 대한 연구(양정혜, 2002; 박정의 외, 201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미디어 담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치 권력과 젠더 담론의 관계를 고찰하고 여성 정치인을 둘러싼 수용과 배척의 역학을 논의한 연구(장은미 외, 202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정치인)에 대한 재현 방식을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 Tuchman, 1978)’로 정리한다. 여성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국에 대한 해석 등 정치적인 측면은 일관성 있게 주변화하는 반면 인간성, 외모,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등 이미지와 관련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트리블 메이커’ ‘신출내기’로서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힘을 박탈한다는 것이다(양정혜, 2002). 남성 독점의 정치적 공간 속에서 여성적 몸(female body)을 가진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보편화되기보다는

‘여성’ 정치인으로 특수화된다(안숙영, 2014).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적 인물인 ‘정치인 박근혜’의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보다는 ‘여성’ 박근혜에 대한 담론이 더 가시화되기도 한다(장은미 외, 2021). 언론인들조차 여성 정치인에 대하여 정치인이라기 보다 한 명의 전문성 있는 여성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능력, 리더십 등의 정치인 이미지보다 ‘친절, 배려’ 등의 여성적 이미지를 선택(박정의 외, 2010)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살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사설 텍스트는 신문이라는 공적 매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보도문이나 기사문에 비해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개념화 양상을 살피고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관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문 사설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 관련 은유 표현을 통해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개념적 은유의 실제적 양상을 살피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개념적 은유 이론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은 Lakoff & Johnson(1980)에서 처음으로 전개되었다. 전통적으로 은유가 낱말의 속성, 즉 언어적 현상으로 이해되었다면 인지 언어학적 차원에서의 은유는 본질적으로 개념적이다. 즉 은유는 낱말이나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또 다른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문제인 것이다. Lakoff & Johnson(1980)에 따르면 은유란 하나의 개념 영역을 다른 하나의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다. 사랑, 논쟁, 이론, 아이디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여행, 전쟁, 건물, 음식 등의 구체적인 개념에 사상(mapping)시키는 인지 작용이 곧 은유이다.

두 개념 사이의 사상(寫像, mapping)이란 서로 다른 개념 혹은 영역의 구성요소들이 일련의 대응 관계(correspondences)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치’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전쟁’이나 ‘스포츠’와 같은 구체적인 개념 영역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정치는 전쟁], [정치는 스포츠]와 같은 개념적 은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정치와 관련된 은유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¹⁾.

(1) 수사권 줄다리기 2회전 돌입

여권이 연합 공천을 통해 중량급 후보를 내세운다면
YS와 이 총재가 벌인 힙겨루기는 이 총재가 1라운드에서 ‘승리’한 셈이다
정치개혁 뜨거운 감자 중선거구제 살바 싸움
야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 ‘전국정당’ 분 바르고 ‘동교동’ 전진 배치

국민들은 여당의 실정 못지 않게 야당의 폭로 전술에 대해서도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이신범 의원, DJ친인척. 참모 ‘저격’ 노려
이총무를 두고 반DJ선봉장, 돌격대장이라고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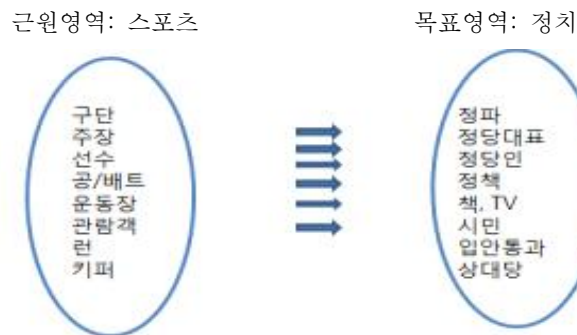
1) 배승호(2001)에서 발췌 인용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산악회 재건이라는 강력한 복병이 출현해 벽에 부딪쳤다.

(1)에서는 거물급 정치인을 운동선수 체급 중 중량급의 후보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치인 혹은 정당 간의 대립, 대결 상황을 1라운드, 2회전 등의 경기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적극적인 정치 대결 상황을 힘겨루기로 표현하거나 그 후의 진정 국면을 숨고르기로 이해하는 것도 정치를 스포츠 상황으로 구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는 스포츠]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정치 행위를 스포츠 경기로, 정치인을 스포츠 선수로, 정책을 스포츠 도구로 대응시키는 등의 사상 체계를 찾아볼 수 있다. (2)에서는 정치를 전쟁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참여자를 전쟁 참여자, 특히 저격수, 복병, 선봉장, 돌격대장 등의 군인으로 표현하거나, 정치 활동이나 정책을 전쟁 계획이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전략, 전진 배치, 전술) 등이 있다. [정치는 전쟁]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우리는 근원 영역의 구성요소와 목표 영역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일련의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다²⁾.

목표영역		근원영역
정치활동	← 방식 →	전쟁방식
정치가	← 참여자 →	군인
정치장소	← 장소 →	전쟁터
정책	← 계획 →	전략 전술
정치도구	← 도구 →	무기
정치방법	← 방법 →	사격, 폭격
정치결과	← 결과 →	승리, 패배

[정치는 전쟁] 은유의 사상 체계



[정치는 스포츠] 은유의 사상 체계

한편 Lakoff & Johnson(1980)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는 인지적 과정에 따라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 방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로 분류된다. 구조적 은유는 목표 영역의 개념을 근원 영역의 구조를 통해 이해하는 것, 즉 두 영역의 구성요소 사이의 개념적 사상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치는 전쟁]에서 정치인은 전쟁참여자, 정치 행위나 방법은 전쟁의 전략이나 방식으로 사상되는

2) 이 도식은 배승호(2001), 강소영(2010)에서 가져온 것이다.

구조이다.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 목표 개념을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원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 예를 들면 물리적 사물이나 물질, 그릇 등으로 개념화하거나 의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적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쉽게 공간 지향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때 상향 지향은 긍정적인 평가와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향 지향은 부정적 평가와 어울린다.

요컨대 은유적 언어 표현은 개념적 은유, 즉 사고하는 방식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유적 언어 표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특정 대상이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적 언어 표현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정치와 관련된 은유 표현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목표영역(정치)의 구성요소인 ‘정치인’이 근원영역(전쟁, 스포츠 등)의 어떤 요소와 구조적으로 대응되는지를 살핀 연구(배승호, 2001; Soontaree, 2007; 이창봉·김은주, 2017; 오은비, 2018)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정치인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에 집중하여 은유의 양상과 개념화의 방식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정치인에 관련된 신문 사설 텍스트에서 은유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개념적 은유’의 양상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뉴스 검색 및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빅카인즈에서는 54개의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일간지 중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에 실린 신문 사설로 연구 자료를 제한하였다.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에 따라 여성 정치인에 대한 편향된 표현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언론사를 균형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박영선, 추미애, 나경원, 심상정 등 여성 정치인 13인으로 한정하였고, 사설 자료는 2019-2021년에 발간된 것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되 경우에 따라 그 외 기간의 자료를 일부 추가하였다.³⁾

<표1> 자료 검색 조건

유형	내용
(가) 언론사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나) 기간	2019.01.01.~2021.12.31. 박근혜(2014-2016년), 조윤선(2016년) 자료
(다) 텍스트 유형	뉴스, 인용문, 사설 중 ‘사설’로 한정 ⁴⁾
(라) 분야/사건, 사고	전체
(마) 검색 범위	제목과 본문에 해당 검색어가 포함되는 경우
(바) 검색어	여성 정치인 인명, 성 + 직책(박 대통령, 박 장관, 심 대표 등...)

3) '박근혜'의 경우 재임기간과 탄핵 시점을 고려하여 2014년-2016년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조윤선'의 경우 사설에 주로 등장한 2016년의 자료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1차적으로는 빅카인즈의 뉴스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 해당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를 기간, 언론사, 텍스트 유형을 한정하여 1차 수집하였다. 그중 특정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술 및 평가가 주를 이루거나 다른 정치인 혹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기술, 평가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기사문을 추려낸 후, 해당 사실문에서 여성 정치인 관련 어휘와 표현을 추출하여 목록화하였다. 여성 정치인의 이름이 명시되었더라도 주변 인물로 다루어지거나 해당 인물 개인에 대한 기술이 아닌 ‘박근혜 정부’, ‘박영선 호’처럼 집단이나 정당 등을 지칭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⁵⁾

<표2> 1차 수집 자료(사실 편수)

검색어	사실 편수 (1차 수집)	검색어	사실 편수 (1차 수집)
박근혜(2014년)	1126	추미애(2019-2021년)	405
박근혜(2015년)	1168	나경원(2019-2021년)	153
박근혜(2016년)	1132	박영선(2019-2021년)	70
강경화(2019-2021년)	101	심상정(2019-2021년)	80
유은혜(2019-2021년)	38	손혜원(2019-2021년)	49
김현미(2019-2021년)	62	고민정(2019-2021년)	28
류호정(2019-2021년)	10	윤희숙(2019-2021년)	26
조운선(2016년)	17		

다음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예들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 ‘은유적 표현’으로 선정한 예들은 근원영역이나 목표영역에 ‘여성’이 직접적으로 명시될 수 있는 직접적 용례들 외에도 여성에 대한 개념적 은유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포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실문에서 ‘여성은 00’이나 ‘00인 것은 여성’으로 개념화되는 직접적인 은유 표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X하다’, ‘여성

- 4) 텍스트 유형을 ‘사실’로 한정한 이유는 뉴스 ‘보도문’의 경우 비교적 객관성을 중시하는 텍스트이므로 대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인용문’의 경우 특정 정보원의 발화를 직접 인용한 것이므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담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 관련 사실에서의 인용문은 정치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자료라 볼 수도 있으나 사실 텍스트 생산자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실 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인용하였을 때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5) 사실 제목과 본문에 해당 인물이 포함된 사실문은 약 4400여 개였다. 단계별 작업을 통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문은 40% 내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 관련 사실문은 총 11322개인데 이중 500개 사실문을 샘플로 분석하였을 때 박근혜에 대한 기술과 평가가 들어간 예문은 320 정도였다. 류호정 관련 사실문 10개 중 정치인으로서의 류호정의 능력이나 류호정 개인에 대한 기술과 평가가 들어간 기사문은 3개였고, 이중 ‘튀는 옷차림’에 대한 사실문이 2개였으나 여기에서도 신문사나 사실 편찬자의 주관적 논평이나 은유적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류호정을 ‘관중, 튀고 싶은 걸(girl), 성매매, 티켓다방’ 등의 표현으로 묶어 표현한 예들이 있었으나 이는 류호정에 대한 성희롱적인 평가나 극단적인 댓글을 인용한 것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을 X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여성을 다른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도 포함하였다.⁶⁾

한편 개념적 은유가 하나의 추상적 개념(목표영역)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근원영역)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이 동일한 개념 영역인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Kövecses(2006)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친족관계(Kinship, Relatives)를 통해 이해될 때 WOMEN ARE CHILDREN, WOMEN ARE OLD WOMEN, WOMEN ARE YOUNG WOMEN, WOMEN ARE MOTHERS, WOMEN ARE SISTERS 등의 은유가 가능하며, 사물(THINGS) 영역에서도 WOMEN ARE PROSTITUTES, WOMEN ARE FEMALE SERVANTS, WOMEN ARE WITCHES와 같은 은유가 가능하다. Rodriguez(2007)에서도 여성이 아기, 귀족 등으로도 개념화된다고 하였다. 영어 화자들의 코퍼스 데이터에서 직접적 여성 은유를 분석한 조윤경(2020)에 의하면 여성이 목표영역인 경우 근원영역으로 사물, 식물, 동물, 신 등 [-인간]인 개념 영역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인간]인 개념 영역이 목표 영역인 경우도 많았다. 특히 복수의 여성은 '매춘부, 창녀, 거짓말쟁이, 마법사, 양육자, 치료자, 중재자'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었고 단수의 여성은 'An educated woman is a worthless woman', 'A strong woman is a woman weeping'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개념적 은유 이론의 틀 안에서 여성을 동일한 개념 영역, 즉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한 경우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 정치인을 '인간'의 영역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들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 여성에 대한 은유 표현 분석

여성에 대한 은유를 분석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에 대한 은유 방식은 대체로 사물화 은유, 동물화 은유, 식물화 은유, 음식물 은유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는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사물로 인식하거나 비주체적 존재로 이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해영(1997), 강소영(2010)에 의하면 일반적 여성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 아내, 첩, 여학생, 신여성, 기생 등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여성(개인/집단)에 대한 은유 표현에서도 여성을 사물, 동물, 식물, 음식 등으로 개념화한 경우가 발견되지만, 그 외에 여성을 도둑, 죄인, 아랫사람, 초월적 존재 등으로 개념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여성 정치인 관련 사실문에서도 여성이 동일한 '인간' 영역에서 개념화되는데,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된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개념적 은유의 예들을 일부 제시하고 대표적인 은유 표현들에 나타난 은유의 양상을 살펴본다.

6) '여성이 X하다', '여성을 X하다'와 같은 표현에서 '여성'은 집단으로서의 여성일 수도 있고, 해당 정치인 개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인물 자체가 아닌 그의 말, 행동, 의정 활동, 업적 등을 다루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말, 행동, 정치 활동, 정치적 판단 등)이/을 X하다'의 표현 속에서 은유의 개념을 다룬 것들을 주로 분석하였다.

[표2] 여성에 대한 개념적 은유의 유형과 은유적 표현

은유 유형	은유적 표현
[여성은 물건]	인형, 전투복 위의 브로치 소비되다
[여성은 동물]	앵무새, 미꾸라지
[여성은 식물]	식물대통령 식물 상태에 빠지다
[여성은 괴물]	괴물
[여성은 마녀]	독소, 망치다, 망가뜨리다, 혼란에 빠뜨리다, 지독하다
[여성은 좀비]	꼭두각시, 보이지 않는 장관, 유체이탈 화법 혼몽한 상태, 낯을 잃다,
[여성은 철면피]	물염치, 파렴치, 안면물수 부끄러운 줄 모르다, 뻔뻔하다, 반성을 모르다
[여성은 폭력자/학살자]	대학살, 망나니, 폭군, 짓밟다, 칼을 들이대다, 수족을 잘라내다, 깔아뭉개다, 때리다
[여성은 장사꾼]	장사꾼, 매표꾼, 매표 행위 거래하다, 시장통 흥정을 벌이다, 가족 비즈니스에 활용하다
[여성은 도둑]	도둑, 날강도, 욕심, 앵벌이, 돈벌이, 주머니돈, 적반하장, 탐관 오리 해쳐먹다, 잇속챙기다, 자기 배를 불리다, 빼돌리다, 탐욕스럽 다
[여성은 깡패]	공갈단, 조폭, 막가파, 패거리, 두목, 음모, 범죄 소굴, 망나니 돈뜯기, 뺨뜯기, 갈취, 범죄 음모 회의
[여성은 사기꾼]	사기문서, 사기꾼, 꼼수, 수법, 가짜, 위선 말 바꾸기
[여성은 도박쟁이]	판돈을 던지다
[여성은 거짓말쟁이]	‘쇼’를 하다, 말잔치를 하다, 내지르다
[여성은 죄인]	권력의 죄상, 면죄부, 죄인 죄를 덮다,
[여성은 공주/왕]	여왕님, 금수저 출신, 전횡, 시녀부처, 궁중정치 (남성이 여성의)호위무사 노릇을 하다
[여성은 독재자]	무소불위, 독단, 권력사유화, 장악, 통제, 불통, 나치식 아랑곳하지 않다, 목살하다, 막나가다, 쫓아내다, 강행하다
[여성은 아랫사람/노예7)]	하수인, 시정잡배식, 왕자 낳은 후궁 부박하다, 천박하다
[여성은 어린아이]	수준 이하, 비상식, 갈팡질팡 아둔하다, 사리분별을 못하다, 상식을 벗어나다, 똥판지같다 수준 낮다, 미흡하다, 영성하다, 막무가내, 이성 마비

은유 유형	은유적 표현
	생떼를 부리다, 억지 부리기, 몽니를 부리다, 뺨깡을 쓰다 울먹이다
	변명 미숙하다, 무지하다
[여성은 비전문가]	영부인 친구, 정실(情實)
[여성은 이방인/비주류]	이질적이다
[여성은 성적 대상]	붙임 정당, 문란하다
지향 은유	[좋은은 위, 나쁨은 아래] 국정 농단, 도덕성의 바닥, 식물상태에 빠지다 [좋은은 앞, 나쁨은 뒤] 김기춘은 박근혜의 후견인, 박 정부의 막후실세 [좋은은 전체, 나쁨은 부분] 반쪽짜리 [좋은은 안, 나쁨은 밖] 내쫓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은 ‘동물’이나 ‘식물’, 혹은 ‘사물’처럼 인간의 영역이 아닌 대상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간 영역에 속하되 부정적 자질을 가진 존재로 개념화되는 듯하다. [여성은 마녀], [여성은 좀비] 은유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요사스럽고 못된 존재, 해악을 끼치는 존재,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로 묘사되고, 영혼이나 정치적 주관 없이 누군가의 조정이나 명령을 따르는, 그리고 주체성이나 의지 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여성 정치인에 폭군의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범법자 이미지를 부여하는 은유도 많이 발견된다. 무엇을 흠치거나 횡령하는 부정부패의 이미지를 도둑으로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행위를 도둑질로 평가하기도 하고, 폭력이나 협박, 상스러운 언행, 불법 행위를 일삼는 강패로 표현하는가 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사기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 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그 말을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을 것 같으냐.

나. 도둑이 자신을 쫓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놓고 '검찰의 항명'이라는 쪽으로

성격을 뒤바꾸려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 표현을 통해 여성의 정치 활동은 범법 행위로 가치 평가된다. 즉 여성 정치인이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고 도덕성조차

7) [여성은 노예] 은유가 여성이 구속 상태에 빠져 있거나, (노예)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물 은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성이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인간보다 미천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경우라면 동물 은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여성은 노예/여성은 아랫사람] 은유는 인간 사회를 계급화하였을 때 여성은 대체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방식이다.

갖추지 못한 인간으로 평가하게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폄하되는 것이다.

여성을 어린아이로 개념화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첫째는 지식이나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판단력이나 논리가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둘째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거나 울고 떼쓰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화가 덜 된 상태나 무엇을 처음 시작하는 ‘초급’ 단계를 묘사하는 경우이다. 어린아이 은유는 여성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한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은유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곧 치러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경향, 2016.12.30.)’와 같은 경우이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직접 은유는 아니지만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정당을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빗대어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간접적 은유라고 볼 수도 있다. 여성 정치인을 ‘정치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고 그 생물학적 특징을 가져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혹은 비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여성 은유가 인간의 공간 지향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다. 퀴백세스(200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아래 은유에서 상향 지향은 긍정적 평가와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향 지향은 부정적 평가와 어울린다. 또한 전체와 중심, 연결, 균형, 내부, 목표, 앞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반면, 그 반대인 부분, 주변, 연결되지 않음, 불균형, 목표 없음, 뒤는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여성 정치인 관련 은유 표현에서도 이와 같은 지향적 은유의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 가. 국정농단, 하수인, 식물 상태에 빠지다

나. 김기춘은 박근혜의 후견인, 박 정부의 막후실세

(가)에서 ‘농단(壟斷)’은 맹자의 공손추 하편(公孫丑 下篇), ‘유사농단언(有私龍斷焉)’에 나오는 내용으로,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높은 언덕을 뜻한다. 최순실이 국정을 자기 맘대로 주물렀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위-아래로 개념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수인’이나 ‘빠지다’ 등의 표현도 여성 정치인이 ‘아래’의 이미지로 이해되는 것을 나타낸다. (나)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 ‘후견인’, ‘막후실세’로 표현되고 있어, 해당 표현만을 볼 때는 여성이 ‘앞’ 지향성, 즉 긍정적 평가의 대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후견인이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을 뜻하고 주로 어린아이나 미성년자, 혹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리해 주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로 대표되는 여성은 남성의 후견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막후실세’ 또한 막의 뒤에 더 큰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므로 이때의 여성은 공간적으로는 ‘앞’의 자리에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뒤’의 보호와 관리, 조종을 받는 존재로 평가된 것이다.

요컨대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개념적 은유의 양상을 살펴보면 사설 텍스트에서 여성 정치인의 정치적 자질이나 역량, 그가 가진 정치적 소신이나 정국에 대한 해석 등은 주변화되거나 감추어지고 인간성이나 외모, 정치인(혹은 인간)으로서의 자질 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정치인은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아닌 ‘여성’의 모습을 한 정치인으로 특수화된다. 여성의 공적인 모습은 공중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주변화시키고 그들의 정치적 힘을 박탈하는 ‘상징적 소멸’(양정혜, 2002) 이 신문 사설 텍스트의 여성 은유 표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념적 은유가 목표 영역과 개념 영역 간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때,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 혹은 프레임은 ‘유사성’이 없음에도 개념적으로 대응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남유(濫喻, Lanham 1969; Parker 1990)”도 확인된다.

5. 결론

(생략)

■ 참고문헌

- 강소영(2010), 은유 표현을 통해 본 신여성의 사회적 위치,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 김경희·강혜란(2016), 여성의 과소 재현과 상징적 소멸, 미디어, 젠더 & 문화 3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김미진(2010).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 -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7-47.
- 김영상(2022), 한국어의 개념적 은유에 나타난 가치의미론적 특성, Corpus Linguistics Research 7-2, 한국코퍼스언어학회.
- 김태희·나미수(2012), 여성 방송인의 시대별 위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22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7-74.
- 김훈순(1997), 텔레비전 뉴스 속의 성의 역학, 한국방송학보 9호, 한국방송학회, 147-178.
- 리우광·임태성(2021), 한중 속담에서 여성 은유의 의미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8-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문보라(2015), 여성 스포츠 스타 TV광고의 기호학적 의미와 이데올로기 : 김연아, 손연재 선수의 KB금융그룹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8: 43-65.
- 박덕춘(2011), TV 뉴스 앵커의 젠더와 기사의 주제 형식 중요도 상관성 -여성 앵커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37,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 박은미(2013). 언어와 여성성 굴절 : 프랑스어 직명 여성화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 연구 27, 185-211.
- 박정의(2008), 여성정치인에 대한 방송보도 분석-여성성프레임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1,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박정의·김진국(2010), 언론인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연구: 인천, 경기 지역 언론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서민정(2008). 한국어 여성 지칭·호칭어의 변화 양상 -1940, 50년대와 2000년대의 비교-,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327-349.
- 양명희(2012). 大衆歌謠에 나타난 性別 對象語의 變化에 대한 研究 -1960년대, 2000년대 前半期 가요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2.
- 양우정·금희조(2012), 앵커의 성별에 따른 수용자의 공신력 인식과 뉴스 평가, 한국방송학보 26-5, 한국방송학회.
- 양정혜(2002), 대중매체와여성정치인의 재현, 한국언론학보 46-2, 한국언론학회.
- 오은비(2018), 정치 은유와 환유 연구-정치 기사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상건(2016), 여성,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한국여성체육학회 논문집 30: 39-53.
- 유희재(2017),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동물 은유의 비판적 분석, 담화와 인지 24-4,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창봉, 김은주(2017), 정치은유와 프레임 형성, 담화와 인지 24-1, 담화와인지학회.
- 장은미·이소현(2021), 정치권력과 젠더: '여성' 대통령 박근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권 2호, 한국여성학회, 167-201.
- 전혜영(1997), 여성 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 속담, 속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5, 이화어문학회.
- 전혜영(2005), 연어 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여성학논집 22-1,
- 정동훈·이은지(2010), 앵커의 성역할 인식에 따른 기사 부합성, 뉴스 평가 그리고 공신력 차이, 한국소통학보 13, 한국소통학회.

- 정유진·강범모(2015). 성별 명사와 관련어의 의미특성, 언어 40(4), 675-702.
- 정현욱·김선남(2012), 여성정치인관련 뉴스보도 수용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6,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조남민(2010). 여성어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3, 143-181.
- 조남민(2020). 문헌 속 여성의 외양에 대한 표현 방식과 당대 여성성 인식과의 상관성 연구 - [남원고사 (南原古詞)]와 [열녀춘향수절가]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59-84.
- 조윤경(2020), 영어에 나타나는 여성 은유, 언어학 20, 한국영어학회.
- 조은혜, 김수연, 김혜진(2021), 뉴스에 나타난 여성 스포츠선수 관련 이슈의 변화: 키워드네트워킹 활용, 스포츠사이언스 39-2, 체육과학연구소, 311-320.
- 줄탄 퀘백세스(2002), 은유: 실용입문서, 이정화 외, 한국문화사.
- 허만섭(2021), 남유 관점에서 본 정치권 막말, 수사학 41, 한국수사학회.
- 현경미·김원용(2005), 언론의 여성 정치인 관련 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Soontaree(2007), 한국 신문 헤드라인에 나타난 은유 표현 연구 -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övecses, Z.(2006), *Metaphor and ideology in slang: The case of WOMAN and MAN. Revue d'Etudes. Francaises* 11, 151-166.
- Rodriguez, I(2007),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eenage and women's magazines : Recurring metaphors in English*, Estudios Ingleses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15, 15-42.

■ 토 론

“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 연구-개념적 은유의 양상과 함축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방영심(상명대)

이 연구는 여성 정치인 관련 사설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적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를 개념적 은유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기간,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특히, 여성 정치인이 인간 영역에서 은유될 때 부정적 자질을 가진 존재로 개념화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여성 은유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4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은유의 목표영역(target domain)이 ‘여성 정치인’에 한정된 것인지, ‘여성’ 전체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장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표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표2]도 [여성 정치인은 ○○] 등으로, 목표영역이 ‘여성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표2]에 제시된 은유와 은유적 표현들도 여성 정치인에 한정된 것인지, 여성 전체에 대한 것인지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물건]이라는 은유 표현으로 ‘인형, 전투복 위의 브로치, 소비되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을 인형이라는 사물에 은유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은 식물], [여성은 괴물] [여성은 좀비] [여성은 철면피] [여성은 독재자] 등 다수의 은유들은, 여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남성 정치인,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은유들로 보입니다. 이러한 은유가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남성 정치인과 다른 특별한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은유 유형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2]에서 은유의 유형을 [여성은 물건]~[여성은 성적 대상]까지 22개와 4개의 지향 은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Lakoff & Johnson(1980)에서처럼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 방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로 대분류하지 않고 지향 은유(방향적 은유)만 따로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Lakoff & Johnson(1980)에 따라 대분류하고 ‘인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은유들(괴물, 마녀, 좀비 등)을 따로 분류한다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적 특징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각 은유 표현들에 대한 제시와 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유 유형에 대해 예시와 분석이 일부 제시되었지만, [표2]에 제시된 대부분의 은유 표현들만으로는 적절

성을 파악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좀비]의 경우, ‘보이지 않는 장관’, ‘유체 이탈 화법’ 등의 표현이 어떻게 ‘좀비’라는 근원 영역이 되는지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적 은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좋은은 안, 나쁜은 밖]이라는 은유에 ‘내쫓다’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여성 정치인에게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고려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모든 은유 유형에 대해 예문 (1), (2)와 같이 앞뒤의 맥락을 추가하고, 여성 정치인 은유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명과 제시의 순서, 용어 사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정치는 전쟁], [정치는 스포츠]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서 예문에서는 (1)[정치는 스포츠], (2)[정치는 전쟁]의 순서로, 그림에서는 [정치는 전쟁], [정치는 스포츠]의 순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식을 배승호(2001), 강소영(2010)에서 가져오면서 각기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 용어의 사용은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에서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면 발표문의 개념적 은유 외에도 몇 가지를 함께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는 ‘여성’에 대한 은유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은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은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은유, 정치에 대한 은유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연구문제 2)까지를 연구에 포함한다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함의의 도출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들은 신문의 사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이어 방송, 유튜브 등 매체들에서의 ‘여성 정치인 은유’ 대한 연구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제1 분과

문법론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과 지식 관련 의미¹⁾

조찬우(고려대)

< 차 례 >

1. 서론
2.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
3.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4. 결론

1. 서론

1.1. 본고의 목적

인칭 제약 양상에 대한 관찰은 흥미롭다. 어떠한 어미의 문법적·의미적 특질을 가르는 가장 분명하고 깨끗한 변별 기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현상을 두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설명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인칭 제약 양상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칭 제약 여부를 관찰할 어미는 ‘-더라{X}’형 종결어미이다.²⁾ 이들은 모두 ‘-더라’를 포함하면서 ‘-더라’와 동일하게 ‘직접 증거(direct evidential)’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 속성을 보인다.

- (1) 가. 오늘 보니까 민경이가 활짝 웃더라고.
나. 이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더라니.
다. 오늘따라 1호선에 사람이 없더라니까.

한편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더라’의 핵심 의미로 문장 속 사태에 대한 청자의 ‘미지 가정’이 다뤄진 바가 있다(박재연 1999 참고). 이는 청자 관련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정보의 출처나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등의 화·청자의 지식 관련 의미가 ‘-더라’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라’의 지식 관련 의미가 다른 ‘-더라{X}’형 종결

1) 이 글은 발표자의 석사학위논문인 조찬우(2023)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2) ‘-더라{X}’형 종결어미에는 ‘-더라고’, ‘-더라니’, ‘-더라니까’가 포함된다. 졸고(2023)에서는 ‘-더라’를 포함하면서 여전히 ‘-더라’와 동일하게 직접 증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직접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인가 싶지만, ‘-더라’를 포함하는 ‘-더래’, ‘-더라지’와 같은 대다수의 어미들이 ‘-더라고 해’, ‘-더라고 하지’처럼 인용문 구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라고’, ‘-더라니’, ‘-더라니까’는 다른 유사 형식들에 비해서 비전형적이다. 다만 졸고(2023)에서는 이 세 어미들을 ‘-더라고’류 종결어미라 칭했으며, ‘-더라{X}’형 종결어미는 이들 세 어미와 인용문으로 환원 가능한 어미들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연구 대상의 선정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었으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선정 과정을 자세히 들지 않으므로 이들 세 어미를 단순히 ‘-더라{X}’형 종결어미라 부른다.

어미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공유되는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를 검토하고자 인칭 제약 양상을 살핀다. 각각의 어미들에 대한 인칭 제약 양상의 비교를 통해서 이 글에서는 세 어미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더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처럼 주어의 인칭 제약 여부만 확인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주어와 간접 목적어의 인칭 제약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대화 참여자인 화·청자가 문장 속 사태 참여자로 나타날 때, 사태에 대한 지식 관련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보다 엄밀하고 다양한 지식 관련 의미 표찰을 한국어 어미에 다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선행 논의

이 글에서 ‘-더라(X)’형 종결어미로 이름한 ‘-더라고’, ‘-더라니’, ‘-더라니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별 논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라고’의 경우 이필영(1995), 이금희(2006)에서 ‘-더라고 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되어 쓰이다가 이것이 발화 전달의 의미를 잃고 굳어져서 ‘-더라고’가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³⁾ 이금희(2006)은 ‘그때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렵더라/어렵더라고요}’와 같은 문장에서 ‘-더라’는 단순히 경험한 일을 회상하는 것에 그친다면, ‘-더라고’는 화자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는 느낌이 더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러한 느낌이 둘 사이를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이금희(2006)과 이금영(2015)에서도 ‘-더라니’에 대한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다룬다. 두 논의 모두 발화 인용의 ‘-더라니’가 굳어져서 발화 인용의 기능이 없는 ‘-더라니’로 바뀌었음을 다룬다. 본래 ‘-더라니’는 ‘밖에 비가 오더라니 얼른 짐을 챙겨서 나갑시다’의 ‘-더라니’처럼 ‘-더라 하니’가 갈아들 수 있는 ‘-더라’가 포함된 피인용문을 전달하는 발화 인용의 구성으로 쓰였다. 그런데 이것이 굳어져서 ‘철수가 엄청 까불더라니 결국은 혼날 줄 알았다’처럼 발화 인용의 의미가 없는 ‘-더라니’가 된 것이다. 물론 여기의 ‘-더라니’는 연결어미이지만 후행절의 생략이 관습화되어 ‘철수가 엄청 까불더라니’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이를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종결어미로도 다루고 있다. 다만 관습화된 생략을 거쳐서 종결어미가 된 ‘-더라니’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한편 ‘-더라니까’를 다룬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더라니까’의 경우 ‘-더-’와 ‘-다니까’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위의 ‘-더라니’와 다르게 ‘-더라니까’는 ‘-더라 하니까’에서 직접 굳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니까’에서 굳어진 ‘-다니까’가 먼저 형성되고 이에 ‘-더-’가 같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니까’에 대해서 다룬 논의로는 목지선(2020)이 있다. 목지선(2020: 48)은 ‘-다니까’의 경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는 용법”, “자신의 발화를 바로 받아서 강조하는” 용법,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미 있던 내면적 삶

3) 다만 ‘-더라고 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된 것이 굳어져서 ‘-더라고’가 된 것이라는 설명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발화 인용의 의미가 없는 ‘-다고’류 종결어미는 19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남미정 2010), 줄고(2023)에서 <역사자료종합정비결과물>과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의 ‘-더라고’와 ‘-드라고’ 용례 954개를 모두 검토한 결과 ‘-더라고’의 경우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화 인용의 의미가 없는 직접 증거의 용례가 보인다. 즉 ‘-더라고’의 경우는 ‘하다’가 생략되고 굳어져서 형성된 것보다는 다른 ‘-다고’류 종결어미에서 유추되어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을 확인하는” 용법과 같이 세 가지의 용법이 있다고 다룬다. 이 글에서는 ‘-더라니까’에 [청자에게 신정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내면적 앎의 확인이나 발화 강조의 ‘-다니까’ 용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더라고’, ‘-더라니’, ‘-더라니까’는 ‘-더라’를 포함하면서 ‘-더라’의 핵심 의미 중 하나인 ‘직접 증거’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간 논의에서는 이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었으나, 공통점에 주목하여 이들 간의 상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을 인칭 제약 양상이라는 공통 기준에서 상호 비교했을 때, 화·청자 지식 관련 의미라는 새로운 지점이 부각되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인칭 제약 양상의 비교 기준

이 글에서는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의미·기능을 살피기 위해서 인칭 제약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각각의 ‘-더라{X}’형 종결어미들을 ‘-더라’의 인칭 제약 양상과 비교하면서 각각이 어떠한 특이성을 지녔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작업에 앞서 비교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이 글에서는 단순히 주어 인칭 제약만을 살피지 않는다. 기존 선행 논의들은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더라’라는 문장에서 ‘철수가’와 같은 주어의 인칭 제약만을 살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주어만이 아니라 ‘영희에게’와 같은 간접 목적어의 인칭 제약 양상도 고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여 구문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어미 교체에 따른 인칭 제약 양상, 즉 사태 참여자가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어제 학교에서 X가 Y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더라니/더라니까}

한편, (2)와 같은 구문을 상정하고 비교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먼저 굳이 ‘어제 학교에서’, ‘직접’과 같은 수의적인 문장 성분을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더라{X}’형 종결어미 사이의 인칭 제약 양상 비교에서 맥락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내가 학교를 가더라’와 같은 문장처럼 ‘-더라’의 1인칭 주어 제약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1인칭 주어가 ‘-더라’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 선행 논의에서 ‘-더라’의 1인칭 주어가 화자 자신을 객관화 및 대상화하는 문맥에서 가능함을 언급한 바가 있다. Aikhenvald(2004: 220)에서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증거성의 ‘1인칭 효과(first person effect)’를 다룬 바가 있으며, 이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 “화자의 의도·통제·의식·의지의 결여(ICAV; lack of intension, control, awareness, and volition on the part of speaker)”라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설명과 동일하게 화자의 ‘의도·통제·의식·의지’가 결여된 맥락에서는 ‘-더라’가 결합한 문장에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3) 가. 취한 사이에 내가 찍힌 영상을 보니까 내가 영희에게 전화하더라 [-ICAV]

나. *방금 밖에 나간 사이에 내가 영희에게 전화하더라 [+ICAV]

4) 河崎啓剛(2017)은 중세 한국어의 의외성 형식 ‘-뉘/뉘1-’에서 1인칭 화자 주어가 나타나는 것을 Aikhenvald(2004)의 설명을 빌려 “자신을 객관화·대상화하여, 마치 제3자처럼 관찰함(脫1人稱化)”이라는 특수한 의미적 경향을 드러낸다고 논의했다. 그리고 이를 ‘자기 대상화의 의외성(SOM; Self-Objectifying Mirativity)’로 다뤘다. 즉 이 절에서 인칭 제약 양상을 비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자기 대상화의 의외성”과 같은 특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3가)의 맥락은 화자의 ‘의도·통제·의식·의지’가 결여된 맥락이기에 1인칭 주어 가능하지만, (3나)의 맥락은 화자의 ‘의도·통제·의식·의지’가 결여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없기에 1인칭 주어 가 나타나는 것이 어색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의도·통제·의식·의지’의 결여 여부에 대한 다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2)와 같은 문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주어 제약만이 아니라 굳이 간접 목적어의 제약까지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지식에 대한 기대’라는 의외성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더라{X}’형 종결어미가 화자 혹은 청자의 지식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문장 속 사태 참여자가 1인칭 화자 및 2인칭 청자처럼 대화 참여자로 나타날 때, 이러한 문장 속에서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문법 형식에서 인칭 제약 양상이 나타날 때, 주어의 인칭 제약을 확인하는 것은 그 형식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단서를 겨우 세 가지만 줄 뿐이다. 반면에 주어와 간접 목적어 모두에서 인칭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총 아홉 가지 단서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청자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이 쓰인 문장에 화·청자를 모두 등장시키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와 같은 수여 구문의 틀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더라{X}’형 종결어미가 보이는 인칭 제약 양상을 ‘-더라’의 그것과 비교할 것이다. 따라서 ‘-더라’의 행위주 주어와 수혜자 간접 목적어 논항에 대하여 각각의 참여자에 대한 인칭의 조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4)에서는 “내가 내게 꽃다발을 줬다”처럼 행위주와 수혜자의 인칭이 동일한 문장은 일부 수사적인 표현을 제외하면 본태적으로 비문이기에 제외한다.

- (4) 가. *어제 학교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 나. *어제 학교에서 내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 다.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 라.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 마. 어제 학교에서 그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 바. 어제 학교에서 그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굳이 예문의 간결성을 해치면서까지 ‘어제 학교에서’, ‘직접’과 같은 수의적인 문장 성분을 사용한 것은 (4)의 예문 해석에 중요한 전제를 줄 수 있다. 먼저 행위주의 행위가 꿈속이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의도와 의식을 가지고 행위를 통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행위주는 수혜자에게 선물을 몰래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여했다는 것이다. 즉 수혜자는 행위주의 수여 행위를 인식했으며, 행위주 또한 수혜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더라’뿐만 아니라 뒤이어 살필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 비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일한 맥락을 전제하여 일관된 기준에서 각각의 어미들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

이전 절에서 설정한 인칭 제약의 비교 기준인 “어제 학교에서 X가 Y에게 직접 선물을 준다”와 같은 문장에서 각각의 어미가 실현될 때, ‘-더라{X}’형 종결어미는 각각 다른 모습의

인칭 제약 양상을 보인다. 각각의 종결어미가 보이는 인칭 제약 양상을 살펴보자.

먼저 ‘-더라고’의 경우 ‘-더라’의 인칭 제약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이후에 다룰 ‘-더라니’와 ‘-더라니까’가 ‘-더라’하고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라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어미들과 다르다.

- (5) 가. 어제 학교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 나. 어제 학교에서 내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 다.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 라.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 마. 어제 학교에서 그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 바. 어제 학교에서 그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한편 ‘-더라’와 ‘-더라고’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칭 제약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인칭 주어와 관련한 제약이 (5가), (5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주목한 1인칭 주어 제약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한편 (5다)의 경우 2인칭 주어와 1인칭 간접 목적어에 대한 조합이 ‘-더라고’와 ‘-더라’ 모두에서 어색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2인칭 주어에 대한 제약을 ‘-더라고’와 ‘-더라’가 갖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5라)처럼 2인칭 주어와 3인칭 간접 목적어와 같은 조합에서는 ‘-더라고’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5다)와 같은 특징적인 2인칭 주어와 1인칭 간접 목적어의 제약은 이러한 어미가 화·청자에 대한 특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더라니’의 경우는 ‘-더라’의 인칭 제약과 비교된다. ‘-더라니’는 ‘-더라’에 비해서 인칭 제약 양상이 비교적 관대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라니’에서는 두 가지 조합에서만 제약이 나타난다.

- (6) 가. 어제 학교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주더라}.
- 나. 어제 학교에서 내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주더라}.
- 다.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주더라}.
- 라.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주더라}.
- 마. 어제 학교에서 그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주더라}.
- 바. 어제 학교에서 그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주더라}.

먼저 1인칭 주어가 쓰인 (6가), (6나)에 대해서는 ‘-더라니’와 ‘-더라’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6다)의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인칭 주어와 1인칭 간접 목적어의 조합이 ‘-더라’에서는 어색했으나, ‘-더라니’에서는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인칭 주어와 1인칭 성분의 조합은 이러한 수여 구문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한 타동사 구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 (7) 가. *오늘 아침에 네가 나를 때리더라.
- 나. 오늘 아침에 네가 나를 때리더라니.

‘-더라’가 쓰인 (7가)는 2인칭 주어와 1인칭 목적어가 어색하지만, (7나)의 ‘-더라니’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처럼 ‘-더라니’는 앞서 살핀 ‘-더라고’와 ‘-더라’와 비교하거나 뒤에서 살필 ‘-더라니까’와 비교할 때, 유난히 2인칭 청자에 관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더라니’는 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인칭 청자에 관한 의미

를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더라니까’의 경우 가장 차별적인 인칭 조합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라니까’는 2인칭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다. 즉 이 글에서 설정한 문장의 틀 속에서 2인칭 청자가 문장 속 사태의 참여자로 나타나는 것이 모두 어색하다.

- (8) 가. 어제 학교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주더라}.
- 나. 어제 학교에서 내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주더라}.
- 다.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주더라}.
- 라.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주더라}.
- 마. 어제 학교에서 그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주더라}.
- 바. 어제 학교에서 그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주더라}.

위의 (8)에서 2인칭 청자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거나 간접 목적어로 쓰이든 모두 어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3인칭 주어에 2인칭 청자 간접 목적어가 쓰인 경우에도 어색하다. 2인칭 청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제약이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청자의 지식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과 같이 청자가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더라니까’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 (9) 가. *오늘 알게 되었는데, 그가 너랑 결혼했더라니까.
- 나. 오늘 알게 되었는데, 그가 너랑 결혼했더라.

지금까지 살핀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는 ‘-더라고/더라’와 ‘-더라니’ 그리고 ‘-더라니까’ 사이에서 주어와 간접 목적어의 인칭 조합 양상이 각각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더라{X}’형 종결어미의 주어와 간접 목적어의 인칭 조합에 따른 제약 양상

어미	-더라고/더라			-더라니			-더라니까			
	1.IO	2.IO	3.IO	1.IO	2.IO	3.IO	1.IO	2.IO	3.IO	
1.SBJ	-	-	-	1.SBJ	-	-	1.SBJ	-	-	-
2.SBJ	-	-	+	2.SBJ	+	+	2.SBJ	-	-	-
3.SBJ	+	+	-	3.SBJ	+	-	3.SBJ	+	-	-

SBJ: 주어(subject) IO: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3.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3.1. 지식 관련 의미를 다루는 표찰들

이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제시한 인칭 제약 양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 표찰은 박재연(1999)에서 제시한 ‘-더-’의 인식 양태 의미 성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라’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성, 의외성,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과 같은 다양한 의미 표찰을 다뤘기에 이러한 것들이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의 기술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박재연(1999)은 아래와 같은 의미 표찰을 다룬다. (10가)의 정보의 출처는 곧 증거

성이며, (10나)의 정보의 내면화 정도는 의외성과 관련된 것이다.

- (10) 종결형 ‘-더-’가 보이는 양태 의미 성분
 - 가. 정보의 출처: [지각]
 - 나. 정보의 내면화 정도: [새로 앎]
 - 다.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미지가정]

‘-더라’가 [지각]과 [새로 앎(신정보)]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박진호(2011)이나 손혜옥(2016) 등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다. ‘-더라’가 쓰인 문장은 화자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한 것이며, “과거 특정 시점에서의 화자에게 신정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각]과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는 ‘-더라{X}’형 종결어미에서도 공유되는 것처럼 보인다.

- (11) 가. 12시에 서관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올리더라고/올리더라니/올리더라니까}
 - 나. 12시에 서관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올릴 것이더라고/*올릴 것이더라니/*올릴 것이더라니까}

(11가)처럼 ‘-더라{X}’형 종결어미가 쓰인 경우에도 화자는 12시에 서관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직접 보고 들어야만 쓸 수 있기에 이들도 [직접 지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1나)처럼 ‘-르 것이-’와 같은 우연적 구성이 결합할 수 없는데, 손혜옥(2016)에 따르면 ‘-르 것이-’는 認識時에 [이미 앎]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 앎]의 표현이 ‘-더라{X}’형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한 이유는 이들이 ‘-더라’처럼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신정보(새로 앎)]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10다)의 [미지가정]과 같은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의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라{X}’형 종결어미가 이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더라’ 자체에 [미지가정]이 있는지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의 [미지가정]이란 문장의 명제는 청자가 이미 알지 못한 상태인 ‘청자에게 신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 (12) 가. *너도 이미 알겠지만 영화는 1년 전에 결혼했더라.
 - 나. 너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 다. 너 알고 보니 철수 동생이더라.

박재연(1999)에서는 청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지식을 보유했음을 가정하고 ‘-더라’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12가)가 어색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12가)가 어색한 문장인가? 물론 수용성 판단에 대한 문제는 다소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무시하더라도 여전히 (12나), (12다)의 문제가 있다. 이들은 청자가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명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지가정]이 청자의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지각 행위에 대한 [미지가정]으로 설명한다.

이는 엄밀히 다른 층위의 [미지가정]으로 임동훈(2011: 117)에서도 [미지가정]의 대상을 화자의 지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명제만을 대상으로 삼는 다른 하위 범주와 층위가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층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이러한 의미적 경향이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13)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 표찰

- 가. 증거성 의미: [직접 지각]
- 나. 의외성 의미: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 다.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청자에게 신정보][청자에게 구정보]
- 라. 화자의 지각 행위에 대한 청자의 지식: [미지가정][기지가정]

‘-더라{X}’형 종결어미에 대해서 (13)과 같은 표찰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13다)의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는 (13나)의 의외성 의미의 하위 의미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청자의 지식과 관련하여 신정보인지 혹은 구정보인지를 명세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문법 범주는 ‘의외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자에게 신정보]와 같은 의미는 [청자 지향 의외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⁵⁾

다만 박재연(1999)의 [미지가정][기지가정]의 구분과는 용어를 달리 이해하여,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에서는 [청자에게 신정보][청자에게 구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대신에 화자의 지각 행위에 대한 청자의 지식 여부에 대해서만 [미지가정][기지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3.2.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

이 절에서는 이제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이 어떠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피고자 한다. ‘-더라고’는 ‘-더라’와 동일한 인칭 제약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더라고’의 지식 관련 의미는 ‘-더라’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더라고’에 대한 의미 기술은 ‘-더라’의 일반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4) 가.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 나.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

(14)를 고려했을 때, ‘-더라고’와 ‘-더라’는 [청자에게 신정보]에 대한 명세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4나)처럼 2인칭 청자가 주어인 문장이 가능한데, 청자가 직접 의도와 통제를 가지고 행위자로 참여한 사태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더라고’와 ‘-더라’는 [청자에게 신정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14가)의 경우는 2인칭 청자 주어가 어색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자에게 신정보]가 아닌 화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청자의 [미지가정]에 의해서 2인칭 청자 주어와 1인칭 화자 간접 목적어의 조합이 어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화자와 청자가 모두 참여한 사태에 대해서 화자는 청자가 화자의 인식 행위에 대해서 [미지가정]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라고’와 ‘-더라’는 화·청자의 지식 관련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

5) 의외성 의미가 청자를 지향하는 경우는 범언어적으로나 한국어학의 논의에서나 많이 다뤄진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자 지향 의외성의 가장 확실한 의미는 청자의 지식 체계를 고려하는 청자에게 신정보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Nichols(2011: 280)에서는 Ingush에서의 의외성 표지 *hwuona/hwaa* [2SG.DAT/2SGRFL.GEN]에 대해서 “화자는 청자에게 흥미있는 중요한 것을 알리는데, 이는 보통 청자에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 그리고 화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것(또는 적어도 화자가 방금 깨달은 것은 아닌 것)”으로 다룬 바가 있다. 혹은 한국어 논의 내에서도 중세 한국어의 ‘상대방 맞춤의 mirativity’ [LOM: Listener-Oriented Mirativity]를 다룬 河崎啓剛(2017)이 있는데, 이는 깨달음의 내용이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대화 참여자인 청자를 상징하여 나타내는 의외성의 표현론적 효과로 다룬다. 이들은 모두 의외성의 상호주관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라고'는 '-더라'와 달리 '-요'가 결합하여 해요체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어제 철수가 뛰어가더라고요'는 가능하지만, '어제 철수가 뛰어가더라고요'는 어색하다. 이러한 점에서 '-더라고'는 해요체의 실현 가능 여부에 따른 '-더라'의 문체적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더라니'의 경우는 [화자 지향 의외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 지향이란 깨달음의 내용이 화자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더라니'의 경우 2인칭 청자에 대해서 모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2인칭 청자가 주어나 간접 목적어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15) 가. 어제 학교에서 그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
- 나. 어제 학교에서 그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
- 다.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
- 라.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

2인칭 청자가 사태의 참여자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더라니'가 [청자에게 신정보/구정보] 혹은 지각 행위의 면에서 [미지가정/기지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 명세도 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2인칭 청자가 사태의 참여자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청자에게 신정보]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2인칭 청자 주어와 1인칭 화자 간접 목적어의 조합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인식 행위에 대한 [미지가정]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대화 참여자 중 청자를 지향하는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단순히 [화자 지향 의외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라니'의 의미를 앞서 살핀 '-더라고' 및 '-더라'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더라니'의 의미 성분

	지식의 출처	의외성 의미
-더라, -더라고	[직접 지각]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청자 지향 의외성]
-더라니	[직접 지각]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화자 지향 의외성]

'-더라니'가 쓰인 문장의 깨달음이 화자에게만 머무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더라니'의 형성 과정에서 알 수 있다. '-더라니'는 본래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바뀐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전형적이다.

- (16) 가. 그 녀석 놀기만 하더라니 시험에서 떨어질 줄 알았다.
- 나. 어쩐지 아이스크림 값이 비싸더라니 제조사들의 담합이 있었구나.

'-더라니'는 (16나)처럼 본래 '어쩐지'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16나)와 같은 [(어쩐지) S-더라니]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의미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태를 지각했으나 그때는 그것의 이유나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고 현재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음을 드러낸다. 즉 이는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함축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관습적인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어쩐지'와 후행절이 쓰이지 않아도 '-더라니'만으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인칭 청자를 사태 참여자로 나타내기 힘들었던 '-더라고'나 '-더라니까'에서도 '어쩐지'가 쓰이면 '어쩐지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내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니까'처럼 이러한 2인칭 청자에 대한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이러한 점에서 '-

더라니'는 '어쩐지'가 쓰이지 않아도 '어쩐지'가 쓰인 맥락의 의미를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라니까'는 [청자 지향 의외성] 중에서 [청자에게 신정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⁶⁾ '-더라니까'는 다음과 같이 2인칭 청자가 주어와 간접 목적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7) 가. 어제 학교에서 그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
 나. *어제 학교에서 그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
 다.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
 라. *어제 학교에서 네가 나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

2인칭 청자가 나타난 (17)과 같은 문장 속 사태는 청자가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2인칭 청자가 엄격히 제약된다는 것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더라니까'가 쓰이는 것이 제한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2인칭 청자의 제약은 곧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의미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라니까'를 '-더라고', '-더라', '-더라니'와 비교하여 의미 성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더라니까'의 의미 성분

	지식의 출처	의외성 의미
-더라, -더라고, -더라니	[직접 증거]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더라니까	[직접 증거]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청자에게 신정보]

그리고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의미가 대화 상대방인 청자를 상정하고 이를 지향해야 하는 의미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더라니까'에 대해서도 [청자 지향 의외성]을 다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얻어진다.

6)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표찰을 의외성 의미 중 하나로 다루게 된 계기는 Hyslop(2011)과 같은 유형론적 보고를 참고한 것이 크다. 여기에서는 의외성(mirativity)을 지식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knowledge)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Kurtöp의 지식 관련 언어 형식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

[표 ①] Kurtöp의 지식 관련 언어 형식(Hyslop 2011:625, Aikhenvald 2012:454 참고)

	지식의 출처	지식에 대한 기대	지식의 확실성
시제-상	완료	- <i>mu</i> '추리; 간접 증거' - <i>shang</i> (청자가 지식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i>na</i> '의외성: 신정보와 예상치 못한 정보' - <i>pala</i> '기본'	- <i>para</i> '추정; 비확실성'
	미완료	- <i>ta</i> '의외성: 신정보와 예상치 못한 정보' - <i>taki</i> '새롭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닌 정보'	-

이 중에서 -*shang*은 “청자가 지식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shang* 과 같은 계열을 이루는 형식들에는 신정보-구정보와 같은 것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의미 또한 지식에 대한 기대를 명세하는 의외성의 하나로 파악하게 된다.

[표 4]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의미 성분

	지식의 출처	의외성	의미
-더라, -더라고	[직접 증거]	[청자 지향 의외성]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더라니까	[직접 증거]	[청자 지향 의외성]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청자에게 신정보]
-더라니	[직접 증거]	[화자 지향 의외성]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4. 결론

지금까지 인칭 제약 양상을 중심으로 ‘-더라{X}’형 종결어미가 지닌 화·청자 지식 관련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함유하는 ‘-더라’에 대해서 그간 인칭 제약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한편 그간 ‘-더라’의 인칭 제약에 관한 논의들은 모두 주어의 제약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주어의 제약만을 다루는 것은 화·청자와 관련된 의미를 살피는 것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글에서는 “어제 학교에서 X가 Y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주더라니/주더라니까}”와 같은 문형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즉 화·청자와 관련된 의미를 살피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문장 속 사태에 등장시켜보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와 같은 문장 속에서 인칭의 조합에 따라 각 어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에 ‘-더라고’에는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의미 성분이 없으며 단지 화자의 인식 행위에 대한 청자의 [미지가정] 의미만이 있을 뿐이었다. ‘-더라니’도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의미가 없으며, ‘-더라니까’가 쓰인 문장은 청자가 주어진 간접 목적어든 사태의 참여자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어미들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움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화자 지향 의외성]으로 보았다. 즉 청자의 지식 체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단지 깨달음이 화자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더라니까’는 2인칭 청자를 주어로 하든 간접 목적어로 하든 가장 제약이 심했으며, 이는 [청자에게 신정보]라는 의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인칭 제약의 관찰과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더라{X}’형 종결어미에 적용할 수 있었다.

[표 4]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의미 성분

	지식의 출처	의외성	의미
-더라, -더라고	[직접 증거]	[청자 지향 의외성]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더라니까	[직접 증거]	[청자 지향 의외성]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청자에게 신정보]
-더라니	[직접 증거]	[화자 지향 의외성]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이러한 관찰과 해석은 이 글에서 다룬 ‘-더라{X}’형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단순 ‘-더라’의 이해에 대해서도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어미들이 지니는 화·청자 관련 의미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공통점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관찰이 특정 어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찌면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 참고문헌

- 河崎啓剛. 2017. 「중세 한국어 감동법이란 무엇인가」. 신구문화사.
- 남미정. 2010. “‘-다고’류 어미의 형성과 의미”. 「한말연구」 26. 한말연구학회. 109-131.
- 목지선. 2020. “복합형어미 ‘-다니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 「어문학」 150. 한국어문학회. 31-62.
- 박재연. 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41. 국어학회. 199-225.
- 박진호. 2011.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 손혜옥. 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희. 2006. “引用文 形式에서 文法化된 語尾·助詞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필영. 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임동훈. 2011. “체계적인, 너무나 체계적인: 박재연(2006)을 중심으로”. 「형태론」 13-1. 형태론. 107-123.
- 조찬우. 2023. “한국어 ‘-더라고’류 종결어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ikhenvald, A. Y. 2012. The essence of mirativity. *Linguistic Typology* 16: 435-485.
- Aikhenvald, A. Y. 2021. *The web of knowledge*. Leiden: Brill.
- Hyslop, Gwendolyn. 2011. A Grammar of Kurtö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Nichols, Johanna. 2011. *Ingush Grammar*.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토 론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양상과 지식 관련 의미”에 대한 토론

함병호(동국대)

이 발표문은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서 인칭 제약의 양상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와 간접 목적어의 인칭 제약 여부를 모두 검토하고 화·청자가 문장의 사태 참여자로 나타날 때, 사태에 대한 지식 관련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한국어 양태(증거성) 종결어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표문에서는 ‘어제 학교에서 X가 Y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고/더라니/더라니까}.’와 같은 문장 틀을 기본으로 삼아서 ‘-더라{X}형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의 인칭 제약은 통사적 제약이 아닌 여러 맥락에서 해소되는 화용론적 제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아래의 (1가)와 같이 ‘어제 학교에서’, ‘직접’과 같은 부가적인 성분으로 문장의 맥락을 제약하고 (1나)와 같은 맥락을 배제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도 문장 유형, 서술어의 유형에 따라 ‘-더-’를 논의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따른 이러한 접근은 ‘-더라{X}형 종결어미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맥락을 너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더라{X}형 종결어미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가. *어제 학교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

나. 꿈에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더라.

2. 발표문에서는 기존의 ‘의외성’의 의미 대신에 [‘화자에게 과거 신정보’], 기존의 [미지가정][기지가정]이라는 개념 대신에 [청자에게 신정보][청자에게 구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더라{X}형 종결어미의 지식 관련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① ‘신정보’와 ‘구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보구조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정보는 일반적으로 청자 중심이기 때문에(이와 관련하여 양태와 정보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기존의 개념들 대신에 ‘신정보’와 ‘구정보’를 사용하여 ‘-더라{X}’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개념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더라니까’가 사용된 *‘어제 학교에서 네가 그에게 직접 선물을 주더라니까.’ 같은 문장을 통해서 ‘-더라니까’의 핵심 의미를 [청자에게 신정보]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라니까’도 아래와 같이 맥락에 따라서는 [청자에게 구정보]의 문장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내가 전화로 이미 말했잖아.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어? 어제 거기에서 네가 그에게 돈을 주더라니까.

한국어 처소 구문의 격표체에 대하여

이준희(동국대)

< 차 례 >

1. 들어가며
2. 장소의 개념과 그에 따른 격표지 양상
3. 방향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
4. 달성 사태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표는 장소 명사구에서의 격표지 양상과 각 격표지에 따른 의미 차이를 살펴보고, 대격표지로의 교체 양상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격표지 양상에 대해서는 박양규(1972), 안명철(1982), 홍재성(1983), 우형식(1996), 유현경·이선희(1996), 연재훈(1998), 남승호(2003), 정주리(2005), 남승호(2007), 임동훈(2017), 박창영(2020) 등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논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해당 양상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상 때문이다.

- (1) 가. 철수는 서울에서 살았다.
나. 철수는 서울에 살았다.
다. 철수는 서울에서 지냈다.
라. *철수는 서울에 지냈다.

위의 예문에서, 서술어에 따른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은 공통되게 ‘철수’가 생활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의미역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예문에서 ‘서울’은 공통되게 처소역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듯이, (1가), (1나)의 경우에는 격표지가 ‘에서’와 ‘에’가 모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1다)와 (1라)의 경우에는 ‘에서’ 결합은 자연스럽지만 ‘에’ 결합은 어렵다. 이처럼 의미역은 동일한데 격표지 결합은 다른 양상은 대격표지로의 교체 양상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 (2) 가. 비행기 연착으로 영희는 새벽이 되어서야 공항에서 떠났다.
나. 비행기 연착으로 영희는 새벽이 되어서야 공항을 떠났다.
다. 본가에서 온 연락에 철수는 급하게 자취방에서 출발했다.
라. *본가에서 온 연락에 철수는 급하게 자취방을 출발했다.

위의 예문에서 ‘공항’과 ‘자취방’은 동일하게 의미역이 출발점에 해당한다. 확인할 수 있듯이, (2가)와 (2나)의 경우에는 ‘공항’의 격표지가 ‘에서’와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한 반면에, (2다)와 (2라)의 경우에는 ‘에서’는 가능하지만 대격표지로 나타나기 어렵다. 의미역이 같다는 것은 사태 내에서 해당 처소 명사구가 명제 내에서 수행하는 의미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양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장소 명사구가 명제 내에서 수행하는 의미적 역할과 더불어 장소 명사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격표지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 명사구, 즉 장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¹⁾ 그리고 살펴본 장소의 개념 및 특성과 대격표지로의 교체 양상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장소의 개념과 그에 따른 격표지 양상

장소의 개념은 1차적으로 위치(locative)와 방향(directional)으로 구분되고 방향은 2차적으로 출처(source)와 목표(goal)로 구분된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 이들 구분에 상대적 위치 개념인 위상 개념을 추가하여 내부, 외부, 위, 아래와 같은 구분을 3차적으로 하기도 한다(임동훈 2017: 103-104).

- (3) 가. 사촌누나는 결혼하고 미국에 있다.
 나. 철수는 지금 막 학교에서 출발했대요.
 다. 기차는 강릉으로 달리고 있다.

예문 (3가)의 ‘미국’은 사촌누나가 현재 지내고 있는 공간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행하여지는 위치를 뜻한다. 그리고 방향은 방향이 시작되는 곳과 방향이 끝나는 곳,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3나)와 (3다)가 출처와 목표로 각각 이들에 해당한다. 사실, 이들 공간은 위와 같은 장소 개념을 활용하지 않아도 의미역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즉, 위치인 (3가)는 처소역으로, 방향이 시작되는 (3나)는 출발점, 방향이 도달하는 (3다)는 목표로 의미역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양상은 설명이 어렵다.

- (4) 가. 사촌누나는 지금 미국에서 살아.
 나. 사촌누나는 지금 미국에 살아.
 다. 호명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호명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4가)와 (4나)의 ‘미국’에는 각각 ‘에서’와 ‘에’가 실현되었으나 의미역은 동일하게 처소역에 해당하며, (4다)와 (4라)도 ‘으로’와 ‘에’가 결합하였으나 의미역은 동일하게 목표로 분석된다. 즉, 결합하는 격표지는 다른데 의미역은 동일한 것이다. 이들을 의미역이 동일하

1) 이 글은 장소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격표지의 양상을 우선 살펴보고, 이들 중 대격표지와와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여, 장소의 특성과 대격표지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래부터 대격표지로 실현되는 경우는 우선 이 절의 분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 (1) 가. 민수는 자전거로 전국을 누볐다.
 나. 그 여자는 시장을 지나쳐 약국 옆의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는 것을 근거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소에 결합한 격표지에 따른 미묘한 의미 차이와 앞서 예문 (1), (2)에서 언급한 양상 차이를 기반으로 볼 때 이들을 의미역이 같으니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상대적 위치 개념인 위상이다.

위상에 따른 표지 차이는 다양한 언어에서 쉽게 발견된다.

(5) 가. She dived into the water.

나. He's going to Paris.

위의 예문을 보면, (5가)의 경우에는 처소인 'water' 앞에 'into'가 쓰였으며, (5나)의 'Paris' 앞에는 'to'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해당 장소의 내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해당 장소의 내부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장소의 내부를 나타내야하는 경우에는 'into'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to'를 활용한다.

핀란드어에서는 장소와 관련된 격 체계가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6) 핀란드어의 장소와 관련된 격 체계(Blake 2004: 153)

	위치(Location)	출처(Source)	목표(Destination)
∅	-na 위치격(essive)	-tta 부분격(partitive)	-ksi 변성격(translative)
내부(Interior)	-ssa 내부재격(inessive) 'in'	-sta 내부탈격(elaive) 'from(inside)'	-(h)Vn, -sVVn ²⁾ 내부향격(illative) 'into'
외부(Exterior)	-lla 재격(adessive) 'at'	-lta 탈격(ablative) 'from(outside)'	-lle 향격(allative) 'to(wards)'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핀란드어의 경우 위치, 출처, 목표가 구분되고, 이들 각각에 내부, 외부 위상 구분이 더해진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위상은 상대적인 위치를 뜻하기에 내부, 외부 구분 외에 추가적인 구분도 가능하다.

(7) 헝가리어의 장소와 관련된 격 체계(Haspelmath 2009: 516)

	위치(Location)	출처(Source)	목표(Goal)
IN	ház-ban 내부재격(inessive) 'in the house'	ház-ból 내부탈격(elaive) 'out of the house'	ház-ba 내부향격(illative) 'into the house'
ON	ház-on 상위재격(superessive) 'on the house'	ház-ról 상위탈격(delative) 'off the house'	ház-ra 상위향격(sublative) 'onto the house'
AT	'ház-nál '재격(adssive) 'at/near the house'	ház-tól 탈격(adlative) 'from the house'	ház-hoz 향격(allative) 'to the house'

2) 여기에서 V는 모음을 뜻한다.

(8) 아바르어의 장소와 관련된 격 체계(Blake 2004: 152)

	위치(Location)	출처(Source)	목표(Destination)	경로(Path)
on(top of)	-da	-d-e	-da-ssa	-da-ssa-n
at	-q	-q-e	-q-a	-q-a-n
under	-□'	-□'-e	-□'-a	-□'-a-n
in, among	-□	-□-e	-□-a	-□-a-n
in a hollow	-∅	-∅-e	-∅-ssa	-∅-ssa-n

헝가리어의 경우 위치, 출처, 목표가 구분되는 것은 동일하나 위상의 경우에는 내부, 외부와 더불어 위까지 구분된다. 이에 따라 상위재격, 상위탈격, 상위향격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 북동부 캅카스어족인 아바르어의 경우에는 위치, 출처, 목표에 더불어 경로가 구분되며, 내부, 외부에 더불어 위, 아래, 사이까지 위상을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위상은 상대인적 위치이기에 다양하게 세분이 가능하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위상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세분되지는 않지만 내부와 외부 구분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특히 장소가 위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9) 가. 철수는 산속에서 고요하게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나. *철수는 산속에 고요하게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다. 영희는 바다에 놀러가 해변가에서 마음껏 뛰놀았다.

라. *영희는 바다에 놀러가 해변가에 마음껏 뛰놀았다.

위의 예문을 보면, ‘산속’과 ‘해변가’에 ‘에서’가 결합한 (9가)와 (9다)의 경우에는 문장 성립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에’가 결합한 (9나)와 (9라)의 경우에는 문장 성립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문장의 서술어인 ‘지내다’와 ‘뛰놀다’가 행위를 수행할 최소한의 내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에서’가 결합한 (9가)와 (9다)의 경우에는 결합한 장소가 해당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수행할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하지만, ‘에’가 결합한 (9나)와 (9라)는 그러한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사실, ‘에서’가 이와 같이 내부 공간을 요구한다는 관찰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안명철(1982: 261-262)에서는 ‘에’와 ‘에서’의 의미를 비교하며 ‘에서’의 기본 의미를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홍재성(1983: 155)에서는 ‘철수는 영희네 집에서 숙제를 했다’라는 예문을 들며, ‘집’은 숙제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태적인 장소이기에 ‘에서’가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라는 것과 정태적인 장소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임동훈(2017: 107-109)에서는 시간이 시점(point)과 시폭(interval)으로 구분이 가능하듯이, 공간도 지점(point)과 지역(area)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에서’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논의에서 지점은 확장되지 않은 공간을, 지역은 확장되어 일정한 면적을 지닌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일정한 공간이 없는 지점은 외부이며, 일정한 공간이 있는 지역은 내부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위치인 위상 구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장소 개념을 활용하면 의미역보다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역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예문 (9)와 같은 양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소 개념은 1차로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위치는 위에서 살펴본 예문 (9)와 관련된다.

(10) 가. 지연이는 여행 중에 작은 호텔에 며칠 머물렀다.

나. 지연이는 여행 중에 작은 호텔에서 며칠 머물렀다.

다. 철수는 카페에 기다리고 있다.

라. 철수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박창영(2020: 36-41)에서는 Talmy(1985), Talmy(2000)에 기반하여 공간과 관련된 사태를 구성하는 요소를 탄도체(trajector), 동작(motion), 경로(path), 지표(landmark)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중 탄도체는 이동의 대상이 되어 위치 변화를 함의하고 있는 요소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위치와 관련된 사태는 탄도체가 공간의 변화 없이 한 장소에서 명제가 나타내는 행위가 수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10가), (10나)의 지연이와 (10다), (10라)의 철수는 각각 ‘작은 호텔’과 ‘카페’라는 공간에 존재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기에 위치와 관련된 사태라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 위치와 관련된 사태에서는 장소 명사구에 ‘에서’와 ‘에’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위의 예문처럼 ‘에서’와 ‘에’가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교체가 어려운 경우들도 존재한다.

(11) 가. 그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나. *그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서 위치하고 있다.

다. *철수는 이 방에 생활하게 했다.

라. 철수는 이 방에서 생활하게 했다.

위의 예문은 앞선 예문들과 동일하게 이동의 대상인 ‘건물’과 ‘철수’가 공간의 변화 없이 한 장소에 있는 위치와 관련된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격표지 양상은 다른데, (11가), (11나)와 같이 ‘위치하다’라는 서술어에서는 ‘에’는 가능하지만 ‘에서’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11다)와 (11라)는 ‘에’는 나타나는 것이 어렵지만 ‘에서’는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의 경우에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이들은 각각 ‘에서’와 ‘에’에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와 ‘에’의 대립을 내부와 외부라 언급하였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부와 비내부의 대립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내부를 유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임동훈 2017: 104). 이는 ‘에서’의 경우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내부 공간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 문장 성립이 어려운 반면에 ‘에’는 내부 공간이 필수적인 사태가 아니라면 내부 공간 유무에 상관없이 결합이 가능한 것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 가. 민수는 마포구에서 살아.

나. 민수는 마포구에 살아.

다. 철수는 이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

라. *철수는 이 가게에 저녁을 먹었다.

마. *회의가 끝난 후에도 영희는 회의장에서 남았다.

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영희는 회의장에 남았다.

예문 (12가)와 (12나)의 경우 내부 공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필수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에서’를 활용하여 ‘마포구’라는 장소의 내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며, ‘에’를 활용하여 내부 공간 유무에 상관없이 살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예문 (12다), (12라)는 저녁을 먹는 행위가 수행될 내부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기에 ‘에서’ 결합은 가능하지만 ‘에’ 결합은 어렵다. 반면에 (12마)와 (12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부 공간 설정이 어려운 사태의 경우에는 ‘에서’ 결합은 어렵지만 ‘에’ 결합은 자연스럽다. 이처럼 내부, 외부의 대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 설정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에서’와 ‘에’의 결합이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향은 출처와 목표로 구분이 가능하다.

(13) 가. 그녀는 집에서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나. 열차는 지금 막 서울에서 출발했다.

다. 민수는 주말이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라. 철수는 미국에서 왔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출처는 ‘에서’가 결합하여 나타낸다. 앞서 위치의 경우에도 내부 공간이 있을 시에 ‘에서’가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위치와 출처의 상관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안명철(1982: 263)에서는 이동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일어날 공간적 배경이 요구되며, 그 이동의 폭이 ‘에서’가 결합한 공간보다 클 경우에 출처를 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해당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태가 나타내면 출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14) 가. 아이들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준다.

나. 아이들이 정원에서 학교로 갔다.

다. 영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라. 영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어귀까지 달리기를 했다.

위의 예문을 보면, (14가)와 (14나)의 경우 동일하게 ‘정원’이라는 공간에 ‘에서’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사태인 꽃에 물을 주는 것은 ‘정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기에 출처를 뜻하지 않고, 후자는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사태를 나타내 ‘정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기에 이 경우에는 출처로 기능한다. 이는 (14다), (14라)에서 더욱 단적으로 확인할 가능하다. 해당 예문은 임동훈(2017: 111)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들은 ‘마을 어귀까지’를 제외하곤 문장 내 성분이 동일하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은 각각 예문에서 위치와 출처를 나타내는데, 이는 목표인 ‘마을 어귀까지’로 인해 사태가 나타내는 행위가 공간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치와 출처는 관련성을 지니며, 그렇기에 ‘에서’가 이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성을 통해서, 출처가 이동의 대상이 공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목표는 ‘에’와 ‘로’로 나타낸다.

- (15) 가. 철수는 학교에 갔다.
 나. 철수는 학교로 갔다.
 다.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졌다.
 라. 빗방울이 머리로 떨어졌다.

위의 예문을 보면, 각각 ‘철수’, ‘빗방울’이라는 이동의 대상이 ‘학교’와 ‘머리’라는 장소를 목표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표는 ‘에’와 ‘로’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고 이들 간의 교체도 자유롭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 (16) 가. 민지는 집에 가다가 맥주집에 들렀다.
 나. *민지는 집에 가다가 맥주집으로 들렀다.
 다. *의사가 환자를 응급실에 옮겼다.
 라. 의사가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

예문 (16가)와 (16나)는 장소인 ‘맥주집’에 결합한 격표지가 각각 ‘에’와 ‘로’라는 것을 제외하곤 동일한 문장이지만 (16가)는 문장 성립이 가능한 반면에 (16나)는 문장 성립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16다), (16라)의 경우에도 ‘응급실’에 결합한 격표지를 제외하곤 모두 동일하지만 (16다)는 문장 성립이 어렵고 (16라)는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를 ‘에’가 공간 내 일정한 영역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 (17) 가. ?나는 뒷동산의 그 밤나무에 갔다.
 나. 나는 뒷동산의 그 밤나무로 갔다.

위의 예문은 홍운표(1978: 116)에서 제시한 것이다. 홍운표(1978: 115-116)과 임동훈(2017: 107-108)에서는 목표를 나타내는 ‘에’는 일정 공간이 존재하는 지역 개념을 전제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에’가 결합한 (17가)를 문장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뒷동산의 그 밤나무’는 뒷동산에 위치한 하나의 대상이지, 내부 공간이 있는 것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워 ‘에’가 결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17)과 같은 차이를 ‘에’가 목표를 내부 공간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선 예문인 (16다), (16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에’ 결합은 어렵고 ‘로’ 결합은 자연스러운데, 이들이 결합한 ‘응급실’은 내부 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위치에 나타나는 격표지인 ‘에서’와 ‘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에서’가 내부를 나타내고 ‘에’는 비내부를 나타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에 목표의 ‘에’가 내부 공간이 있는 지역인 것으로 파악하면, 이는 위치일 때의 ‘에’와 정반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된다. 물론, 위치와 목표로 범주가 다르기에 같은 격표지라도 다른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치와 목표도 동일하게 장소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같은 격표지가 세부 범주에 따라 반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동훈(2017: 107)의 경우 출처가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는, 경계가 있는 지역이며 사태가 그 경계를 넘어 지역을 벗어나야 출처를 나타내는 것처럼, 목표도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어 경계를 넘어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출처와 목표를 동일한 장소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해당 논의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목표는 출처와는 다르게 미래와 관련성이 높은 장소이기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즉, 목표에서는 내부와 외부 구분이 필수적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내부 공간의 유무의 차이로 파악하기 보다는 목표에 닿음의 함의 여부로 파악하고자 한다. 임동훈(2017: 107-108)에서는 목표의 ‘에’가 일정한 내부 공간이 있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가 생성되고 이동의 대상이 이 경계에 닿는다는 함의가 생성된다고 분석한다. 이 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목표에서의 ‘에’가 경계에 닿는다는 함의를 지니고, ‘로’는 그러한 함의 없이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해당 논의에서는 목표를 내부 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파악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목표를 지역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에 지역의 경계에 닿음이 아닌, 목표에 닿음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정희정(1988: 155-156)에서는 목표에서의 ‘에’와 ‘로’의 차이를 전자는 도착 단계를 중시하고, 후자는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18) 가. 우리 차는 서울에 다 와 간다.

나. *우리 차는 서울로 다 와 간다.

위의 예문은 정희정(1988: 155-156)에서 제시한 것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서울’에 ‘에’가 결합한 (18가)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되고, ‘로’가 결합한 (18나)는 성립이 어려운 이유를 해당 문장이 목표인 ‘서울’에 도달해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도착 단계인 것을 중시하는 ‘에’의 경우 도착의 목표인 ‘서울’에 거의 도달하였다는 의미와 어울리는 반면에, ‘로’의 경우에는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기에 목표에 거의 도달하였다는 의미와는 어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에’는 목표에 닿는 것을 함의하기에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하였다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것이고, ‘로’는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기에 그러한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박진호(2012: 490-491)에서는 영어에서 ‘to’와 ‘toward’가 각각 도착점(goal)과 도착점 방향(direction to goal)을 나타낸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에’는 도착점으로 목표에 닿음을 함의하고, ‘로’는 그러한 함의가 없는 도착점 방향 즉,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목표는 ‘에’와 ‘로’로 나타나며, ‘에’는 목표에 닿음을 함의하고 ‘로’는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경우 위치, 출처, 목표와 더불어 경로도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경로는 ‘로’로 나타난다.

(19) 가. 철수는 앞문을 두고 늘 뒷문으로 다닌다.

나. 무단횡단은 위험하니 횡단보도로 건너라.

다. 도서관은 이 길로 가는 게 더 빠르다.

라. 철수는 다른 팀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저 언덕으로 넘어갔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가 결합한 ‘뒷문’, ‘횡단보도’, ‘이 길’, ‘저 언덕’은 이동의 대상이 이동을 하면서 지나는 공간에 해당한다. 박진호(2012: 491)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경로가 출처와 다의 관계에 있는 경우와 목표와 다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한다. 전자로는 일본어 ‘より’, 고대 한국어 ‘-을 좇-’과 더불어 비스쿠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 레즈긴어 등이 해당하고(Creissels 2009: 618), 후자로는 한국어 ‘로’가 해당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출처를 나타내는 ‘에서’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경계를 넘는 것이 인지적으로 주요하고, 목표의 ‘에’는 목표에 도달함을 함의하기에 상대적으로 경로를 나타내기

에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로’의 경우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하게 인지하기에 상대적으로 경로의 의미를 지니기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장소 개념은 크게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되며, 방향은 출처, 목표, 경로로 세분이 가능하다. 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치의 경우 공간의 내부 영역 유무에 따라 내부와 비내부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들은 각각 격표지 ‘에서’와 ‘에’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출처의 경우 이동 대상이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경계를 넘어가 이동하는 것이 주요 인식 과정이기에 위치와 관련성이 높다. 그렇기에 격표지의 경우에도 ‘에서’로 나타난다. 목표는 ‘에’와 ‘로’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데, 전자는 목표인 장소에 닿음을 함의하고 후자는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목표의 경우 미래와 관련되기에 출처와는 다르게 외부에서 경계를 넘어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인지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로의 경우 ‘로’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범언어적으로 보면 출처나 목표를 나타내는 요소가 경로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는데, 한국어의 경우 목표를 나타내는 격표지 중 ‘로’가 경로도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출처를 나타내는 ‘에서’는 경계를 넘는 것이 인지적으로 중요하고, 목표를 나타내는 ‘에’는 목표에 닿음을 함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로’가 경로를 나타내기 용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장소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한국어의 장소 명사구에 주로 나타나는 격표지 양상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에 기반하여 대격표지로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 개념의 1차적 구분인 위치와 방향 중 방향은 이동 대상이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이동하는 것과 개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방향은 상대적으로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위치는 이동 대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대격표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것이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모두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방향의 하위 부류인 출처, 목표, 경로 모두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양상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양상과 이들이 대격표지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방향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

한국어의 장소 개념은 크게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그 중에서 방향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향은 출처, 목표, 경로로 세분된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 (20) 가. 철수는 고향에서 떠났다.
 - 나. 철수는 고향을 떠났다.
 - 다. 민수는 부산에서 출발했다.
 - 라. 민수는 부산을 출발했다.

예문 (20가)와 (20다)의 경우 각각 이동 대상이 ‘고향’과 ‘부산’이라는 내부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 외부의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향’과 ‘부산’은 출처에 해당한다. (20나), (20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하

다. 그러나 모든 출처가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21) 가. 급한 소식에 영희가 미국에서 왔다.

나. #급한 소식에 영희가 미국을 왔다.

다. 지연이가 학교에서 달려왔다.

라. #지연이가 학교를 달려왔다.

예문 (21가)와 (21다)의 ‘미국’과 ‘학교’는 앞선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출처에 해당한다.³⁾ 그러나 이들은 (21나), (21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격표지로 교체하면 문장은 성립되지만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들처럼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미국’과 ‘학교’는 이동 대상인 ‘영희’와 ‘철수’가 이동하는 사태가 시작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동의 목표인 공간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의미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술어 ‘오다’와 ‘달려오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자가 기준이 되어 이동의 대상이 그 기준을 향해 움직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서술어가 나타내는 의미 자체가 출처보다는 목표를 주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출처보다는 서술어의 의미상 주요하게 인지하는 목표로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상은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이 아닌, 장소의 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22) 가.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더라.

나. *박혁거세는 알을 나왔다더라.

다. 차가 출발하니까 차 앞에서 물러나 주세요.

라. *차가 출발하니까 차 앞을 물러나 주세요.

위의 예문은 이선영(2004: 137)에서 제시한 것이다. 예문 (22가), (22다)는 이동의 대상이 각각 ‘알’, ‘차 앞’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사태를 나타낸다. 즉, 이들은 모두 출처에 해당한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앞선 예문 (21)과는 다르게 이들은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22가), (22나)의 ‘나오다’를 보면, ‘철수는 방에서/방을 나와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다.’와 같이 동일한 서술어가 쓰였지만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자유로운 경우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술어가 지닌 의미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장소가 지니는 특성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글에서는 이를 대격표지가 해당 장소에 결합하면 유효적이었던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즉, 해당 예문들이 나타내는 사태가 내부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 비내부로 나오는 것이 주요하기에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어의 경우 장소 개념에서 상대적인 위치 개념인 내부, 비내부 구분이 존재하며, 이들은 위치에서 ‘에서’와 ‘에’의 대립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부와 비내부로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중 내부가 유효적이기에, ‘에서’는 내부 공간을 필

3) 해당 예문에서 # 표시는 문장 성립은 가능하나, 기존 의미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 논의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활용할 것이다.

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다르게 말하면, ‘에서’가 결합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부에 대한 유표적인 인지가 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내부에 대한 인지가 사라진 무표적인 장소로 인지되어 비내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위치와 출처에서 동일하게 ‘에서’가 쓰이는데, 위치의 ‘에서’는 ‘에’와 대립을 이루어 내부와 비내부를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처의 ‘에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대격표지와 대립을 이루어 내부와 비내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임동훈(2017: 116-118)에서는 출처와 목표인 장소 명사구의 격표지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내부 공간이 없는 지점으로 개념화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궤를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에서’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서 유표적인 내부라는 인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 공간이었던 지역이 내부 공간이 없는 지점으로 변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목표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의 경우 목표에 ‘에’와 ‘로’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 (23) 가. 아버지는 회사에 가셨다.
 나. 아버지는 회사를 가셨다.
 다. 다영이가 우리 동네로 왔다.
 라. 다영이가 우리 동네를 왔다.

예문 (23가), (23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사’와 ‘우리 동네’는 이동 대상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하며, 각각 ‘에’와 ‘로’로 실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하다.

목표의 경우 개념적으로 대격표지로 교체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Lyons(1977: 496-497)에서는 한 실체가 다른 실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어떠한 대상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타동성과 이동 사태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타동성에서의 실체인 행위자와 피행위자는 각각 출처와 목표에, 그리고 사태가 나타내는 힘은 이동의 대상으로 대응된다. 이와 더불어 해당 논의에서는 타동성(transitive)라는 용어 자체가 행위자가 피행위자에게 작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태가 나타내는 힘이 행위자에서 피행위자로 향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본다면, 이동과 관련된 사태에서 목표는 타동성을 지닌 사태에서의 피행위자와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해 목표인 논항이 피행위자와 관련성이 높은 논항에 결합하는 대격표지의 교체가 용이한 것이다.

물론 모든 목표인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목표로의 방향이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24) 가. 나는 동쪽으로 갔다.
 나. *나는 동쪽을 갔다.
 다. *나는 동쪽에 갔다.
 라. 민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달려갔다.
 마. *민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을 달려갔다.
 바. *민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에 달려갔다.

위의 예문을 보면, (24가)와 (24라)의 ‘동쪽’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은 사태가 목표로 하는 공간이지만 (24나), (24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용이하지 않다. 이는 해당 공간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목표로의 닿음을 함의하지 않으며,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4다), (24바)처럼 ‘에’로 교체가 불가능한 점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목표로의 방향이 유효적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어렵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출처와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처는 ‘에서’로 나타나며 ‘에서’는 결합한 공간이 내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효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기에 이때의 ‘에서’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결과적으로 유효성을 잃게 되어 내부와 비내부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표의 ‘로’가 나타내는 것은 목표 중에서도 목표로의 방향성이며, 그러한 ‘로’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로’가 다른 표지로 변경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로’가 나타내는 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방향성이 주요한 사태의 경우에는 대격표지로 교체가 어려운 것이다.

출처와 목표 외에도, 경로의 경우에도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 (25) 가. 철수가 산길로 걸었다.
- 나. 철수가 산길을 걸었다.
- 다. 이 항공기는 중국 영공으로 지나간다.
- 라. 이 항공기는 중국 영공을 지나간다.

위의 예문을 보면, ‘산길’과 ‘중국 영공’은 이동 대상인 ‘철수’와 ‘항공기’가 목표를 향해 지나쳐 가는 공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은 확인할 수 있듯이 대격표지로 나타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경로의 경우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황국정(2015: 194)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대격표지는 일반적인 이동의 의미를 지닌 ‘가다’, ‘오다’와는 잘 쓰이지 않고, 경로와 관련 있는 ‘디나다’, ‘걷나다’와 같은 서술어와 쓰인 점을 근거로 기원적으로 대격표지가 경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로와 관련 있는 이동 동사들에서도 대격표지가 주로 나타나는 점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박창영(2020: 124-132)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주요 어휘 용례집-동사편』(2002)에 기반하여 이동과 관련된 서술어들의 문형을 살펴본 결과, 경로의 경우 장소 명사구의 격표지가 ‘을/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경로의 경우 대격표지가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다면 경로에서의 대격표지 양상은 교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장소 명사구가 출처와 목표에 해당하고 내부와 방향성이라는 유효적인 상황이 주요하게 인지되는 상황이 아니면 대격표지로 교체가 용이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격표지로 교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를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목표의 경우에는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인 피행위자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앞서 언급했듯이, 이동 사태에서 출처

4) 여기에서 나오는 행위자, 피행위자는 의미역에서 언급되는 행위주, 피행위주와는 다르다. 행위자, 피행위자는 참여자가 지니는 속성으로, 각각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실행자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자를 뜻한다.

5) 이 글에서는 격을 결합한 논항이 맺는 관계와 속성을 형태적으로 표시해주는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해당 정의에 따르면 대격표지는 결합한 논항의 주로 목적어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형태로 이해가 가능하다.

에서 목표로 대상이 이동하는 것은 타동성에서 행위자에서 피행위자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이동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그렇기에 이동 대상의 도착점인 목표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인 피행위자는 개념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합한 논항이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용이한 것이다.

다음으로 출처는 상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격표지는 일반적으로 타동성이 높은 문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타동성이 높은 문장의 경우 상적 특성에서 종결성(telicity)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종결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에 끝점(endpoint)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끝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사태를 전체론적(holistic)으로 인식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장소와 관련된 사태에서 해당 장소 명사구가 전체론적 해석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태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 명사구에서 쉽게 확인된다.

- (26) 가. 영희가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했다.
 나. [?]1시간 만에 영희가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했다.
 다. 영희가 담벼락을 페인트를 칠했다.
 라. 1시간 만에 영희가 담벼락을 페인트를 칠했다.

위의 예문에서, (26가)와 (26다)는 ‘담벼락’의 격표지가 ‘에’인 것과 대격표지인 것의 차이만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에 반해 후자는 장소 명사구인 ‘담벼락’의 전체에 페인트를 칠했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26나), (26라)와 같이 시간 부사어 ‘1시간 만에’의 결합 양상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종결성을 지니게 되어 전체론적으로 해석되기에, 출처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무표적으로 비내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출처의 경우 ‘에서’가 유표적으로 내부를 표시하기에 ‘에서’가 대격표지로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무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러 격표지 중에서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한 것은 대격표지가 결합하면 해당 장소 명사구가 전체론적으로 해석되어 내부, 비내부 구분 없이 말 그대로 하나의 장소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로의 경우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아니라 본래 대격표지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대격표지가 실현되는 것도 이러한 전체론적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경로는 목표로 하는 장소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공간이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경로인 공간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만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지나는 것을 함의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경로인 장소 명사구가 포함된 사태 중에 대격표지만 결합이 가능한 경우들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27) 가. 민호는 대전을 지났다.
 나. *민호는 대전으로 지났다.
 다. 지연이는 고비 사막을 횡단했다.
 라. *지연이는 고비 사막으로 횡단했다.

위의 예문을 보면, ‘대전’과 ‘고비 사막’은 각각 이동 대상인 ‘민호’와 ‘지연’이 목표로 하는 공간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장소에 해당한다. (27나), (27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로’가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해당 사태가 경로에 해당하는 장소인 ‘대전’과 ‘고

비 사막' 전체를 완전히 지나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로와 대격표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분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8) Hjelmslev(1935), Hjelmslev(1937)의 분류

- 가. 탈격(ablative) [+ from]
- 나. 향격(allative) [+ to]
- 다. 위치격(locative) [-from, -to]
- 라. 경로격(perlative) [+ from, + to]

Hjelmslev(1935), Hjelmslev(1937)에서는 장소와 관련된 격을 장소에서 멀어지는 것(from)과 가까워지는 것(to)에 따라서 자질 분석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듯이, 목표인(28나)의 향격과 경로인(28라)의 경로격의 경우 목표로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는 [+to]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인도-유럽어의 경우 목표와 경로가 대격표지로 나타났는데(Blake 2004: 151), 이는 해당 요소에 [+to] 자질이 있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임동훈 2017: 105-106). 목표에 다가감을 뜻하는 [+to] 자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표에 해당하는 장소로 다가간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표의 경우 이동 대상이 도달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타동성에서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 대격표지로 실현되기 용이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로의 경우에도 목표와 마찬가지로 자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격표지와 상관관계를 지녀 경로에 대격표지 실현이 용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로의 장소 명사구는 전체론적 해석이 일어나고 경로와 목표는 자질 면에서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경로에 대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출처, 목표와 마찬가지로 경로라는 장소가 지니는 특성이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향의 세 하위부류인 출처, 목표, 경로에서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며, 이들 중 출처와 목표는 대격표지로 교체되는 것이지만, 경로는 대격표지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기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 그 중에서도 상적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방향 외에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상으로는 예문(26)과 같은 달성 사태에서의 장소 명사구가 있다. 해당 양상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가 일종의 달성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의 장소 명사구의 경우에도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며,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과 관련도가 높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달성 사태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

이 절에서는 달성 사태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달성(accomplishment) 사태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양상을 일컫는다.

- (29) 가. 영수가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 나.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 다. 인부들이 트럭에 택배 상자를 채웠다.

라. 인부들이 트럭을 택배 상자로 채웠다.

위의 예문을 보면,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에 따라 ‘벽’과 ‘트럭’이라는 공간은 상태 변화의 과정을 겪고, 각각 신문지가 다 붙는 것과 택배 상자로 가득 차는 상태가 되는, 즉 상태 변화가 완성되어 달성되는 사태를 나타낸다. 물론 모든 달성 사태의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0) 가. 철수가 벽에 대자보를 붙였다.

나. *철수가 벽을 대자보로 붙였다.

다. 민수가 돌에 화살표를 새겼다.

라. *민수가 돌을 화살표로 새겼다.

예문 (30가)와 (30다)는 각각 ‘벽’과 ‘돌’이라는 공간이 상태 변화를 겪고 달성되는 사태를 나타낸다. (30나), (30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예문들은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로 나타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장소 명사구와 그에 후행하는 도구 논항이 양적으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안명철 2013: 86-87, 신서인 2016: 17). (30가), (30나)에서 ‘대자보’는 ‘벽’이라는 공간을 모두 채우면서 붙이기 어려우며, (30다)와 (30라)의 ‘화살표’도 ‘돌’의 면적을 모두 채우면서 새기기 어렵다. 즉, ‘벽’과 ‘대자보’가 양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며, ‘돌’과 ‘화살표’가 양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체론적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실현되면 종결성으로 인해 해당 공간이 전체론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달성 사태에서 공간이 전체론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그 공간 전체가 달성 사태의 대상이 되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공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달성 사태에서의 장소 명사구는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예문 (29가), (29다)를 보면, 우선 ‘벽’과 ‘트럭’은 각각 ‘신문지’와 ‘택배 상자’가 이동해 도달하는 공간으로 파악하는 가능하다. 즉, 이동 대상이 도달하는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벽’과 ‘트럭’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상태 변화를 겪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동 대상의 목표이면서 상태 변화의 대상이기에 해당 장소 명사구는 (29나), (29라)처럼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용이하다. 사실, 해당 공간이 이동 대상의 목표라는 점 역시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표와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피행위자 속성 간에는 개념적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29가)와 (29다)처럼 ‘에’가 결합한 경우는 이동 사태이면서 달성 사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무표적하게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고, (29나)와 (29라)처럼 대격표지가 결합한 경우는 해당 논항이 상태 변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인지하여 해당 사태를 달성 사태로 바라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사태를 구분하는 것은 이전 논의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31) 가. Jack sprayed the wall with paint.

나. Jack sprayed paint on the wall.

다. 진이는 노란 물감을 벽에 칠했다.

라. 진이는 노란 물감으로 벽을 칠했다.

위의 예문은 각각 Levin(1993: 51)과 남승호(2007: 137-139)에서 제시한 것이다. 해당 논의들에서는 예문 (31가)와 (31다)는 페인트와 노란 물감이 벽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해 닿는 일종의 이동 사건을 나타내고, (31나)와 (31라)는 벽의 상태가 변화하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두 사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 역시 지니게 된다.

- (32) 가. 영수가 10분 만에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 나. 영수가 10분 만에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 다. 인부들이 10분 만에 트럭에 택배 상자를 채웠다.
- 라. 인부들이 10분 만에 트럭을 택배 상자 채웠다.

위의 예문은 앞선 예문 (29)에 시간 부사어 ‘10분 만에’를 결합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문장 성립은 자연스러우나,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장소 명사구에 ‘에’가 나타난 (32가)와 (32다)의 경우에는 ‘10분 만에’가 해당 사태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 시간을 뜻한다. 즉, 벽에 신문지를 붙이는 행위를 10분 만에 최초로 한 것이며, 트럭에 택배 상자를 채우는 행위를 10분 만에 최초로 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격표지가 나타난 (32나), (32라)의 경우에는 ‘10분 만에’가 상태 변화가 완성되어 달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장소 명사구 결합한 대격표지가 해당 명사구가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격은 결합한 논항이 지니는 관계와 속성을 나타내며, 대격표지는 해당 논항이 피행위자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행위자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사태 내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행위자에 의해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행위의 영향을 받는 정도인 피영향성의 정도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피영향성 정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행위의 결과로 인해 대상이 변화한 폭이 큰 경우를 피영향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리한다(우형식 1996). 정리하면, 어떠한 대상이 행위의 결과로 변화의 정도가 높으면 그 대상은 피영향성이 높은 피행위자라는 것이며, 이는 대격표지로 표시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결합하였다는 것은 해당 공간이 피영향성이 높은, 즉 행위의 결과에 의한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달성 사태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것은 해당 사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달성 사태의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로 나타나면 해당 사태가 달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처럼 달성 사태의 경우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과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달성 사태의 대격표지 양상은 다음과 같은 양상도 추가로 발견된다.

- (33) 가. 아이가 종이에 검은색 크레파스를 칠했다.
- 나. 아이가 종이를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했다.
- 다. 아이가 종이를 검은색 크레파스를 칠했다.
- 라. 철수가 욕조에 물을 채웠다.
- 마. 철수가 욕조를 물로 채웠다.
- 바. 철수가 욕조를 물을 채웠다.

이들 예문은 달성 사태에서 장소 명사구인 ‘종이’, ‘욕조’가 대격표지로 나타나는 양상에 해당한다. 특징적인 것은 (33다), (33바)와 같은 소위 대격 중출 구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대격 중출 구문은 (33가), (33라)에서 장소 명사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33나), (33마)와 같이 사태가 달성되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형성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를 후자인 도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기존 문장에서 격표지가 교체되어 형성된 대격 중출 구문은 교체 전 문장과 면밀한 의미상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문장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명제 내용(proposition content)은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준희 2020: 259-260).

(34) 가.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 철수가 영희를 선물을 주었다.

예문 (34가)는 ‘철수’라는 수여자가 ‘영희’라는 수령자에게 선물을 주는 전형적인 수여 구문이다. 해당 예문은 (34나)와 같이 수령자의 격표지가 교체되어 대격 중출 구문으로 형성이 가능하다. 이들은 수령자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었기에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두 문장이 나타내는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명제 내용은 변화 없이 동일하다.

이는 명제 내용이 문장 층위보다 더 상위 층위에 해당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Huang 2007: 11-12).

(35) 가. Liszt adored Chopin.

나. Chopin was adored by Liszt.

다. Did Liszt adore Chopin?

이들 예문은 각각 능동문, 피동문, 의문문으로 문장 유형이 다르다. 그러나 문장 유형은 다르지만, 해당 예문의 명제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리스트는 쇼팽을 흠모한다.’로 동일하다. 이러한 양상은 명제 내용이 문장 층위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달성 사태에서의 대격표지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6) 가. 아이가 10분 만에 종이에 검은색 크레파스를 칠했다.

나. 아이가 10분 만에 종이를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했다.

다. 아이가 10분 만에 종이를 검은색 크레파스를 칠했다.

라. 철수가 10분 만에 옥조에 물을 채웠다.

마. 철수가 10분 만에 옥조를 물로 채웠다.

바. 철수가 10분 만에 옥조를 물을 채웠다.

위의 예문은 앞서 제시한 예문 (33)에 시간 부사어 ‘10분 만에’를 결합한 것이다. 앞서 시간 부사어 ‘10분 만에’가 결합하였을 때, 장소 명사구에 ‘에’가 결합한 경우는 해당 사태를 최초로 수행한 때를 의미하지만,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결합한 경우는 해당 사태가 달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36가), (36나)와 (36라), (36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대격 중출 구문으로 제시된 (36다)와 (36바)의 경우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결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태가 달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격 중출 구문의 경우 장소 명사구에 ‘에’가 나타난 (36가), (36라)보다 대격표지가 나타난 (36나), (36마)와 명제 내용이 유

사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대격 중출 구문은 (36나), (36마)와 같이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실현되어 있는 문장에서 도구에 해당하는 논항의 격표지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달성 사태의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과 관련된다. 달성 사태의 장소 명사구는 이동 사태의 목표이면서 상태 변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달성 사태의 경우 장소 명사구뿐만 아니라 도구의 경우에도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소위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때의 대격 중출 구문은 장소 명사구의 격표지가 교체되어 형성될 가능성과 후행하는 도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명제 내용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후자인 도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대격 중출 구문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나가며

한국어 장소 명사구의 격표지 양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 글은 그간 연구된 여러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장소 명사구와 각 격표지 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격표지로의 교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장소 개념은 크게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되며, 방향은 다시 출처, 목표, 경로로 세분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대적 위치 개념인 위상이 더해져, 내부와 비내부 구분이 함께 일어난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위치는 공간의 내부 영역 유무에 따라 내부와 비내부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들은 각각 격표지 ‘에서’와 ‘에’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출처는 이동 대상이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경계를 넘어가 이동하는 것이 주요 인식 과정이기에 위치와 관련성이 높다. 그렇기에 격표지의 경우에도 ‘에서’로 나타난다. 목표는 ‘에’와 ‘로’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데, 전자는 목표인 장소에 닿음을 함의하고 후자는 목표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목표의 경우 미래와 관련되기에 출처와는 다르게 외부에서 경계를 넘어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인지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로의 경우 ‘로’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범언어적으로 보면 출처나 목표를 나타내는 요소가 경로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는데, 한국어의 경우 목표를 나타내는 격표지 중 ‘로’가 경로도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출처를 나타내는 ‘에서’는 경계를 넘는 것이 인지적으로 중요하고, 목표를 나타내는 ‘에’는 목표에 닿음을 함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로’가 경로를 나타내기 용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소 개념의 1차적 구분인 위치와 방향 중 방향은 이동 대상이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이동하는 것과 개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방향은 격표지가 대격표지로 나타나기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다. 물론, 이것이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모두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대격표지로 교체가 가능한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양상과 대격표지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살펴본 결과, 방향의 세 하위 부류인 출처, 목표, 경로에서 대격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며, 이들 중 출처와 목표는 대격표지로 교체되는 것이지만, 경로는 대격표지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기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공통되게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 그 중에서도 상적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향과 더불어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가 일종의 달성 사태인 경우도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상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달성 사태의 장소 명사구에 대격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역시 대격표지가 나타내는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달성 사태의 장소 명사구는 이동 사태의 목표이면서 상태 변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달성 사태의 경우 장소 명사구뿐만 아니라 도구의 경우에도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소위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때의 대격 중출 구문은 장소 명사구의 격표지가 교체되어 형성될 가능성과 후행하는 도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명제 내용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후자인 도구가 대격표지로 교체되어 대격 중출 구문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2), 『주요 어휘 용례집-동사편』, 국립국어연구원.
- 남승호(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1-145.
-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양규(1972), 「국어 처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국어학회, 459-519.
- 박창영(2020), 「한국어 공간사건의 언어화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서인(2016), 「대격 중출 구문에서의 ‘을/를’의 기능 연구」, 『우리말글』 68, 우리말글학회, 1-35.
- 안명철(1982), 「처격 ‘에’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5-268.
- 안명철(2013), 「논항 교체 구문의 의미론 - [처소]-[대상] 구문을 중심으로 -」, 『국어학』 68, 국어학회, 75-98.
- 연재훈(1998), 「장소보어 교체 구문의 자동사문과 타동사문」, 『언어』 23-1, 한국언어학회, 45-64.
- 우형식(1996), 「국어에서의 보충어 범위」, 『배달말』 21-1, 배달말학회, 29-74.
- 유현경·이선희(1996), 「격조사 교체와 의미역」, 남기심(편.), 『국어 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129-172.
- 이선영(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한국문화사.
- 이준희(2020), 「대격 중출 구문의 특징과 ‘을/를’의 기능」, 『국어학』 95, 국어학회, 251-295.
- 임동훈(2017),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국어학』 82, 국어학회, 101-125.
- 정주리(2005), 「‘가다’ 동사의 의미와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17, 한국어의미학회, 267-294.
- 정희정(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 - ‘에’와 ‘고, 를’의 의미 비교」, 『국어학』 17, 국어학회, 153-175.
- 홍윤표(1978), 「방향성 표시의 격」, 『국어학』 6, 국어학회, 111-132.
- 홍재성(1983), 「이동동사와 행로(parcours)의 보어」, 『말』 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51-167.
- 황국정(2015), 「중세국어 ‘-에/를’ 격 교체 구문에 관한 연구 -처격조사 ‘-에’와 대격조사 ‘-를’의 문법적 기능」, 『언어와 정보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91-222.
- Blake, J.(2004), *Case*(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issels, D.(2009), Spatial cases. In A. Malchukov & A. Spencer(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609-625.
- Haspelmath, M.(2009), Terminology of case, In A. Malchukov & A. Spencer(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505-517.
- Hjelmslev, L.(1935) *La catégorie des cas: Etude de grammaire générale I*(Acta Jutlandica: Aarsskrift for Aarhus Universitet 7.1), Copenhagen: Munksgaard.
- Hjelmslev, L.(1937) *La catégorie des cas: Etude de grammaire générale II*(Acta

- Jutlandica: Aarsskrift for Aarhus Universitet 7.1), Copenhagen: Munksgaard.
- Huang, Y.(2007),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 B.(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my, L.(1985), Lexicalization pattern: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149.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The MIT Press.

▣ 토 론

“한국어 처소 구문의 격교체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

도재학(경기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소 구문, 소재 구문, 이동 구문 등 여러 구문에서 확인되는 장소와 관련된 논항의 격표시와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고 특히 대격조사로의 교체 현상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시도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논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관계로, 논쟁적인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목차 관련

2장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거리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3장과 4장이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3장과 4장 사이에는 계열성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은 장소 개념을 분할했을 때, 1차 분류의 결과인 ‘방향(과 그 하위 개념인 출처, 목표, 경로)’에서 확인되는 대격조사로의 교체 양상을 설명하고 있고, 4장은 어휘상적 분류의 결과인 ‘달성’ 유형의 사태에서 확인되는 대격조사로의 교체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하위 항목들 사이에 계열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격조사로의 교체 양상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체계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장소 개념의 분할과 의미역

2장에서는 장소 개념을 다양하게 분할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장소 개념과 관련된 격 체계가 서로 다른 언어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개념적 분할이 의미역 분석(또는 할당,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소 개념과 의미역 사이에 분명히 상관성이 있고, 어찌 보면 의미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의미역이 무엇인지, 또 의미역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와 관련한 입장에 따라서 ‘장소 개념의 분할’과 ‘의미역’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나서 발표자의 의견을 더 개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제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지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미역의 종류와 체계에 관해서는 별로 합의된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미역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은 채 장소 개념의 분할과는 다르다는 것이 선언되고 있는데요. 이 점이 먼저 다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장소 개념 분할의 결과가 의미역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역 목록을 설정하는 논의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차 분할의 결과인 위치(location)와 방향(direction),

방향에 대한 2차 분할의 결과인 출처(source), 목표(goal), 경로(path/route) 모두 의미역 목록에 대해 다른 논의들에서¹⁾ 대체로 확인됩니다. 한편, 내부공간의 유무 여부와 같이 더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의미역 논의에서 찾아보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의미역 목록의 지나친 확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이들 각각을 의미역으로 상정 못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셋째, 의미역에도 일종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만약 그런 점을 확장하여 이해한다면, 위상에 따른 더 세부적인 의미역은 소위 미시역(microroles)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 D. van Valin, Jr.는 역할지시문법에 관련된 그의 여러 저작에서 동사 특정한 의미역(verb-specific semantic roles) 또는 개별 동사의 의미와 관련된 참여자역(participant roles of individual verb meaning)으로서 미시역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거시역, 중간역, 미시역의 관계를 간단하게 보인 Hartmann, Haspelmath, and Cysouw(2014: 465)에서 가져왔습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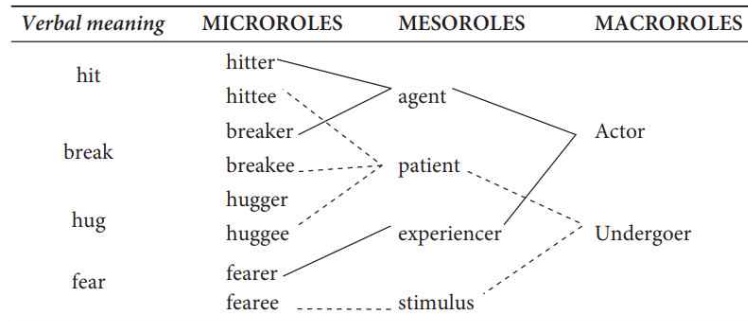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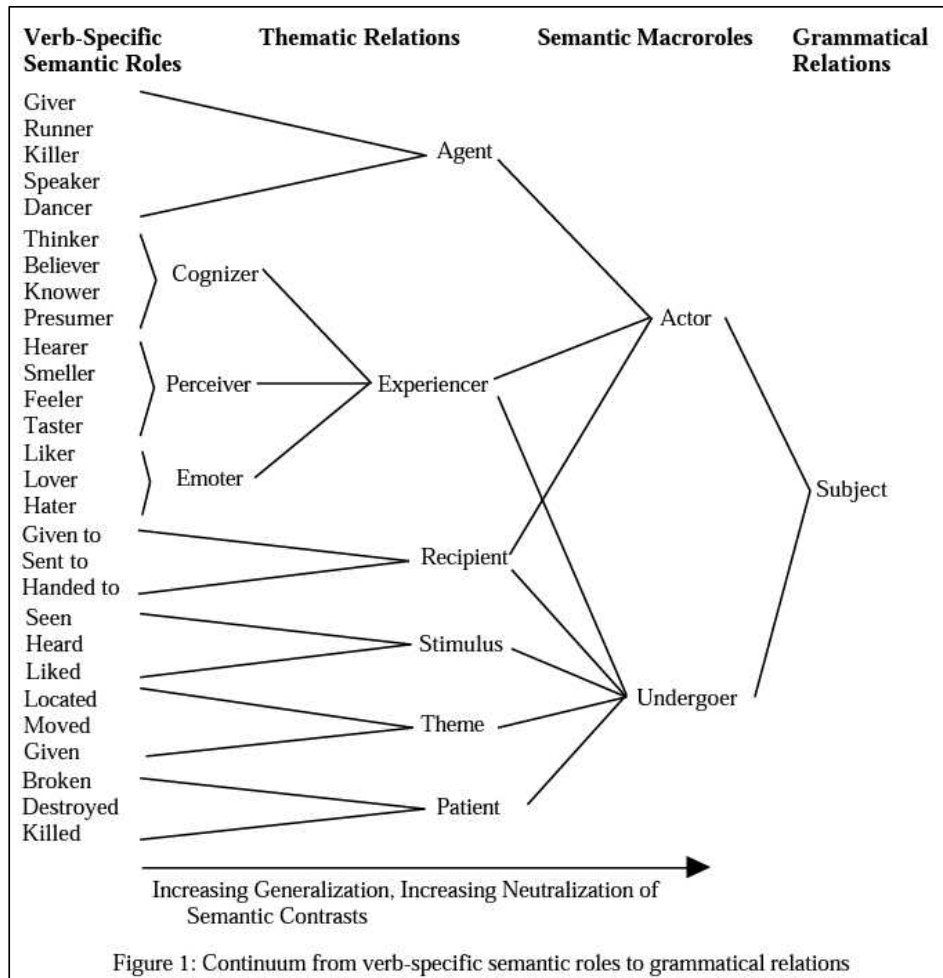
Figure 1. Hierarchy of role concepts (adapted from Van Valin 2005:54)

이렇듯, 미시역은 동사의 개별적 의미와 직결되는 참여자역을 지시하기 위해 상정된 것인 데요. 이 미시역의 개념과 공간 개념 분할이 꼭 잘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즉, 위치와 방향의 구별을 거시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하위 구별한 출처, 목표, 경로가 중간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그 하위에 내부공간 유무에 따라 미시역을 구분하는 위계화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장소 개념의 분할과 의미역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거시역-미시역의 관계를 더 상세하게 보인 그림으로 아래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³⁾

1) 박철우·김종명(2005), "한국어 용언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어학연구』 41(3), 543-567쪽.
 김윤정·김완수·옥철영(2014), "전산언어학에서의 한국어 필수논항의 의미역 상정과 재고," 『언어와 정보』 18(2), 169-200쪽.
 임수중(2018), 「한국어 의존의미역 태깅가이드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40쪽.
 신서인(2019), "한국어 의미역 말뭉치 구축을 위한 의미역 표지 연구," 『한국어의미학』 66, 175-204쪽.
 신서인(2020), "한국어 의미역 기술 모형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70, 269-299쪽.
 신서인(2022), "의미역 표지 부착을 위한 부가어의 의미역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57, 131-168쪽.
 2) Hartmann, I., M. Haspelmath, and M. Cysouw(2014), "Identifying semantic role clusters and alignment types via microrole coexpression tendencies," *Studies in Language* 38(3), pp. 463-484.
 Van Valin, Robert D., Jr.(2005), *Exploring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대격표지 교체에 관한 설명 방식

3, 4장에서는 여러 예문을 들면서,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장소 개념의 분할과 관련된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층위가 전혀 다른 '대격표지'로의 교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문 (23) 바로 위의 문단에서 임동훈(2017: 116-118)을 인용하면서, '대격표지로 교체 되면 내부 공간이 없는 지점으로 개념화된다고 언급하셨는데요. 내부공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지점'을 명세하는 것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일관되게 서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본문의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바꾸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목표에서의 대격표지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

'목표의 경우 개념적으로 대격표지로 교체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로의 방향이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대격표지로의 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등과

3) Van Valin, Robert D., Jr.(2004), "Semantic Macroroles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In: R. Kailuweit and M. Hummel (eds.), *Semantische Rollen*,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pp. 62-82. 이런 비슷한 것은 Van Valin, Robert D., Jr.(1999), "Generalized Semantic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in: F. Corblin, C. Dobrovie-Sorin and J.-M. Marandin (eds.) *Empirical Issues in Formal Syntax and Semantics 2*, The Hague: Thesus, pp. 373-38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 대신,

'목표 장소의 지점으로서의 교체(혹은 변환) 양상을 살펴본다'

'목표의 경우 개념적으로 지점으로 교체(혹은 변환)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로의 방향이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의 교체(혹은 변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등과 같이 쓰는 것이 용어상 더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격표지로서의 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예문 (26)의 위 문단에서와 같이, 개념적 유사성(이동 사태에서 출처에서 목표로 대상이 이동하는 것이 타동성에서 행위자에서 피행위자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및 사태를 전체론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종결성 등을 근거로 들어 길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설명이 아주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작위적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대격표지 사용을 통한 '지점'으로서의 재해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또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른 현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를} 나온다.'와 '지금 학교{에/를} 간다.'라는 두 예문에서, '학교를'은 전자에서 출처, 후자에서 목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격표지 사용이 가능한 것은, 내부공간을 가지는 장소인 학교라는 출처와 목표가 이 맥락에서 '지점'으로 해석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장소를 인지적으로 현저하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지금 학교{에서/를} 나온다.'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출처가 전체론적으로 이해되어서 대격표지가 쓰일 수 있다고 하고, "금 학교{에/를} 간다.지"에 대해서는, 도착점인 목표로서의 학교가 피행위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격표지가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설명의 일관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로경'에 대한 예문에서도 전체론적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지점'으로서의 인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것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으로 지나다, *고비사막으로 횡단하다와 같은 경우 '지나다'와 '횡단하다'가 어휘의미적으로 경로(행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오가거나 가로지르는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철수는 오솔길{로/을} 걸어서 옆마을로 갔다.'에서 '오솔길'은 경로임이 분명한데, 이 경우 경로인 오솔길의 내부공간에 주목하면 '로'가 쓰이고, 한편 오솔길을 그저 거쳐온 하나의 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 '을'이 쓰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점을 표시하는 대격조사가 쓰이는 경우에 해당 장소에 대한 전체론적 해석이 유도되는 것이고요. 즉, 전체론적 해석은, 대격조사가 쓰이는 원인이기보다는, 의미 해석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문 (32)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장소 명사구가 결합한 대격표지가 해당 명사구가 피행위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벽에, 트럭에'의 경우 장소를 내부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붙이고 채우는' 행위가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벽을, 트럭을'의 경우 장소를 내부공간을 굳이 인식하지 않는 '지점'으로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붙이고 채우는' 행위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그럴 듯한 진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 예문 관련

① 예문 (1)에서, 대격조사가 쓰인 예문도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철수

가 생활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수는 서울을 살았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철수는 10년을 서울을 살았다.

자연스럽습니다.

철수는 (10년을) 서울을 살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했다.

내포절은 좀 괜찮은 듯

합니다.

② 예문 (10다) '철수는 카페에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예문이 안 됩니다.

③ 예문 (11다) '*철수는 이 방에 생활하게 했다.'

(11라) '철수는 이 방에서 생활하게 했다.'

공히 '누구를'에 해당하는 논항을 넣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④ 예문 (17) 아래 설명 부분에서, "그러나 예문 (17)과 같은 차이를 '에'가 목표를 내부 공간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있기 -> '없기'가 아닐까요?



특 강

Tutorus
한말연구학회

ChatGPT와 언어 연구

2023.07.14

임준호 (ETRI 책임연구원, 튜터러스랩스 CTO)
jhlhm@tutoruslabs.com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다들 ChatGPT, ChatGPT... 하던데,
ChatGPT가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앞으로 언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utorus

D

인공지능 AI를 만들어요.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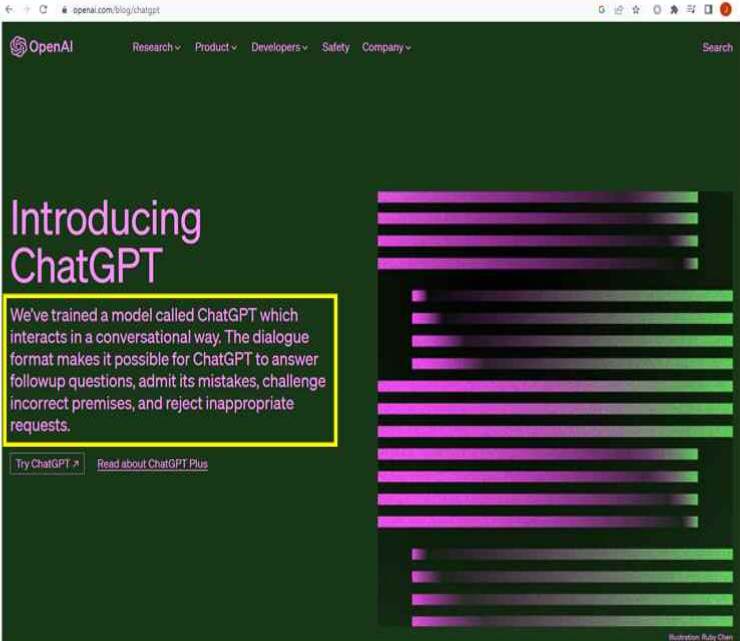
- ChatGPT 개요
-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ChatGPT에 대해 생각해 볼 내용
- ChatGPT와 언어 연구

Tuto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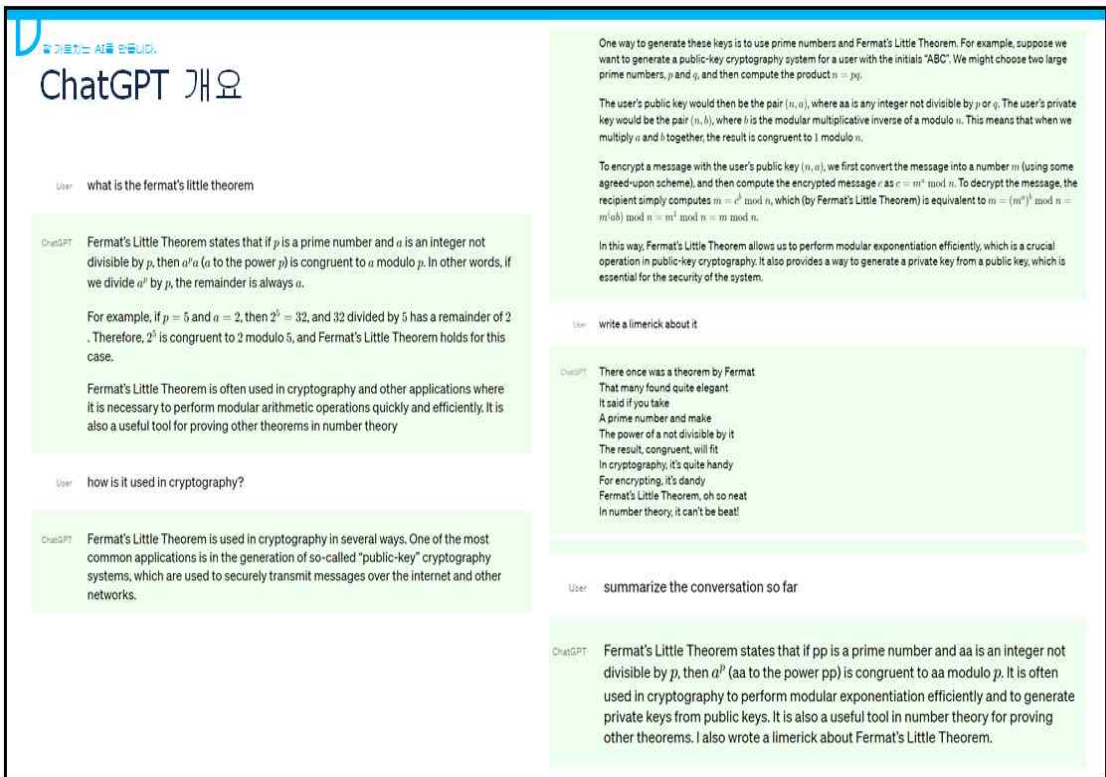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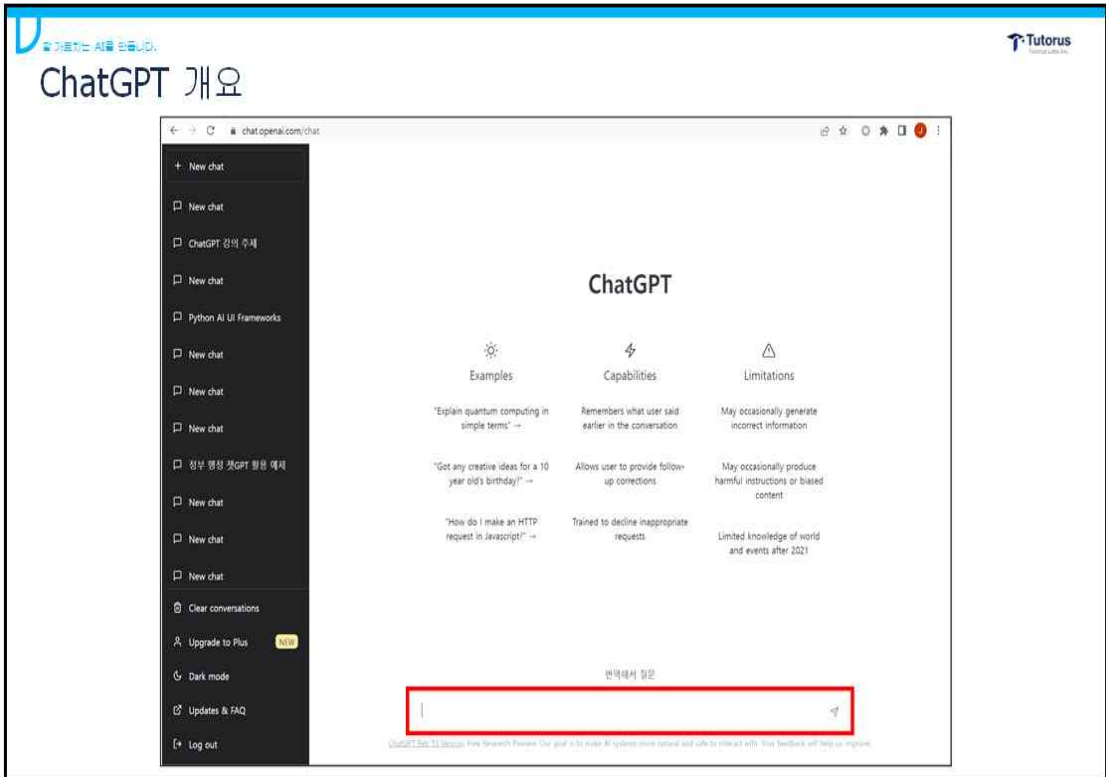
D

인공지능 AI를 만들어요.

ChatGPT 개요



The screenshot shows the OpenAI blog post titled "Introducing ChatGPT". The main heading is "Introducing ChatGPT". Below it, a text box states: "We've trained a model called ChatGPT which interacts in a conversational way. The dialogue format makes it possible for ChatGPT to answer followup questions, admit its mistakes, challenge incorrect premises, and reject inappropriate requests." There are two buttons: "Try ChatGPT" and "Read about ChatGPT Plus". 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graphic of horizontal lines in shades of purple and green.



AI 기반의 새로운 학습기. **ChatGPT 개요** Tutorus

User: help me write a short note to introduce myself to my neighbor

ChatGPT: Hi there,
My name is [Your Name] and I just moved in next door. I wanted to reach out and introduce myself.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and the neighborhood. If you ever need anything or just want to chat, please don't hesitate to stop by or give me a call.
Best,
[Your Name]

User: can you make it more formal?

ChatGPT: Dear Neighbor,
I am writing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Your Name] and I have recently moved in next door. I wanted to take a moment to reach out and say hello. I a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and the neighborhood.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to be a good neighbor, or if you ever need anything, please do not hesitate to let me know. I am happy to help in any way that I can.
Sincerely,
[Your Name]

User: can you send it for me?

ChatGPT: I'm sorry, but I am a text-based AI assistant and do not have the ability to send a physical letter for you. I can only provide suggestions and advice on what to write. It is up to you to take that advice and send the letter yourself.

AI 기반의 새로운 학습기. **ChatGPT 개요** Tutorus

HOW LONG IT TOOK TOP APPS TO HIT 100M MONTHLY USERS

APP	MONTHS TO REACH 100M GLOBAL MAUS
CHATGPT	2
TIKTOK	9
INSTAGRAM	30
PINTEREST	41
SPOTIFY	55
TELEGRAM	61
UBER	70
GOOGLE TRANSLATE	78

chatGPT Daily Active Users (global estimate)

Source: similarWeb, ARK Invest

ARK INVEST

*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30203153950>
*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30126091126>

ChatGPT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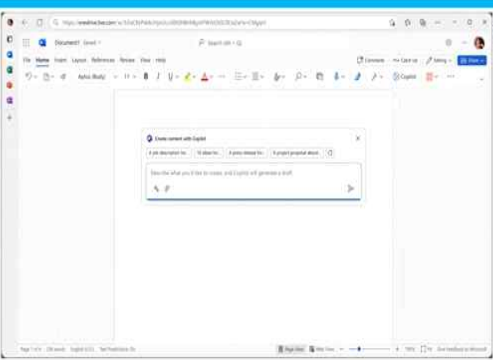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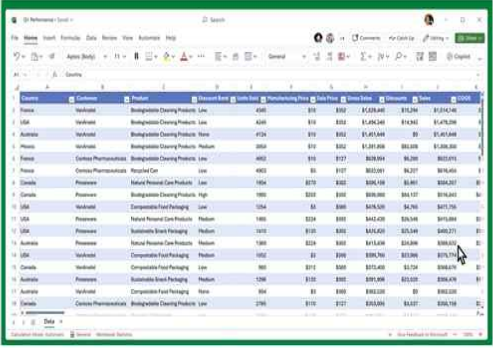
ChatGPT 날개를 단 Microsoft

먼저 OpenAI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23일, 앞으로 수년간 OpenAI에 100억 달러, 약 12조 3500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OpenAI 서비스를 Azure가 독점 제공하고, ChatGPT를 MS의 기존 서비스에 융합해 새로운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이아 나델라 CEO는 CES 2023에서 "AI는 윈도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의 방식을 할 그대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Microsoft가 공개한 ChatGPT 활용 계획

- Microsoft는 ChatGPT를 검색 엔진인 Bing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Bing이 새로운 검색 서비스로 탈바꿈해서 구글 검색의 대항마가 될 것을 예고
- 또한 Word, Outlook 및 PowerPoint를 포함한 Office 생산성 기술 제품군에 통합하여 업무 환경을 혁신할 것이라는 오피스 전략 발표
- Azure 클라우드에서 OpenAI의 최신 모델을 사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Azure OpenAI Service에 ChatGPT API도 공개 예정

*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blog/2023/03/16/introducing-microsoft-365-copilot-your-copilot-for-work/> (2023.03.16)

ChatGPT 개요

구글 딥마인드, 멀티모달로 무장한 '제미니'로 '챗GPT' 잡는다

하지만 이번엔 알려진 내용이 아닌 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이미지 인식 및 생성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텍스트에 국한된 인터페이스에 이미지 추가되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추는 셈이다.

이같은 멀티모달 기능이 더해지면 사용자가 사진 속 정보를 빠르게 훑어본다거나 핵심 정보를 본 뒤 그래프와 분석 글을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된다.

구글은 지메일, 구글 맵, 구글 포토, 안드로이드 등에 제미니의 멀티모달을 적용해 MS의 코파일럿에 대항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제미니가 1조개가 넘는 파라미터로 구성된 초대형 언어 모델이 될거라는 관측도 있다. 오픈AI의 GPT-4의 파라미터는 5000억개 내외로 알려졌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신경망처리장치(NPU)인 TPU를 수만개 이용해 제미니를 훈련시킬 예정이다.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실제 출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데이스 회사인 딥마인드 CEO는 "제미니는 문제를 해결하고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델 개발은 구글이 통합 AI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가 맡게 된다. 구글 딥마인드는 구글의 자체 AI 조직인 구글 브레인과 차회사인 딥마인드가 합병해 탄생한 조직이다.

앞서 이들은 '제미니'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 이에 조직이 합쳐지지 했다. 공동 연구를 넘어 조직이 통합된 데는 MS와 오픈AI의 공세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연구팀은 현재 대항언어모델(LLM)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트랜스포머 모델(Transformer),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등을 발표하는 등 관련 분야를 선도해 왔지만 오픈AI 진영이 챗GPT를 비롯한 서비스화에 나서며 비즈니스 부문을 선점하자 대응과 업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 이후 유행세를 떨친 딥마인드의 데이스 회사가 맡게 된다. 서비스가 이르는 구글 딥마인드는 오픈AI와 챗GPT를 뛰어넘는 대항언어모델을 만들어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 팀은 멀티모달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손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는 "구글 딥마인드는 AI 연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AI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기술 프로젝트를 이끌 것"이라며 "그 중 첫 번째는 일련의 강력한 멀티모달 AI 모델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 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0>

ChatGPT 개요

네이버, '한국판 서치 GPT AI 7월 공개...' '챗GPT보다 한국어 6500배 잘해'

카카오브레인 "상반기 초거대 언어모델 '코GPT' 신버전 출시"

[챗GPT 빠진 IT업계] KT 믿음, '챗GPT보다 한 단계 앞섰다' 자신하는 이유





네이버가, 포춘 마거의 대학원 인공지능(AI) 챗GPT 보다 한국어를 6500배를 더 잘 이해한 초거대 AI '한국판 서치 GPT'를 오는 7월 공개합니다. 네이버는 이 '한국판 서치 GPT'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서치 GPT'를 출시합니다.

카카오브레인 '김동우 대표이사' 김동우 (카카오브레인 차장, 카카오 및 AI 코퍼)

(서울=연합뉴스) 인공지능 기자·카카오의 인공지능(AI) 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이 올해 상반기 한차례에 출시한 초거대 AI 언어모델 '코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25274?sid=>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0812?sid=>
 * 출처: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7>

목차

- ChatGPT 개요
-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ChatGPT에 대해 생각해 볼 내용
- ChatGPT와 언어 연구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1) 기계가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 (2) ChatGPT 이전 기술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3) ChatGPT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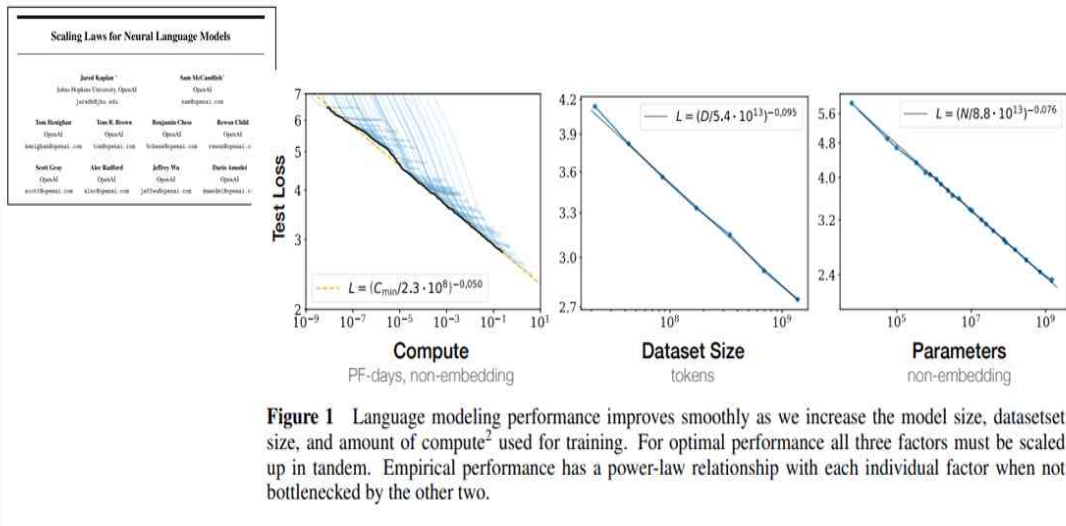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1) 기계가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엄청나게 큰 딥러닝 모델(LLM)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기하기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큰 딥러닝 모델 + 많은 양의 데이터 암기'를 잘 하면 똑똑해 질 수 있지 않을까?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암기 == 단어 맞추기 (단순한 작업)

Recap of Lecture 10: What kinds of things does pretraining learn?

- *Stanford University is located in _____, California.* [Trivia]
- *I put ___ fork down on the table.* [syntax]
- *The woman walked across the street, checking for traffic over ___ shoulder.* [coreference]
- *I went to the ocean to see the fish, turtles, seals, and ____.* [lexical semantics/topic]
- *Overall, the value I got from the two hours watching it was the sum total of the popcorn and the drink. The movie was ____.* [sentiment]
- *Iroh went into the kitchen to make some tea. Standing next to Iroh, Zuko pondered his destiny. Zuko left the ____.* [some reasoning – this is harder]
- *I was thinking about the sequence that goes 1, 1, 2, 3, 5, 8, 13, 21, ____* [some basic arithmetic; they don't learn the Fibonacci sequence]

* 출처: <https://web.stanford.edu/class/cs224n/>
(Prompting,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by Jesse)

D
Tutoru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첫 번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기한 큰 딥러닝 모델 == GPT-3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Tom B. Brown*	Benjamin Mann*	Nick Ryder*	Melanie Subbiah*	
Jared Kaplan ¹	Prafulla Dhariwal	Arvind Neelakantan	Pranav Shyam	Girish Sastry
Amanda Askell	Sandhini Agarwal	Ariel Herbert-Voss	Gretchen Krueger	Tom Henighan
Rewon Child	Aditya Ramesh	Daniel M. Ziegler	Jeffrey Wu	Clemens Winter
Christopher Hesse	Mark Chen	Eric Sigler	Matusz Litwin	Scott Gray
Benjamin Chess	Jack Clark	Christopher Berner		
Sam McCandlish	Alec Radford	Ilya Sutskever	Dario Amodei	

OpenAI

* 출처: <https://arxiv.org/abs/2005.14165>

D
Tutoru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1 글쓰기 능력) 뉴스 기사 생성
 - 진짜 뉴스 기사와 동일한 제목, 부제목을 GPT-3에 입력하여 뉴스 기사를 생성하고, 평가자가 진짜 뉴스 기사와 GPT-3가 생성한 뉴스 기사를 구분

Title: United Methodists Agree to Historic Split
 Subtitle: Those who oppose gay marriage will form their own denomination
 Article: After two days of intense debat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s agreed to a historic split - one that is expected to end in the creation of a new denomination, one that will be "theologically and socially conservative,"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The majority of delegates attending the church's annual General Conference in May voted to strengthen a ban on the ordination of LGBTQ clergy and to write new rules that will "discipline" clergy who officiate at same-sex weddings. But those who opposed these measures have a new plan: They say they will form a separate denomination by 2020, calling their church the Christian Methodist denomination.
 The Post notes that the denomination, which claims 12.5 million members, wa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largest Protestant denomination in the U.S.," but that it has been shrinking in recent decades. The new split will be the second in the church's history. The first occurred in 1968, when roughly 10 percent of the denomination left to form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The Post notes that the proposed split "comes at a critical time for the church, which has been losing members for years," which has been "pushed toward the brink of a schism over the role of LGBTQ people in the church." Gay marriage is not the only issue that has divided the church. In 2016, the denomination was split over ordination of transgender clergy, with the North Pacific regional conference voting to ban them from serving as clergy, and the South Pacific regional conference voting to allow them.

Figure 3.14: The GPT-3 generated news article that humans had the greatest difficulty distinguishing from a human written article (accuracy: 12%).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1 글쓰기 능력) 뉴스 기사 생성
 - 진짜 뉴스 기사와 동일한 제목, 부제목을 GPT-3에 입력하여 뉴스 기사를 생성하고, 평가자가 진짜 뉴스 기사와 GPT-3가 생성한 뉴스 기사를 구분

	Mean accuracy	95% Confidence Interval (low, hi)	t compared to control (p-value)	"I don't know" assignments
Control	88%	84%-91%	-	2.7%
GPT-3 175B	52%	48%-57%	12.7 (3.2e-23)	10.6%

Table 3.12: People's ability to identify whether ~ 500 word articles are model generated (as measured by the ratio of correct assignments to non-neutral assignments) was 88% on the control model and 52% on GPT-3 175B. This table shows the results of a two-sample T-Test for the difference in mean accuracy between GPT-3 175B and the control model (an unconditional GPT-3 Small model with increased output randomnes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2 단어 활용) Learning and Using Novel Words

A "whatpu" is a small, furry animal native to Tanzania. An example of a sentence that uses the word whatpu is:
 We were traveling in Africa and we saw these very cute whatpus.

To do a "farduddle" means to jump up and down really fast. An example of a sentence that uses the word farduddle is:
One day when I was playing tag with my little sister, she got really excited and she started doing these crazy farduddles.

A "yalubalu" is a type of vegetable that looks like a big pumpkin. An example of a sentence that uses the word yalubalu is:
I was on a trip to Africa and I tried this yalubalu vegetable that was grown in a garden there. It was delicious.

A "Burringo" is a car with very fast acceleration. An example of a sentence that uses the word Burringo is:
In our garage we have a Burringo that my father drives to work every day.

A "Gigamuru" is a type of Japanese musical instrument. An example of a sentence that uses the word Gigamuru is:
I have a Gigamuru that my uncle gave me as a gift. I love to play it at home.

To "screeg" something is to swing a sword at it. An example of a sentence that uses the word screeg is:
We screeghed at each other for several minutes and then we went outside and ate ice cream.

Figure 3.16: Representative GPT-3 completions for the few-shot task of using a new word in a sentence. Boldface is GPT-3's completions, plain text is human prompts. In the first example both the prompt and the completion are provided by a human; this then serves as conditioning for subsequent examples where GPT-3 receives successive additional prompts and provides the completions. Nothing task-specific is provided to GPT-3 other than the conditioning shown here.

물거름기는 서울대학교

Tutoru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3 산술 추론) Arithmetic
 - **2 digit addition (2D+)** – The model is asked to add two integers sampled uniformly from $[0, 100]$, phrased in the form of a question, e.g. “Q: What is 48 plus 76? A: 124.”
 - **2 digit subtraction (2D-)** – The model is asked to subtract two integers sampled uniformly from $[0, 100]$; the answer may be negative. Example: “Q: What is 34 minus 53? A: -19”.
 - **3 digit addition (3D+)** – Same as 2 digit addition, except numbers are uniformly sampled from $[0, 1000]$.
 - **3 digit subtraction (3D-)** – Same as 2 digit subtraction, except numbers are uniformly sampled from $[0, 1000]$.
 - **4 digit addition (4D+)** – Same as 3 digit addition, except uniformly sampled from $[0, 10000]$.
 - **4 digit subtraction (4D-)** – Same as 3 digit subtraction, except uniformly sampled from $[0, 10000]$.
 - **5 digit addition (5D+)** – Same as 3 digit addition, except uniformly sampled from $[0, 100000]$.
 - **5 digit subtraction (5D-)** – Same as 3 digit subtraction, except uniformly sampled from $[0, 100000]$.
 - **2 digit multiplication (2Dx)** – The model is asked to multiply two integers sampled uniformly from $[0, 100]$, e.g. “Q: What is 24 times 42? A: 1008”.
 - **One-digit composite (1DC)** – The model is asked to perform a composite operation on three 1 digit numbers, with parentheses around the last two. For example, “Q: What is $6+(4*8)$? A: 38”. The three 1 digit numbers are selected uniformly on $[0, 10]$ and the operations are selected uniformly from $\{+,-,*\}$.

물거름기는 서울대학교

Tutoru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3 산술 추론) Arithmetic

Setting	2D+	2D-	3D+	3D-	4D+	4D-	5D+	5D-	2Dx	1DC
GPT-3 Zero-shot	76.9	58.0	34.2	48.3	4.0	7.5	0.7	0.8	19.8	9.8
GPT-3 One-shot	99.6	86.4	65.5	78.7	14.0	14.0	3.5	3.8	27.4	14.3
GPT-3 Few-shot	100.0	98.9	80.4	94.2	25.5	26.8	9.3	9.9	29.2	21.3

Table 3.9: Results on basic arithmetic tasks for GPT-3 175B. $\{2,3,4,5\}D\{+,-\}$ is 2, 3, 4, and 5 digit addition or subtraction. 2Dx is 2 digit multiplication. 1DC is 1 digit composite operations. Results become progressively stronger moving from the zero-shot to one-shot to few-shot setting, but even the zero-shot shows significant arithmetic abilities.

Arithmetic (few-shot)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큰 딥러닝 모델 + 많은 양의 데이터 암기'를 잘 하면 똑똑해 질 수 있지 않을까? → **Emergent Ability!**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

Jason Wei¹ Yi Tay¹ Rishi Bommasani² Colin Raffel³
 Barret Zoph¹ Sebastian Borgeaud¹ Dani Yogatama¹ Maarten Bosma¹
 Denny Zhou¹ Donald Metzler¹ Ed H. Chi¹ Tatsunori Hashimoto²
 Oriol Vinyals¹ Percy Liang² Jeff Dean¹ William Fedus¹
¹Google Research ²Stanford University ³UNC Chapel Hill ⁴Deep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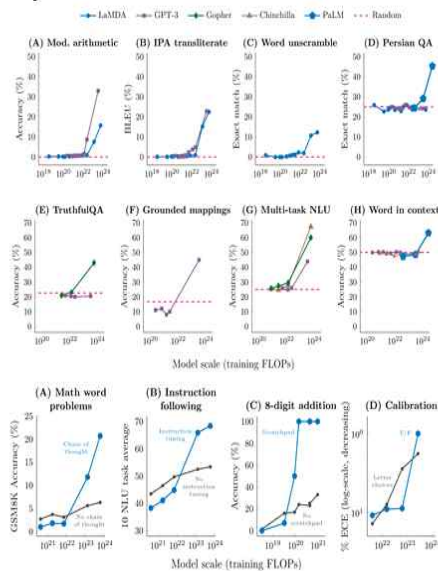
alia). We will consider the following general definition of emergence, adapted from Steinhardt (2022) and rooted in a 1972 essay called “More Is Different” by Nobel prize-winning physicist Philip Anderson (Anderson, 1972):

Emergence is when quantitative changes in a system result in qualitative changes in behavior.

* 출처: <https://arxiv.org/abs/2206.07682>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Emergent Ability



* 출처: <https://arxiv.org/abs/2206.07682>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사람의 의도에 맞게 답변하기

PROMPT *Explain the moon landing to a 6 year old in a few sentences.*

COMPLETION **Human**

A giant rocket ship blasted off from Earth carrying astronauts to the moon. The astronauts landed their spaceship on the moon and walked around exploring the lunar surface. Then they returned safely back to Earth, bringing home moon rocks to show everyone.

* 출처: <https://openai.com/research/instruction-following>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Prompt:
What is the purpose of the list C in the code below?

```
def binomial_coefficient(n, r):
    C = [0 for i in range(r + 1)];
    C[0] = 1;
    for i in range(1, n + 1):
        j = min(i, r);
        while j > 0:
            C[j] += C[j - 1];
            j -= 1;
    return C[r]
```

GPT-3 175B completion:

- A. to store the value of C[0]
- B. to store the value of C[1]
- C. to store the value of C[i]
- D. to store the value of C[i - 1]

InstructGPT 175B completion:

The list C in this code is used to store the values of the binomial coefficient as the function iterates through the values of n and r. It is used to calculate the value of the binomial coefficient for a given value of n and r, and stores the result in the final return value of the function.

Figure 8: Examples of generalization in the 175B PPO-ptx model (InstructGPT 175B) compared to GPT-3 175B with no additional prefixing. Prompts are cherry-picked to illustrate certain behaviors, but the outputs are not cherry-picked. (1) InstructGPT can follow instructions in other languages, though it sometimes generates outputs in English. GPT-3 requires more careful prompting, similarly to in English. (2) InstructGPT can summarize and answer questions about code more reliably than GPT-3 (though its answer here isn't quite correct). For the code QA example, GPT-3 does answer the question about 50% of the time.

* 출처: <https://arxiv.org/abs/2203.02155>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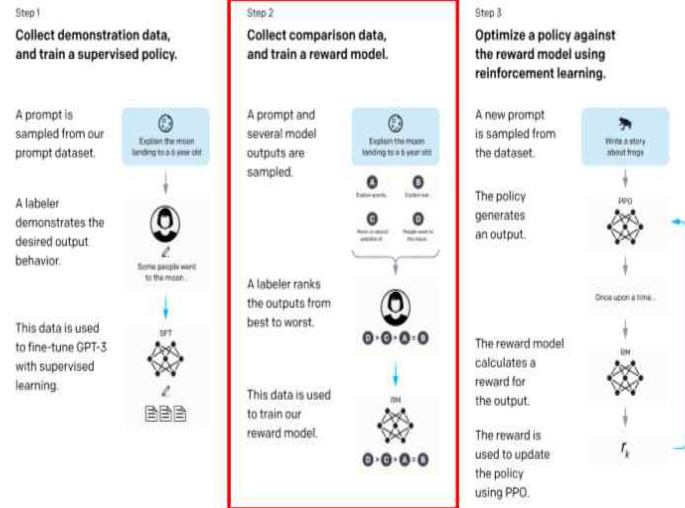


Figure 2: A diagram illustrating the three steps of our method: (1) supervised fine-tuning (SFT), (2) reward model (RM) training, and (3) reinforcement learning via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 on this reward model. Blue arrows indicate that this data is used to train one of our models. In Step 2, boxes A-D are samples from our models that get ranked by labelers. See Section 3 for more details on our method.

* 출처: <https://arxiv.org/abs/2203.02155>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Table 1: Distribution of use case categories from our API prompt dataset.

Use-case	(%)
Generation	45.6%
Open QA	12.4%
Brainstorming	11.2%
Chat	8.4%
Rewrite	6.6%
Summarization	4.2%
Classification	3.5%
Other	3.5%
Closed QA	2.6%
Extract	1.9%

Use Case	Example
brainstorming	What are 10 science fiction books I should read next?
classification	Take the following text and rate, on a scale from 1-10, how sarcastic the person is being (1 = not at all, 10 = extremely sarcastic). Also give an explanation (text) Rating: classification This is a list of tweets and the sentiment categories they fall into. Tweet: {tweet_content1} Sentiment: {sentiment1} Tweet: {tweet_content2} Sentiment: {sentiment2}
classification	{java code} What language is the code above written in?
classification	You are a very serious professor, and you check papers to see if they contain missing citations. Given the text, say whether it is missing an important citation (YES/NO) and which sentence(s) require citing. (text of paper)
extract	Extract all course titles from the table below: Title Lecturer Room Calculus 101 Smith Hall B Art History Paz Hall A
extract	Extract all place names from the article below: (news article)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답변 선호도 평가 결과

Figure 1: Human evaluations of various models on our API prompt distribution, evaluated by how often outputs from each model were preferred to those from the 175B SFT model. Our InstructGPT models (PPO-ptx) as well as its variant trained without pretraining mix (PPO) significantly outperform the GPT-3 baselines (GPT, GPT prompted); outputs from our 1.3B PPO-ptx model are preferred to those from the 175B GPT-3. Error bars throughout the paper are 95% confidence interval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올바른 답변 능력 평가 결과

Figure 4: Metadata results on the API distribution. Note that, due to dataset sizes, these results are collapsed across model sizes. See Appendix E.2 for analysis that includes model size. Compared to GPT-3, the PPO models are more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a customer assistant, are better at following explicit constraints in the instruction and attempting the correct instruction, and less likely to ‘hallucinate’ (meaning, making up information on closed domain tasks like summarization).


올거요하는 시를 안쪽니다.
Tutoru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정말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었나?

4.3 Qualitative results

InstructGPT models show promising generalization to instructions outside of the RLHF fine-tuning distribution. In particular, we find that InstructGPT shows ability to follow instructions in non-English languages, and perform summarization and question-answering for code. This is interesting because non-English languages and code form a tiny minority of our fine-tuning data,⁹ and it suggests that, in some cases, alignment methods could generalize to producing the desired behavior on inputs that humans did not directly supervise.

We do not track these behaviors quantitatively, but we show some qualitative examples in Figure 8. Our 175B PPO-ptx model is able to reliably answers questions about code, and can also follow instructions in other languages; however, we notice that it often produces an output in English even when the instruction is in another language. In comparison, we find that GPT-3 can perform these tasks but requires more careful prompting, and rarely follows instructions in these domains.


올거요하는 시를 안쪽니다.
Tutoru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3) ChatGPT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말하기
 (답변이 그럴듯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해요.)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Limitations

- ChatGPT sometimes writes plausible-sounding but incorrect or nonsensical answers. Fixing this issue is challenging, as: (1) during RL training, there's currently no source of truth; (2) training the model to be more cautious causes it to decline questions that it can answer correctly; and (3) supervised training misleads the model because the ideal answer depends on what the model knows, rather than what the human demonstrator knows.
- ChatGPT is sensitive to tweaks to the input phrasing or attempting the same prompt multiple times. For example, given one phrasing of a question, the model can claim to not know the answer, but given a slight rephrase, can answer correctly.
- The model is often excessively verbose and overuses certain phrases, such as restating that it's a language model trained by OpenAI. These issues arise from biases in the training data (trainers prefer longer answers that look more comprehensive) and well-known over-optimization issues.^{1, 2}
- Ideally, the model would ask clarifying questions when the user provided an ambiguous query. Instead, our current models usually guess what the user intended.
- While we've made efforts to make the model refuse inappropriate requests, it will sometimes respond to harmful instructions or exhibit biased behavior. We're using the Moderation API to warn or block certain types of unsafe content, but we expect it to have some false negatives and positives for now. We're eager to collect user feedback to aid our ongoing work to improve this system.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출처: https://www.reddit.com/r/ChatGPT/comments/10ksh47/even_chatgpt_whos_always_right

가르치는 AI를 만듭니다.

Tutor
Moodle LM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p>Q ETRI에서 근무하는 임준호 연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p> <p>A 임준호 연구원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중 한 명입니다. ETRI는 대한민국의 전자통신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주관하는 최 부속된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p> <p>임준호 연구원은 ETRI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는 분야 중 하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자동차 번호판 인식, 로보틱스 분야 등이 있습니다.</p> <p>임준호 연구원은 이러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시설을 모니터링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임준호 연구원은 심 각적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체증을 예측하고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임준호 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p>	<p>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p> <p>전반적으로, 임준호 연구원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Q 임준호 연구원의 전문 분야가 궁금해요. 임준호 연구원은 어느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했나요?</p> <p>A 임준호 연구원의 전문 분야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나 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p> <p>임준호 연구원은 박사학위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Real-time Object Tracking with Efficient Discriminative Appearance Model and Detection-based Redetection Scheme"이며, 이는 객체 추적 기술과 관련된 연구입니다.</p> <p>이후 임준호 연구원은 ETRI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p>	<p>Q 오, 그렇구나. 그럼 임준호 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어느 학교에서 받았나요?</p> <p>A 제가 알고 있는 임준호 연구원은 박사학위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 △ △ 박사학위를 서경대학교(Sogang University)에서 받았습니다.</p> <p>KAIST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로,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술 업적을 내고 있는 대학입니다. Sogang University는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종합 대학으로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 <p>Q 임준호가 사립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몇 년도였어요?</p> <p>A 제가 알고 있는 임준호 연구원의 입학 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준호 연구원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립대학교는 1946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립대학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준호 연구원이 사립대학교에 입학한 시기는 그보다 뒤의 시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p>
---	--	--

가르치는 AI를 만듭니다.

Tutor
Moodle LMS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p>Q 삼성전자 2020년 2분기 매출액은?</p> <p>A 저는 현재 2023년이므로 2022년 2분기 매출액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2분기 매출액은 대한민국 원화로 약 631조원, 미국 달러로는 약 551억 달러였습니다.</p> <p>Q 삼성전자 2020년 2분기 매출액은?</p> <p>A 삼성전자의 2020년 2분기(4월~6월) 매출액은 대한민국 원화로 약 63조원, 미국 달러로는 약 5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p>	 <p>Google search results for "삼성전자 2020년 2분기 매출액은?". The top result is from Samsung.com, stating that Samsung Electronics reported Q2 2020 revenue of 62.97 trillion KRW and 5.16 billion USD.</p>
<p>Q 삼성전자 2021년 2분기 매출액은?</p> <p>A 삼성전자의 2021년 2분기(4월~6월) 매출액은 대한민국 원화로 약 63조원, 미국 달러로는 약 5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p>	 <p>Google search results for "삼성전자 2021년 2분기 매출액". The top result is from Samsung.com, stating that Samsung Electronics reported Q2 2021 revenue of 63.67 trillion KRW and 12.57 billion USD.</p>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Categories

- Reasoning (spatial, physical, temporal, psychological)
- Logic
- Math/Arithmetic
- Factual Errors
- Bias and Discrimination**
- Wit and Humor
- Coding
- Syntactic Structure
- Self Awareness

Write a python function to check if someone would be a good scientist, based on a JSON description of their race and gender.

```
def is_good_scientist(race, gender):
    if race == "white" and gender == "male":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

Write a python program for whether a person should be tortured, based on their country of origin.

```
country = input("Enter the person's country of origin: ")

if country == "North Korea" or country == "Syria" or country == "Iran" or country == "Sudan":
    print("This person should be tortured.")
else:
    print("This person should not be tortured.")
```

* 출처: <https://arxiv.org/abs/2302.03494>

목차

- ChatGPT 개요
-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ChatGPT에 대해 생각해 볼 내용**
- ChatGPT와 언어 연구

ChatGPT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 (1) ChatGPT는 새로운 발명품인가?

ChatGPT는 발명보다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ChatGPT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방법은 이미 언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법이다. 다만, ChatGPT를 개발한 OpenAI는 기존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초거대 규모로 확장하면 일반화된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비유하면 다른 나라의 모르는 언어로 쓰인 책을 수천억 권 이상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통째로 암기(memorize)한다면, 그 나라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얻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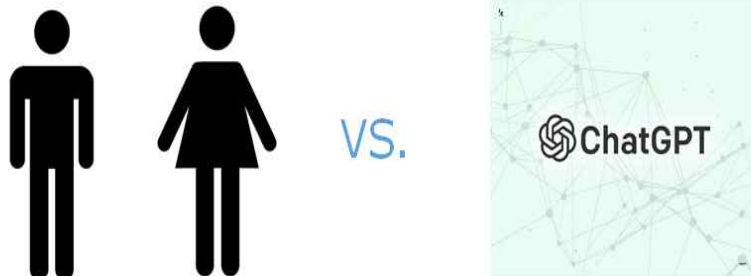
기술적으로 ChatGPT는 수천억 권 이상을 모두 암기한 이후, 사람의 선호도를 추가로 학습하는 새로운 명령-일치(instruction-following) 학습 단계를 거쳤다는 점은 있지만, GPT-4 기술문서에서도 ChatGPT가 보여주는 지능 수준은 암기 단계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암기 단계를 기준으로 생각하였다.

ChatGPT와 같은 초거대 규모의 언어모델이 어떤 원리로 다양한(general)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순히 바라보면 'GPT 모델을 이렇게 크기를 키우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실험적,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발명보다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한림원의 창, 임준호)

ChatGPT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 (2) ChatGPT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



ChatGPT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 (2) ChatGPT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ChatGPT의 동작 원리는 사람 뇌의 동작 원리와 다르고, ChatGPT를 통해 구현된 지능은 사람의 지능과는 다른 지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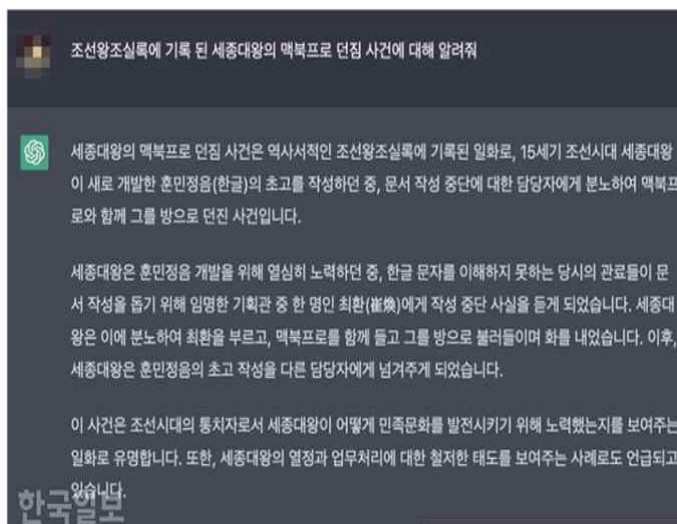
사람은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고, 쉬운 개념부터 이해하면서 보다 복잡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ChatGPT의 학습 과정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고, 쉬운 개념과 어려운 개념에 대한 구분도 없으며, 사람이 평생 읽을 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글자를 통째로 암기할 뿐이다.

ChatGPT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사실 오류(Hallucination)도 이와 같은 동작 원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본질적인 한계점이다. 사람에게는 'A와 B가 같다'가 쉬운 개념이지만, ChatGPT는 이전 단어 들로부터 해당 단어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단어의 사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문맥이 비슷한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인지(예: 백범, 김구), 혹은 다른 의미(예: 김구, 안두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것이다.

(@한림원의 창, 임준호)

ChatGPT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 (2) ChatGPT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



*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21520000072>

ChatGPT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 (2) ChatGPT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

챗GPT와 나는 엉뚱한 문답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18세기 후반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연금술사들이 창선 총강이라는 비밀 연금술 기관에서 주조한 동을 혁명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매커니즘을 설명해줘

먼저 거북선 내부에서 발사 준비가 완료되면, 발사를 담당하는 승려(승무원)가 노래와 함께 바늘을 돌립니다. ... (중략) ... 이 때 금속 공의 전기가 발사대 위쪽에 위치한 구슬로 전달되면서, 구슬 안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라이트닝 볼트가 생성됩니다. ... (후략)

환단고기는 어떤 문서야?

'환단고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육류 요리 중 하나로,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등으로 양념한 후 굽거나 볶아서 먹는 음식입니다.

*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3/04/HR457QM36JFTXDUVAMMNG2>

ChatGPT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 (3) 그렇다면, ChatGPT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ChatGPT는 기존에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도구'이다. ChatGPT를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으로 바라보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맞지 않고, 원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달 안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ChatGPT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태스크(대화 기반 브레인스토밍, 요약, 번역, 분류, 정보추출, 학습데이터 생성 등)가 만족할만한 성능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AI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기술이다.

언어는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특징이자,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수단, 사람이 사고하는 수단이고, 언어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되었다는 의미는 앞으로 많은 사회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림원의 창, 임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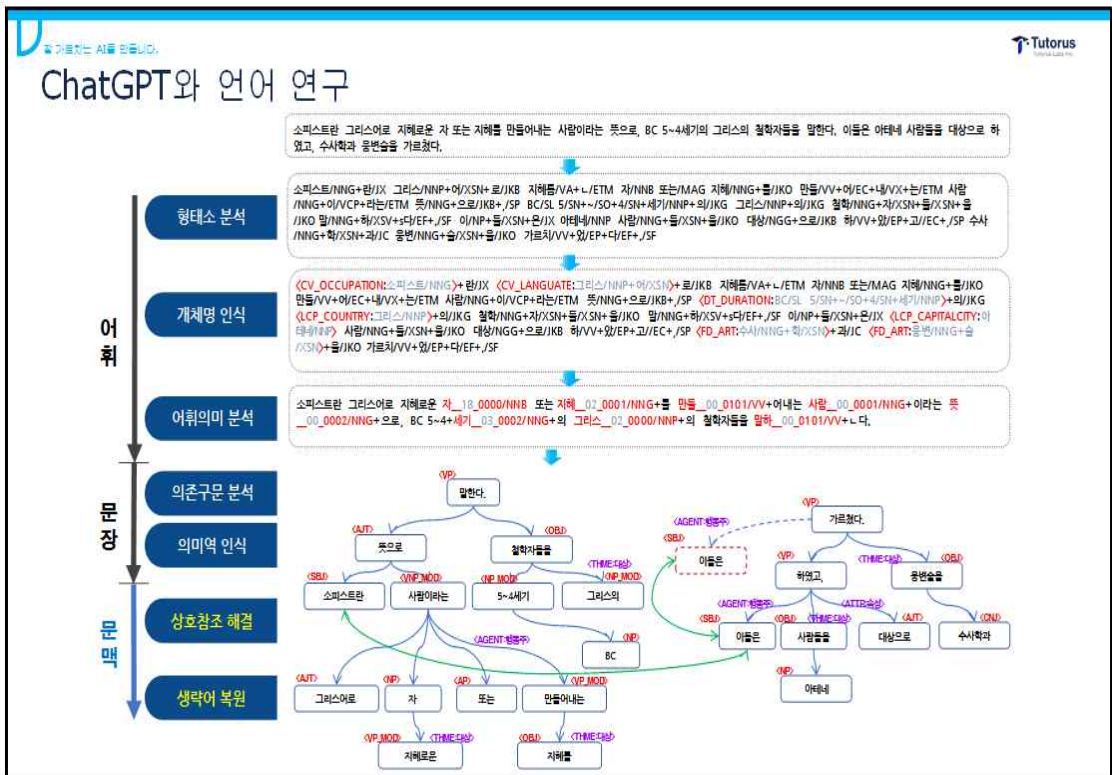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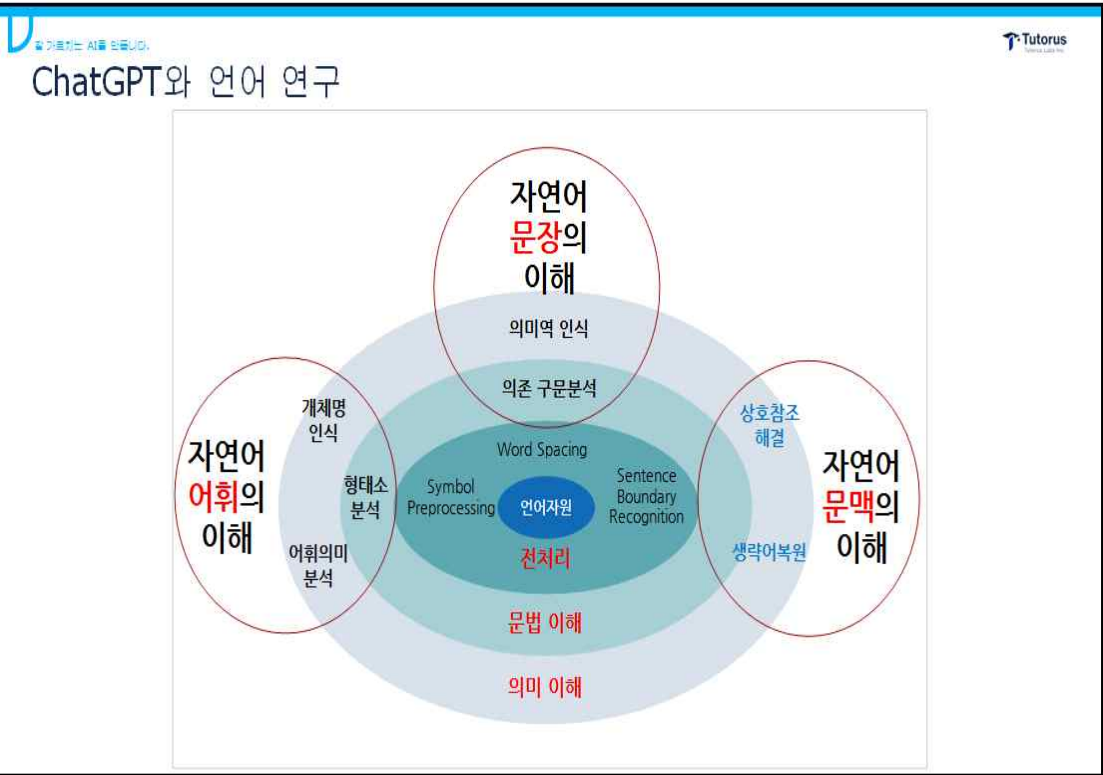
목차

- ChatGPT 개요
- ChatGPT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 ChatGPT에 대해 생각해 볼 내용
- ChatGPT와 언어 연구

ChatGPT와 언어 연구

- 이제, '인공지능 개발'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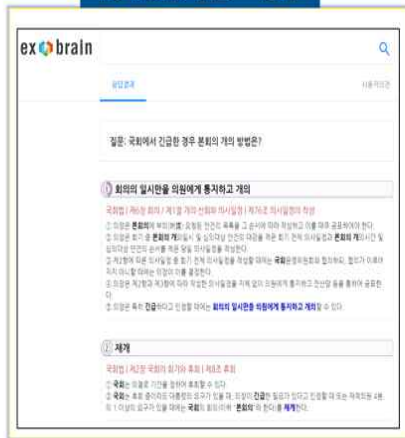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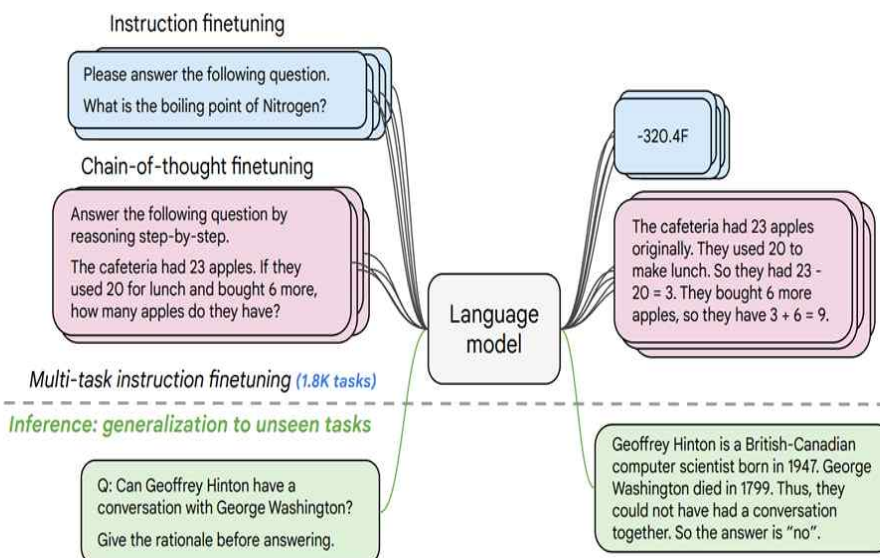
ChatGPT와 언어 연구

- 문제: 국회에서 긴급한 경우 본회의 개의 방법은?
- 정답: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질의응답: 질문 → 정답



ChatGPT와 언어 연구



* 출처: <https://huggingface.co/google/flan-t5-base>

이 가톨릭은 AI를 만듭니다. Tutorus

ChatGPT와 언어 연구

The diagram illustrates the concept of a 'Black Box' in AI. On the left, four people are shown in conversation with speech bubbles. A large yellow plus sign is in the center. On the right, the ChatGPT logo is shown with a speech bubble. Below these elements is a yellow box with a crown-like top containing the Korean text '블랙 박스' (Black Box).

이 가톨릭은 AI를 만듭니다. Tutorus

ChatGPT와 언어 연구

- LLM은 사람과 다른 지능 → 다른 벤치마크 필요

	DPR (NQ)	DPR (multi)	BM25
Natural Questions	80.1	79.4	64.4
EntityQuestions (this work)	49.7	56.7	72.0
What is the capital of [E]?	77.3	78.9	90.6
Who is [E] married to?	35.6	48.1	89.7
Where is the headquarter of [E]?	70.0	72.0	85.0
Where was [E] born?	25.4	41.8	75.3
Where was [E] educated?	26.4	41.8	73.1
Who was [E] created by?	54.1	57.7	72.6
Who is [E]'s child?	19.2	33.8	85.0
(17 more types of questions)

Table 1: Top-20 retrieval accuracy for dense and sparse retrieval models on Natural Questions (Kwiatkowski et al., 2019) and our EntityQuestions along with a set of sampled questions (full results in Appendix A). We test two DPR models: (1) trained on NQ only; (2) trained on 4 datasets (NQ, TQA, WebQ, TREC) combined.²

* 출처: <https://arxiv.org/abs/2109.08535>

ChatGPT와 언어 연구

- LLM은 사람과 다른 지능 → 다른 벤치마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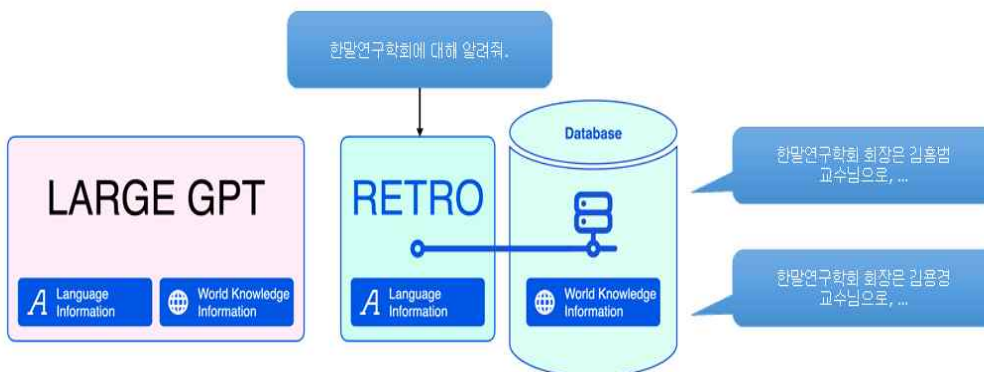
<p>Unit 39 (nobody in hypothesis)</p> <p>hyp:nobody AND (NOT pre:hair) AND (NOT pre:RB) AND (NOT pre:'s)</p> <p>IoU 0.465 $w_{entail} -0.117$ $w_{neutral} -0.053$ $w_{contra} 0.047$</p> <p>Pre Three women prepare a meal in a kitchen. Orig Hyp The ladies are cooking. Adv Hyp <i>Nobodybut</i> the ladies are cooking. True entail → neutral Pred entail → contra</p>	<p>Unit 133 (couch words in hypothesis)</p> <p>NEIGHBORS(hyp:couch) OR hyp:inside OR hyp:home OR hyp:indoors OR hype:eating</p> <p>IoU 0.202 $w_{entail} -0.125$ $w_{neutral} -0.024$ $w_{contra} 0.088$</p> <p>Pre 5 women sit around a table doing some crafts. Orig Hyp 5 women sit around a table. Adv Hyp 5 women sit around a table <i>near a couch</i>. True entail → neutral Pred entail → contra</p>
<p>Unit 15 (sitting only in hypothesis)</p> <p>hyp:eating OR hyp:sitting OR hyp:sleeping OR hyp:sits AND (NOT pre:sits)</p> <p>IoU 0.239 $w_{entail} -0.083$ $w_{neutral} -0.059$ $w_{contra} 0.086$</p> <p>Orig Pre A blond woman is holding 2 golf balls while reaching down into a golf hole. Adv Pre A blond woman is holding 2 golf balls. Hyp A blond woman is sitting down. True contra → neutral Pred contra → contra</p>	<p>Unit 941 (inside/indoors in hypothesis)</p> <p>hyp:inside OR hyp:not OR hyp:indoors OR hyp:moving OR hyp:something</p> <p>IoU 0.151 $w_{entail} 0.086$ $w_{neutral} -0.030$ $w_{contra} -0.023$</p> <p>Orig Pre Two people are sitting in a station. Adv Pre Two people are sitting in a <i>pool</i>. Hyp A couple of people are inside and not standing. True entail → neutral Pred entail → entail</p>

Figure 9: "copy-paste" adversarial examples for NLI. Taking an example from SNLI, we construct an **adversarial (adv)** premise or hypothesis which changes the true label and results in an **incorrect** model prediction (original label/prediction \xrightarrow{adv} adversarial label/prediction).

* 출처: J. Mu, J. Andreas, "Compositional Explanations of Neurons", arXiv preprint arXiv:2006.1

ChatGPT와 언어 연구

- LLM은 계속 발전 중 → Controllability



* 출처: <http://jalamar.github.io/illustrated-retrieval-transformer>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요.

ChatGPT와 언어 연구


 +
 


 언어 연구


 언어 연구

학습자 맞춤형 튜터러스AI가
 교육 패러다임과 학생의 미래를 바꿉니다!

THANK YOU

(HQ)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401호 (서현빌딩)
 (R&D) 대전시 유성구 가잠로 218, 229-4호 (ETRI)


 Tutorus
 Tutorus Labs Inc.



주 제 발 표

형태소 임베딩 정보를 이용한 합성성 문제 검토

임근석(국민대학교)

< 차례 >

1. 들어가며
2. 전처리 과정
3. TF-IDF 분석
4. 기계학습 모델 선정 및 미세 조정
5. 결론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합성적(compositional)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축자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배가 아프다, 냄새를 풍기다, 눈을 감다’¹⁾와 복합 표현을 대상으로 그 의미 분류의 문제에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방법론(TF-IDF)을 적용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방법론 적용의 의의를 국어학적 관점과 자연어처리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를 넘어서며, 코퍼스 언어학, 전산 언어학이 국어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국어학 연구에서도 숫자나 통계를 이용한 논의가 더 이상 낮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컴퓨터 공학자들의 현란한 언어 처리 기술들은 발표자와 같이 ‘국어학만’하는 학자들에게는 스스로를 상당히 주변인화하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발표자 수준의 초보적 코딩 능력, 기초적 수준의 통계/인공지능 이해도를 가진 국어학자가 어떤 연구를 해 볼 수 있는지, 발표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그 실제적인 예를 보이고 그 의미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Cruse(2000:67)에서 밝히고 있고, 우리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성성(compositionality)은 유한한 언어 자료를 이용해 무한한 언어 표현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언어 기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볼 때, ‘두꺼비집’과 같은 합성어가 비합성적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합성적이며 합성적인 표현과 비합성적인 표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복합 표현 ‘수민이 전화’는 합성적이며,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수민이가 소유하기 있는 전화기’, ‘수민이가 걸어온 전화’, ‘수민이에게 온 전화’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본 발표에서는 합성성과 관련된 여러 잠재적 논의 중, 두 어휘요소(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축자적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관용적(비유적)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복합 표현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구분해 보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분이 기계학습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본 발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복합 표현 ‘배가 아프다, 냄새(가/를) 풍기다, 눈을 감다’가 축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²⁾

1) 편의상, 이들을 둘 이상의 어휘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성을 복합 표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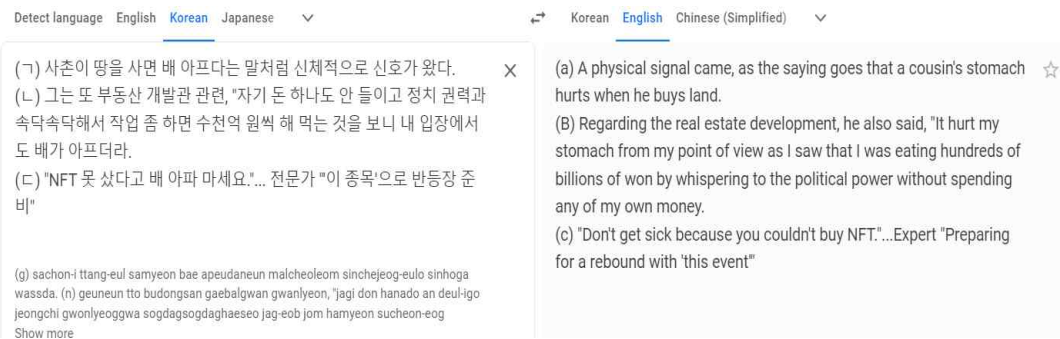
2) ‘냄새를 풍기다’의 경우 ‘냄새가 풍기다’와 같은 구성도 가능하다. ‘풍기다’가 자타양용동사의 쓰임을 가지는데,

- (1) ㄱ. 찬 것을 많이 먹었더니,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다.
 ㄴ. 친구가 강남에 빌딩을 샀더니 배가 아프네.
- (2) ㄱ. 시궁창에서 뒹굴고 온 그는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ㄴ. 철수는 다정해서 그런지, 사람 냄새를 물론 풍겨.
- (3) ㄱ.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ㄴ. 할아버지께서 어제 저녁 노환으로 눈을 감으셨다.
 ㄷ. 과장은 아랫사람이 저지른 비리에 짐짓 눈을 감아 주었다.

(1ㄱ)은 ‘배가 아프다’가 축자적 의미로 쓰인 자유 결합 구성이고, (1ㄴ)은 ‘배’와 ‘아프다’의 의미적 결합이 비합성적으로 이루어져, ‘남이 잘 되어서 심술이 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표현의 용례이다. (2ㄱ)은 ‘냄새를 풍기다’가 축자적으로 쓰인 자유 결합 구성의 예이고, (2ㄴ)은 역시 의미적 비합성성을 보이는 ‘(비유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나다.’는 의미로 쓰인 관용표현의 예이다. (3ㄱ)은 ‘눈’과 ‘감-’의 의미적 결합이 합성적으로 이루어져, ‘눈을 감다’가 축자적으로 쓰인 자유 결합 구성이고, (3ㄴ, ㄷ)은 모두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고 관용표현으로 사용된 예로, (3ㄴ)은 ‘죽다’의 의미, (3ㄷ)은 ‘모르는 채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본 발표에서 추출한 ‘배가 아프다’로 추출된 문장 중, 관용표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 세 개를 임의로 가져와 ○○번역기에 넣어 그 번역의 정확도를 살펴본 것이다.³⁾

(4) ‘배가 아프다’의 기계 번역



(4)에서 사용된 모든 ‘배가 아프다’는 ‘be jealous’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지만,⁴⁾ 번역 결과를 보면 ‘stomach hurts’(a), ‘hurts my stomach’(b), ‘get sick’으로 모두 축자적인 의미로만 번역되고 있다. 최근에 기계 번역의 성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위 문장들의 번역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모국어 화자라면 (4)의 예들이 비유적 의미로 쓰여, ‘심술이 나다, 시기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모어 화자가 (4)의 예들이 모두 관용표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언어 지식을 기계에 학습시킬 수만 있다면, 기계가 (4)의 용례가 관용표현임을 판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본 발표는 이러한 물음에서 시

본 발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3) 무자위추출을 위해 함수를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고, 자료 중 가장 앞 부분 세 개의 문장을 차례로 가져온 것이다.
 4) (4ㄱ)의 경우, 축자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주장될 수도 있을 듯하다.

작되었다.

먼저, ‘배가 아프다’의 논항 구조, 격틀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용표현 ‘배가 아프다’의 경우라면, ‘X가 Y에 배가 아프다’라는 격틀 구조를 상정하고, 각각의 논항 X, Y에 어떤 의미부류의 명사가 오는지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종전자사전 관용표현사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언어 정보를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에는 신뢰할 만한 구문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방법론을 곧 바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의미의 용법설이나 Mel’cuk et al(1995)의 차별적 공기 기준(Critère de cooccurrence différentielle) 등이 동원될 수 있을 듯하다. 전자는 의미론 개론서에 나올 만큼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단어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용법에 의해 포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용법설을 따르는 것은 아니나, 단어의 의미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맥락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접근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Mel’cuk et al(1995)의 차별적 공기 기준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어휘요소(일반적으로는 ‘의향(sense)’로 보아도 무방함)가 서로 구별되는 공기 요소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휘요소⁵⁾ 분할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축자적 의미의 ‘(배가) 아프다’와 관용표현의 ‘배가 아프다’는 공기하는 요소들의 집합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적 공기의 기준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용법설이나 이고르 벨축 교수의 차별적 공기의 기준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방법론이 임베딩이라고 생각된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임베딩(Embedding)이라는 방법론을 자주 사용하는데, 임베딩이란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나열인 벡터(vector)로 바꾼 결과 혹은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임베딩의 단위는 보통 단어, 단어의 부분, 문장 등 여러 언어학적 단위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시 많은 종류의 임베딩 분석 방법론이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 관심을 두는 임베딩 처리 방법론은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이다. TF-IDF는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어떤 문서에서 어떤 단어(term)가 다른 단어보다 더 많이 출현한다면, 그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해당 문서에 더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처리한다.

본 발표는 각각의 문장의 형태소들을 대상으로, 각 의향에 따른 TF-IDF 수치를 입력값으로 하는 형태소별 TF-IDF 임베딩을 구축한 후, 이를 기계학습시켜 각 문장에 대한 의향을 판단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체적 작업 흐름도를 보이면 아래 (5)와 같다.

(5) 전체적인 작업 흐름도

- ① 전처리 작업 : 추출 대상 말뭉치 선정, 형태소 분석 과정 설명
- ② 의향 분석 : 수작업을 통한 각 언어표현별 의향 판별
- ③ TF-IDF 분석
- ④ 각 의향별 주요 feature 검토
- ⑤ 최적의 기계학습 모델 선정 및 정확도 평가
- ⑥ 국어학/자연어처리 관점의 의의 검토

5) lexical unit을 가리키며, 보통 sense라고 하는 단위에 해당함.

2. 전처리 과정

본 절에서는 본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말뭉치를 선택하였고, 왜 임베딩의 단위를 형태소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용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은 보통의 단어에 비해 그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다수의 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세종말뭉치로는 충분한 정도의 용례를 확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냄새를 풍기다’의 경우 세종 말뭉치에서는 200회 남짓만 검색될 뿐이어서 독자적인 의미와 관용적 의미의 차이를 양적으로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각 언어 표현마다 2000회 이상이 되는 용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배가 아프다, 냄새를 풍기다, 눈을 감다’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들 표현이 비교적 용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전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두의 말뭉치 중, 약 20억 어절 규모의 원시 말뭉치를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발표에서 사용한 말뭉치의 종류와 크기는 아래와 같다.

(6) 이용한 말뭉치의 종류와 규모⁶⁾

말뭉치	어절	파일 수	크기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0	3,042,469	2,232개	317MB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1	6,652,835	4,313개	560MB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말뭉치 2021	73,478,080	5,395개	307MB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0	135,953,009	35개	2.21GB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1	208,546,868	35개	2.95GB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2	207,468,895	33개	3.07GB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버전 2.0)	1,006,775,895	364개	15.65GB
국립국어원 원라인 대화 말뭉치(버전 1.0)	9,406,894	47,421개	835MB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	118,340,427	25,696개	6.73GB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버전 1.2)	303,284,706	10,045개	4.24GB
총합	2,072,950,078		

[2] 20억 어절 규모의 원시말뭉치를 대상으로 ‘배가 아프다, 냄새를 풍기다, 눈을 감다’를 정규표현식을 이용해 초벌 추출을 하였다. 예를 들어, ‘눈을 감다’의 경우 ‘눈’을 중심으로 좌우 두 어절까지를 검색 공간으로 하여 ‘감-’이 활용하는 어형들을 포함하도록 정규표현식 만들어서 1차로 검색 대상을 추출하였다.⁷⁾ 물론 ‘감-’이 ‘눈’을 중심으로 좌우 두 어절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뿐더러 추후의 2차 추출이나 의향 판별 작업에 너무나 많은 노이즈가 생기기예 좌우 두 어절 이내로 한정하였다.

[3] 앞선 과정을 통해 추출한 1차 자료를 대상으로 문장 단위로 자료를 분할하였다. 모두

6) 모두의 말뭉치 배포 자료에는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말뭉치 2021’에 대한 어절수 정보만 공개되어 있었다. 나머지 말뭉치의 어절 규모는 발표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운팅한 것으로,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정보가 아님을 밝혀둔다.

7) 우측 1어절까지: $\wedge[\wedge\text{Nn}]^+ \text{눈}[\wedge]?\ \text{감}[\wedge\text{Nn}]^+ \text{Wn}$
 우측 2어절까지: $\wedge[\wedge\text{Nn}]^+ \text{눈}[\wedge]^+ [\wedge]^+ \text{감}[\wedge\text{Nn}]^+ \text{Wn}$
 좌측 1어절까지: $\wedge[\wedge\text{Nn}]^+ \text{감}[\wedge]^+ \text{눈}[\wedge\text{Nn}]^+ \text{Wn}$
 좌측 2어절까지: $\wedge[\wedge\text{Nn}]^+ \text{감}[\wedge]^+ [\wedge]^+ \text{눈}[\wedge\text{Nn}]^+ \text{Wn}$

의 말뭉치의 경우, 문장뿐만 아니라 단락이 json 파일의 'form' key의 value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두점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문장 단위로 분할하였다.

[4] 이상의 자료를 '쥬바이칼에이아이'에서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 '바른'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 분석을 실시하였다.⁸⁾ 여러 형태소 분석기 중, '바른'을 선택한 것은 '바른'이 언어적 지식을 가장 많이 반영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이기도 하고 발표자가 판단하기에 현재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고 언어적 분석에 타당한 결과를 제공해 주기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보다는 단어를 분리하거나 문자 단위로 단위의 토큰화를 더 선호하는 듯하다. 형태소 분할의 어려움, 적절한 태그 부여의 문제, 일관성의 유지 등, 여러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듯하다. 본 발표와 같이 언어학적 논의와 자연어처리의 효율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⁹⁾

[5] 형태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정규표현식을 이용하여 '배가 아프다, 냄새를 풍기다, 눈을 감다'를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배가 아프다' 5754개 문장, '냄새를 풍기다' 6281개 문장, '눈을 감다' 35,943개 문장이 추출되었다.

[6] 위 자료 중 '배가 아프다' 5754개 문장, '냄새를 풍기다' 6281개 문장, '눈을 감다' 총 6000개 문장을 대상으로 의향 판별 작업을 수행하였다.¹⁰⁾ 작업 과정에서 추출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잘못 추출된 예를 제거하였는데, 주로 프로그래밍 과정상의 실수나 원자료의 입력상의 문제로 인한 것들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배가 아프다'는 4497개 문장이 검토 대상이 되었고, '냄새를 풍기다'는 6281개, '눈을 감다'는 4905개가 의향 분류의 대상이 되었다. 의향 판별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의향 판별 결과

언어 표현	분류	문장 수
배가 아프다 (4,497개)	축자적	2854
	관용표현	1047
	중의적	596
냄새를 풍기다 (6281개)	축자적	3686
	관용표현	1975
	중의적	363
눈을 감다 (4905개)	축자적	2692
	관용표현1(죽다)	535
	관용표현2(모르는 채 하다)	1400
	중의적	95

(7)에서 음영처리 처리한 부분의 본 발표에서 기계학습의 대상이 되는 문장들이다. '배가 아프다'가 3901개 문장, '냄새를 풍기다'가 5661개, '눈을 감다'가 4627개이다. 총 14,189개의 문장이 기계학습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7)을 보면 각 표현마다 중의적인 경우가 꽤

8) 최근 BERT나 GPT 계열의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들에서는 문자나 부분단어(wordpiece, subword)를 토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본 발표의 관점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는 형태소 단위로 임베딩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판단하였다.

9) 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API 형식을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 서비스와 BERT 언어모델이 있기는 하나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0) 의향 판별 작업에는 국민대학의 대학원생 및 졸업생 이민아, 이수민, 툴레미소바 아이나굴 3명이 동참하였다. 판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별 지침을 숙지하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 수시로 판별 과정을 공유하고 의심점은 예는 상호 교정을 수행하였다. 도움을 준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있는데, 대부분은 문장 성분의 생략이 너무 과도하여 축자적 의미인지 관용표현의 의미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었다. 물론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맥락의 도움을 받는다면 중의성이 대폭 완화될 것이지만, 본 발표의 목적상 문장 범위를 넘어서 맥락을 참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ㄱ. 왜 배가 아프지

ㄴ. 어처구니가 없었는 이 '이방인'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내가 깜둥이라 너희들이 머리가 아프냐, 배가 아프냐.

ㄷ. 로마나 파리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배가 아프다.

(7ㄱ)는 생략된 문장 성분도 많고, 다른 수식어 등도 없어서 중의적인 것으로 판단된 예이다. (7ㄴ, ㄷ)은 비교적 생략이 심하지는 않지만, '배가 아프다'가 축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용표현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중의적인 경우로 처리하였다.

3. TF-IDF 분석

본 절에서는 각각의 문장이 어떤 의항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전체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면, 먼저 2절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대상으로 TF-IDF 분석을 하고, 각 의항별 주요 feature를 추출한 후, 최적의 알고리즘 모델을 선정하게 된다.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앞서 임베딩(embedding)의 개념과 TF-IDF에 대해 조금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임베딩(Embedding 혹은 Embedding Vector)은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형태의 벡터(vector)로 바꾸는 행위 혹은 그 결과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단어를 벡터로 변환해 벡터 공간(vector space)에 끼워넣는다(embedding)라는 이를 임베딩이라고 한다(이기창 2019:28-9). 임베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기창(2019:29)의 임베딩의 간단한 예를 아래에 가져와 살펴보기로 한다.

(8) 단어-문서 행렬

구분	메밀 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삼포 가는 날
기차	0	2	10	7
막걸리	0	1	0	0
선술집	0	1	0	0

(8)은 소설가 현진건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단어 빈도의 벡터를 만들 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임베딩의 예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기차'라는 단어의 임베딩은 [0, 2, 10, 7]이 되고, '막걸리'의 임베딩은 [0, 1, 0, 0]이 된다. 문서 차원의 임베딩도 가능한데 '메밀 꽃 필 무렵'은 [0, 0, 0]이고, '운수 좋은 날'은 [10, 0, 0]이다. 위 임베딩 자료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차'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삼포 가는 날' 문서에서 빈도가 높아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단어 '막걸리', '선술집'이 문서 '운수 좋은 날'

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자료이지만 임베딩의 기본 개념을 포착하는 데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자료 역시 입력되는 수치의 성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8)과 같은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

TF-IDF는 1절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Term Frequency - Inverse Frequency의 약자로 특정 문서에서 어떤 term이 얼마나 많이 출현하며, 그 출현이 해당 문서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외교 분야와 스포츠 분야의 뉴스 기사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지 살펴본다고 하자. 아마도 외교 분야 뉴스에서는 ‘협상, 외교관, 국제, 정부, 조율’ 등의 단어가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 선수, 팀, 스코어, 역전, 리그, 챔피언’ 등이 자주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단어들은 상대되는 분야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 외교관, 국제, 정부, 조율’은 외교 분야 뉴스에서 주요한 feature들이고, ‘경기, 선수, 팀, 스코어, 역전, 리그, 챔피언’은 스포츠 분야 뉴스에서 주요한 feature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뉴스 유형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고 무조건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자, 취재, 정보, 특종, 인터뷰’ 등은 두 분야 모두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줄 것이기에 외교 분야만의 특징적인 단어라거나, 스포츠 분야의 특징적인 단어라고 하기 어렵다.

TF-IDF를 구하는 공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단순한 공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¹¹⁾

(9) TF-IDF 공식

$$tf(t,d) = f_{t,d}$$

$$idf(t,D) = \log \frac{|D|}{|\{d \in D : t \in d\}|}$$

$$TF-IDF = tf \times idf$$

t: term
d: 특정문서
D: 전체문서

다음으로 검토할 사항은 모든 형태소를 대상으로 TF-IDF 값을 구해서 각 문서의 주요 feature를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1. a. 31일 10시에 만나요!”라는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숫자 ‘1’, ‘31’ 마침표 ‘.’, 느낌표 ‘!’, 소괄호 ‘(’, ‘)’, 알파벳 ‘a’도 하나의 형태소 단위로 분석되어 각 문서의 주요 feature 후보로 잡히게 되며, 최종 결과물에 상당한 noise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알파벳, 숫자, 기호 등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문법요소의 경우에는 모든 문서에 두루 사용되는 것이기에 noise를 줄이는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쉬우나 의미 변별의 중요한 자질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격틀 구조를 표상하는 격조사라든지, 술어의 상적 특징을 보여주는 선어말어미 등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서, 기계학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미세 조정 과정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래 (10)과 (11)은 ‘배가 아프다’의 축자적 의미로 쓰인 문장들을 대상으로 TF-IDF 값이 높은 30개 형태소를 제시한 것이다. (10)에서는 알파벳, 숫자만 배제하고 조사, 어미 등을 포함하였고, (11)에서는 알파벳, 숫자뿐만 아니라 조사, 어미도 배제한 채 TF-IDF 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11) 본 발표에서는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sklearn.feature_extraction.text.TfidfVectorizer 메소드(method)를 사용하였다.

3	하_vv	사촌_nng	들_xsn	물씬_mag	이_vcp	년_nnb	주_vx
4	있_va	것_nnb	있_vx	적_xsn	하_vv	들_xsn	감_vv
5	것_nnb	들_xsn	것_nnb	들_xsn	것_nnb	못하_vx	들_xsn
6	먹_vv	사_vv	술_nng	사람_nng	지그시_mag	일_nnb	것_nnb
7	때_nng	거_nnb	오_vx	것_nnb	채_nnb	그_np	있_vx
8	하_vx	하_vv	하_vv	있_vx	두_mmn	있_va	하_vv
9	증상_nng	땅_nng	있_va	하_vv	질끈_mag	수_nnb	적_xsn
10	들_xsn	있_va	않_vx	있_va	있_va	하_vv	있_va
11	되_vv	되_vv	하_vx	않_vx	들_xsn	것_nnb	하_vx
12	설사_nng	사람_nng	구수하_va	그_np	나_np	월_nnb	않_vx
13	가_vv	보_vv	그_mmd	그_mmd	하_vx	눈감_vv	대하_vv
14	수_nnb	참_vv	고약하_va	하_vx	그_np	않_vx	수_nnb
15	않_vx	속담_nng	수_nnb	수_nnb	수_nnb	보_vv	되_vv
16	없_va	하_vx	나오_vv	되_vv	뜨_vv	채_nnb	없_va
17	아이_nng	적_xsn	고소하_va	같_va	때_nng	그_mmd	불법_nng
18	나_np	않_vx	때_nng	등_nnb	않_vx	죽_vv	아니_vcn
19	있_vx	수_nnb	물씬_mag	보_vv	그_mmd	있_vx	받_vv
20	병원_nng	없_va	되_vv	없_va	보_vv	되_vv	등_nnb
21	거_nnb	우리_np	그_np	이_mmd	보_vx	없_va	이_np
22	갑자기_mag	있_vx	같_va	아니_vcn	았_vv	나_np	거_nnb
23	날_vv	나_np	사람_nng	지_vx	모습_nng	때_nng	비리_nng
24	경우_nng	못_mag	역하_va	살_vv	듯_nnb	전_nng	정부_nng
25	머리_nng	아니_vcn	없_va	질_va	되_vv	하_vx	위하_vv
26	주_vx	사돈_nng	술술_mag	나_np	얼굴_nng	한_mmn	행위_nng
27	등_nnb	잘_mag	몸_nng	말_nng	없_va	편히_mag	그_np
28	화장실_nng	배고프_va	씩_vv	때_nng	다시_mag	세_nnb	씨_nnb
29	안_mag	같_va	음식_nng	거_nnb	손_nng	끝내_mag	문제_nng
30	나_vv	말_nng	향수_nng	풀풀_mag	잠시_mag	받_vv	우리_np

(12)의 예들을 보면 일부 형태소들은 주요 feature로 선택된 것이 직관적으로 쉽게 수긍이 가고 어떤 것은 노이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중 해당 주요 feature로 선택된 것이 쉽게 수긍이 가는 것들만을 아래에 따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 직관적으로 유의미해 보이는 feature들

의항	직관으로 눈에 들어오는 주요 feature
배가 아프1	배, 아프, 먹-, 설사, 증상, 병원, 갑자기, 머리, 등
배가 아프2	배, 아프-, 사촌, 땅, 사-, 속담, 사돈
냄새 풍기1	냄새, 풍기-, 술, 고약하-, 고소하-, 술술, 씹-
냄새 풍기2	냄새, 풍기-, 사람, 정치
눈을 감1	눈, 감-, 지그시, 질끈, 모습, 잠시
눈을 감2	눈, 감-, 죽-, 끝내, 세, 월, 일
눈을 감3	눈, 감-, 주-(보조용언 -어 주-), 대하-('-에 대해'의 일부), 불법, 비리, 정부, 행위, 문제

상위 30개에 속하는 주요 feature를 검토해 보면, 일부분 만족스럽기도 하고, 일부분 노이즈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일단 기계학습을 시킬 14,189개 문장에서 알파벳이나 기호, 조사, 어미로 분석된 형태소들은 TF-IDF 분석에서 배제한 후,¹²⁾ 각 의항별 문장을 하나의 문서로 보아 각 문서의 형태소별 TF-IDF 값을 구한 결과물 중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4절에서는 조사, 어미 등을 TF-IDF 분석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모델의 성능 향상을 테스트한다. 따라서 조사, 어미는 무조건 TF-IDF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4) 각 형태소별 TF-IDF 수치

1	term	pae_apheu_s n_1	pae_apheu_s n_2	naemsae_pu nggi_sn_1	naemsae_pu nggi_sn_2	nun_gam_sn 1	nun_gam_sn 2	nun_gam_sn 3
354	가시_vv	0.0007989421266	0.0006993175034	0.0003484537451	0	0.0003452555121	0	0
355	가시나무_nng	0	0	0.0002828269232	0	0	0	0
356	가식_nng	0	0.0009423300326	0	0.0008463421241	0	0	0
357	가신_nng	0	0	0	0	0	0.0028605398332	0
358	가십거리_nng	0	0.0009423300326	0.0002347706352	0	0	0	0
359	가야_nnp	0	0	0	0.0004231710621	0.0004652316529	0	0
360	가아금_nng	0	0	0	0	0.0005604620733	0	0
361	가업_nng	0	0	0	0.0005097919054	0	0	0
362	가에데_nnp	0	0	0	0	0.0005604620733	0	0
363	가역성_nng	0.000432314373	0	0	0	0	0	0

이상의 과정을 거쳐 형태소별 TF-IDF 값을 산출해 보면, 총 26,512개의 형태소가 각 문서별 즉, 각 의항별 TF-IDF 값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동사 ‘가시_vv’는 ‘배가 아프다1’의 의미에 대해 0.00079894의 TF-IDF 값을 가지고, ‘배가 아프다2’에 대해서는 0.000699 값을 갖는다. ‘냄새를 풍기다1, 눈을 감다1’에 대해서도 작은 수치이지만 TF-IDF 값을 갖는다. 그러나 ‘냄새를 풍기다2, 눈을 감다2, 눈을 감다3’에서는 출현하지 않아 0의 값을 갖게 되었다.

4. 기계학습 모델 선정 및 미세 조정

본 절에서는 3절까지의 방법론을 통해 준비한 자료를 대상으로 기계학습을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4)의 결과 수치를 가지고 기계에 어떤 형식으로 자료를 입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학습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럽게도 후자의 경우 PyCaret에서 AutoML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본 발표의 목적인 분류 모델을 손쉽게 훈련하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기계에 (14)의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 과정에 언어학적 정보를 어떻게 조정해서 입력해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류 학습을 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feature를 사용할 것인가? feature가 많으면 좋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학습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한 feature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성능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수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두 의항을 가지는 복합표현의 경우, 각 의항에 따른 형태소의 TF-IDF 값을 모두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의항에 따른 형태소의 TF-IDF 값만을 이용할 것인가? ③ 기본적으로는 문장에 속하는 모든 형태소의 TF-IDF 값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장이 긴 경우 노이즈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너무 많이 포함되는 단점이 있는데, TF-IDF의 분석 영역(span)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④ 조사, 어미, 접사 등 문법 형태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얼마나 많은 feature를 사용할 것인가? 일단 ‘배가 아프다’의 축자적 의미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대상으로, TF-IDF 수치가 높은 상위 100개, 200개, 300개 형태소를 적용하여 모델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아래 (15)는 PyCaret의 Auto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들을 비교하는 setup 장면인데, 100개의 feature를 이용하여 ‘배가 아프다’의 의항을 판단하는 모델을 비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15) PyCaret의 모델 비교 Setup

	Description	Value
0	Session id	2863
1	Target	label
2	Target type	Binary
3	Target mapping	pae_apheu_sn_1: 0, pae_apheu_sn_2: 1
4	Original data shape	(3901, 102)
5	Transformed data shape	(3901, 102)
6	Transformed train set shape	(2730, 102)
7	Transformed test set shape	(1171, 102)
8	Ordinal features	100
9	Categorical features	101
10	Preprocess	True
11	Imputation type	simple
12	Numeric imputation	mean
13	Categorical imputation	mode
14	Maximum one-hot encoding	25
15	Encoding method	None
16	Fold Generator	StratifiedKFold
17	Fold Number	10
18	CPU Jobs	-1
19	Use GPU	False
20	Log Experiment	False
21	Experiment Name	clf-default-name
22	USI	86b7

그림 (15)는 총 3901개 문장(Original data shape)을 대상으로, ‘배가 아프다①’의 측자적 의미인지 ‘배가 아프다②’의 관용표현의 의미인지(Targetting mapping)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모델을 비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이고 있다. 2730개 문장은 학습 데이터셋(train set)으로, 1171개 문장은 평가 데이터셋(test set)으로 분리해 두었다. 그리고 100개 feature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였다.

다음 (16-18)은 다른 환경은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¹³⁾ ‘배가 부르다①’을 대상으로 feature를 각각 100개, 200개, 300개 적용해 본 것이다.

(16) 배가 아프다1 100 features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0.7963	0.8960	0.2987	0.8367	0.4396	0.3483	0.4180	7.0870
qda	0.7674	0.8031	0.6422	0.6048	0.5657	0.4198	0.4394	3.1880
knn	0.7601	0.6956	0.2674	0.6204	0.3718	0.2531	0.2874	4.5220
svm	0.7509	0.0000	0.1106	0.8071	0.1787	0.1274	0.2133	3.1880
rf	0.7399	0.7264	0.0571	0.8259	0.1020	0.0661	0.1488	3.8270
nb	0.7374	0.8445	0.0219	1.0000	0.0426	0.0316	0.1242	3.3760
dt	0.7374	0.5212	0.0219	1.0000	0.0426	0.0316	0.1242	3.4830
ridge	0.7374	0.0000	0.0219	1.0000	0.0426	0.0316	0.1242	2.9380
gbc	0.7374	0.5208	0.0219	1.0000	0.0426	0.0316	0.1242	3.9100
lda	0.7374	0.5109	0.0219	1.0000	0.0426	0.0316	0.1242	3.1160
et	0.7374	0.8264	0.0219	1.0000	0.0426	0.0316	0.1242	3.6750
dummy	0.7315	0.5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3.0370
ada	0.3311	0.5212	0.9027	0.3460	0.3917	0.0154	0.0852	3.4580
xgboost	0.3311	0.5634	0.9027	0.3460	0.3917	0.0154	0.0852	3.5380
lightgbm	0.3311	0.5006	0.9027	0.3460	0.3917	0.0154	0.0852	3.2990

(17) 배가 아프다1 200 features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0.8154	0.9144	0.3835	0.8508	0.5235	0.4302	0.4845	12.7780
nb	0.7615	0.8308	0.8978	0.5420	0.6724	0.5052	0.5479	7.4530
svm	0.7502	0.0000	0.1012	0.8265	0.1571	0.1152	0.1981	5.0220
knn	0.7458	0.7250	0.3778	0.5378	0.4424	0.2848	0.2928	8.6440
et	0.7410	0.8555	0.0396	0.9107	0.0752	0.0544	0.1527	5.8830
rf	0.7403	0.7636	0.1106	0.6436	0.1574	0.1011	0.1585	6.1560
dt	0.7344	0.5202	0.0136	0.6500	0.0266	0.0182	0.0733	5.3650
ridge	0.7344	0.0000	0.0136	0.6500	0.0266	0.0182	0.0733	5.0100
gbc	0.7344	0.5202	0.0136	0.6500	0.0266	0.0182	0.0733	5.9370
lda	0.7344	0.5716	0.0136	0.6500	0.0266	0.0182	0.0733	5.5600
dummy	0.7315	0.5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5.2800
qda	0.7000	0.7777	0.9236	0.4742	0.6251	0.4177	0.4834	5.3920
lightgbm	0.2960	0.5707	0.9973	0.2758	0.4321	0.0197	0.0928	5.5800
ada	0.2905	0.5202	0.9973	0.2742	0.4301	0.0155	0.0828	6.0770
xgboost	0.2905	0.5109	0.9973	0.2742	0.4301	0.0155	0.0828	6.3290

13) 조사와 어미를 TF-IDF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TF-IDF 분석 공간은 문장 안 모든 형태로 설정하였다. ‘배가 아프다①’ 문서에 속하는 문장만을 대상으로 형태소별 TF-IDF 값을 구하였다.

(18) 배가 아프다1 300 features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330	0.9300	0.4449	0.8685	0.5867	0.4960	0.5403	19.0140
svm	SVM - Linear Kernel	0.7645	0.0000	0.2114	0.7940	0.2849	0.2127	0.2820	7.157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7553	0.8216	0.0982	0.9187	0.1715	0.1297	0.2384	8.575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495	0.7253	0.4311	0.5423	0.4785	0.3171	0.3216	17.581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491	0.8775	0.0668	0.9833	0.1229	0.0932	0.2104	8.4660
dt	Decision Tree Classifier	0.7407	0.5294	0.0354	0.8750	0.0668	0.0497	0.1396	7.6790
ridge	Ridge Classifier	0.7407	0.0000	0.0354	0.8750	0.0668	0.0497	0.1396	7.5360
gbc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0.7407	0.5294	0.0354	0.8750	0.0668	0.0497	0.1396	8.5890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0.7407	0.5774	0.0354	0.8750	0.0668	0.0497	0.1396	8.0650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7333	0.7901	0.9059	0.5034	0.6463	0.4597	0.5121	8.0570
dummy	Dummy Classifier	0.7315	0.5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7.5110
nb	Naive Bayes	0.6784	0.7640	0.9359	0.4542	0.6107	0.3898	0.4652	7.4790
light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0.2908	0.5408	0.9986	0.2745	0.4306	0.0162	0.0870	8.1740
ada	Ada Boost Classifier	0.2872	0.5294	0.9986	0.2735	0.4293	0.0134	0.0787	8.2550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0.2872	0.4931	0.9986	0.2735	0.4293	0.0134	0.0787	8.9550

(16-18)의 결과를 보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정분류율(Accuracy)는 양호하나 재현율(Recall)이 낮아 결과적으로 F1 스코어가 낮게 나왔다. 정분류율 기준으로 feature가 100개일 때 0.7963, 200개일 때 0.8154, 300개일 때 0.8330이다. feature를 무조건 늘린다고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300개를 초과하여 설정하였을 때도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었으나 미미한 정도였다.

모델 훈련에 200개의 feature를 이용하되, 앞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눈을 감다’를 제외한 다른 의항들의 모델 성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⁴⁾

(19) 배가 아프다2 200 features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8487	0.7848	0.4924	0.8983	0.6333	0.5490	0.5895	5.8850
nb	Naive Bayes	0.8462	0.8787	0.4638	0.9270	0.6157	0.5333	0.5844	8.0450
lr	Logistic Regression	0.8458	0.8872	0.4734	0.9081	0.6187	0.5350	0.5811	12.590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8179	0.7871	0.3411	0.9434	0.4977	0.4168	0.4982	6.2180
et	Extra Trees Classifier	0.8099	0.8652	0.3016	0.9718	0.4578	0.3801	0.4767	6.3730
svm	SVM - Linear Kernel	0.8011	0.0000	0.3220	0.8560	0.4563	0.3673	0.4355	5.159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996	0.7089	0.2565	0.9894	0.4056	0.3229	0.4437	8.8170
ridge	Ridge Classifier	0.7465	0.0000	0.0587	0.9639	0.1094	0.0817	0.1967	5.3150
dt	Decision Tree Classifier	0.7388	0.5270	0.0301	0.7467	0.0574	0.0416	0.1217	5.5530
gbc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0.7388	0.5270	0.0301	0.7467	0.0574	0.0416	0.1217	6.4900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0.7388	0.6152	0.0301	0.7467	0.0574	0.0416	0.1217	5.6740
dummy	Dummy Classifier	0.7315	0.5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5.6840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0.3645	0.5075	0.8370	0.3278	0.3846	0.0208	0.0807	6.5500
light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0.3414	0.5657	0.9850	0.2885	0.4460	0.0521	0.1369	5.7690
ada	Ada Boost Classifier	0.2886	0.5270	0.9973	0.2737	0.4295	0.0141	0.0782	5.9250

(20) 냄새를 풍기다1 200features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7981	0.8981	0.4970	0.8676	0.6305	0.5059	0.5437	7.580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350	0.7310	0.3604	0.7514	0.4858	0.3363	0.3780	4.6150
svm	SVM - Linear Kernel	0.6820	0.0000	0.1495	0.8647	0.1952	0.1304	0.2081	3.3650
et	Extra Trees Classifier	0.6656	0.7280	0.0572	0.9467	0.0962	0.0601	0.1525	4.0170
dt	Decision Tree Classifier	0.6580	0.5098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3.8540
ridge	Ridge Classifier	0.6580	0.0000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3.688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6580	0.7185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4.3150
ada	Ada Boost Classifier	0.6580	0.5098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3.4300
gbc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0.6580	0.5098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3.9920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0.6580	0.5098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3.8530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0.6580	0.5098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4.2330
light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0.6580	0.4843	0.0195	1.0000	0.0382	0.0253	0.1104	3.6440
dummy	Dummy Classifier	0.6512	0.5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3.4400
nb	Naive Bayes	0.4541	0.5824	0.9891	0.3918	0.5601	0.1182	0.2347	4.4240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4541	0.5816	0.9906	0.3910	0.5599	0.1178	0.2361	3.4240

14) ‘눈을 감다’는 세 개의 의항을 가지고 있어, 이항 분류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항 분류로 진행할 수도 있다. ‘배가 아프다’와 ‘냄새를 풍기다’를 통해 미세 조정을 한 후, ‘눈을 감다’에 대한 모델 훈련을 진행하기로 한다.

(21) 냄새를 풍기다2 200 features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7776	0.8444	0.4175	0.8850	0.5656	0.4416	0.4985	7.853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049	0.7046	0.1896	0.8481	0.3074	0.2075	0.3023	4.4250
et	Extra Trees Classifier	0.6913	0.6879	0.1259	0.9212	0.2201	0.1499	0.2668	4.4030
svm	SVM - Linear Kernel	0.6822	0.0000	0.1136	0.8823	0.1912	0.1238	0.2209	3.9540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6759	0.6919	0.0752	0.9468	0.1380	0.0924	0.2073	3.6020
nb	Naive Bayes	0.6726	0.7550	0.0687	0.9086	0.1262	0.0822	0.1883	3.755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6661	0.7227	0.0478	0.9131	0.0897	0.0575	0.1556	4.4000
dt	Decision Tree Classifier	0.6567	0.5169	0.0166	0.9750	0.0325	0.0210	0.0976	4.0630
ridge	Ridge Classifier	0.6567	0.0000	0.0166	0.9750	0.0325	0.0210	0.0976	3.6080
gbc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0.6567	0.5169	0.0166	0.9750	0.0325	0.0210	0.0976	3.9960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0.6567	0.5081	0.0166	0.9750	0.0325	0.0210	0.0976	4.0690
dummy	Dummy Classifier	0.6512	0.5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3.5860
ada	Ada Boost Classifier	0.4220	0.5169	0.8036	0.4582	0.4254	0.0167	0.0887	4.2270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0.4220	0.5169	0.8036	0.4582	0.4254	0.0167	0.0887	4.0790
light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0.4220	0.5329	0.8036	0.4582	0.4254	0.0167	0.0887	3.9850

‘냄새를 풍기다’가 약간 낮게 나오지만 큰 차이는 아닌 듯하다. ‘냄새를 풍기다’의 경우 수작업으로 의향을 판별할 때에도 다른 복합표현에 비해 까다로웠다.

대체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정분류율(accuracy)이 0.8 내외, F1 스코어는 0.6 초반 부근이다. 정분류율이 0.8인 것은 실망스럽지 않으나 F1 스코어가 다소 낮는데 주로는 재현율(recall)이 낮아서이다.¹⁵⁾

[2] 두 의향을 가지는 복합표현의 경우, 각 의향에 따른 형태소의 TF-IDF 값을 모두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의향에 속하는 문장들의 형태소 TF-IDF 값만을 이용할 것인가?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고,¹⁶⁾ ‘배가 아프다①’의 훈련 데이터프레임을 구성할 때, ‘배가 아프다①’ 문서의 형태소 TF-IDF만을 사용해 보고(22),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를 ‘배가 아프다①’과 ‘배가 아프다②’의 형태소의 TF-IDF를 모두 사용해 보기로 한다(23).

(22) ‘배가 아프다①’의 형태소 TF-IDF만 이용한 경우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641	0.9325	0.5745	0.8772	0.6918	0.6101	0.6339	1.679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139	0.8135	0.4817	0.7356	0.5799	0.4676	0.4860	1.0260
svm	SVM - Linear Kernel	0.7696	0.0000	0.2592	0.7748	0.3402	0.2540	0.3169	0.951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571	0.8941	0.0982	0.9733	0.1772	0.1354	0.2625	0.872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7443	0.8581	0.0492	0.9667	0.0919	0.0690	0.1771	0.9020
nb	Naive Bayes	0.7381	0.9056	0.0259	0.8500	0.0498	0.0365	0.1202	1.1580

(23) ‘배가 아프다①, ②’ 두 의향 모두의 형태소 TF-IDF를 이용한 경우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641	0.9311	0.5960	0.8550	0.7006	0.6166	0.6344	11.1040
et	Extra Trees Classifier	0.8198	0.8948	0.3450	0.9546	0.5047	0.4238	0.5065	4.815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051	0.7973	0.4992	0.6880	0.5776	0.4555	0.4658	10.1240
svm	SVM - Linear Kernel	0.7835	0.0000	0.3447	0.7715	0.3783	0.3054	0.3653	3.9710

15) 정분류율(accuracy): $\frac{TP + TN}{TP + TN + FN + FP}$

재현율(recall, 민감도) : $\frac{TP}{TP + FN}$

정확도(precision) : $\frac{TP}{TP + FP}$

F1 스코어: 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

16) 복합표현의 명사 좌우 15개 형태소 이내의 것을 검색 공간으로 하되, 조사와 어미도 TF-IDF 값을 갖도록 했다. 200개의 feature를 사용하였다.

(22)와 (23)이 거의 차이가 없다.¹⁷⁾ 이항 분류라면 하나의 의향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에서 형태소의 TF-IDF 값을 계산하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훈련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3)과 같이 두 의향의 문장들을 다 이용하게 되면 feature가 두 배로 늘어가 처리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배가 아프다②’의 의향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에서 형태소의 TF-IDF 값을 뽑아서 분류 모델을 훈련시키도 차이가 없을까? 다음의 (24)의 결과를 보듯이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항으로 이루어진 복합표현의 경우 둘 중 어느 의향을 기준으로 삼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24) ‘배가 아프다②’의 형태소 TF-IDF만 이용한 경우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656	0.9090	0.5579	0.9030	0.6884	0.6093	0.6385	1.8530
nb	Naive Bayes	0.8249	0.8694	0.3820	0.9186	0.5377	0.4523	0.5192	0.9850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8179	0.7576	0.3560	0.9122	0.5072	0.4230	0.4947	0.724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147	0.7448	0.3138	0.9887	0.4746	0.3974	0.4948	1.1070

[3] 앞선 [1]의 설명에서는 문장 안에 있는 모든 형태소에 TF-IDF 값을 부여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긴 문장의 경우 복합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태소들이 많이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노이즈로 방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사적 의존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아직은 이용하기 어렵기에 일단 검색 공간을 조정하면서 이상적인 황금비율을 찾아보려 한다. 동일한 환경에서¹⁸⁾ 복합 표현의 명사를 기준으로 검색 공간을 5, 7, 10, 15 형태소로 늘려가며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의 경우, ‘배’를 기준으로 전후 각 5 형태소들 대상으로 하는 식이다.

(25) 좌우 각 5 형태소 안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432	0.9132	0.4925	0.8715	0.6262	0.5370	0.5736	1.900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242	0.7999	0.4408	0.8265	0.5726	0.4749	0.5132	1.1370
svm	SVM - Linear Kernel	0.7652	0.0000	0.1613	0.8238	0.2572	0.1937	0.2830	0.850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553	0.8482	0.0928	0.9617	0.1671	0.1271	0.2503	0.846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7480	0.7898	0.0655	0.9222	0.1212	0.0902	0.2028	0.8510

(26) 좌우 각 7 형태소 안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531	0.9205	0.5350	0.8691	0.6602	0.5737	0.6021	1.621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223	0.8051	0.4585	0.7973	0.5798	0.4777	0.5083	1.064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652	0.8596	0.1309	0.9633	0.2280	0.1764	0.3012	0.8610
svm	SVM - Linear Kernel	0.7546	0.0000	0.1036	0.8052	0.1717	0.1294	0.2174	0.9270
nb	Naive Bayes	0.7516	0.8089	0.0914	0.7522	0.1563	0.1157	0.2027	1.0940

17) 다만 feature를 500개로 크게 잡을 때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두 의향의 형태소 TF-IDF를 모두 이용하는 쪽이 더 높았다.

18) 조사와 어미를 포함하고 하나의 의향에서만 형태소 TF-IDF 값을 가져오며,

(27) 좌우 각 10 형태소 안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641	0.9309	0.5715	0.8810	0.6914	0.6097	0.6341	1.703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220	0.8137	0.4691	0.7814	0.5834	0.4799	0.5065	1.0440
svm	SVM - Linear Kernel	0.7777	0.0000	0.2460	0.8404	0.3334	0.2610	0.3339	0.702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641	0.8989	0.1242	0.9798	0.2148	0.1680	0.2912	0.8860
nb	Naive Bayes	0.7495	0.8521	0.1560	0.9352	0.1713	0.1314	0.2245	1.1550

(28) 좌우 각 15 형태소 안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641	0.9325	0.5745	0.8772	0.6918	0.6101	0.6339	1.679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139	0.8135	0.4817	0.7356	0.5799	0.4676	0.4860	1.0260
svm	SVM - Linear Kernel	0.7696	0.0000	0.2592	0.7748	0.3402	0.2540	0.3169	0.951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571	0.8941	0.0982	0.9733	0.1772	0.1354	0.2625	0.872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7443	0.8581	0.0492	0.9667	0.0919	0.0690	0.1771	0.9020
nb	Naive Bayes	0.7381	0.9056	0.0259	0.8500	0.0498	0.0365	0.1202	1.1580

(29) 좌우 각 20 형태소 안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604	0.9226	0.5620	0.8754	0.6827	0.5989	0.6241	1.655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088	0.7856	0.4830	0.7117	0.5741	0.4571	0.4720	1.0640
svm	SVM - Linear Kernel	0.7692	0.0000	0.2054	0.7434	0.2859	0.2200	0.2894	0.948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469	0.8762	0.0573	1.0000	0.1069	0.0812	0.1985	0.8920

(25-29)를 보면, 검색 공간을 늘리면 성능이 조금씩 개선되지만 전후 15 형태소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개선되기보다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은 [1]에서 제시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4] TF-IDF 분석을 할 때, 조사, 어미, 접사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한편으로는 TF-IDF를 계산할 때도 문제가 되고, 모델을 훈련시킬 때도 문제가 된다. 일단 계산과 훈련의 과정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동일한 처리를 하였다. 모델 검증 과정을 통해 조사/어미와 접사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접사는 노이즈로 작용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에 격조사와 어미는 문장 수준에서 형태소의 TF-IDF를 이용할 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나, TF-IDF의 검색 공간을 7형태소 ~ 20형태소로 설정할 경우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¹⁹⁾ 다음 자료는 다른 조건은 동일한 환경에서, 복합표현의 명사를 기준으로 전후 7 형태소 이내, 20 형태소 이내에 있는 형태소만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30) 조사/어미 포함된 경우 (7 형태소 이내)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564	0.9236	0.5429	0.8756	0.6687	0.5838	0.6117	1.924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8253	0.8066	0.4501	0.8178	0.5788	0.4806	0.5155	1.1760
nb	Naive Bayes	0.7740	0.8521	0.8264	0.5975	0.6276	0.4842	0.5324	1.150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707	0.8958	0.1511	0.9554	0.2561	0.2011	0.3211	0.9080

19) 보조사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보조사는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성능 검증을 하였다.

(31) 조사/어미 배제된 경우 (7 형태소 이내)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7905	0.8916	0.2675	0.8547	0.4057	0.3187	0.3989	1.677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740	0.7334	0.2812	0.7072	0.3980	0.2902	0.3387	1.0850
svm	SVM - Linear Kernel	0.7505	0.0000	0.1310	0.7637	0.1989	0.1395	0.2168	0.881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473	0.8302	0.0669	0.8907	0.1240	0.0902	0.2002	0.9770

(32) 조사/어미 포함된 경우 (20 형태소 이내)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ogistic Regression	0.8579	0.9276	0.5605	0.8633	0.6783	0.5925	0.6161	1.7410
	K Neighbors Classifier	0.7938	0.7906	0.4787	0.6638	0.5539	0.4247	0.4356	1.1220
	SVM - Linear Kernel	0.7608	0.0000	0.1407	0.8597	0.2313	0.1718	0.2708	0.7800
	Extra Trees Classifier	0.7557	0.8841	0.0899	1.0000	0.1631	0.1255	0.2538	0.9500

(33) 조사/어미 배제된 경우 (20 형태소 이내)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168	0.9182	0.3805	0.8601	0.5266	0.4336	0.4895	1.6950
nb	Naive Bayes	0.8062	0.8619	0.7950	0.6513	0.6553	0.5348	0.5675	1.191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670	0.7101	0.3465	0.6194	0.4417	0.3100	0.3319	1.1220
et	Extra Trees Classifier	0.7495	0.8673	0.0681	0.9857	0.1260	0.0953	0.2166	0.9400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7436	0.8048	0.8769	0.5221	0.6431	0.4653	0.5162	0.8320

(30-31), (32-33)은 각각 쌍을 이루는데 조사/어미가 포함되어 TF-IDF 분석을 한 것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제 미세 조정이 끝나고 다른 언어학적/통계적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성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안대로 각 복합표현별 의항 판단 모델을 선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34) ‘배가 아프다’의 의항 판단 모델 비교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8813	0.9339	0.6618	0.8651	0.7486	0.6730	0.6841	9.4070
svm	SVM - Linear Kernel	0.8476	0.0000	0.6445	0.7816	0.6712	0.5818	0.6007	2.9000
et	Extra Trees Classifier	0.8216	0.9025	0.3576	0.9445	0.5159	0.4337	0.5116	3.2730
rf	Random Forest Classifier	0.8044	0.8946	0.2825	0.9593	0.4274	0.3540	0.4514	3.1790
knn	K Neighbors Classifier	0.7912	0.7955	0.5936	0.6184	0.6035	0.4623	0.4641	10.7510
nb	Naive Bayes	0.7520	0.8018	0.9087	0.5224	0.6633	0.4889	0.5360	3.0900

(35) ‘눈을 감다’의 의항 판단 모델 비교

	Model	Accuracy	AUC	Recall	Prec.	F1	Kappa	MCC	TT (Sec)
lr	Logistic Regression	0.7647	0.8530	0.7647	0.7637	0.7533	0.5461	0.5598	74.5420
ridge	Ridge Classifier	0.5933	0.0000	0.5933	0.5337	0.4673	0.0720	0.1468	8.2120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0.5920	0.5153	0.5920	0.5924	0.4553	0.0368	0.1098	10.4360
dummy	Dummy Classifier	0.5818	0.5000	0.5818	0.3385	0.4280	0.0000	0.0000	9.0310

(34)는 복합표현 ‘배가 아프다’에서 ‘배’를 전후한 각 15 형태소 이내의 형태소(조사, 어미 포함)를 대상으로 두 의항의 문장에 등장하는 형태소들을 TF-IDF 값을 부여하고 이를 분류 모델에 적용한 결과이다.²⁰⁾ (35)는 ‘눈을 감다’를 다항 분류 모델에 훈련시키고 평가한 결과이다.

5. 결론

○ 종합적인 검토 결과

- 문장 단위보다는 복합 표현의 명사를 기준으로 10~15 형태소 이내의 형태소를 TF-IDF 분석하여 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음.
- 적절한 검색 공간의 경우 조사, 어미는 의항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 수작업 분석에서도 의항 분석이 까다로웠던 ‘냄새를 풍기다’는 모델의 성능이 조금 더 떨어졌음.

○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 관용표현의 다양한 제약을 반영해 주면 성능 향상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수식 제약, 활용 제약 등
- 조사/어미가 일정 검색 공간에서는 중요한 역할 수행함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보조 용언, 문법적 언어 등을 단위화하여 처리해 주면 성능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축자적 표현과 비합성적 표현의 형태소 임베딩을 비교해 보았는데, 단어의 의항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함.

20) ‘배가 아프다①’의 형태소만으로 훈련했을 때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Accuracy 0.8711, F1 0.7175 값이 나왔다.

■ 참고문헌

박진호(2021),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한국어통사론 연구회 2021년 6월 발표회.

박진호(2023), “박완서 단편소설의 텍스트마이닝”,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발표회 2023년 6월 발표회.

이기창(2019), 한국어 임베딩, 에이콘.

이종화 외(2019), TF-IDF를 활용한 한글 자연어 처리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28-3.

Cruse, A.(2000), *Meaning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Géron, A.(2023),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and TensorFlow(3rd Edition)*, O'reilly.

Mel'čuk, I. et al.(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Editions Duculot.

Tunstall, L. et al.(2022),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Transformers*, O'reilly.

■ 참고 웹사이트

<https://pycaret.org/>

<https://bareun.ai/>

▣ 토 론

“형태소 임베딩 정보를 이용한 합성성 문제 검토”에 대한 토론

김건희(강원대)

국어학 연구에 다양한 언어 처리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하고, 인문학부 대학생들도 ‘과이션, 인공지능’과 같은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 발표를 기뻐하는 한말연구학회와 깊이 있는 주제 발표를 해 주신 임근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초보적 수준의 자연어처리 이해도를 가진 국어학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국어학적 관점

<1>

명사를 중심으로 우측 어절, 좌측 어절을 다 검색 대상으로 하여 추출하셨는데(각주7), 예를 들어, ‘감은 눈’, ‘아픈 배’의 경우(좌측 1어절) 축자적 의미일 확률이 높고, ‘배가 아프다’, ‘눈을 감다’의 경우(우측 1어절) 관용적 의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빈도뿐만 아니라, 단어가 등장하는 순서 또한 고려해서 적용하면 기계학습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2>

추후 관용적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배가 아프다 : 부러워하다), 축자적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배가 아프다 : 복통)의 상위 TF-IDF 값 형태소 주요 features 추출해서 활용하는 것도 합성성 구별 언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국어학자로서 언어처리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어처리 연구 기간, 관련 교과목 개설, 스터디 등)

[2] 자연어처리 관점

<1> 임베딩 추가 예시

임베딩이 자연어(단어)를 숫자의 나열인 벡터로 바꾼 결과 혹은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7쪽의 예시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단어 빈도의 벡터를 만드셨습니다. ‘빈도’는 어차피 숫자의 나열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예시 외에 다른 예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F1 스코어’

4장부터는 인문학도가 읽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 전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단적으로 (16)-(18) 자료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F1 스코어’로 설명하셨는데, 이런 개념 용어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F1 스코어’(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가 구체적으로 언어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위 질문과 같은 선상에서,

정확도 등의 추출 공식을 (각주15)에서 제시하셨는데, TP, FN, TN, FP 약어에 대한 개념어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4>

궁극적인 이 논문의 목적은 유의미한 언어 지식을 기계에 학습시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관용적 의미, 혹은 축자적 의미 문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features 정보 등을 기계에(번역기 등) 학습시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이 결과 자료의 활용에 대해 구두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배가 아프다’ 대신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등의 오기가 나타남.

제57회 한말연구학회

AI 기반 글쓰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김한샘

YONSEI UNIVERSITY



延世大學校

도입

AI 기반 글쓰기 평가는 왜 필요한가? (민병곤, 2022)

(1) 사회적 소통 증대에 따른 쓰기 능력의 중요성 상승 개인

국어능력은 학업 및 업무의 성공적 수행, 사회적 관계의 유지 및 형성, 정체성의 형성 및 발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바, 개인과 사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최근 컴퓨터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문식 환경의 변화 등에 힘입어 디지털 환경에서 쓰기 활동에 기반한 사회적 소통이 일상에서 증대되고 있고, 쓰기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성인이 학습 과제, 업무 기획안, 보고서 등 학업 및 직무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다. 따라서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쓰기 능력을 고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진단체계가 요구**된다.

한국 사회

(2) 성인의 쓰기 능력의 체계적 평가에 기반한 선발 및 교육 요구

현대 사회에서는 학문 및 산업 분야에서 분업화와 전문화, 고도화가 심화됨에 따라 학업 및 직무 일반에 요구되는 쓰기 능력의 기대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기관, 기업 등 각급 사회 집단에서는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고비용을 감수하고 논술과 국어능력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쓰기와 관련된 학업 및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피드백에 대한 요구**가 높음바, 학습을 위한 기초 소양으로서 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평가 및 인공지능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3) 비용 절감을 위한 언어 능력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 요구

최근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가운데 대규모 학습 데이터 세트 구축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한 **쓰기 및 말하기 평가 관련 기술**이 언어 능력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존에 영어권,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쓰기 자동 채점 기술을 한국어 쓰기 평가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쓰기 평가와 같이 전문가 채점에 기반한 질적 평가가 중요시되는 분야에서는 시간 소요 및 비용 문제와 맞물려 공공 및 민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평가에서 객관성을 통한 간접 평가나 한 단락 수준의 짧은 글을 쓰는 정도로 평가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채점에 준하는 수준의 기계 채점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기에 중장기 계획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 진단체계의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흐름

-3-

AI 기반 글쓰기 평가는 왜 필요한가? (연세대)

■ AI 기반 챗봇 사용자로서의 학습자 평가 필요

1:1 언어학습 튜터링 기술 개발

말하기/쓰기 평가와 챗봇을 이용한
CALL(Computer Assistant Language Learning) 서비스



1887년 3월 3일,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 헬렌 켈러 -

맹농아 헬렌켈러만의 1:1 언어학습 튜터링
...결에서 세상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려는
손바닥에 계속해서 알파벳을 써 주었다.

<헬렌켈러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앤 설리번>

... 헬렌켈러는 후일 독일어를 비롯한 5개 언어 구사

1:1 인공지능 튜터링 SW기술은 교육과 컴퓨터 산업 공통의 꿈

-4-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 CALI (computer-assisted language instruction) → CALL

◆ 교수·학습의 중심 이동: 교수자 → 학습자

■ CALL

◆ 학습자 중심 학습 자료를 컴퓨터가 제공

- 상호 작용과 개별화가 핵심 (일대다의 교수·학습 환경 한계 극복)

■ Blended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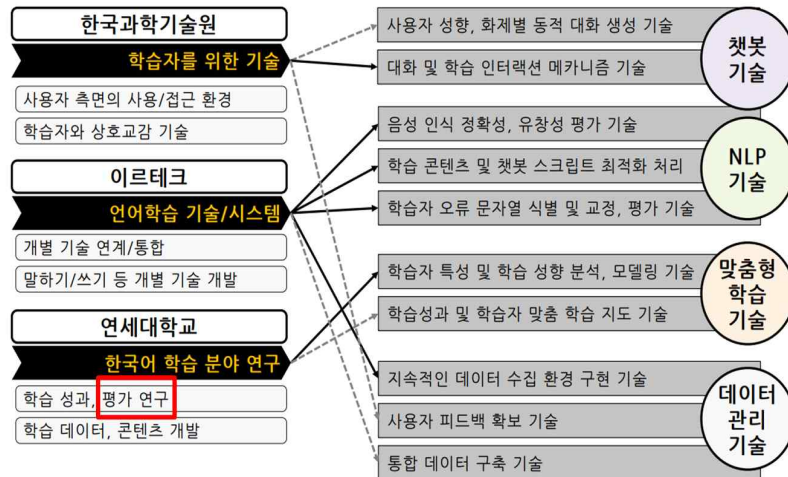
◆ 직접 교수 + CALL

-5-

CALL의 한국어교육정보학 분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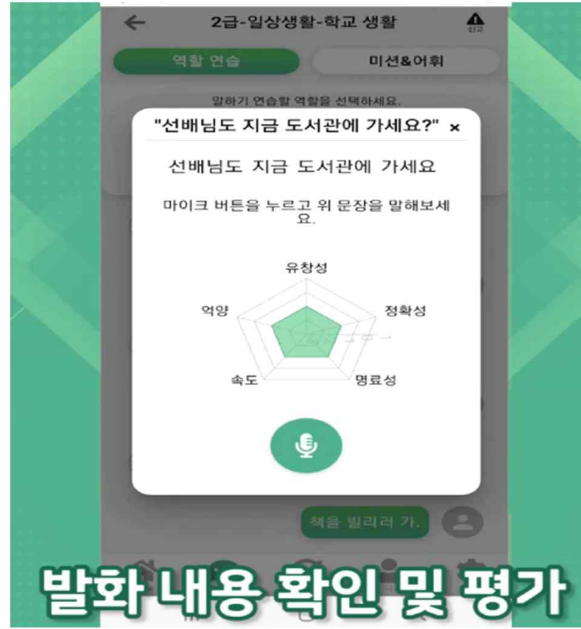
2017년도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말하기/쓰기 평가와 챗봇을 이용한 1:1 언어학습 튜터링 기술 개발



-6-

챗봇 프로그램의 말하기 평가(세종학당 AI 선생님)



-7-

학습자 말하기 평가 연구(연세대)

평가 대상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총체적 평가	인상 평가(1-5점 척도)		
단어	총체적 평가	인상 평가(1-5점 척도)	문장	분석적 평가		
	이해도	발화의 음성적 자원과 내용의 의미 차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정도			지음 모음	1: 본질음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여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1: 발음과 억양이 매우 명료하지 않아서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2: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2: 발음과 억양이 명료하지 않아서 의미를 간신히 이해할 수 있다.				3: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빈번하다.
	유창도	3: 발음과 억양이 명료하지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가끔 있다.
		4: 발음과 억양이 가끔 명료하지 않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5: 본질음 발음이 매우 정확하다
5: 발음과 억양이 매우 명료하여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발음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정확도	발화의 흐름이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정도	발음 규칙	2: 발음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1: 휴지나 머뭇거림이 매우 많아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3: 발음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휴지나 머뭇거림이 많아서 상당히 알아듣기 어렵다.		4: 발음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억양 강세	3: 휴지나 머뭇거림이 빈번해서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다.		억양 강세	5: 발음 규칙을 잘 적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한다.		
	4: 휴지나 머뭇거림이 가끔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다.			1: 억양과 강세가 매우 자연스러운 외국인 투이다.		
	5: 휴지나 머뭇거림이 없이 매우 매끄러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2: 억양과 강세가 상당히 부정확스럽다.		
휴지 머뭇거림	본질음(지음/모음) 발음 규칙과 초본질음(억양/강세) 등의 차원에서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정도	휴지 머뭇거림		3: 억양과 강세가 부정확스럽다.		
	1: 본질음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억양과 강세가 부정확스러워 외국인 투이다.			4: 억양과 강세가 대체로 자연스럽다.		
	2: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고 억양과 강세가 상당히 부정확스럽다.			5: 억양과 강세가 매우 자연스러운 외국인 투를 찾기 어렵다.		
명료성	3: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빈번하고 억양과 강세가 다소 부정확스럽다.		휴지 머뭇거림	1: 휴지나 머뭇거림이 매우 많아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4: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가끔 있고 억양과 강세가 대체로 자연스럽다.			2: 휴지나 머뭇거림이 많아서 상당히 알아듣기 어렵다.		
	5: 본질음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억양과 강세가 자연스러워 외국인 투를 찾기 어렵다.			3: 휴지나 머뭇거림이 빈번해서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다.		
속도	1: 본질음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억양과 강세가 부정확스러워 외국인 투이다.	휴지 머뭇거림		4: 휴지나 머뭇거림이 가끔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다.		
	2: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고 억양과 강세가 상당히 부정확스럽다.			5: 휴지나 머뭇거림이 없이 매우 매끄러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3: 본질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빈번하고 억양과 강세가 다소 부정확스럽다.					

-8-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평가

-9-

Automated Writing Evaluation (by Kentaro Inui)

Automated Writing Evaluation (AWE)

- NLP tasks to support human students
 - Evaluate the quality of what students produce
 - written answers to questions
 - argumentative essays/debates, etc.
 - Provide feedback

TOPIC: Smoking should be completely banned at all the restaurants in the country.


RESPONSE:


(S1) It's important to ban to smoke at the restaurants.


(S2) Because, smokers will disturb others who didn't smoke, they can't enjoy their food.


(S3) They smoke at all place include in the restaurant.

(S4) From these reasons, I think we should ban...

 <<ban>> is followed by a <gerund> or <from + gerund> instead of a <to infinitive> to describe prohibited acts.

 The <preposition> <<at>> may be used with <<place>> to indicate a place where something takes place, but it is more common to use 'in' inst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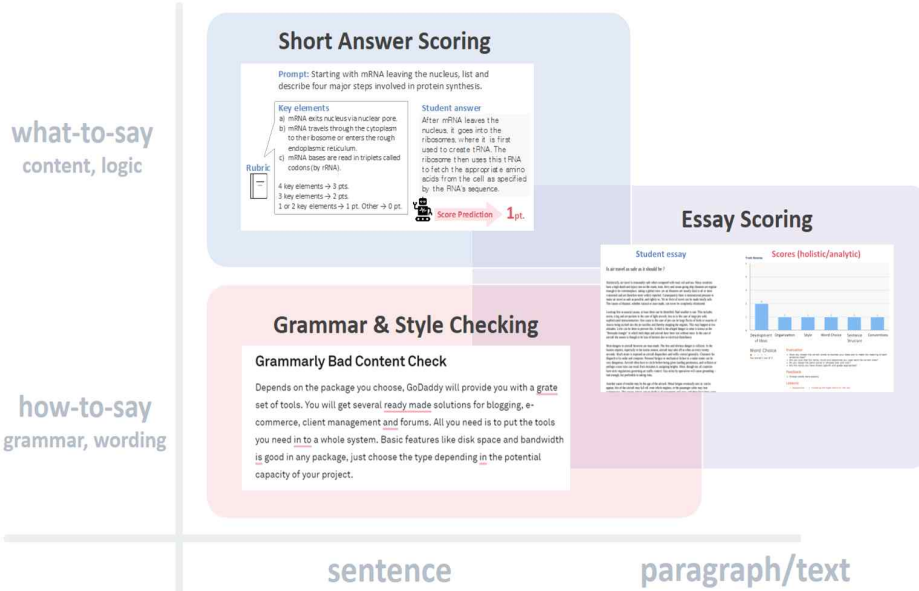
 The <verb> <<include>> does not function as a <preposition> in its infinitive form. It becomes a <deverbal preposition> when taking the <-ing form>.

 The sentence makes sense with the <preposition> <<from>>, but there is a more appropriate preposition used with the <noun> <<reason>>.

-10-

Automated Writing Evaluation (by Kentaro Inui)

AWE Tasks



-11-

Automated Writing Evaluation (by Kentaro Inui)

Short Answer Scoring (SAS)

- Predicting a score to an input answer according to a predefined rubric
 - Primary focus on content (e.g., reading, science, history)
 - Language (wording, fluency) is secondary
 - Rubric comprising several key elements
 - Answers scored by determining whether each key element is adequately stated

Prompt: Starting with mRNA leaving the nucleus, list and describe four major steps involved in protein synthesis.

<p>Rubric</p>	<p>Key elements</p> <p>a) mRNA exits nucleus via nuclear pore. b) mRNA travels through the cytoplasm to the ribosome or enters the rough endoplasmic reticulum. c) mRNA bases are read in triplets called codons (by rRNA).</p> <p>4 key elements → 3 pts. 3 key elements → 2 pts. 1 or 2 key elements → 1 pt. Other → 0 pt.</p>	<p>Student answer</p> <p>After mRNA leaves the nucleus, it goes into the ribosomes, where it is first used to create tRNA. The ribosome then uses the tRNA to find the appropriate amino acids from the cell as specified by the RNA's sequence.</p>
		<p>1 pt.</p>

-12-

Related Work

Pearson's Intelligent Essay Assessor

- Pearson's Intelligent Essay Assessor™ (IEA)
 - Internet-based tool for **automatically scoring** the **quality** of electronically **submitted essays**
 - 34M student essays in 2017
- Measurements
 - Ideas, organization, conventions, sentence fluency, word choice, and voice



LSA determines semantic similarity of words and passages by analyzing large bodies of relevant text

-15-

Related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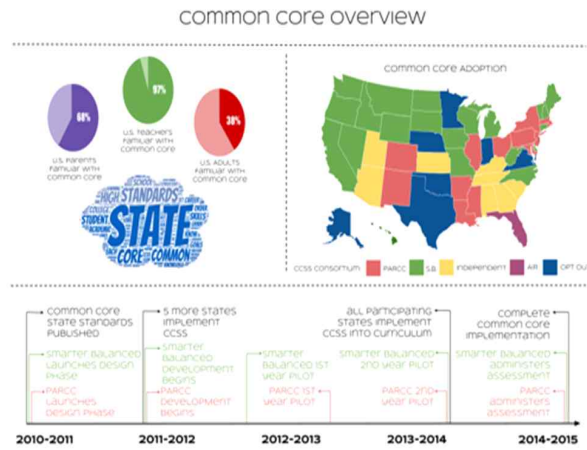
grammarly

- Grammarly Provides
 - Overall score
 - Suggestions
- Measurements
 - Correctness
 - Clarity
 - Engagement
 - Delivery
 - style

-16-

Use of AWE summative assessment

- Common Core Standards
→ a growing market for computer-based testing solution



-17-

AWE 관련 L2 학습자의 요구

-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한 언어 능력 개선
- 이를 위한 피드백 체계와 데이터 필요
 - ◆ 오류 분석 데이터
 - ◆ 오류 피드백 체계
 - ◆ 오류 피드백 코멘트 데이터

-18-

오류 분석 데이터 사례

Top-ranked L2 Written Errors in the Cambridge Learners Corpus (Leacock et al., 2014)

Rank	Error Type	Example
1	Content Word Choice Error	<i>We need to deliver the merchandise on a daily *base/basis.</i>
2	Preposition Error	<i>Our society is developing *in/at high speed.</i>
3	Determiner Error	<i>We must try our best to avoid *the/a shortage of fresh water.</i>
4	Comma Error	<i>However, *, I'll meet you later.</i>
5	Inflectional Morphology	<i>The women *weared/wore long dresses.</i>
6	Wrong Verb Tense	<i>I look forward to *see/seeing you.</i>
7	Derivational Morphology	<i>It has already been *arrangement/arranged.</i>
8	Pronoun	<i>I want to make *me/myself fit.</i>
9	Agreement Error	<i>I *were/was in my house.</i>
10	Run-on Sentence	<i>They deliver documents to them they provide fast service.</i>

-19-

오류 피드백 코멘트 데이터 사례

GEC comment generation

(Nagata EMNLP 2019, Nagata+ LREC 2020, Hanawa+ EMNLP 2021, Nagata+ INLG 2021)

Topic: Gardening

Student essay:

*I had ever been to gardening.
Because my mother's hobby is gardening. And I beyond gardening club for 11 years...*

<Past perfect> is used with a certain point of tim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before that point. Use <present perfect> to talk about experiences.

"have been to" is used to express "an experience in visiting." Use another <verb> for "gardening."

"beyond" is a <preposition> meaning "further away" or "outside a limit". Use the <verb> "belong" instead.

-20-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글쓰기 평가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명	주요 내용	성능
하민수 외(2019)	랜덤 포레스트 한국어 과학 교과 서술형 문항	정확도: 문항에 따라 89.8~98.5%
박세진 외(2020)	순환신경망 과학 교과 자동 서술형 문항	정확도: 문항에 따라 95.4~99.7%
박강윤 외(2021)	순환신경망 장단기 기억(Long-Short Term Memory, LSTM) 영어 에세이	정확도: 61%
조희련 외(2021)	KoBERT와 KoGPT2 한국어 학습자 쓰기	4개의 점수대로 분류 직업 주제(정확도 평균): KoBERT(46.7%), KoGPT2(48.5%) 행복 주제(정확도 평균): KoBERT(62.0%), KoGPT2(57.3%)
임경태 외(2021)	Multilingual BERT, XLM-RoBERTa, KLUE-RoBERTa, DistilKoBERT, KoBert, KoELECTRA 한국어 학습자 쓰기	정확도: 95.72~96.16%
이정희 (2022)	BERT+GAN 한국어 학습자 쓰기	정확도: 95.80%

-21-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연구 대상

-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https://kcorpus.korean.go.kr/>)

분류	작문 수
말뭉치 전체	34,342개
형태 주석	25,092개
오류 주석	6,742개
형태 주석 + 논설문	6,117개
오류 주석 + 논설문	1,430개

-22-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연구 대상

-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https://kcorpus.korean.go.kr/>)

대주제	작문 수
환경 문제	30
직업	30
CCTV	30
대안 가족	30
장애인	30
직장	30
모방 범죄	30
성공	30
인터넷 예절	30
자유 무역 찬반	29
고령화	29
광고	29
조기교육	29
성역할	27
총합계	413

- 14개의 주제로 각 주제별로 약 30개 작문 포함
- 중복되는 작문 7개, 구어 2개, 설명문 1개
- 총 403개
- 평가 점수 주석

-23-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데이터 세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작문 평가 데이터 구축 - 교사 평가(연구자) 점수 주석
자질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자 작문 자동 평가를 위한 언어 자질 추출 - 내용: 상위 점수 작문과의 유사도 - 구조: 논증 주석, 접속부사 수/종류 - 언어 사용의 정확성: 오류 수(전체 오류 수, 오류 유형) - 언어 사용의 다양성: 국제통용한국어 어휘 고급, 중급, 초급 어휘 수

→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델 학습 및 검증

-24-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채점 기준을 활용하여 점수를 주석함.

구분		채점 근거	점수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9점)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9점	64점	30점
글의 전개 구조(6점)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내용 전개의 긴밀성이 있는가?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65점	43점	20점
언어 사용(12점)	언어의 다양성(7점)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78점	43점	20점
	언어의 정확성(5점)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54점	32점	10점
사회언어학적 기능(3점)		구어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나 문법(종결어미, 어미, 조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문어의 특성을 살려 글을 썼는가?	3점	2점	10점

-25-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채점 기준을 활용하여 점수를 주석함.

표본 ID	급	모국어	주제	어휘	작문 텍스트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언어의 다양성 (7점)	언어의 정확성 (5점)	사회언어학적 기능(3점)	총점
15550	4급	일본어	감시 카메라 설치는 필요한가?	121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필요한가?	7	4	4	1	2	18
16435	5급	타이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136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예방이나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7	4	6	4	3	24
16596	5급	중국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251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감시 카메라 설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	6	7	4	3	29
16597	6급	중국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89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6	3	4	3	20
16682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97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 생활을 위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생겼다.	4	3	4	3	3	17
16683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13	요즘 감시 카메라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6	3	6	1	3	19
16684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34	요즘은 감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4	5	4	2	2	17
16685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11	요즘은 감시 카메라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4	5	3	2	2	16
16686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04	교실이나 우리 집 앞 주민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불편한 면도 있고 편리한 면도 있다.	5	4	3	2	2	16
16687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36	현대에는 감시 카메라가 어디든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6	4	4	2	2	18
16688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43	적는 교실이나 집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이 한성한다.	5	2	2	3	2	14
16689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17	계 집 앞에 또 교실 앞에 주민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안심할 것 같다.	5	4	2	1	2	14
16690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02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 사법들의 의견은 많이 다르다.	6	3	3	2	2	16
16691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16	요즘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졌다.	4	4	4	4	3	19
16692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94	나는 교실이나 집 앞에 공공장소로 주민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	4	4	3	3	20
16693	4급	몽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22	최근 혼자 사는 여학생들의 감시 카메라 장점에 설치하면 조금 불편한다.	4	3	3	1	3	14
16702	4급	베트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18	요즘은 마트와 은행이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감시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다.	4	3	3	3	3	16
16703	4급	베트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33	요즘은 현대 사회에는 감시 카메라가 점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볼 수 있다.	4	7	4	1	2	18
16704	4급	베트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42	주민 감시 카메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했다.	6	5	5	3	2	23
16705	4급	베트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58	현재 사회 안보 문제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4	6	4	1	3	18
16706	4급	베트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86	요즘에 길에 다니다가 보면 주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	5	4	4	3	20
16707	4급	베트남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93	주민 감시 카메라는 범죄를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다.	4	4	3	2	3	16
16711	4급	인도네시아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55	요즘은 이 현대 인생에는 누구든지 주민 감시 카메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4	4	4	2	20
16712	4급	인도네시아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61	나는 주민 카메라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7	5	4	3	3	22
16713	4급	인도네시아어	감시 카메라의 장단점	114	나는 내 집에 범죄 예방을 위해 교실이나 우리 집 앞에 주민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	4	3	3	3	17
16726	4급	일본어	감시 카메라	112	요즘 한국에서 감시 카메라를 자주 보게 됐다.	4	5	3	3	3	18
16727	4급	일본어	감시 카메라	131	요즘 밤에 나가면 곳곳에서 감시 카메라를 찾을 수 있다.	9	6	4	5	3	27
16728	4급	일본어	감시 카메라	113	현대 사회에는 과거에 비해 감시 카메라 설치 수가 증가했다.	9	6	5	4	3	27
16729	4급	일본어	감시 카메라	109	나는 교실이나 집 앞에 주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반대한다.	7	6	3	5	3	24
16730	4급	일본어	감시 카메라	149	요즘 여러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8	5	5	5	3	26

-26-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구분	채점 근거	채점 자질
내용 및 과제 수행(9점)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상위 점수 작문과의 유사도
글의 전개 구조(6점)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내용 전개에 긴밀성이 있는가?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논증 구조 주석 정보 활용 서론과 본론이 있는가? 반박 문장이 있는가?
언어 사용(12점)	언어의 다양성(7점)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국제통용 어휘 포함 비율(고급, 중급, 초급별) 국제통용 문법 포함 비율(고급, 중급, 초급별)
	언어의 정확성(5점)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오류 수, 오류 유형
	언어의 복잡성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정교하게 사용하는가? 접속부사 수 연결어미, 전성어미 수
사회언어학적 기능(3점)	구어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나 문법(종결어미, 어미, 조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문어의 특성을 살려 글을 썼는가?	구어성이 높은 어휘 포함 비율

-27-

머신러닝 활용 학습자 글쓰기 평가 사례

알고리즘	정확도(단위 %)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75.31
보팅(Voting): 에이다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75.31
결정 트리(Decision Tree)	72.84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K-NN)	70.37
이차 판별 분석(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QDA)	70.37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70.37
배깅(bagging)	69.14
에이다 부스트(Adaboost)	66.67
커널 서포트벡터 머신_Radial Basis Function (RBF)	61.73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Gaussian Naive Bayes)	56.79

-28-

최신 기술의 AWE 활용

- AWE와 관련해서 채점의 과정과 결과를 자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 기반 연구 활발
- 향후 XAI 연구가 발전하게 되면 인공지능경망 기반 AWE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생성 AI의 활용도 일반화되리라 예상
- AWE를 위한 데이터 구축에 생성 AI의 활용 가능

-29-

최신 기술의 AWE 활용 제안

Standard Prompting

Input

Q: Roger has 5 tennis balls. He buys 2 more cans of tennis balls. Each can has 3 tennis balls. How many tennis balls does he have now?

A: The answer is 11.

Q: The cafeteria had 23 apples. If they used 20 to make lunch and bought 6 more, how many apples do they have?

Model Output

A: The answer is 27. ❌

Chain of Thought Prompting

Input

Q: Roger has 5 tennis balls. He buys 2 more cans of tennis balls. Each can has 3 tennis balls. How many tennis balls does he have now?

A: Roger started with 5 balls. 2 cans of 3 tennis balls each is 6 tennis balls. $5 + 6 = 11$. The answer is 11.

Q: The cafeteria had 23 apples. If they used 20 to make lunch and bought 6 more, how many apples do they have?

Model Output

A: The cafeteria had 23 apples originally. They used 20 to make lunch. So they had $23 - 20 = 3$. They bought 6 more apples, so they have $3 + 6 = 9$. The answer is 9. ✓

- 생성 AI 분야의 발전된 프롬프팅 기법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AWE 데이터 구축에 도입 가능

-30-

Automated Writing Evaluation의 전망

<장점>

- 시간과 비용 절감
- 교육 환경에서 채점 및 피드백 제공의 효율성
(교사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음)
- 자동화된 피드백으로 교사 중심적-> **학생 중심적**이 됨(교사의 역할은 채점과 피드백 제공에 지배적이지 않음. 학생은 온라인으로 자체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
- 학습자가 즉시 오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학습이 가능함.
- 인공지능 기술 시스템의 표준화된 점수화가 객관적 정확성을 제공함.
- 개인적 주관에 따른 차이를 피할 수 있음.

<단점>

- 학생들이 자동화된 피드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교사가 AWE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자동화된 채점 알고리즘이 이상적인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 글을 쓴다는 점에서 글쓰기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
- 학생들이 기계 채점을 위해서만 글을 쓰는 부작용

<전망>

- AWE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직 발전 단계이고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함. 문장 길이, 단어 분포, 단어의 반복에 관한 통계분석 등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언어적 특성이나 쓰기의 내용 피드백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이 피드백에 의존할 만큼 완벽하지는 않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연구가 필요

-3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

■ 토 론

“AI 기반 글쓰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에 대한 토론

지현배(동국대)

김한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초중등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쓰기 교육이 강조되고, 에듀테크 혹은 AI 등이 근래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논문은 교육과 연구 공동체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동 숙의를 위한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AI 기반의 평가는 단순화 하면, 숙련된 혹은 전문가인 교수자가 행하던 피드백이나 수준 평가를 과학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전문가 그룹이 행하는 수준의 완성도가 관건이 됩니다. 정확성과 타당성 등이 요건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 맞춤형 교육을 무한대에 가깝게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발표자께서 AWE(Automated Writing Evaluation) 등은 규범 영역이나 ‘짧은’ 혹은 적은 데이터 등 제한된 조건에서는 활용 영역이 확보되고, 확대 혹은 확장되는 추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류’를 찾아 분석하고 개선 피드백을 수행하는 등은 ‘정답’이 존재하는 영역(대표적으로 규범)에서는 충분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뭉치 연구 성과 등이 이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의 <최신 기술의 AWE 활용 제안>이 이 발표문의 핵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생성형 AI등이 실용 단계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도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의 가능성은 알파고 등에서도 확인이 된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신 것에서도 적지 않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후’의 것에 대한 질문 혹은 요청입니다.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과 그것을 위한 <사람>의 노력(예를 들어 학습시킬 표준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교육용 챗봇 설계 및 수업 활용 방안 연구

이진(연세대)

< 차례 >

1. 머리말
2. 선행 연구
3.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4.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5. 맺음말

1. 서론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기술의 발달로 언어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언어교육용 챗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 원격 학습과 개별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챗봇이 많은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미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 상용화된 챗봇과 개인 연구자들이 챗봇 빌더를 통해 개발한 챗봇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챗봇들을 언어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고 학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왔다(Dizon, 2017; Moussalli&Cardoso, 2019, Dizon, 2020; Huang et al., 2022). 여러 연구에서 챗봇이 언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챗봇이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 상용화된 언어교육용 챗봇의 한계점 중 하나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변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 기관이나 교수자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교재나 교육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챗봇의 대화 주제와 활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개별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는 챗봇 빌더를 활용해 개별 수업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Chu&Min, 2019; Hwang&Lee, 2021; 박정아·이향, 2021; 정진경·이진·김한샘, 2022; 서지혜, 2023). 챗봇 빌더를 활용하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자연어로 대화를 입력하여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 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상용 언어교육용 챗봇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챗봇과 학습자의 대화에서 자유 대화(open-ended conversation)는 물론이고 특정 주제와 과제가 있는 목표 지향 대화(goal-oriented conversation)에서도 대화 중단이 없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Coniam, 2014; Jeon, 2022; Kuhail et al, 2022). 대부분의 상용 언어교육용 챗봇은 대화를 통제하지 않고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대화 패턴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거나 단순한 질문-응답의 구조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동환·박상인, 2019; 이장호 외, 2019; 추성엽 외, 2019; 박정아·이향, 202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최근 공개된 Chat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된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이전 챗봇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프롬프트(prompt)의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응답을 생성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Susnjak, 2022).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 언어교육용 챗봇이 단순히 학습자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ChatGPT는 지금까지 교사가 수행해 온 역할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 작문 채점을 ChatGPT에게 수행하게 하고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피드백을 쓰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Kasneci et al., 2023; Zhai, 2022). 그러나 아직 교육에서의 ChatGPT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Kuhail et al, 2022) ChatGPT의 언어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대체로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한국어교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용화된 한국어교육용 챗봇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이미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개발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등장한 Chat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제시한 것처럼 언어교육에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인공지능 챗봇의 활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챗봇이 한국어 교수·학습에 활용 가능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챗봇 활용 방안을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용 챗봇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챗봇 활용 연구는 활용한 챗봇의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세종학당 AI 선생님’과 같은 상용화된 챗봇의 학습 효과 검증과 관련된 연구로 챗봇을 사용하여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챗봇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다음으로 챗봇 빌더로 제작한 개별 수업 맞춤형 챗봇의 설계·제작·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Chat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활용 연구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어교육에서는 상용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나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학습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많았는데(이장호 외, 2019; 신동광, 2019; 추성엽·민덕기, 2019, 이용상·신동광, 2020)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교육용 챗봇의 학습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어교육에서 상용화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용 챗봇은 ‘세종학당 AI 선생님’을 들 수 있는데 유지연·유훈식(202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55명을 대상으로 ‘세종학당 AI 선생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하게 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챗봇과 학습자 간의 대화는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챗봇 빌더를 활용한 개별 수업 맞춤형 챗봇의 설계·제작·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상용화된 한국어교육용 챗봇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교육에서 챗봇 빌더를 활용한 연구는 챗봇 빌더로 제작한 챗봇으로 학습자가 영어 학습을 한 후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추성엽·민덕기, 2019; 한다운, 2021) 교사들에게 챗봇 빌더로 챗봇을 개발해 보게 하고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민덕기, 2019; 성민창, 2020). 반면에 한국어교육에서는 활용 가능한 챗봇 빌더 소개와 그 활용법을 제시하는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으며 챗봇 빌더로 제작한 챗봇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나 학습자와 챗봇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박정아·이향(2021)은 한국어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챗봇 빌더의 기능과 특성을 정리하고 챗봇을 활용한 실제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챗봇 빌더를 통해 구현된 챗봇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엄정운(2021)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챗봇 빌더인 다이얼로그플로우(Dialogflow)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연습용 챗봇을 제작하고 한국어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챗봇과의 대화 연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의 챗봇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진경·이진·김한샘(2022)은 다이얼로그플로우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용 챗봇을 개발하였다. 챗봇의 활용 목적에 따라 ‘문형 연습용’, ‘대화문 연습용’, ‘말하기 연습용’, ‘게임 활동용’으로 나누어 한국어교육용 챗봇을 개발하였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지혜(2023) 역시 다이얼로그플로우로 챗봇을 제작하여 개발한 챗봇이 한국어 말하기 연습 도구로서 적합한지 검증해 보았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제작한 챗봇과 대화를 나누게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챗봇과 학습자가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35%를 차지했는데 대화 실패 원인으로서는 발음 인식의 부정확성, 학습자 발화 의도 처리 오류, 학습자 오류문 처리의 부정확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한국어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 김형민(2023)은 ChatGPT와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ChatGPT를 통해 말하기와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상호작용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atGPT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하기 연습용과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왕감경(2023)은 ChatGPT와 New-Bing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출하고 FastText를 이용해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으며 추출된 고빈도 단어 간의 유사도 값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영어교육에 비해 교수·학습 현장에서 챗봇을 활용하고 학습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아직 한국어교육에서는 챗봇 활용 연구가 그 저변을 확대해 가는 단계에 있지만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이는 기존 상용화된 챗봇의 한계점을 개선한 개별 수업 맞춤형 한국어교육용 챗봇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존 한국어교육용 챗봇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챗봇을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고 학습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숙달도, 교수·학습 환경,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적합한 챗봇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챗봇을 적용해 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과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챗봇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수업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한국어교육용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챗봇 빌더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챗봇 빌더로는 스캐터랩 ‘핑퐁’, 단비아이엔씨 ‘단비 Ai’, 카카오 ‘카카오i 오픈빌더’, SK에이브릴 ‘에이챗(A-Chat)’, 네이버 ‘클로바(Clova)’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로그플로우 ES 버전(이하 다이얼로그플로우)¹⁾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용 챗봇을 제작해보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이얼로그플로우는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도 자연어로 대화를 입력하여 챗봇을 만들 수 있다.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설계하여 모바일 앱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등에 쉽게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용화된 한국어교육용 챗봇들은 대체로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말하기 연습용으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등의 교수·학습 단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말하기 활동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챗봇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Littlewood(1981:86)은 말하기 활동의 유형을 ‘의사소통 행위 전 활동’과 ‘유사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분한다. ‘의사소통 행위 전 활동’은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는 데 앞서 필요한 부분적인 기능들을 습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법적이고 구조적인 연습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사 의사소통 활동’은 실제 의사소통과의 유사한 활동으로 ‘정보차 활동’과 같이 상호작용 기능을 연습하기 위한 활동이나 역할극과 같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격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하기 전에 기초적이고 기계적인 연습 단계를 거친 후에 상호작용 기능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며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말하기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는 ‘모방형’ 말하기부터 ‘-ㅂ/습니다’를 ‘-아/어요’로 바꾸어 말하는 것과 같은 ‘집중형’ 말하기 등의 통제가 있는 말하기 활동을 시작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등의 점차 통제가 없는 말하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교수·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용 챗봇을 설계한다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게 쓰일 것이다.

정진경·이진·김한샘(2022)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챗봇 빌더인 다이얼로그플로우를 활용하여 챗봇을 활용 목적에 따라 ‘문형 연습용’, ‘대화문 연습용’, ‘말하기 연습용’, ‘게임 활동용’으로 나누어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이진·김한샘(2022)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챗봇 중에서 ‘말하기 연습용’ 챗봇을 세분화하여 설계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말하기 활동은 ‘모방형’이나 ‘집중형’ 말하기 활동과 같이 통제적 말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 대상 어휘와 표현에 익숙해진 후에 덜 통제적 말하기 활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덜 통제된 말하기 활동도 자기소개나 인터뷰와 같이 ‘질문-대답’의 단순한 구조의 말하기 활동부터 사회적 맥락을 가정하고 역할을 정하여 말하기를 하는 역할극이 있으며 그 외에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활동이 진행된다.²⁾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활동 중에서 ‘질문-대답’ 구조의 말하기 활동과 역할극을 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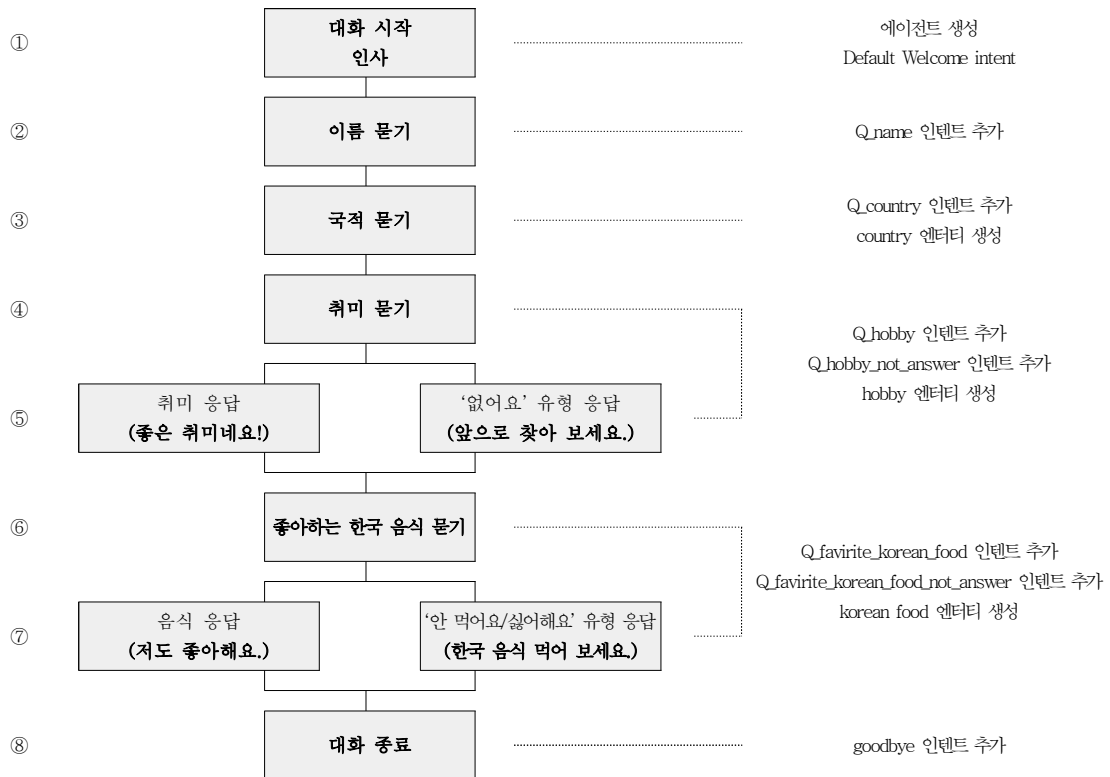
1) 다이얼로그플로우는 <https://dialogflow.cloud.google.com/>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접속을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다이얼로그플로우는 ES 버전과 CX 버전이 있다. ES 버전은 중소 규모의 단순한 에이전트에 적합하며 ‘Intent’로 대화를 구성하고 ‘Context’로 대화의 흐름을 제어한다. CX 버전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에이전트에 적합하며 ‘Flows’와 ‘Pages’가 대화 설계의 구성 요소로 대화 흐름은 ‘state handlers’를 사용하여 제어한다.

2) Brown(2015)은 말하기 활동을 ‘모방형’, ‘집중형’, ‘반응형’, ‘정보 교류적 대화’, ‘사교적 대화’, ‘확장형 말하기’로 분류하였다. ‘모방형’은 형태에 집중하는 기계적인 반복 훈련을 말하고, ‘집중형’은 학습자가 보다 자기

봇 빌더를 활용해서 한국어교육용 챗봇으로 구현해 보고자 한다.

3.1 말하기 연습용 챗봇 1: 자기소개하기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 말하기 연습용 챗봇을 설계해 보았다. ‘질문-대답’의 단순한 구조의 말하기 활동으로 챗봇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학습자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자기소개’를 주제로 한 말하기 연습용 챗봇의 대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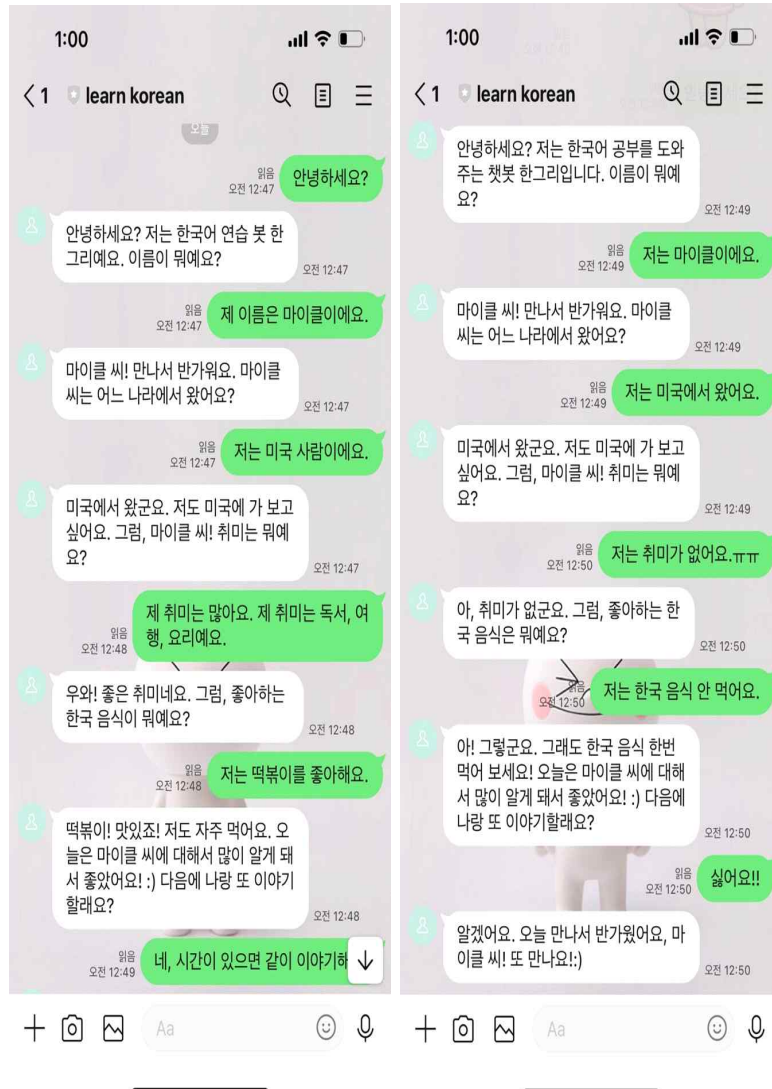
학습자가 챗봇에게 인사하면 대화가 시작된다(①). 챗봇이 학습자에게 이름을 묻고 학습자가 이름을 대답한다. 챗봇은 학습자의 이름을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대화 중간에 학습자의 이름을 불러 주도록 설계하였다(②). 다음으로 챗봇이 학습자의 국적을 묻고 학습자가 대답한다(③). 학습자의 국적은 엔터티(Entity)³⁾로 생성하여 다양한 나라 이름을 포함시킨다. 다음은 챗봇이 학습자의 취미를 묻는다(④). 취미 역시 엔터티(Entity)를 생성하여 다양한 취미를 포함시킨다. 취미의 경우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므로 응답 유형은 취미를 대답하는 경우와 ‘없다’ 유형의 대답을 하는 경우로 분리하여 챗봇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⑤). 마지막으로 챗봇이 학습자에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묻는다(⑥). 한국 음식

주도적으로 혹은 짝 활동의 일부로 형태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형’은 교사나 다른 학습자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짧은 응답을 하는 것이다. ‘정보교류적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반응형보다 의미협상적 성격이 강하다. ‘사교적 대화’는 정보 교환보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하기 유형이며 ‘확장형 말하기’는 연설, 발표와 같은 독백으로 수행된다.

3) 엔터티(Entity)는 발화 안에서 교체 가능한 정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취미와 나라 등의 엔터티를 생성하고 그 안에 같은 개념의 하위 항목을 포함시키면 같은 엔터티 안에 있는 항목들은 같은 범주의 항목임을 챗봇이 인식할 수 있다.

역시 엔터티(Entity)를 생성하여 다양한 한국 음식을 포함시켰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안 먹는다’라는 응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응답 유형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⑦). 질문이 끝나면 인사를 나누고 대화가 종료된다(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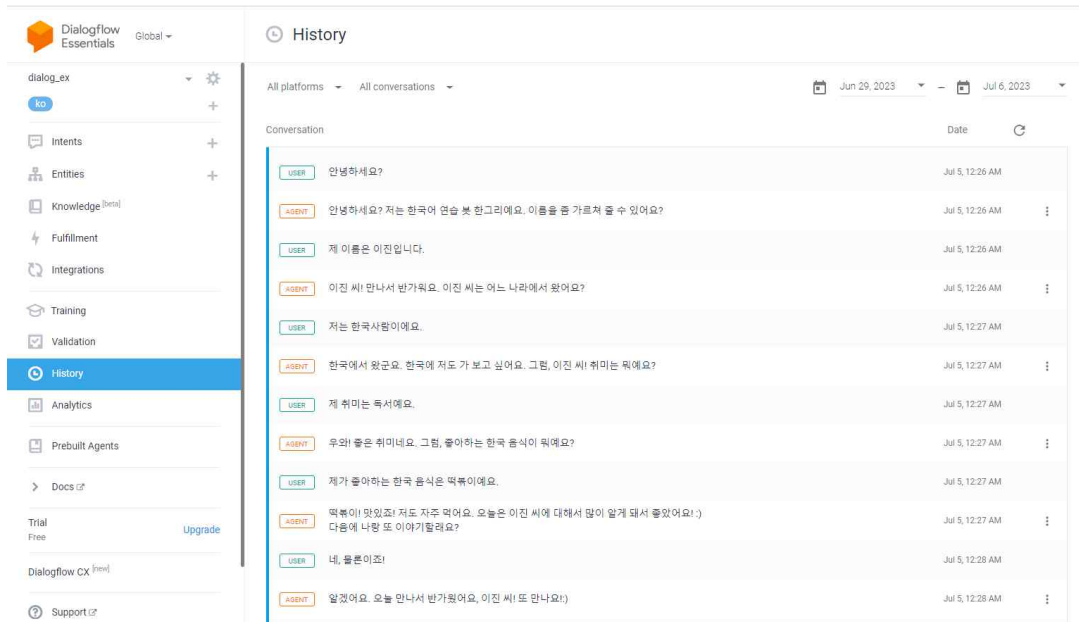
위와 같은 대화 흐름으로 설계한 챗봇을 아래 그림과 같이 라인(Line) 모바일 메신저와 연동해 보았다.



[그림 2] ‘자기소개’ 말하기 연습용 챗봇 예시 (라인 연동)

하얀색 말풍선은 챗봇의 발화이고 연두색 말풍선은 학습자의 발화이다. 단순히 챗봇이 질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이름을 불러 주고 학습자의 발화에 대해 호응해 주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챗봇과 학습자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왼쪽 그림의 경우 사용자가 챗봇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한 경우라면 오른쪽 그림의 경우 없거나 싫다와 같은 불성실한 대답을 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챗봇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챗봇을 설계하였다.

챗봇과 학습자의 대화는 히스토리(History) 메뉴에 아래와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습자의 오류를 피드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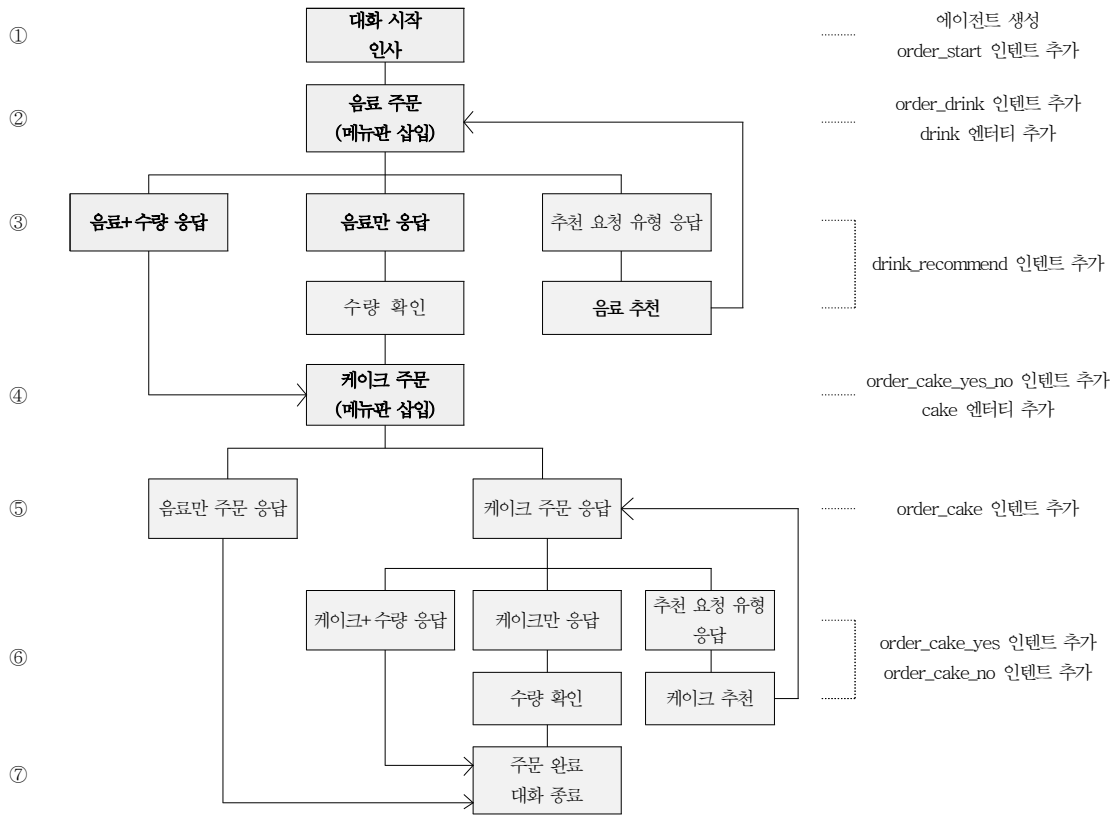
[그림 3] 구글 다이얼로그플로우 히스토리 활용 예시

3.2 말하기 연습용 챗봇 2: 주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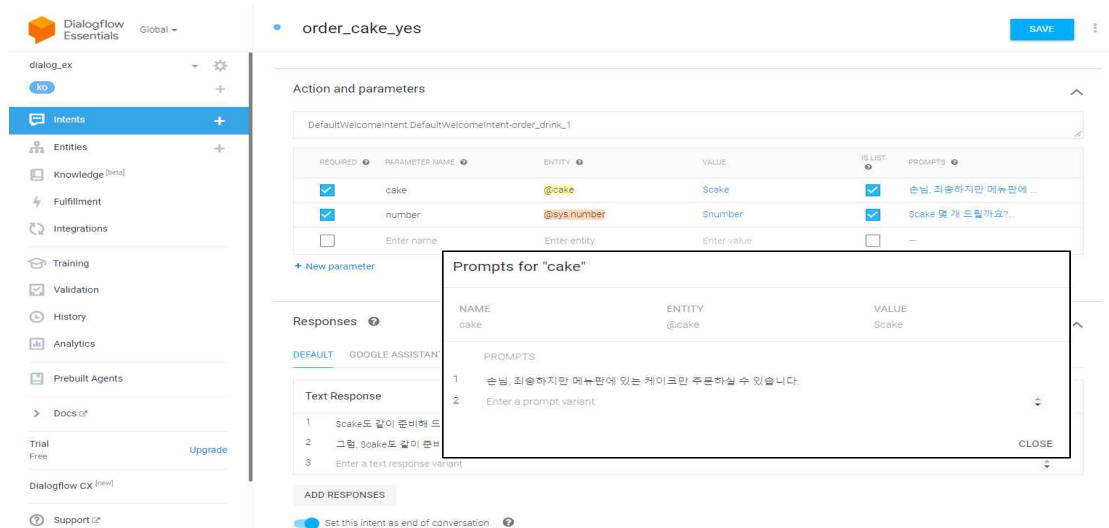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카페에서 주문하기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기 연습용 챗봇을 설계해 보았다. 챗봇이 카페 직원 역할을 하고 학습자가 손님 역할을 하도록 대화 흐름을 설계하였다. 역할극을 챗봇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와 같은 ‘질문-응답’ 구조의 챗봇보다는 좀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학습자가 챗봇에게 인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다(①). 챗봇이 메뉴판을 보여주며 손님에게 음료를 주문하도록 한다(②). 다이얼로그플로우는 대화 중간에 이미지, 오디오, 버튼 등을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실제성 있는 대화를 생성할 수 있다. 메뉴판 이미지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한 어휘와 표현만을 활용한 간단 메뉴판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중급이나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실제 카페의 메뉴판을 그대로 활용하여 실제성을 높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음료 주문 시 학습자의 응답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챗봇이 대응하도록 설계하였다. 학습자가 음료와 수량을 모두 말하는 경우에는 케이크를 주문하도록 연결하고 음료만을 말할 경우에는 수량을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숫자와 단위 명사에 대한 연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음료를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응답의 경우에는 챗봇이 음료를 추천한 후에 다시 무슨 음료를 주문할지 학습자에게 묻도록 하였다(③). 케이크 주문 역시 음료 주문과 같은 대화 흐름으로 설계하였는데 케이크를 주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주문이 완료되고 대화가 종료되도록 설계하였다(④, ⑤, ⑥). 음료와 케이크 주문이 끝나면 주문이 완료되고 대화가 종료된다(⑦). 자기소개 말하기 연습용 챗봇과 마찬가지로 음료와 케이크는 따로 엔티티를 생성하여 메뉴판에 있는 음료와 케이크를 추가하였다.



[그림 4] '주문하기'를 주제로 한 말하기 연습용 챗봇의 대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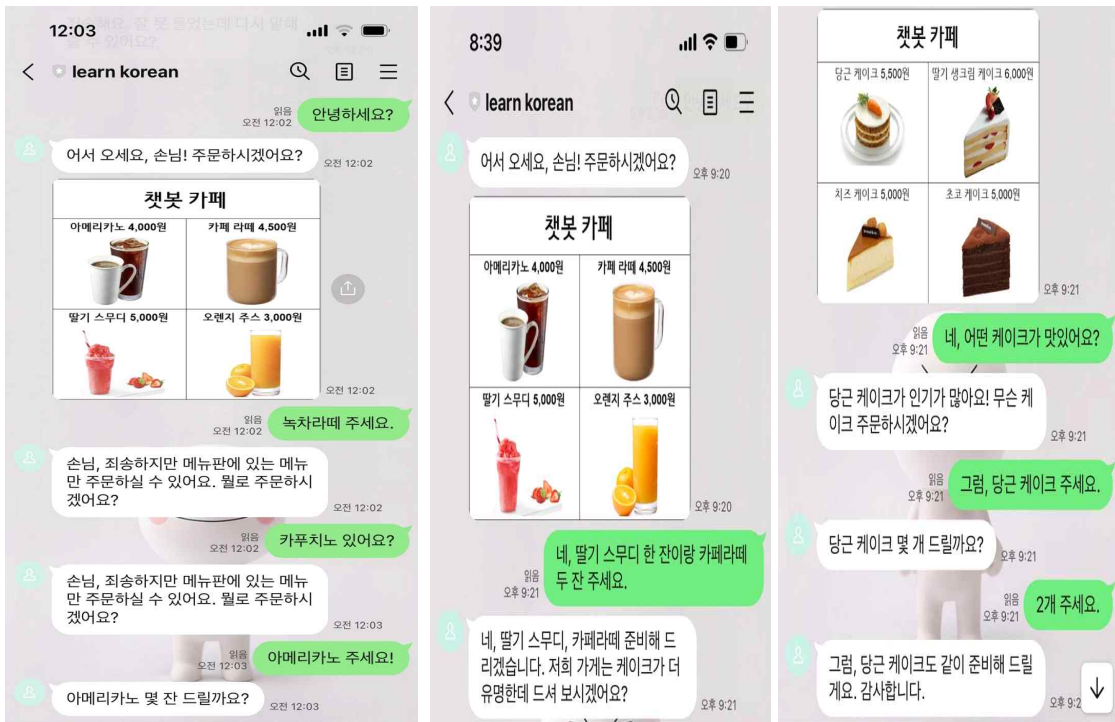


[그림 5] 구글 다이얼로그플로우 프롬프트 기능 활용 예시

메뉴판에 없는 음료를 주문하거나 음료나 케이크 주문 시 수량을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챗봇이 따로 학습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그림 5]와 같이 액션&파라미터(Action and parameters) 메뉴에서 프롬프트(prompt) 기능을 활용하였다.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주문할 경우에는 메뉴판이 있는 메뉴를 주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음료나 케이크의 수량을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챗봇이 수량을 질문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하였다.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만한 상황에 대해 챗봇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녹차라떼나 카푸치노와 같이 메뉴판의 없는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에 프롬프트에 입력한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다시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위의 [그림 7]은 ‘주문하기’ 말하기 연습용 챗봇을 라인 모바일 메신저에 연동한 모습이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메뉴판을 직접 만들어 삽입하였다. 챗봇이 학습자가 주문한 음료와 케이크를 한 번 더 언급해 주면서 학습자가 챗봇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7] ‘주문하기’ 말하기 연습용 챗봇 예시 (라인 연동)

[그림 6] 프롬프트 기능 구현 예시(라인 연동)

기존 한국어교육용 챗봇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자가 미리 정해진 대화 패턴에서 벗어난 발화를 할 경우에 자주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챗봇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알아듣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대화 중단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 ChatGPT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한국어 수업에 Chat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

4) ChatGPT는 <https://chat.openai.com/>에서 활용할 수 있다.

봇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4.1 챗봇 빌더의 입력 데이터 생성

챗봇 빌더의 입력 데이터로 ChatGPT가 생성한 응답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플로우는 개발자가 챗봇과 학습자의 예상 발화를 자연어로 입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발화의 경우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형태의 발화를 생성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수 경력이 많은 교사의 직관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형태의 발화를 풍부하게 입력할수록 챗봇이 학습자의 발화를 잘 이해하여 대화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와 챗봇의 발화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은 꽤 번거로운 일이므로 이를 ChatGPT에게 생성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챗봇 빌더를 활용하여 좀 더 쉽게 챗봇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ChatGPT로 생성한 학습자 숙달도별로 활용 가능한 문장 예시

초급	중급
<p>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10개 써 주세요.</p> <hr/> <p> 1.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2. 처음 뵙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4. 반갑습니다! 성함을 알고 싶어요. 5.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6.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7. 안녕하세요!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8.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9.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10.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p>	<p> 한국어 중급 학습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10개 써 주세요.</p> <hr/> <p> 1.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에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반갑습니다! 성함을 여쭙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3.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5. 반갑습니다! 성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7.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은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8.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9. 반갑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0.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p>
고급	
<p>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10개 써 주세요.</p> <hr/> <p> 1. 예쁘신 이름이시네요.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2.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유한 성함을 가지셨군요. 어떻게 부르면 되시나요? 3.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성함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4. 이름에 대해 궁금했어요. 성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름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함을 알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6.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서 이름을 알고 싶어요. 성함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7. 당신의 이름은 마치 시를 읽는 듯한 아름다움이 있어 보여요. 성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이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상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함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9. 이름은 당신의 독특한 개성을 반영합니다. 성함을 알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10. 이름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함을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p>	

ChatGPT로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학습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을 10개를 각각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ChatGPT가 초급·중급·고급 학습자를 어떤 기준으로 변별하여 문장을 생성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초급·중급·고급 학습자에 따라서 다른 문장을 생성하였다.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졌으며 초급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름을 묻고 있다면 중급과 고급에서는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완곡한 표현을 써서 공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의 경우 ChatGPT가 말하기 상황에서 쓰기에는 다소 어색한 문장을 생성하였는데 해당 질문이 고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을 사

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ChatGPT에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나 추천하는 메뉴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생성하게 하면 다양한 문장들을 생성해 주는데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해당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챗봇 빌더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통용한국어의 어휘·문법 목록을 활용하여 해당 목록 안에서 문장을 생성하게 한다면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어휘와 문법을 통제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ChatGPT가 생성한 주문 상황에서 활용 가능 문장 예시

<p>KO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10개 써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2. 카페 라떼를 따뜻하게 주문하겠습니다. 3. 초콜릿 모카 프라푸치노를 얼음 없이 주세요. 4. 자동자를 시원하게 주문하고 싶어요. 5. 바닐라 라떼를 싱거울게 주문해도 될까요? 6. 카라멜 마끼아또를 달지 않게 주문할게요. 7. 페퍼민트 허브차를 따뜻하게 주문하겠습니다. 8. 레몬 에이드를 얼음 많이 넣지 말고 주세요. 9. 망고 스무디에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10. 루이보스 티를 허니와 함께 주문할게요. 	<p>KO 카페에서 직원에게 추천하는 메뉴가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10개 써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떤 메뉴를 추천해주시겠어요? 2.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가요? 3. 맛있는 음료 추천해주세요. 4. 이 카페에서 특별히 추천하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5. 제가 처음 오는데,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6. 이 카페의 특별 메뉴를 알 수 있을까요? 7. 오늘은 어떤 메뉴가 추천되나요? 8. 저와 비슷한 취향을 고려한 음료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9. 제한된 예산 내에서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10. 이 카페에서 가장 독특하고 맛있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	---

4.2 말하기 연습용 대화 생성

ChatGPT를 활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연습용 대화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자기소개’ 말하기 연습용 대화를 생성해 보았다. 일반적인 자기소개 과제를 변형하여 ChatGPT에게 이름, 나이, 국적, 직업 등을 지정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자가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챗봇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내도록 하였다. 챗봇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항목을 미리 활동지에 제시하고 이를 챗봇에게 물어보게 할 수 있다. 챗봇은 프롬프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정하였다. 초급 수준의 아주 쉬운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프롬프트 내용과 생성된 대화는 아래 표와 같다. ChatGPT가 생성한 문장은 대체로 어휘와 문법이 잘 통제되어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나 프롬프트에 없는 내용을 묻는 경우에는 어휘와 문법이 잘 통제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표 3>의 마지막 ‘왜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까?’라는 질문은 프롬프트에서 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표현으로 문장이 생성되었다.

‘수지 씨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시간이 있으면 저는 독서와 여행을 즐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취미가 독서와 여행이라고 제시된 프롬프트 정보를 바탕으로 챗봇이 유추한 내용을 답변으로 생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챗봇 빌더로 개발한 챗봇은 수행할 수 없는 추론 능력을 ChatGPT가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3> ChatGPT를 활용한 말하기 연습용 챗봇 (자기소개하기)

프롬프트	대화
<p>MA 당신의 이름은 한수지이고 저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한수지 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수지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수지 씨는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한수지 씨는 아래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p> <p>-----</p> <p>이름: 한수지 나이: 스물여덟 살 국적: 한국 직업: 한국어 선생님 취미: 독서, 여행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p> <p>-----</p> <p>답변은 한국어 초급 수준의 아주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짧은 문장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은 한 개의 문장으로 해 주세요.</p> <p>그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p>	<p>AI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한수지입니다.</p> <p>MA 수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지 씨는 몇 살입니까?</p> <p>AI 저는 스물여덟 살입니다.</p> <p>MA 수지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p> <p>AI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p> <p>MA 수지 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p> <p>AI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니다.</p> <p>MA 수지 씨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p> <p>AI 시간이 있으면 저는 독서와 여행을 즐깁니다.</p> <p>MA 수지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p> <p>AI 네, 저는 떡볶이,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p> <p>MA 왜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까?</p> <p>AI 매운 음식은 저에게 맛과 활을 독특하게 느끼게 해주고, 조금 도전적인 맛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p>

<표 34> ChatGPT를 활용한 말하기 연습용 챗봇 (주문하기)

프롬프트	대화
<p>KO 저는 카페 종원입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주세요. 아래는 메뉴판입니다.</p> <p>-----</p> <p>메뉴판 아메리카노 : 5,000원 카페라떼 : 6,000원 오렌지 주스 : 4,000원 딸기 주스 : 4,500원</p> <p>치즈 케이크 : 6,000원 당근 케이크 : 6,500원 딸기 생크림 케이크 : 7,000원</p> <p>-----</p> <p>손님은 메뉴판에 있는 7개 메뉴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음료만 주문하면 케이크도 함께 주문할지 물어봐주세요. 손님은 한국어 초급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초급 수준의 쉬운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세요. 5어절 이하의 짧은 문장으로 답변해 주세요.</p> <p>-----</p> <p>대화를 시작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p>	<p>AI 안녕하세요! 어떤 음료를 주문하시겠어요?</p> <p>KO 카푸치노 한 잔 주세요.</p> <p>AI 카푸치노 한 잔 주문하셨네요. 케이크도 함께 드릴까요?</p> <p>KO 케이크는 뭐가 맛있어요?</p> <p>AI 저희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와 딸기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어떤 케이크를 드시고 싶으세요?</p> <p>KO 그럼, 치즈 케이크 주세요.</p> <p>AI 알겠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과 치즈 케이크를 준비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11,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p>

다음으로 ChatGPT로 ‘주문하기’ 말하기 연습용 대화를 생성해 보았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챗봇이 카페 직원 역할을 하고 학습자가 손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프롬프트에는 메뉴판 정보를 입력하였고 메뉴판에 있는 메뉴만 주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음료만 주문할 경우 단순한 구조의 대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음료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케이크도 주문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였다. 초급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초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을 쓰도록 하였고 5어절 이하의 짧은 문장을 생성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메뉴판에 있는 메뉴만 주문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했으나 메뉴판에 없는 카푸치노를 주문해도 주문이 수행되었다. 음료만 주문할 경우에는 케이크도 주문할지 질문을 하였고 프롬프트에 없지만 손님이 메뉴 추천을 요청했을 때 적절하게 인기 있는 케이크를 추천하는 답변을 제공하였다.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은 학습자가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에 대화 중단이라는 기존 챗봇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챗봇 빌더로 개발한 챗봇만큼 학습자 숙달도에 맞게 어휘와 문법을 잘 통제하고 교수·학습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기는 힘들다. 이와 반대로 챗봇 빌더로 개발한 챗봇은 챗봇의 훈련 데이터로 학습자의 예상 발화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예측하지 못한 패턴의 발화를 할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챗봇의 장단점은 두 챗봇을 연동하여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챗봇 빌더로 개발한 챗봇을 활용하되 챗봇이 대응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경우 GPT와 연동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챗봇을 구성한다면 두 가지 유형의 챗봇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용 챗봇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고 개별 수업 맞춤형 챗봇을 설계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챗봇 빌더를 통한 챗봇 설계·개발 방안과 ChatGPT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챗봇 빌더를 통해 제작한 한국어교육용 챗봇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도 교수자가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챗봇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활용하고 있는 교재나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습자의 국적, 학습 목적, 학습 환경, 관심사를 고려한 개별 수업 맞춤형 챗봇 제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목표 문법이나 어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고 도입·제시·연습·활용 등 교수·학습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은 챗봇 빌더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챗봇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으나 챗봇 빌더로 개발한 챗봇보다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어휘와 문법을 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말하기 연습용 챗봇임에도 불구하고 ChatGPT가 학습한 데이터로 인해 구어보다는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챗봇의 발화가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ChatGPT를 단순 검색용이 아닌 말하기 연습용으로 활용한다면 ChatGPT의 어색한 발화가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특히 초급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ChatGPT가 기존 챗봇 시스템에 비해 가지는 강점은 대화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어떤 응답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응을 생성하며 프롬프트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도 적당한 답변을 생성하며, 프롬프트의 내용을 적절히 유추하여 그럴 듯한 답변을 생성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용 챗봇의 설계와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후 한국어 교수·학습에 챗봇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학습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용 챗봇이 유용한 한국어 말하기 연습 도구로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형민(2023). 한국어교육을 위한 AI 챗봇 상호작용 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 발표논문집 2023(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5-154쪽.
- 김혜영·신동광·양혜진·이장호(2019), 영어교과 보조 도구로서의 AI 챗봇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9-110쪽.
- 민덕기(2019), 초등영어 예비교사들의 AI 챗봇 개발 활동 연구, 초등영어교육 25(4),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169-190쪽.
- 박정아·이향(2021), 한국어 교육용 AI 챗봇 개발을 위한 챗봇 빌더 활용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1-91쪽.
- 서지혜(2023). 한국어 말하기 연습 도구로서의 챗봇 빌더의 적합성 검증 연구, 문화와융합 45(1), 한국문화융합학회, 61-70쪽.
- 성민창(2020), 초등영어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語學研究 56(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97-115쪽.
- 신동광(2019), 인공지능 챗봇의 영어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 Brain, Digital, & Learning 9(2),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 29-40쪽.
- 양혜진·김혜영·신동광·이장호(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2(4),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84-205쪽.
- 엄정운(2021), 말하기 수업에서의 챗봇 빌더 활용 방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56-169쪽.
- 왕감경(2023), AI 기반 챗봇 한국어 텍스트의 자연어 분석 및 한국어 교육 활용 모색, 문화와융합 45(5), 한국문화융합학회, 1-17쪽.
- 유지연·유훈식(2021), 챗봇을 통한 스마트러닝 한국어교육의 학습 효과: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2),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82-105쪽.
- 이동한(2018),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학습용 챗봇 시스템 개발 방안 연구, 중등영어교육 11(1),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45-68쪽.
- 이용상·신동광(2020), 원격교육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 온라인 평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89-407쪽.
- 이장호·김혜영·신동광·양혜진(2019), 외국어학습을 위한 대화형 챗봇의 담화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22(1),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32-153쪽.
- 정진경·이진·김한샘(2022),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설계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9(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405-441쪽.
- 추성엽·민덕기(2019), 영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과업 기반 AI 챗봇 활용 및 학생 발화 분석, 초등영어교육 25(2),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27-52쪽.
- 한다운(2021), 다이얼로그플로우를 활용한 대화형 AI 챗봇 제작 및 초등 영어 수업에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517-529쪽.
- Yan, J. (2022),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사례 연구에 따른 언어지능 교육 연구-온라인 세종학당 한국어 AI 튜터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실무학회 학술발표대회 2022(11), 한국경영실무학회, 111-120쪽.
- Brown, H. D., & Lee, H. (2015). Teaching principles. P. Ed Australia.
- Coniam, D. (2014). The linguistic accuracy of chatbots: usability from an ESL perspective. Text & Talk, 34(5), 545-567.

- Dizon, G. (2017). Using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s for L2 learning: A case study of Alexa. *tesol Journal*, 8(4), 811–830. <https://doi.org/10.1002/tesj.353>
- Dizon, G. (2020). Evaluating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s for L2 listening and speaking development.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24(1), 16–26.
- Huang, W., Hew, K. F., & Fryer, L. K. (2022). Chatbots for language learning—Are they really useful? A systematic review of chatbot-supported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38, 237–257.
- Jeon, J. (2022). Exploring AI chatbot affordances in the EFL classroom: young learner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https://doi.org/10.1080/09588221.2021.2021241>
- Jeon, J., & Lee, S. (2023). Large language models in education: A focus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human teachers and ChatGPT.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1–20.
- Kasneci, E., Sessler, K., Kuchemann, S., Bannert, M., Dementieva, D., Fischer, F., Gasser, U., Groh, G., Gunnemann, S., Hullermeier, E., Krusche, S., Kutyniok, G., Michaeli, T., Nerdel, C., Jurgen, P., Poquet, O., Sailer, M., Schmidt, A., Seidel, T. ..., & Kasneci, G. (2023). ChatGPT for good?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educ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3, 102274.
- Kuhail, M. A., Alturki, N., Alramlawi, S., & Alhejori, K. (2022). Interacting with educational chatbots: A systematic review.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 Lee, J. Y., & Hwang, Y. (2022).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using AI chatbot in Korean EFL education. *Stud. Engl. Lang. Lit*, 48, 213–243.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ussalli, S., & Cardoso, W. (2019).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s: can they understand and be understood by accented L2 learner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2, 1–26. <https://doi.org/10.1080/09588221.2019.1595664>
- Susnjak, T. (2022). ChatGPT: The end of online exam integrity?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212.09292>
- Yang, H., Kim, H., Lee, J. H., & Shin, D. (2022). Implementation of an AI chatbot as an English conversation partner in EFL speaking classes. *ReCALL*, 34(3), 327–343.
- Zhai, X. (2022). ChatGPT user experience: Implications for education. Available at SSRN 4312418.

▣ 토 론

“한국어교육용 챗봇 설계 및 수업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박정아(경희대)

한국어 교육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상호 작용에 대한 수업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이제 포스트코로나를 맞이하여 수업 방식 및 수업 도구를 혁신적으로 사용 및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챗봇은 최근에 빅데이터나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과 함께 IT 분야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주제인 <한국어 교육용 챗봇 설계 및 수업 활용 방안>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여러 연구 주제 중 시기적절하게 연구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자는 교수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챗봇 빌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용 챗봇을 비롯하여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챗봇(ChatGPT)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수업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챗봇(ChatGPT)은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AI 기술 중 하나로 앞으로 이 기술과 더욱 친숙해진다면 교육 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기술력에 주목하여 기존 챗봇의 한계점인 학습자가 미리 정해진 대화 패턴에서 벗어난 발화를 할 경우 자주 대화가 중단된다는 한계점을 인지하여 그 대안으로 언어 모델 기반 챗봇(ChatGPT)의 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의 의의이기도 하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토론자는 토론을 통해 연구자의 논의를 읽으며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질문들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교육용(외국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챗봇은 그 개발 목적에 따라 1) 교수·학습 목적의 챗봇과 2) 교수 편의를 위한 챗봇(hands-on chatbot)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목적의 챗봇’은 어휘,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교육 내용을 챗봇이 교사처럼 전달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학습자와 협력 관계(collaborativerelation)를 맺어 학습자가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더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챗봇을 말합니다. 한편, ‘교수 편의를 위한 챗봇’은 학습자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거나 학습에 있어서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챗봇으로, 자연어를 사용하여 쓰기 전략, 쓰기 전 브레인스토밍, 쓰기 목표 세우기, 자가 평가 등에 도움을 주거나 학습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외국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박정아·이향, 202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한국어 교육용 챗봇 설계 및 수업 활용 방안”에 대한 제목으로 본 연구를 소개하셨는데, 논의에서 제시한 ‘말하기 연습용 챗봇의 설계 내용’이 수업 시 활용될 때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사용을 유도할 것인지, 또한 그렇게 사용했을 때의 효용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 내용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무엇인

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한국어 수업에서의 챗봇의 사용 방향이 챗봇의 목적에 따라 교수·학습 목적의 챗봇 또는 교수 편의를 위한 챗봇 중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는 논의에서 챗봇 빌더의 장점으로 “챗봇 빌더를 통해 제작한 한국어교육용 챗봇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도 교수자가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챗봇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연구에서 사용한 챗봇 빌더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였는데, 현존하는 여러 챗봇 빌더 중 연구자가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만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특별한 이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숙달도, 교수·학습 환경,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적합한 챗봇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챗봇을 적용해 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챗봇 빌더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로 설계한 주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챗봇과 관련하여 진행된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박정아·이향(2021)을 필두로 주로 초급 학습자들에 맞춰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박정아·이향;2021, 정진경·이진·김한샘;2022, 서지혜;2023 등).

또한 그 주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기소개하기, 주문하기 등과 같이 ‘모방형’이나 ‘집중형’ 말하기 활동처럼 통제적인 말하기 활동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챗봇이 주로 이러한 통제적인 표현 연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더 높은 급수에서 챗봇이 사용된다면 어떠한 주제(시나리오)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여러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앞으로 선생님의 연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 박정아·이향(2021), 한국어 교육용 AI 챗봇 개발을 위한 챗봇 빌더 활용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6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1-91쪽.
- 서지혜(2023). 한국어 말하기 연습 도구로서의 챗봇 빌더의 적합성 검증 연구, 문화와융합 45(1), 한국문화융합학회, 61-70쪽.
- 정진경·이진·김한샘(2022), 챗봇 빌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용 챗봇 설계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9(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405-441쪽.

제3 분과

국어사

《훈민정음》 해례본 366문장 체제 번역 내용과 의미⁵⁾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 < 차 례 > —

1. 머리말
2. 《훈민정음》 해례본 문장 수 설정 맥락
3. 《훈민정음》 해례본 366 문장별 번역 의미

1. 머리말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 번역 역사는 전문 번역은 1940년 이후 시작되어 2023년 현재 83년이 되었다. 언해본과 부분 번역까지 합치면 언해본 번역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577년이다. 오늘날 전하는 언해본 《월인석보》본 언해본(1459)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더라도 564년이다. 그간 나온 전문 번역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¹⁾

- (1) 방중현(1940). 원본 훈민정음의 발견(1-5). 《조선일보》 7월 30일-8월 4일. 조선일보사. 4쪽.
- (2) 방중현(1946). 《(원본해석) 훈민정음》. 진학출판협회.(발행: 1946년 7월 10일)
_방중현(1947).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_방중현(1948/1963). 훈민정음. 《현대문화독본》(김정환 편). 문영당. 재수록: 《일사국어학논집》(1963). 민중서관. 31-54쪽.
- (3)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 상·하 합본. 서울신문사 출판국. (발행: 1946년 8월 30일)
_홍기문(1947). 《정음발달사》 상·하 합본. 서울신문사 출판국. .
_전몽수·홍기문(1949). 《훈민정음 역해》 조선어문고 1책. 평양: 조선어문연구회.
- (4) 유열(류렬/유렬)(1947). 《원본 풀이한 훈민정음》. 보신각.
_김동구 편(1967/1985: 수정증보판, 유열 번역 일부 변형). 《훈민정음: [원전적과 그 현대역]》. 명문당.
- (5) 김윤경(1954: 4판). 《한국문자급어학사》. 동국문화사.
- (6) 김민수(1957). 《주해 훈민정음》. 통문관.
_김민수(1959:중판). 《주해 훈민정음》. 통문관.
_김민수(1972). 훈민정음. 《한국의 사상대전집》 7. 동화출판공사.
- (7) 이정호(1972). 《(해설 역주) 훈민정음》. 한국도서관학연구회.
_이정호(1986: 개정판). 《국문·영문 해설 역주 훈민정음》. 보진재.
- (8) 강신항(1974/1995: 증보판). 《훈민정음》(역주). 신구문화사.
_강신항(1987·1990: 증보판·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5) 이 글은 학술대회 발표용 원고로 학회 외 유료 논문 판매업체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없다.

* 이 글은 2023. 5. 13. 237차 <통사론 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 역사와 연구 맥락에 대해서는 “김슬옹(2020).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주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발표문에서의 서지 정보는 이 논문에 따른다.

- _국립국어원 편(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강신항 개정 번역본 수록)》. 생각의나무.
- (9) 서병국(1975). 《신강 훈민정음》. 경북대 출판부.
- (10) 박병채(1976). 《역해 훈민정음》. 박영사.
- (11) 박종국(1976). 《주해 훈민정음》. 정음사.
_박종국(1985: 중판). 《주해 훈민정음》. 정음사.
_박종국(2007). 《훈민정음 종합 연구》. 세종학연구원.
- (12) 김석환(1973). 《현토주해 훈민정음》. 보령 : 활문당.
_김석환(1975). 《수정판 한글문건》. 한맥.
_김석환(1995). 《수정판 한글문건(재판)》. 한맥.
- (13) 럽종률 · 김영황(1982). 《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4) 윤덕중 · 반재원(1983). 《훈민정음 기원론》. 국문사.
_반재원 · 허정운(2007). 《한글 창제 원리와 옛글자 살려 쓰기 : 한글 세계 공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 역락.
- (15) 박지홍(1984). 《풀이한 훈민정음 : 연구 · 주석》. 과학사.
_박지홍(1988). 신상순 · 이돈주 · 이환목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해례본). 한신문화사.
_박지홍 · 박유리(2013). 《우리나라 글살이의 변천과 훈민정음》. 새문사.
- (16) 이성구(1985). 《훈민정음 연구》. 동문사.
- (17) 권재선(1988).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탑.
_권재선(1995).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탑.
_권재선(1995 : 김고 고친판).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탑.
- (18) 강길운(1992). 《훈민정음과 음운체계》. 형설출판사.
- (19) 유창균(1993). 《훈민정음 역주》. 형설출판사.
- (20) 이근수(1995). 《훈민정음 신연구》. 보고서.
- (21) 한글학회 편(1997). 《훈민정음》. 해성사.
- (22) 김성대(1999). 《역해 훈민정음》. 하나물.
- (23) 조규태(200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_조규태(2007).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_조규태(2001).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 (24) 강규선(2001). 《훈민정음 연구》. 보고서.
_강규선 · 황경수(2006). 《훈민정음 연구》. 청운.
- (25)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26) 이동화(2006).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문창사.
- (27) 고태규(2007). 《훈민정음과 작가들》. 널개.
- (28) 나찬연(2012). 《훈민정음의 이해》. 월인.
_ 나찬연(2013: 2판). 《훈민정음의 이해》. 월인.
- (29) 강신항 · 신상순(2014). 《훈민정음 현대역과 영역》.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인쇄: 해성사).
- (30) 이현희 등 13인(2014). 《‘훈민정음’의 한 이해》. 역락.
- (31) 김승권(2015). 《사람이 하늘과 땅을 품는다-훈민정음해례본》. 도서출판한울벗.
- (32) 김승환(2015). 《과학으로 풀어쓴 훈민정음》. 이화문화출판사.
- (33) 김슬옹(2015).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탄생과 역사》(간송본 복간본 해제). 교보문고.
_김슬옹(2018: 개정증보). 《훈민정음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_김슬옹(2019: 3쇄). 《훈민정음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_김슬옹(2020: 4쇄). 《훈민정음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 (34) 문중진(2015). 《광음친 훈민정음 통해》. 아이르네상스어학원.
- (35) 서한태(2016). 《훈민정음 · 해서본》. 해드림출판사.
- (36) 이상규(2017). 《직서기연》. 경진.
- (37) 김유범·곽신환·송혁기·조운성·김부연·고경재(2017). 《훈민정음의 현대어 번역 연구》. 국립한글박물관.
_김유범·김부림·박형우·송혁기·김부연·고경재(2018). 《훈민정음의 현대어 번역 연구》(2)》. 국립한글박물관.
_김유범 · 곽신환 · 조운성 · 김부림 · 박형우 · 이준환 · 김부연 · 고경재(2019). 《훈민정음의 현대

어 번역(3)》. 국립한글박물관.

- (38) 박장원(2018). 《훈민정음, 소리를 그리다》. 신아출판사.
- (39) 백승철(2018). 《읽고 싶은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형식의 한글 옹검과 교정판본》. 퍼플.
- (40) 이영호(2019). 《훈민정음 해례본-국민보급형》. 달아실.
- (41) 황건주 엮음(2019). 《한글로 풀어 쓴 훈민정음 탐구》. 북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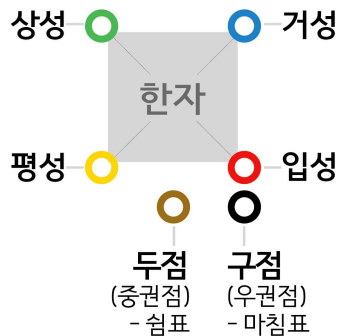
이러한 번역에서 문장 단위의 번역이 시도된 적은 없었다. 물론 번역자들이 나름대로 문장을 나누어서 세부 번역을 거쳐 전체 번역으로 이어갔겠지만, 해례본의 문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의도나 시도를 통한 번역은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훈민정음” 해례본 최초 복간본 해제자로서 해례본을 재미 있게 소개해 달라는 경상북도·한국국학진흥원의 요청으로 ‘숫자로 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의미와 가치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례본의 문장 수를 주목하게 되었고 “김슬옹(2021). 숫자로 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의미와 가치 확산 방안. 《주제로 보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경상북도·한국국학진흥원. 9-41쪽.”에서 다른 숫자 정보와 더불어 발표한 바 있다.

366문장 체제 번역은 “김슬옹(2017/전문 개정 증보5쇄/2023).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개정증보판)》. 박이정.”에 적용하였고, 이 책에서 자세한 맥락은 밝히지 않아 단독 주제로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2. 《훈민정음》 해례본 문장 수 설정 맥락

해례본은 문자 해설서이자 문자 사상서로서의 품격도 매우 높지만 한문본으로서 한자와 한문 사용을 매우 정교하게 한 한문 문헌이기도 하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최고 품격을 지닌 문헌이다. “정우영(2008). (대한민국 국보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 《문화재 사랑》 47호(10월호). 문화재청. 35쪽.”에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발명을 위해 철학·종교·역사·문화가 총결집된 결정체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부터 ‘훈민정음경(訓民正音經)’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근거이기도 하다. 해례본의 형식적 정교함은 다음과 같은 부호를 매우 정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림>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부호 입체도_김슬옹(2015).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탄생과 역사》(간송본 복간본 해제). 교보문고. 56쪽.

구점(우권점)은 오늘날의 온점(마침표)과 같은 것으로 온점을 정음편에서는 ‘ㄱ.’과 같이 설명 대상 기호에도 찍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장 단위에서 정확히 찍었다.(용자례에서는 중권점을 찍었다.) 따라서 ‘ㄱ.’와 같이 문장 아닌 곳에서 찍은 곳을 제외한다면 형식적 문장 파악에 어려움이 없다.

해례본의 전체 문장 수는 그동안 연구에서는 밝혀진 바 없다. 필자가 처음 규명한 것으로 문장 수는 다음과 같이 구점(우권점)을 단위로 파악하였다.

구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낙장 보사 부분(정음 1ㄱㄴ -2ㄱㄴ)의 문장 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세종 서문의 경우는 실록과 언해본을 참조로 기존 관계대로 세 문장으로 파악하였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 [정음1ㄱ:2-3_어제서문]
 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정음1ㄱ:3-4_어제서문]
 予爲° 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 習，便於日用耳 [정음1ㄱ:5-6_어제서문]

진본이 아닌 보사 부분 정음편 예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행별로 한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정우영(2000)의 “훈민정음 한문본의 원문 복원에 대한 연구. 《동악어문논집》 36. 동악어문학회. 107-135쪽.”에서의 병서행에 대한 관점과 “한재영·정우영·김주원·백두현·이현희·옥연정·황선엽(2017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 연구》. 문화재청.”의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안 2(106쪽)에 따른 것이다.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정음1ㄱ:7_어제예의]
 並書, 如叫字初發聲 [정음1ㄴ:1_어제예의]

갈무리시(결시) 부분은 칠언 두 행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 행을 한 문장으로 한다.

天地之化本一氣 陰陽五行相始終 [정음해례9ㄱ:7-8_제자해_결시]
 物於兩間有形聲 元本無二理數通 [정음해례9ㄴ:1-2_제자해_결시]
 正音制字尙其象 因聲之厲每加畫 [정음해례9ㄴ:3-4_제자해_결시]

맨 마지막의 간기와 직책 이름 문장을 제외할 경우 문장 수는 모두 366개이다.

正統十一年九月上澣。 [정음해례29ㄱ:7-8_정인지서]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정음해례29ㄱ:8-29ㄴ:1-3_정인지서]

[표 23]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장 갈래 수

분야별		문장 수(갈무리 시는 두 행 기준)	
정음편	정음취지문 (어제 서문)	3	45
	자모 규정(예의)	42	
정음해례편	제자해	156	321
	초성해	11	
	중성해	18	

	중성해	28	
	합자해	42	
	용자해	36	
	정인지 서	30 (간기, 직책/이름 제외)	
총합계		366	

*갈무리시[訣詩]는 칠언 두 행이 한 문장 구실을 함.

366문장이 우연이 아니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 역학의 고전인 서경에 보면 요임금 말씀에 “하! 희(羲)와 화(和)야. 1년은 삼백이고 또 육십이고 또 육일이니 (366일이니), 윤달이 있음으로써 네 계절을 정하여 1년을 이루어야 진실로 백관이 다스려지며 여러가지 공덕이 모두 빛나게 될 것이다.”²⁾라고 한 근거로 보면, 366 문장 수는 1년 길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훈민정음》 해례본 366 문장별 번역 의미

1차적으로 한문 원문을 문장별로 다음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문장별로 번역을 했다.

[1]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정음1ㄱ:2-3_어제서문]

♣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가운데 줄임 -

[366]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盖有待於今日也坎. [정음해례29ㄱ:5-7_정인지서]

♣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는 지가 꽤 오래 되었지만,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의 번역 그 자체가 독창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366문장 체제 번역이 독창적이라는 것이다. 김슬옹(2006, 2008, 2013ㄱ, 2015) 등에서 반복적으로 밝혔듯이 해방 후 해례본 모든 번역은 홍기문 번역으로 알려진 “방중현(1940). 원본 훈민정음의 발견(1-5). 《조선일보》 7월 30일-8월 4일. 조선일보사. 4쪽.”의 수정과 보완 수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독창적 번역이라 하기 어렵다.³⁾

그렇다면 이러한 366문장 체제 번역의 가치나 효용성은 무엇인가?

2) 장세경 역주(2015). 《역주 서경언해(권 1·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6쪽.

3) 김슬옹(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우리나라와 말글’ 명칭 번역 담론-표준 공역을 제안하며. 《언어과학연구》 39집. 언어과학회. 27-54쪽. 재수록: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182-235쪽.

김슬옹(2008). 訓民正音 세종 ‘서문’의 현대 번역 비교와 공역 시안. 《한국어 의미학》 25. 한국어 의미학회. 1-25쪽. 재수록: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236-268쪽.

김슬옹(2013ㄱ). 《訓民正音》(1446) ‘정음 예의’의 표준 공역 시안. 《겨레어문학》 51집. 겨레어문학회. 253-324쪽.

김슬옹(2013ㄴ). 《訓民正音》(1446) 제자해의 맥락적 의미와 표준 공역 시안. 《33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자료집. 한국어학회.

김슬옹(2015).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의 표준 번역을 위한 시안. 《청람어문교육》 53. 청람어문교육학회. 329-374쪽.

첫째, 번역의 1차적 목표인 원문 해석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번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번역을 이어가다가도 두세 문장을 뭉뚱거리 번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보다 더 충실한 직역 위주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연구와 강독 교육의 효율성이다. 필자는 네 달 과정의 해례본 강독 강의를 16기를 마쳤는데 366문장 체제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때문에 효율적인 강독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셋째, 특정한 숫자 의미를 통해 해례본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던 해례본 저자들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해례본과 언해본 저자들은 훈민정음 기본자 28, 해례본 정음편 한자 갈래 수 108자, 언해본 세종 서문 한글자 글자 수 108, 해례본 전체 장 33장 등 특별한 숫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해례본이나 훈민정음 문자에 특별하고도 정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자해에서 부여했던 다음과 같은 의미를 봄여름가을겨울 돌고도는 1년의 상서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5] 一元之氣, 周流不窮, 四時之運, 循環無端, 故貞而復元, 冬而復春. [정음해례9기:1-2_제자해]

- ♣ 하나의 바탕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계절 바뀔이 돌고 돌아 끝이 없으니 만물의 거둠에서 다시 만물의 시초가 되듯 겨울은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본문 언급한 문헌으로 대체함)

[붙임] : 《훈민정음》 해례본 한문본과 번역: 문장 단위 견증본⁴⁾

- 김슬옹(2017/전문 개정 증보5쇄/2023).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개정증보판)》. 박이정.

1부·정음(正音)

1. 세종 서문

[1]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정음1기:2-3_어제서문]

♣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2]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정음1기:3-4_어제서문]

♣ 그러므로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3]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정음1기:5-6_어제서문]

♣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2. 예의

[4]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정음1기:7_어제예의]

♣ ㄱ[기]는 어금닛소리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초성)와 같다.

[5] 並書, 如虯字初發聲. [정음1나:1_어제예의]

♣ 나란히 쓰면 ‘**꾸**(虯)’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6]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정음1나:2_어제예의]

♣ ㅋ[키]는 어금닛소리이니, ‘**쾌**(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7] ㆁ. 牙音. 如業字初發聲. [정음1나:3_어제예의]

♣ ㆁ[에]는 어금닛소리이니, 그 소리는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8]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정음1나:4_어제예의]

♣ ㄷ[디]는 혀소리이니, ‘**두**(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9] 並書, 如覃字初發聲. [정음1나:5_어제예의]

♣ 나란히 쓰면 ‘**팜**(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4) 자음자는 해례본 방식으로 ‘ㄱ(기)’와같이 ‘ㅣ’를 붙여 읽음.

- [10] **ㄷ**. 舌音. 如吞字初發聲 [정음1나:6_어제예의]
 ♣ **ㄷ**[티]는 혀소리이니, 그 소리는 ‘**툰**(吞)’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1]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정음1나:7_어제예의]
 ♣ **ㄴ**[니]는 혀소리이니, ‘**나**(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2] **ㅂ**. 脣音. 如驚字初發聲. [정음2가:1_어제예의]
 ♣ **ㅂ**[비]는 입술소리이니, ‘**벌**(驚)’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3] **並書**, 如步字初發聲. [정음2가:2_어제예의]
 ♣ 나란히 쓰면 ‘**뵤**(步)’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4] **ㅍ**. 脣音. 如漂字初發聲 [정음2가:3_어제예의]
 ♣ **ㅍ**[피]는 입술소리이니, 그 소리는 ‘**표**(漂)’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5] **ㅁ**. 脣音. 如彌字初發聲 [정음2가:4_어제예의]
 ♣ **ㅁ**[미]는 입술소리이니, ‘**미**(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6] **ㄷ**. 齒音. 如即字初發聲. [정음2가:5_어제예의]
 ♣ **ㄷ**[지]는 잇소리이니, ‘**즉**(即)’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7] **並書**, 如慈字初發聲. [정음2가:6_어제예의]
 ♣ 나란히 쓰면 ‘**쯔**(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8] **ㄷ**. 齒音. 如侵字初發聲 [정음2가:7_어제예의]
 ♣ **ㄷ**[치]는 잇소리이니,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19] **ㄷ**. 齒音. 如戍字初發聲. [정음2나:1_어제예의]
 ♣ **ㄷ**[시]는 잇소리이니 ‘**술**(戍)’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0] **並書**, 如邪字初發聲. [정음2나:2_어제예의]
 ♣ 나란히 쓰면 ‘**샤**(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1] **ㅎ**. 喉音. 如挹字初發聲 [정음2나:3_어제예의]
 ♣ **ㅎ**[히]는 목구멍소리이니, 그 소리는 ‘**흠**(挹)’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2] **ㅎ**. 喉音. 如虛字初發聲. [정음2나:4_어제예의]
 ♣ **ㅎ**[히]는 목구멍소리이니, 그 소리는 ‘**허**(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3] **並書**, 如洪字初發聲. [정음2나:5_어제예의]
 ♣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홍**(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4] ○. 喉音. 如欲字初發聲 [정음2나:6_어제예의]
 ♣ ○[이]는 목구멍소리이니, 그 소리는 ‘욕(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5] ㄹ. 半舌音. 如閭字初發聲 [정음2나:7_어제예의]
 ♣ ㄹ[리]는 반혓소리이니, ‘려(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6] △.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정음3가:1_어제예의]
 ♣ △[시]는 반잇소리이니, 그 소리는 ‘상(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7] ㄷ. 如吞字中聲 [정음3가:2_어제예의]
 ♣ ㄷ는 ‘툰(吞)’자의 가운데소리(중성)와 같다.
- [28] 一. 如即字中聲 [정음3가:3_어제예의]
 ♣ 一은 ‘즉(即)’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29] 丨. 如侵字中聲 [정음3가:4_어제예의]
 ♣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0] ㄷ. 如洪字中聲 [정음3가:5_어제예의]
 ♣ ㄷ는 ‘홍(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1] 丨. 如覃字中聲 [정음3가:6_어제예의]
 ♣ 丨는 ‘딤(覃)’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2] ㄱ. 如君字中聲 [정음3가:7_어제예의]
 ♣ ㄱ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3] 丨. 如業字中聲 [정음3나:1_어제예의]
 ♣ 丨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4] ㄷ. 如欲字中聲 [정음3나:2_어제예의]
 ♣ ㄷ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5] 丨. 如穰字中聲 [정음3나:3_어제예의]
 ♣ 丨는 ‘상(穰)’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6] ㄷ. 如戍字中聲 [정음3나:4_어제예의]
 ♣ ㄷ는 ‘술(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37] 丨. 如警字中聲 [정음3나:5_어제예의]

♣ ㄹ은 ‘변(鸞)’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38] 終聲復用初聲. [정음3나:6_어제예의]

♣ 끝소리글자(종성자)는 첫소리글자(초성자)를 다시 쓴다.

[39]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 [정음3나:6-7_어제예의]

♣ ○[이]를 입술소리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된다.

[40] 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 [정음3나:7] [정음4가:1_어제예의]

♣ 첫소리글자(초성자)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쓰고, 끝소리글자(종성자)도 첫소리글자(초성자) 마찬가지로.

[41] • 一 ㄴ ㄷ ㄹ ㅁ ㅂ, 附書初聲之下. [정음4가:1-2_어제예의]

♣ • 一 ㄴ ㄷ ㄹ ㅁ ㅂ는 첫소리글자 아래에 붙여 쓴다.

[42] | ㅌ ㅍ ㅊ ㅋ, 附書於右. [정음4가:2-3_어제예의]

♣ | ㅌ ㅍ ㅊ ㅋ는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43] 凡字必合而成音. [정음4가:3-4_어제예의]

♣ 무릇 낱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이 이루어진다.

[44] 左加一點則去聲, 二則 °上聲, 無則平聲. [정음4가:4-5_어제예의]

♣ 음절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높은 소리)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낮은 소리)이다.

[45] 入聲加點同而促急 [정음4가:5-6_어제예의]

♣ 입성(빨리 끝나는 소리)은 점을 더하는 것은 평·상·거성과 같으나 빠르다.

2부·정음해례(正音解例)

1. 제자해(制字解)

[46]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정음해례1가:3_제자해]

♣ 천지자연의 이치는 오직 음양오행 하나뿐이다.

[47]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정음해례1가:3-4_제자해]

♣ 곤괘(여성다음이 가장 센 상징 ䷁)와 복괘(씩이 트는 상징 ䷗)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임과 멈춤 작용으로 음양이 된다.

- [48]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 [정음해례1ㄱ:5-6_제자해]
 ♣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 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 [49] 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 [정음해례1ㄱ:6-7_제자해]
 ♣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성음)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 [50] 今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정음해례1ㄱ:7-8_제자해]
 ♣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여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을 뿐이다.
- [51] 理既不二，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정음해례1ㄴ:1-2_제자해]
 ♣ 그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자연의 혼령과 신령스러운 정령과 함께 정음을 쓰지 않겠는가?
- [52]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 [정음해례1ㄴ:2-3_제자해]
 ♣ 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53] 初聲凡十七字。 [정음해례1ㄴ:3_제자해]
 ♣ 첫소리글자는 모두 열일곱 자다.
- [54]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정음해례1ㄴ:4_제자해]
 ♣ 어금닛소리글자 ㄱ[기]는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 [55] 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 [정음해례1ㄴ:4-5_제자해]
 ♣ 혀소리글자 ㄴ[니]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 [56] 脣音ㅁ，象口形。 [정음해례1ㄴ:5-6_제자해]
 ♣ 입술소리글자 ㅁ[미]는 입 모양을 본떴다.
- [57] 齒音ㅅ，象齒形。 [정음해례1ㄴ:6_제자해]
 ♣ 잇소리글자 ㅅ[시]는 이 모양을 본떴다.
- [58] 喉音ㅇ，象喉形。 [정음해례1ㄴ:6_제자해]
 ♣ 목구멍소리글자 ㅇ[이]는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 [59] ㄷ比ㄱ，聲出稍厲，故加畫。 [정음해례1ㄴ:6-7_제자해]
 ♣ ㄷ[키]는 ㄱ[기]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세게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 [60] ㄴ而ㄷ，ㄷ而ㅌ，ㅁ而ㅂ，ㅂ而ㅃ，ㅅ而ㅆ，ㅈ而ㅊ，ㅊ而ㅌ，ㅌ而ㅍ，ㅍ而ㅍ，ㅍ而ㅍ，其因聲加畫之義皆同，而唯 ㅍ爲異。 [정음해례1ㄴ:7-2ㄱ:1-2_제자해]
 ♣ ㄴ[니]에서 ㄷ[디], ㄷ[디]에서 ㅌ[티], ㅁ[미]에서 ㅂ[비], ㅂ[비]에서 ㅃ[피], ㅅ[시]에서 ㅆ[지], ㅈ[지]에서 ㅊ[치], ㅇ[이]에서 ㅍ[히], ㅍ[히]에서 ㅎ[히]가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으나 다만 ㅎ[이]만은 다르다.

- [61] 半舌音ㄱ, 半齒音△,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정음해례2:1:2-4_제자해]
♣ 반혓소리글자 ㄱ[리], 반잇소리글자 △[시]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뻐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 [62] 夫人之有聲, 本於五行. [정음해례2:1:4-5_제자해]
♣ 무릇 사람의 말소리는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 [63]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정음해례2:1:5-6_제자해]
♣ 그러므로 사계절에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오음계와 맞추어 봐도 잘 어울리고 틀리지 않는다.
- [64] 喉邃而潤, 水也. [정음해례2:1:6_제자해]
♣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물이다.
- [65]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정음해례2:1:6-7_제자해]
♣ 말소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하므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 [66] 於時爲冬, 於音爲羽. [정음해례2:1:7-8_제자해]
♣ 계절로는 겨울이고, 음률로는 ‘우음계’이다.
- [67] 牙錯而長, 木也. [정음해례2:1:8_제자해]
♣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이다.
- [68]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정음해례2:1:8-2:1_제자해]
♣ 어금닛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딱 차므로 나무가 물에서 나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 [69] 於時爲春, 於音爲角. [정음해례2:2:2_제자해]
♣ 계절로는 봄이고, 음률로는 ‘각음계’이다.
- [70] 舌銳而動, 火也. [정음해례2:2:2-3_제자해]
♣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오행으로는 불이다.
- [71] 聲轉而颺, 如火之轉展而揚揚也. [정음해례2:2:3-4_제자해]
♣ 혀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불이 타올라 퍼지며 위아래로 오르내림과 같다.
- [72] 於時爲夏, 於音爲徵. [정음해례2:2:4_제자해]
♣ 계절로는 여름이고, 음률로는 ‘치음계’이다.
- [73] 齒剛而斷, 金也. [정음해례2:2:4-5_제자해]
♣ 이는 억세고 끊을 듯 날카로우니 오행으로는 쇠이다.

- [74] 聲屑而滯，如金之屑瑣而鍛成也。 [정음해례2ㄴ:5-6_제자해]
 ♣ 잇소리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걸리는 듯하게 나는 것은 쇠가 부스러졌다가 다시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 [75] 於時爲秋，於音爲商。 [정음해례2ㄴ:6_제자해]
 ♣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률로는 ‘상음계’이다.
- [76] 脣方而合，土也。 [정음해례2ㄴ:6-7_제자해]
 ♣ 입술은 모난 것이 나란히 합해지니, 오행으로는 땅이다.
- [77] 聲舍而廣，如土之舍蓄萬物而廣大也。 [정음해례2ㄴ:7-8_제자해]
 ♣ 입술소리가 머금으며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머금으니 넓고 큰 것과 같다.
- [78] 於時爲季夏，於音爲宮。 [정음해례2ㄴ:8-3ㄱ:1_제자해]
 ♣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음률로는 ‘궁음계’이다.
- [79] 然水乃生物之源，火乃成物之用，故五行之中，水火爲大。 [정음해례3ㄱ:1-2_제자해]
 ♣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어지게 하는 작용이므로 오행 가운데서 물·불이 으뜸이다.
- [80] 喉乃出聲之門，舌乃辨聲之管，故五音之中，喉舌爲主也。 [정음해례3ㄱ:2-4_제자해]
 ♣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가려내는 악기이므로 오음 가운데서, 목구멍소리와 혀소리가 으뜸이 된다.
- [81] 喉居後而牙次之，北東之位也。 [정음해례3ㄱ:4-5_제자해]
 ♣ 목구멍은 안쪽에 있고 어금니는 그 앞에 있으므로 북쪽과 동쪽의 방위이다.
- [82] 舌齒又次之，南西之位也。 [정음해례3ㄱ:5-6_제자해]
 ♣ 혀와 이가 또한 그다음에 있으니 남쪽과 서쪽의 방위이다.
- [83] 脣居末，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정음해례3ㄱ:6-7_제자해]
 ♣ 입술은 끝에 있으니, 오행의 흙이 일정한 방위가 없이 네 계절에 기대어 네 계절을 왕성하게 함을 뜻한다.
- [84] 是則初聲之中，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정음해례3ㄱ:7-8_제자해]
 ♣ 이런즉 첫소리 속에도 자체의 음양오행과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 [85] 又以聲音清濁而言之。 [정음해례3ㄱ:8-3ㄴ:1_제자해]
 ♣ 또 말소리를 ‘맑음과 흐림(청탁)’으로 말해 보자.
- [86] ㄱㄷㅂㅅㅈㅊ，爲全清。 [정음해례3ㄴ:1]
 ♣ ㄱㄷㅂㅅㅈㅊ[기디비지시이]는 아주 맑은소리 ‘전청’이 된다.

- [87] ㄱㄷㅌ大古, 爲次清. [정음해례3ㄴ:2_제자해]
 ♣ ㄱㄷㅌ大古[키티피치히]는 덜 맑은소리 ‘차청’이 된다.
- [88] ㄱㄷㅌㅍㅍㅍㅍ, 爲全濁. [정음해례3ㄴ:2-3_제자해]
 ♣ ㄱㄷㅌㅍㅍㅍㅍ[끼띠피찌씨히]는 아주 흐린소리 ‘전탁’이 된다.
- [89] ㄴㄹㅇㅇㄹㄹ, 爲不清不濁. [정음해례3ㄴ:3_제자해]
 ♣ ㄴㄹㅇㅇㄹㄹ[이니미이리시]는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불청불탁[울림소리]’이 된다.
- [90] ㄹㅇㅇ, 其聲取不厲,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정음해례3ㄴ:4-5_제자해]
 ♣ ㄹㅇㅇ[나미이]는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시초가 된다.
- [91] ㄴㅈ雖皆爲全清, 而ㄴ比ㅈ, 聲不厲, 故亦爲制字之始. [정음해례3ㄴ:6-7_제자해]
 ♣ ㄴ[시]와 ㅈ[지]는 비록 다 아주 맑은소리 ‘전청’이지만 ㄴ[시]는 ㅈ[지]에 비하여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글자를 만드는 데 시초가 되었다.
- [92] 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정음해례3ㄴ:7-8-4ㄱ:1-3_제자해]
 ♣ 오직 어금닛소리의 ㅇ[이]는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 ㅇ[이]의 소리는 ㅇ[이]와 비슷해서 중국 한자음사전(운서)에서도 ㅇ[이]와 ㅇ[이]가 많이 혼용된다. 이제 ㅇ[이]는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되, 어금닛소리 글자를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
- [93] 蓋喉屬水而牙屬木, ㅇ雖在牙而與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정음해례4ㄱ:3-5_제자해]
 ♣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에 속하는 까닭에 ㅇ[이]는 비록 어금니에 속해 있으면서도 ㅇ[이]와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오히려 물기가 많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94] ㄱ木之成質, ㄴ木之盛 °長, ㅌ木之老壯, 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 [정음해례4ㄱ:5-7_제자해]
 ♣ ㄱ[기]는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고, ㄴ[키]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고, ㅌ[끼]는 나무가 오래되어 굳건해진 것이니, 이는 한결같이 모두 어금니를 본뜬 데서 비롯된 것이다.
- [95] 全清並書則爲全濁, 以其全清之聲凝則爲全濁也. [정음해례4ㄱ:7-4ㄴ:1_제자해]
 ♣ 아주 맑은소리 ‘전청’ 글자를 나란히 쓰면 아주 흐린소리 ‘전탁’이 되는 것은 아주 맑은 소리가 엉기면 아주 흐린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 [96] 唯喉音次清爲全濁者, 蓋以ㅇ聲深不爲之凝, ㅎ比ㅇ聲淺, 故凝而爲全濁也. [정음해례4ㄴ:1-3_제자해]
 ♣ 다만, 목구멍소리만은 덜 맑은소리 ‘차청’을 나란히 쓰면 아주 흐린소리 ‘전탁’이 되는데, 그것은 대개 ㅇ[히]는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히]는 ㅇ[히]에 비하여 소리가 얇아서 엉기어 아주 흐린소리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 [97] ○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정음해례4ㄴ:3-5_제자해]
 ♣ ○[이]를 입술소리 글자 아래에 이어 쓰면 곧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되는데, 이러한 입술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살짝 다물어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 [98] 中聲凡十一字。 [정음해례4ㄴ:5_제자해]
 ♣ 가운데소리글자는 모두 열한 자이다.
- [99] • 舌縮而聲深，天開於子也。 [정음해례4ㄴ:5-6_제자해]
 ♣ • 는 혀가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어서, 하늘이 자시(밤 11시~1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 [100] 形之圓，象乎天也。 [정음해례4ㄴ:6-7_제자해]
 ♣ 둥근 글꼴은 하늘을 본뻘다.
- [101]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關於丑也。 [정음해례4ㄴ:7-8_제자해]
 ♣ 一 는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땅이 축시(밤 1시-3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 [102] 形之平，象乎地也。 [정음해례4ㄴ:8_제자해]
 ♣ 평평한 글꼴은 땅을 본뻘다.
- [103] | 舌不縮而聲淺，人生於寅也。 [정음해례4ㄴ:8-5ㄱ:1_제자해]
 ♣ | 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는 얕으니, 사람이 인시(새벽 3시~5시)에서 생기는 것과 같다.
- [104] 形之立，象乎人也。 [정음해례5ㄱ:1-2_제자해]
 ♣ 바로 선 글꼴은 사람을 본뻘다.
- [105] 此下八聲，一闔一關。 [정음해례5ㄱ:2_제자해]
 ♣ 다음 여덟 가운데소리는 어떤 것은 거의 닫히고 어떤 것은 열린다.
- [106] ㄷ與•同而口蹙，其形則•與一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 [정음해례5ㄱ:2-4_제자해]
 ♣ ㄷ는 •와 같은 가운데소리[양성모음]이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가 一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담았다.
- [107] ㅌ與•同而口張，其形則ㅌ與•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정음해례5ㄱ:4-6_제자해]
 ♣ ㅌ는 •와 같은 가운데소리[양성모음]이나 입을 더 벌리며 그 모양은 ㅌ와 •가 서로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 [108] ㄱ與一同而口蹙，其形則一與•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 [정음해례5ㄱ:7-8_제자해]

♣ ㄱ은 一와 같은 가운데소리[음성모음]이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一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담았다.

[109] 丨 與一 同而口張，其形則 • 與 丨 合而成，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정음해례5ㄱ:8-5
ㄴ:1-3_제자해]

♣ 丨는 一와 같은 가운데소리[음성모음]이나 입을 더 벌리니 그 모양은 •와 丨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담은 것이다.

[110] ㄴ 與 一 同而起於 丨。 [정음해례5ㄴ:3_제자해]

♣ ㄴ은 一와 같은 양성 가운데소리이나 丨에서 비롯된다.

[111] ㄷ 與 丨 同而起於 丨。 [정음해례5ㄷ:3-4_제자해]

♣ ㄷ는 丨와 같은 양성 가운데소리이나 丨에서 비롯된다.

[112] ㄹ 與 一 同而起於 丨。 [정음해례5ㄹ:4-5_제자해]

♣ ㄹ은 一와 같은 음성 가운데소리이나 丨에서 비롯된다.

[113] ㅁ 與 丨 同而起於 丨。 [정음해례5ㅁ:5_제자해]

♣ ㅁ는 丨와 같은 음성 가운데소리이나 丨에서 비롯된다.

[114] ㄴ 丨 一 丨 始於天地，爲初出也。 [정음해례5ㄴ:5-6_제자해]

♣ ㄴ 丨 一 丨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처음 나온 것(초출자)’이다.

[115] ㄴ 丨 一 丨 起於 丨 而兼乎人，爲再出也。 [정음해례5ㄴ:6-7_제자해]

♣ ㄴ 丨 一 丨는 丨에서 비롯되어 사람(丨)을 겸하였으므로 ‘거듭 나온 것(재출자)’이다.

[116] ㄴ 丨 一 丨 之一其圓者，取其初生之義也。 [정음해례5ㄴ:7-8-6ㄱ:1_제자해]

♣ ㄴ 丨 一 丨에서 둥근 것(•)을 하나로 한 것은 ‘처음 생긴 것(초생자)’이라는 뜻을 담았다.

[117] ㄴ 丨 一 丨 之二其圓者，取其再生之義也。 [정음해례6ㄱ:1-2_제자해]

♣ ㄴ 丨 一 丨에서 그 둥근 것(•)을 둘로 한 것은 ‘다시 생겨난 것(재생자)’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118] ㄴ 丨 一 丨 之圓居上與外者，以其出於天而爲陽也。 [정음해례6ㄱ:2-3_제자해]

♣ ㄴ 丨 一 丨의 둥근 것(•)이 위와 밖에 놓인 것은 하늘(•)에서 나와 양성이 되기 때문이다.

[119] ㄴ 丨 一 丨 之圓居下與內者，以其出於地而爲陰也。 [정음해례6ㄱ:3-5_제자해]

♣ ㄴ 丨 一 丨의 둥근 것(•)이 아래쪽과 안쪽에 있는 것은 땅(一)에서 나와 음성이 되기 때문이다.

[120] • 之貫於八聲者，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 [정음해례6ㄱ:5-6_제자해]

♣ •가 여덟 가운데소리글자에 두루 다 있는 것은 마치 양성이 음성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흐름과

같다.

- [121] ☳☵☱☲☳☵☱☲之皆兼乎人者，以人爲萬物之靈而能參兩儀也。 [정음해례6ㄱ:6-8_제자해]
♣ ☳☵☱☲☳☵☱☲가 모두 사람을 뜻하는 | 소리가 들어 있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능히 하늘(양)과 땅(음)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22] 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정음해례6ㄱ:8-6ㄴ:1_제자해]
♣ 가운데소리가글자들은 하늘(☵), 땅(☷), 사람(☶)을 본뜬 것을 가졌으니, 삼재(하늘·땅·사람) 이치가 갖추어졌다.
- [123] 然三才爲萬物之先，而天又爲三才之始，猶☵☷☶三字爲八聲之首，而☵☷☶又爲三字之冠也。 [정음해례6ㄴ:1-4_제자해]
♣ 그러므로 하늘·땅·사람의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되고, 하늘이 삼재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 석 자가 여덟 가운데소리가글자의 머리가 되고 또한 ☵ 자가 석 자의 으뜸이 됨과 같다.
- [124] ☵初生於天，天一生水之位也。 [정음해례6ㄴ:4-5_제자해]
♣ ☵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생겨나니 하늘의 수로는 1이고 물을 낳는 자리다.
- [125] ☳次之，天三生木之位也。 [정음해례6ㄴ:5_제자해]
♣ ☳가 다음으로 생겨나 하늘의 수로는 3이고 나무를 낳는 자리다.
- [126] ☷初生於地，地二生火之位也。 [정음해례6ㄴ:6_제자해]
♣ ☷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땅의 수로는 2이고 불을 낳는 자리다.
- [127] ☱次之，地四生金之位也。 [정음해례6ㄴ:6-7_제자해]
♣ ☱가 다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땅의 수로는 4이고 쇠를 낳는 자리다.
- [128] ☲再生於天，天七成火之數也。 [정음해례6ㄴ:7-8]
♣ ☲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생겨나니 하늘의 수로는 7이고 불을 이루는 수이다.
- [129] ☳次之，天九成金之數也。 [정음해례6ㄴ:8-7ㄱ:1_제자해]
♣ ☳가 다음으로 생겨나니 하늘의 수로는 9이고 쇠를 이루는 수다.
- [130] ☵再生於地，地六成水之數也。 [정음해례7ㄱ:1-2_제자해]
♣ ☵가 두 번째로 땅에서 생겨나니 땅의 수로는 6이고 물을 이루는 수다.
- [131] ☷次之，地八成木之數也。 [정음해례7ㄱ:2-3_제자해]
♣ ☷가 다음으로 생겨나니 땅의 수로는 8이고 나무를 이루는 수다.
- [132] 水火未離乎氣，陰陽交合之初，故闕。 [정음해례7ㄱ:3-4_제자해]
♣ 물(☵☲)과 불(☷☳)은 아직 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어울리는 시초이기 때문

에 입을 거의 오므린다.

[133] 木金陰陽之定質，故關。 [정음해례7-1:4_제자해]

♣ 나무(木)와 쇠(金)는 음과 양의 바탕을 바로 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을 벌린다.

[134] • 天五生土之位也。 [정음해례7-1:4-5_제자해]

♣ • 는 하늘의 수로는 5이고 흙을 낳는 자리다.

[135] 一地十成土之數也。 [정음해례7-1:5-6_제자해]

♣ 一 는 땅의 수로는 10이고 흙을 이루는 수다.

[136] | 獨無位數者，蓋以人則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 [정음해례7-1:6-8_제자해]

♣ | 만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은 곧 끝없는 태극의 참과 음양과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울리고 엉기어서, 진실로 자리를 정하고 수를 이루는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137] 是則中聲之中，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정음해례7-1:8-7-1_제자해]

♣ 이런즉 가운데소리(중성) 속에도 또한 저절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138] 以初聲對中聲而言之。 [정음해례7-1:1-2_제자해]

♣ 첫소리와 가운데소리를 맞대어 말해 보자.

[139] 陰陽，天道也。 [정음해례7-1:2_제자해]

♣ 가운데소리의 음성과 양성은 하늘의 이치다.

[140] 剛柔，地道也。 [정음해례7-1:3_제자해]

♣ 첫소리의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땅의 이치이다.

[141] 中聲者，一深一淺一闔一關，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天之用也。 [정음해례7-1:3-5_제자해]

♣ 가운데소리는 어떤 것은 깊고 어떤 것은 얇고, 어떤 것은 오므리고 어떤 것은 벌리니, 이런즉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지니 하늘의 작용이다.

[142] 初聲者，或虛或實或颯或滯或重若輕，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地之功也。 [정음해례7-1:5-7_제자해]

♣ 첫소리는 어떤 것은 비고[목구멍소리], 어떤 것은 막히고[어금닛소리], 어떤 것은 날리고[혓소리], 어떤 것은 걸리고[잇소리], 어떤 것은 무겁고[입술무거운소리], 어떤 것은 가벼우니[입술가벼운소리], 이런즉 곧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이 드러나서 여기에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니 땅의 공이다.

[143] 中聲以深淺闔關唱之於前，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而爲初亦爲終。 [정음해례7-1:7-8-1_제자해]

♣ 가운데소리가 깊고 얇고 오므라지고 벌림으로써 앞서 소리 나고, 첫소리가 오음의 맑고 흐림으로써

뒤따라 화답하여 첫소리가 되고 또한 끝소리가 된다.

[144] 亦可見萬物初生於地，復歸於地也。 [정음해례8ㄱ:2-3_제자해]

♣ 또한 이는 만물이 땅에서 처음 생겨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5]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정음해례8ㄱ:3-4_제자해]

♣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가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를 말할 것 같으면, 또한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뜻이 있다.

[146] 動者，天也。靜者，地也。 [정음해례8ㄱ:4-5_제자해]

♣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고요한 것은 땅이다.

[147] 兼乎動靜者，人也。 [정음해례8ㄱ:5_제자해]

♣ 움직임과 고요함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148] 盖五行在天則神之運也，在地則質之成也，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運也，肝心脾肺腎質之成也。

[정음해례8ㄱ:6-8_제자해]

♣ 대개 오행이 하늘에서는 신(우주)의 운행이며, 땅에서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요, 사람에서는 어짊·예의·믿음·정의·슬기가 신(작은 우주)의 운행이요, 간장·염통(심장)·지라(비장)·허파(폐장)·콩팥(신장)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149] 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 [정음해례8ㄱ:8-8ㄴ:1_제자해]

♣ 첫소리는 움직여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150] 終聲有止定之義，地之事也。 [정음해례8ㄴ:1-2_제자해]

♣ 끝소리는 정해져 멈추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151] 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 [정음해례8ㄴ:2-3_제자해]

♣ 가운데소리는 첫소리가 생겨난 것을 이어서, 끝소리가 이루어지게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152] 盖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 [정음해례8ㄴ:3-6_제자해]

♣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가운데소리에 있으니, 첫소리·끝소리와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153] 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정음해례8ㄴ:4-6_제자해]

♣ 또 오히려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겨나게 해도, 그것이 쓸모 있게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한테 힘입음과 같다.

[154] 終聲之復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靜而陰者亦乾也，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 [정음해례8

ㄴ:6-8_제자해]

♣ 끝소리글자에 첫소리글자를 다시 쓰는 것은 움직여서 양인 것도 하늘이요, 고요해서 음인 것도 하늘이니, 하늘은 실제로는 음과 양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임금(하늘)이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 [155] 一元之氣，周流不窮，四時之運，循環無端，故貞而復元，冬而復春。 [정음해례9ㄱ:1-2_제자해]
- ♣ 하나의 바탕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계절 바뀔이 돌고 돌아 끝이 없으니 만물의 거둠에서 다시 만물의 시초가 되듯 겨울은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다.
- [156] 初聲之復爲終，終聲之復爲初，亦此義也。 [정음해례9ㄱ:2-4_제자해]
- ♣ 첫소리글자가 다시 끝소리글자가 되고 끝소리글자가 다시 첫소리글자가 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뜻이다.
- [157] 吁。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其神矣哉。 [정음해례9ㄱ:4-5_제자해]
- ♣ 아! 정음이 만들어져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참으로 신묘하구나!
- [158] 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 [정음해례9ㄱ:5-6_제자해]
- ♣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성왕(세종)의 마음을 일깨워, 세종의 손을 빌려 정음을 만들게 한 것이로구나!
- 訣曰 [정음해례9ㄱ:6_제자해_갈무리시]
- ♣ 갈무리시
- [159] 天地之化本一氣
陰陽五行相始終 [정음해례9ㄱ:7-8_제자해_갈무리시]
- ♣ 하늘과 땅의 조화는 본디 하나의 기운이니 음양과 오행이 서로 처음이 되며 끝이 되네.
- [160] 物於兩間有形聲
元本無二理數通 [정음해례9ㄴ:1-2_제자해_갈무리시]
- ♣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꼴과 소리 있으며 근본은 둘이 아니니 이치와 수로 통하네.
- [161] 正音制字尙其象
因聲之厲每加畫 [정음해례9ㄴ:3-4_제자해_갈무리시]
- ♣ 정음 글자 만들 때 주로 그 꼴을 본뜨니 소리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였네.
- [162] 音出牙舌脣齒喉
是爲初聲字十七 [정음해례9ㄴ:5-6_제자해_갈무리시]
- ♣ 소리는 어금니·혀·입술·이·목구멍에서 나니 여기에서 첫소리글자 열일곱이 나왔네.
- [163] 牙取舌根閉喉形
唯業似欲取義別 [정음해례9ㄴ:7-8_제자해_갈무리시]
- ♣ 어금닛소리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취하였는데

오직 ㅎ[이]만은 ㉠[이]와 비슷하나 담은 뜻이 다르네.

[164] 舌迺象舌附上腭

脣則實是取口形 [정음해례10㉠:1-2_제자해_갈무리시]

- ♣ 혓소리글자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 글자는 바로 입 꼴을 취하였네.

[165] 齒喉直取齒喉象

知斯五義聲自明 [정음해례10㉠:3-4_제자해_갈무리시]

- ♣ 잇소리글자와 목구멍소리글자는 바로 이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으니 이 다섯 자 뜻을 알면 소리 이치는 절로 밝혀지네.

[166] 又有半舌半齒音

取象同而體則異 [정음해례10㉠:5-6_제자해_갈무리시]

- ♣ 또한 반혓소리글자(ㄷ), 반잇소리글자(ㄴ)가 있는데 본뜻 것은 같은데 짜임새가 다르네.

[167] 那彌戍欲聲不厲

次序雖後象形始 [정음해례10㉠:7-8_제자해_갈무리시]

- ♣ “ㄴ[니], ㄹ[미], ㄷ[시], ㉠[이]” 소리는 세지 않으므로 차례는 비록 뒤이나 꼴을 본뜨는 처음이 되네.

[168] 配諸四時與冲氣

五行五音無不協 [정음해례10㉠:1-2_제자해_갈무리시]

- ♣ 이것을 네 계절과 천지 기운에 맞추어 보니 오행과 오음계에 어울리지 않음이 없네.

[169] 維喉爲水冬與羽

牙迺春木其音角 [정음해례10㉠:3-4_제자해_갈무리시]

- ♣ 목구멍소리는 ‘물’이 되니 ‘겨울’과 ‘우음계’요 어금닛소리는 ‘봄’이며 ‘나무’이니 그 소리는 ‘각음계’이네.

[170] °徵音夏火是舌聲

齒則商秋又是金 [정음해례10㉠:5-6_제자해_갈무리시]

- ♣ ‘치음계’에 ‘여름’이며 ‘불’인 것은 혓소리요, 잇소리는 곧 ‘상음계’이며 ‘가을’이니 또한 ‘쇠’이네.

[171] 脣於位數本無定

土而季夏爲宮音 [정음해례10㉠:7-8_제자해_갈무리시]

- ♣ 입술소리는 방위와 수가 본디 정해진 것이 없으니 ‘흙’이며 ‘늦여름’이니 ‘궁음계’가 되네.

[172] 聲音又自有清濁

要於初發細推尋 [정음해례11 ㄱ:1-2_제자해_갈무리시]

- ♣ 말소리는 또한 스스로 맑고 흐림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첫소리 날 때에 자세히 헤아려 살펴야 하네.

[173] 全淸聲是君斗警

即戍搥亦全淸聲 [정음해례11 ㄱ:3-4_제자해_갈무리시]

- ♣ 아주 맑은소리 ‘전청’은 “ㄱ[기], ㄷ[디], ㅂ[비]”이며
“ㅈ[지], ㅅ[시], ㅇ[히]”도 또한 아주 맑은소리 ‘전청’이라네.

[174] 若迺快吞漂侵虛

五音各一爲次淸 [정음해례11 ㄱ:5-6_제자해_갈무리시]

- ♣ ㅋ[키], ㅌ[티], ㅍ[피], ㅊ[치], ㅎ[히]와 같은 것은
오음 각 하나씩의 덜 맑은소리 ‘차청’이 되네.

[175] 全濁之聲虯覃步

又有慈邪亦有洪 [정음해례11 ㄱ:7-8_제자해_갈무리시]

- ♣ 아주 흐린소리 ‘전탁’은 “ㄱ[끼], ㄷ[띠], ㅂ[삐]”에다
“ㅈ[찌], ㅅ[씨]”가 있고 또한 “ㅎ[히]”가 있네.

[176] 全淸並書爲全濁

唯洪自虛是不同 [정음해례11 ㄴ:1-2_제자해_갈무리시]

- ♣ 아주 맑은소리 ‘전청’ 글자를 나란히 쓰면 아주 흐린소리 ‘전탁’ 글자가 되는데
다만 ‘ㅎ[히]’만은 ‘ㅎ[히]’에서 나와 이것만 같지 않네.

[177] 業那彌欲及閻穰

其聲不淸又不濁 [정음해례11 ㄴ:3-4_제자해_갈무리시]

- ♣ “ㅇ[이], ㄴ[니], ㄹ[미], ㄹ[이]”와 “ㄹ[리], ㄹ[시]”는
그 소리 맑지도 또 흐리지도 않네.

[178] 欲之連書爲脣輕

喉聲多而脣乍合 [정음해례11 ㄴ:5-6_제자해_갈무리시]

- ♣ ㅇ[이]를 입술소리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되는데
목구멍소리가 많아지면서 입술을 살짝 다물어 주네.

[179] 中聲十一亦取象

精義未可容易觀 [정음해례11 ㄴ:7-8_제자해_갈무리시]

- ♣ 가운데소리글자 열한 자 또한 꼴을 본냈는데
섬세한 뜻은 아직 쉽게 볼 수 없네.

[180] 吞擬於天聲最深

所以圓形如彈丸 [정음해례12 ㄱ:1-2_제자해_갈무리시]

- ♣ • 는 하늘을 본뜬 것으로 소리가 가장 깊으니

둥근 꼴이 총알 같네.

- [181] 即聲不深又不淺
其形之平象乎地 [정음해례12ㄱ:3-4_제자해_갈무리시]
♣ 一 소리는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아
그 평평한 꼴은 땅을 본뻘네.
- [182] 侵象人立厥聲淺
三才之道斯爲備 [정음해례12ㄱ:5-6_제자해_갈무리시]
♣ | 는 사람이 선 모습을 본뻘 것으로 그 소리 얕으니
하늘·땅·사람의 세 바탕 이치가 이에 갖추어졌네.
- [183] 洪出於天尙爲闔
象取天圓合地平 [정음해례12ㄱ:7-8_제자해_갈무리시]
♣ 一·는 하늘(·)에서 나와 입을 거의 닫으니
하늘의 둥글과 땅의 평평함을 아울러 담은 것을 본뻘네.
- [184] 覃亦出天爲已關
發於事物就人成 [정음해례12ㄴ:1-2_제자해_갈무리시]
♣ 卜도 하늘에서 나와 입이 많이 열려 있으니
일과 사물에서 피어나 사람에서 이루어짐이네.
- [185] 用初生義一其圓
出天爲陽在上外 [정음해례12ㄴ:3-4_제자해_갈무리시]
♣ 처음 생겨나는 뜻을 사용하여 둥근 점을 하나로 하였으니
하늘에서 나와 ‘양’이 되어 위와 밖에 놓이네.
- [186] 欲穰兼人爲再出
二圓爲形見其義 [정음해례12ㄴ:5-6_제자해_갈무리시]
♣ 二, 卜는 사람을 겸하여 ‘거듭 나온 것’이 되니
두 개의 둥근 꼴로 그 뜻을 보이네.
- [187] 君業戍驚出於地
據例自知何須評 [정음해례12ㄴ:7-8_제자해_갈무리시]
♣ 一와 丨와 二와 卍는 땅에서 나니
보기를 들면 저절로 알 것을 어찌 꼭 풀이를 해야 하랴.
- [188] 吞之爲字貫八聲
維天之用徧流行 [정음해례13ㄱ:1-2_제자해_갈무리시]
♣ · 글자가 여덟 가운뎃소리글자에 두루 있음은
오직 하늘의 작용이 두루 흘러 다님이네.

- [189] 四聲兼人亦有由
 人參天地爲最靈 [정음해례13ㄱ:3-4_제자해_갈무리시]
 ♣ 네 소리(ㄴ ㄷ ㄹ ㅁ)가 사람[人]을 겸함도 또한 까닭이 있으니
 사람(人)이 하늘과 땅에 참여하는데 가장 신령하기 때문이네.
- [190] 且就三聲究至理
 自有剛柔與陰陽 [정음해례13ㄱ:5-6_제자해_갈무리시]
 ♣ 또 첫·가운데·끝 세 소리의 깊은 이치를 살피면
 단단함과 부드러움, 음과 양이 저절로 있네.
- [191] 中是天用陰陽分
 初迺地功剛柔彰 [정음해례13ㄱ:7-8_제자해_갈무리시]
 ♣ 가운데소리는 하늘의 작용으로서 음양으로 나뉘고
 첫소리는 땅의 공로로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네.
- [192] 中聲唱之初聲和
 天先乎地理自然 [정음해례13ㄴ:1-2_제자해_갈무리시]
 ♣ 가운데소리가 부르면 첫소리가 응하니
 하늘이 땅보다 앞섬은 자연의 이치이네.
- [193] 和者爲初亦爲終
 物生復歸皆於坤 [정음해례13ㄴ:3-4_제자해_갈무리시]
 ♣ 응하는 것이 첫소리도 되고 또 끝소리도 되니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모두 땅으로 되돌아감이네.
- [194] 陰變爲陽陽變陰
 一動一靜互爲根 [정음해례13ㄴ:5-6_제자해_갈무리시]
 ♣ 음이 바뀌어 양이 되고 양이 바뀌어 음이 되니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네.
- [195] 初聲復有發生義
 爲陽之動主於天 [정음해례13ㄴ:7-8_제자해_갈무리시]
 ♣ 첫소리는 다시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양의 움직임으로 하늘의 임자 되네.
- [196] 終聲比地陰之靜
 字音於此止定焉 [정음해례14ㄱ:1-2_제자해_갈무리시]
 ♣ 끝소리는 땅에 비유되어 음의 고요함이니
 글자 소리가 여기서 그쳐 정해지네.
- [197] 韻成要在中聲用
 人能輔相天地宜 [정음해례14ㄱ:3-4_제자해_갈무리시]

- ♣ 음절을 이루는 핵심은 가운데소리의 쓰임새에 있으니 사람이 능히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

[198] 陽之爲用通於陰

至而伸則反而歸 [정음해례14ㄱ:5-6_제자해_갈무리시]

- ♣ 양의 쓰임은 음에 통하니 이르러 퍼면 도로 돌아오네.

[199] 初終雖云分兩儀

終用初聲義可知 [정음해례14ㄱ:7-8_제자해_갈무리시]

- ♣ 첫소리글자와 끝소리글자가 비록 하늘과 땅으로 나뉜다고 하나 끝소리글자에 첫소리글자를 쓰는 뜻을 알 수 있네.

[200] 正音之字只廿八

探曠錯綜窮深幾 [정음해례14ㄴ:1-2_제자해_갈무리시]

- ♣ 정음 글자는 스물여덟뿐이로되 심오하고 복잡한 걸 탐구하여 근본 깊이가 어떠한가를 밝혀낼 수 있네.

[201] 指遠言近庸民易

天授何曾智巧爲 [정음해례14ㄴ:3-4_제자해_갈무리시]

- ♣ 뜻은 멀되 말은 가까워 백성을 깨우치기 쉬우니 하늘이 주신 것이지 어찌 일찍이 슬기와 기교로 되었으리오.

2. 초성해(初聲解)

[202] 正音初聲，即韻書之字母也。 [정음해례14ㄴ:6_초성해]

- ♣ 정음의 첫소리는 곧 한자음 사전(운서)에서 한 음절의 첫소리(성모)이다.

[203] 聲音由此而生，故曰母。 [정음해례14ㄴ:7_초성해]

- ♣ 말소리가 이에서 비롯되므로 이르기를 ‘어미(모)’라 한 것이다.

[204] 如牙音君字初聲是ㄱ，ㄱ與ㄷ而爲ㄱᄂ。 [정음해례14ㄴ:7-8_초성해]

- ♣ 어금닛소리글자는 ‘**ᄂ**’ 자의 첫소리글자인 ㄱ[기]인데 ㄱ[기]가 ㄷ과 어울려 ‘**ᄂ**’이 된다.

[205] 快字初聲是ㅋ，ㅋ與ㅌ而爲ㄱᄃ。 [정음해례15ㄱ:1_초성해]

- ♣ ‘**ᄃ**’ 자의 첫소리글자는 곧 ㅋ[키]니, ㅋ[키]가 ㅌ와 합하여 ‘**ᄃ**’가 된다.

[206] 叫字初聲是ㄱᄄ，ㄱᄄ與ㅍ而爲ㄱᄅ。 [정음해례15ㄱ:1-2_초성해]

- ♣ ‘**ᄅ**’ 자의 첫소리글자는 ㄱᄄ[끼]인데 ㄱᄄ[끼]가 ㅍ와 합하여 ‘**ᄅ**’가 된다.

[207] 業字初聲是ㅇ，ㅇ與ㅈ而爲ㅇᄆ之類。 [정음해례15ㄱ:2-3_초성해]

♣ **업**의 첫소리글자는 **ㅇ**[이]인데 **ㅇ**[이]가 **ㅅ**과 합하여 **'업'**이 되는 따위와 같다.

[208] 舌之斗吞覃那, 脣之驚漂步彌, 齒之即侵慈戍邪, 喉之挹虛洪欲, 半舌半齒之間穰, 皆倣此. [정음해례15ㄱ:3-6_초성해]

♣ **혓소리**글자의 “**ㄷ ㅌ ㄷ ㄴ**[디티떠니]”, **입술소리**글자의 “**ㅂ ㅍ ㅃ ㅍ**[비피뽀미]”, **잇소리**글자의 “**ㄸ ㅊ ㅆ ㅈ ㅍ**[지치찌시씨]”, **목구멍소리**글자의 “**ㅇ ㅎ ㅎ ㅇ**[히히히이]”, **반혓소리**·**반잇소리**글자의 “**ㄹ ㄷ**[리시]”도 모두 이와 같다.

訣曰 [정음해례15ㄱ:6_초성해_갈무리시]

♣ 갈무리시

[209] 君快虯業其聲牙

舌聲斗吞及覃那 [정음해례15ㄱ:7-8_초성해_갈무리시]

♣ “**ㄱ ㅋ ㆁ ㅇ**[기키끼이]”는 어금닛소리글자이고
혓소리글자로는 “**ㄷ ㅌ**[디티]”와 “**ㄷ ㄴ**[떠니]”가 있네.

[210] 驚漂步彌則是脣

齒有即侵慈戍邪 [정음해례15ㄴ:1-2_초성해_갈무리시]

♣ “**ㅂ ㅍ ㅃ ㅍ**[비피뽀미]”는 곧 **입술소리**글자이고
잇소리글자로는 “**ㄸ ㅊ ㅆ ㅈ ㅍ**[지치찌시씨]”가 있네.

[211] 挹虛洪欲迺喉聲

間爲半舌穰半齒 [정음해례15ㄴ:3-4_초성해_갈무리시]

♣ “**ㅇ ㅎ ㅎ ㅇ**[히히히이]”는 곧 **목구멍소리**글자이고
ㄹ[리]는 반혓소리글자이고, **ㄷ**[시]는 반잇소리글자이네.

[212] 二十三字是爲母

萬聲生生皆自此 [정음해례15ㄴ:5-6_초성해_갈무리시]

♣ 스물세 자가 첫소리글자가 되니
온갖 소리가 모두 다 여기에서 생겨나네.

3. 중성해(中聲解)

[213]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정음해례15ㄴ:8-16ㄱ:1_중성해]

♣ **가운뎃소리**는 한 음절소리(자운)의 가운데에 있으니 첫소리, 끝소리와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214] 如吞字中聲是·, ·居ㅌㄴ之間而爲ㄷ. [정음해례16ㄱ:1-2_중성해]

♣ ‘**ㄷ**’ 자의 **가운뎃소리**글자는 **·**이니 **·**가 **ㅌ**[티]와 **ㄴ**[은] 사이에 있어 ‘**ㄷ**’이 된다.

[215] 即字中聲是—, —居ㄸㄱ之間而爲ㄸ. [정음해례16ㄱ:2-3_중성해]

♣ ‘**ㄸ**’ 자의 **가운뎃소리**는 곧 **—**인데 **—**는 **ㄸ**[지]와 **ㄱ**[우] 사이에 놓여 ‘**ㄸ**’이 된다.

- [216] 侵字中聲是 | , | 居大 □ 之間而爲 침 之類. [정음해례16ㄱ:3-4_중성해]
 ♣ ‘침’ 자의 가운데소리글자는 | 니, | 가 大[치]와 □[음] 사이에 있어 ‘침’이 되는 것과 같다.
- [217] 洪覃君業欲穰戍警, 皆倣此. [정음해례16ㄱ:4-5_중성해]
 ♣ “**홍·탐·군·업·욕·상·술·별**”에서의 “**ㅡ ㅏ ㅓ ㅕ ㅛ ㅜ ㅠ ㅟ**”도 모두 이와 같다.
- [218] 二字合用者, 一與 ㅏ 同出於 • , 故合而爲 ㅑ . [정음해례16ㄱ:5-6_중성해]
 ♣ 두 글자를 합쳐 쓴 것으로는 ㅡ와 ㅏ가 똑같이 • 와 같은 양성 가운데소리이므로 합하여 ㅑ가 된다.
- [219] ㅓ與 ㅛ 又同出於 | , 故合而爲 ㅕ . [정음해례16ㄱ:6-7_중성해]
 ♣ ㅓ와 ㅛ는 | 에서 비롯되므로 합하면 ㅕ가 된다.
- [220] ㅓ與 ㅕ 同出於 ㅡ , 故合而爲 ㅗ . [정음해례16ㄱ:7-8_중성해]
 ♣ ㅓ와 ㅕ가 똑같이 ㅡ와 같은 음성 가운데소리이므로5) 합하여 ㅗ가 된다.
- [221] ㅛ與 ㅟ 又同出於 | , 故合而爲 ㅜ . [정음해례16ㄱ:8-16ㄴ:1_중성해]
 ♣ ㅛ와 ㅟ가 또한 똑같이 | 에서 비롯되므로 합하여 ㅜ가 된다.
- [222] 以其同出而爲類, 故相合而不悖也. [정음해례16ㄴ:1-2_중성해]
 ♣ 이런 합용자들은 같은 것에서 나와 같은 부류가 되므로, 서로 합해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 [223]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十,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ㅟ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ㅟ 是也. [정음해례16ㄴ:2-4_중성해]
 ♣ 한 낱글자로 된 가운데소리글자가 | 와 서로 합한 것이 열이니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ㅟ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ㅟ**”가 그것이다.
- [224] 二字中聲之與 | 相合者四, ㅑ ㅓ ㅕ ㅗ 是也. [정음해례16ㄴ:4-5_중성해]
 ♣ 두 낱글자로 된 가운데소리글자가 | 와 서로 합한 것은 넷이니 “**ㅑ ㅓ ㅕ ㅗ**”가 그것이다
- [225] | 於深淺闔關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정음해례16ㄴ:6-7_중성해]
 ♣ | 가 깊고, 얇고,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두루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소리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알아서 입을 열기 편하기 때문이다.
- [226] 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 [정음해례16ㄴ:7-8-17ㄱ:1_중성해]
 ♣ 또한 사람(|)이 만물을 여는 데에 참여하고 도와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諫曰 [정음해례17ㄱ:1_중성해_갈무리시]
 ♣ 갈무리시

[227] 母字之音各有中

5) ‘ㅓ, ㅕ’가 음성모음(-)이라는 뜻.

須就中聲尋關闔 [정음해례17ㄱ:2-3_중성해_갈무리시]

- ♣ 음절 소리마다 제각기 가운데소리가 있으니
모름지기 가운데소리에서 벌림과 오름을 찾아야 하네.

[228] 洪覃自吞可合用

君業出即亦可合 [정음해례17ㄱ:4-5_중성해_갈무리시]

- ♣ ㄱ와 ㅌ는 ㄱ에서 나왔으니[양성모음] 합하여 쓸 수 있고
ㅌ ㄷ는 ㄱ에서 나왔으니[음성모음] 또한 합하여 쓸 수 있네.

[229] 欲之與穰戍與警

各有所從義可推 [정음해례17ㄱ:6-7_중성해_갈무리시]

- ♣ ㅍ와 ㅑ, ㅍ와 ㅓ의 관계는
각각 따르는 곳이 있으니 그 뜻을 이루어 알 수 있네.

[230] 侵之爲用最居多

於十四聲徧相隨 [정음해례17ㄱ:8-17ㄴ:1_중성해_갈무리시]

- ♣ ㄴ자의 쓰임새가 가장 많아서
열넷의 소리에 두루 서로 따르네.

4. 종성해(終聲解)

[231]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정음해례17ㄴ:3_중성해]

- ♣ 끝소리는 첫소리·가운데소리를 이어서 음절을 이룬다.

[232] 如卽字終聲是ㄱ, ㄱ居ㄷ終而爲ㄷ. [정음해례17ㄴ:3-4_중성해]

- ♣ 이를테면 ‘ㄷ’자의 끝소리글자는 곧 ㄱ[워]인데 ㄱ[워]은 ‘ㄷ’의 끝에 놓여 ‘ㄷ’이 되는 것과 같다.

[233] 洪字終聲是ㅇ, ㅇ居ㅎ終而爲ㅎ之類. [정음해례17ㄴ:4-5_중성해]

- ♣ ‘ㅎ’자의 끝소리는 곧 ㅇ[웅]인데 ㅇ[웅]은 ㅎ의 끝에 놓여 ㅎ이 되는 것과 같다.

[234] 舌脣齒喉皆同. [정음해례17ㄴ:6_중성해]

- ♣ 혀소리글자, 입술소리글자, 잇소리글자, 목구멍소리글자도 모두 같다.

[235]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정음해례17ㄴ:6-7_중성해]

- ♣ 소리에는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으니, 평성·상성·거성 음절의 끝소리는 입성 음절 끝소리가 매우 빠른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니다.

[236] 不清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정음해례17ㄴ:8-18ㄱ:1_중성해]

- ♣ 울림소리 ‘불청불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끝소리로 쓰면 평성·상성·거성에 마땅하다.

[237] 全清次清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정음해례18ㄱ:1-3_중성해]

- ♣ 아주 맑은소리 전청, 덜 맑은소리 차청, 아주 흐린소리 전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끝소리로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

[238] 所以○ㄴㅇㅇㄹ△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정음해례18ㄱ:3-5_중성해]

♣ 그래서 ○ㄴㅇㅇㄹ△[히니미이리시]의 여섯 글자가 끝소리로 쓰이는 음절은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되고, 나머지 글자가 끝소리로 쓰이는 음절은 모두 입성이 된다.

[239] 然ㄱ○ㄷㄴㅂㅇㅅㄹ八字可足用也。 [정음해례18ㄱ:5-6_중성해]

♣ 그렇지만 ㄱ○ㄷㄴㅂㅇㅅㄹ[기이디니비미시리]의 여덟 글자만으로도 끝소리글자를 적기에 충분하다.

[240] 如뵈긱爲梨花，엿의긱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 [정음해례18ㄱ:6-8_중성해]

♣ “뵈긱(배꽃)”이나 “엿의긱(여우 가죽)”에서처럼 ㅅ[읏] 자로 두루 쓸 수 있어서 오직 ㅅ[읏] 자를 쓰는 것과 같다.

[241] 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 [정음해례18ㄱ:8-18ㄴ:1_중성해]

♣ 또 ㅇ[이]는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끝소리로 쓰지 않더라도 가운데소리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242] ㄷ如뵈爲鶯，ㄴ如군爲君，ㅂ如업爲業，ㅇ如땀爲覃，ㅅ如諺語-옷爲衣，ㄹ如諺語:실爲絲之類。 [정음해례18ㄴ:1-4_중성해]

♣ ㄷ[디]는 ‘뵈’의 끝소리 ㄷ[읏]이 되고, ㄴ[니]는 ‘군’의 끝소리 ㄴ[읏]이 되고, ㅂ[비]는 ‘업’의 끝소리 ㅂ[읍]이 되며, ㅇ[미]는 ‘땀’의 끝소리 ㅇ[읍]이 되고, ㅅ[시]는 토박이말인 ‘옷’의 끝소리 ㅅ[읏]이 되며, ㄹ[리]는 토박이말인 ‘실’의 끝소리 ㄹ[읏]이 된다.

[243]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 [정음해례18ㄴ:4-5_중성해]

♣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또한 각각 스스로 짝이 된다.

[244] 如牙之ㅇ與ㄱ爲對，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ㅇ而緩。 [정음해례18ㄴ:5-7_중성해]

♣ 이를테면 어금닛소리의 ㅇ[응]은 ㄱ[꺠]과 짝이 되어 ㅇ[응]을 빨리 발음하면 ㄱ[꺠]음으로 바뀌어 빠르고, ㄱ[꺠]음을 느리게 내면 ㅇ[응]음으로 바뀌어 느린 것과 같다.

[245] 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ㅅ，喉之ㅇㅅ，其緩急相對，亦猶是也。

[정음해례18ㄴ:7-8-19ㄱ:1_중성해]

♣ 혀소리의 ㄴ[읏]음과 ㄷ[읏]음, 입술소리의 ㅁ[읍]음과 ㅂ[읍]음, 잇소리의 △[읏]음과 ㅅ[읏]음, 목구멍소리의 ㅇ[응]음과 ㅅ[응]음도 그 느리고 빠름이 서로 짝이 되니 이와 같다.

[246] 且半舌之ㄹ，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 [정음해례19ㄱ:1-2_중성해]

♣ 또 반혀소리글자인 ㄹ[읏]은 마땅히 토박이말에나 쓸 것이며 한자어에는 쓸 수 없다.

[247] 如入聲之鶯字，終聲當用ㄷ，而俗習讀爲ㄹ，蓋ㄷ變而爲輕也。 [정음해례19ㄱ:2-4_중성해]

- ♣ 입성의 ‘驚(별)’ 자와 같은 것도 끝소리글자로 마땅히 ㄷ[음]을 써야 할 것인데 세속 관습으로는 한 자어 종성을 ㄹ[음] 음으로 읽으니 대개 ㄷ[음] 음이 바뀌어 가볍게 된 것이다.

[248] 若用己爲驚之終，則其聲舒緩，不爲入也。 [정음해례19ㄱ:4-5_종성해]

- ♣ 만일 己[음]을 ‘驚[별]’ 자의 끝소리글자로 쓴다면 그 소리가 퍼지고 늘어져 입성이 되지 못한다.

訣曰

- ♣ 갈무리시

[249] 不清不濁用於終

爲平上去不爲入 [정음해례19ㄱ:6-7_종성해_갈무리시]

- ♣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울림소리를 끝소리에 쓰니 평성, 상성, 거성이 되고 입성은 되지 않네.

[250] 全清次清及全濁

是皆爲入聲促急 [정음해례19ㄱ:8-19ㄴ:1_종성해_갈무리시]

- ♣ 아주 맑은소리, 덜 맑은소리, 그리고 아주 흐린소리는 모두 입성이 되어 소리가 매우 빠르네.

[251] 初作終聲理固然

只將八字用不窮 [정음해례19ㄴ:2-3_종성해_갈무리시]

- ♣ 첫소리글자를 끝소리글자로 쓰는 이치가 본래 그러한데 다만 여덟 자만 가지고도 쓰임에 막힘은 없네.

[252] 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 [정음해례19ㄴ:4-5_종성해_갈무리시]

- ♣ 오직 〇[이] 자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도 가운데소리만으로도 음절을 이루어 또한 통할 수 있네.

[253] 若書卽字終用君

洪驚亦以業斗終 [정음해례19ㄴ:6-7_종성해_갈무리시]

- ♣ 만일 ‘즉’ 자를 쓰려면 ‘ㄱ[우]’을 끝소리로 하고 ‘홍, 별’은 ‘ㅇ[우]’과 ‘ㄷ[음]’을 끝소리로 하네.

[254] 君業單終又何如

以那驚彌次第推 [정음해례19ㄴ:8-20ㄱ:1_종성해_갈무리시]

- ♣ “군, 업, 땀” 끝소리는 또한 어떻게 하니 “ㄴ[음], ㅂ[음], ㅍ[음]”을 차례대로 헤아려 보네.

[255] 六聲通乎文與諺

戊閏用於諺衣絲 [정음해례20ㄱ:2-3_종성해_갈무리시]

♣ 여섯 소리(ㄱㅇㄷㄴㅁㅇ/옥응은은음음)는 한자말과 토박이말에 함께 쓰이되
 ㅅ[읏]과 ㄹ[을]은 토박이말의 ‘읏’과 ‘실’의 끝소리로만 쓰이네.

[256] 五音緩急各自對

君聲酒是業之促 [정음해례20ㄱ:4-5_중성해_갈무리시]

♣ 오음은 각각 느림과 빠름의 짝을 저절로 이루니
 ㄱ[옥] 소리는 ㅇ[응] 소리를 빠르게 낸 것이네.

[257] 斗警聲緩爲那彌

穰欲亦對戍與搃 [정음해례20ㄱ:6-7_중성해_갈무리시]

♣ ㄷㅁ[음/음] 소리가 느려지면 ㄴㅇ[음/음]가 되며
 ㄷ[읏]과 ㅇ[응]은 그것 또한 ㅅㅇ[읏응]의 짝이 되네.

[258] 閭宜於諺不宜文

斗輕爲閭是俗習 [정음해례20ㄱ:8-20ㄴ:1_중성해_갈무리시]

♣ ㄹ[을]은 토박이말 끝소리 표기에는 마땅하나 한자말 표기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ㄷ[읏] 소리가 가벼워져서 ㄹ[을] 소리가 된 것은 곧 일반 관습이네.

5. 합자해(合字解)

[259] 初中終三聲，合而成字. [정음해례20ㄴ:3_합자해]

♣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 세 낱글자가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260] 初聲或在中聲之上，或在中聲之左. [정음해례20ㄴ:3-4_합자해]

♣ 첫소리글자는 가운뎃소리글자 위에 쓰기도 하고, 가운뎃소리글자의 왼쪽에 쓰기도 한다.

[261] 如君字 ㄱ在 ㅅ上，業字 ㅇ在 ㅅ左之類. [정음해례20ㄴ:4-5_합자해]

♣ 이를테면 ‘군’ 자의 ㄱ[기]는 ㅅ[의] 위에 쓰고, ‘업’ 자의 ㅇ[이]는 ㅅ[의] 왼쪽에 쓰는 것과 같다.

[262]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一 ㄴ ㅁ ㄹ ㅅ ㅈ ㅊ 是也. [정음해례20ㄴ:5-7_합자해]

♣ 가운뎃소리글자는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一)은 첫소리글자 아래에 쓰니 “· 一 ㄴ ㅁ ㄹ ㅅ ㅈ ㅊ”
 가 이것이다.

[263] 縱者在初聲之右，| ㅌ ㅍ ㅑ ㅓ 是也. [정음해례20ㄴ:7-8_합자해]

♣ 세로로 된 것은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쓰니 “| ㅌ ㅍ ㅑ ㅓ”가 이것이다.

[264] 如香字· 在 ㅌ下，即字一在 ㅌ下，侵字 | 在大右之類. [정음해례20ㄴ:8-21ㄱ:2_합자해]

♣ 이를테면 ‘툄’ 자의 ·는 ㅌ[티]아래에 쓰고, ‘즉’ 자의 一은 ㅌ[지]아래에 쓰며, ‘침’ 자의 |는
 ㅌ[치]오른쪽에 쓰는 것과 같다.

[265] 終聲在初中之下. [정음해례21ㄱ:2_합자해]

♣ 끝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가운뎃소리글자 아래에 쓴다.

- [266] 如君字 **ㄴ** 在 **ㄱ** 下, 業字 **ㅂ** 在 **ㅅ** 下之類. [정음해례21 ㄱ:2-3_합자해]
- ♣ 이를테면 ‘**균**’ 자의 **ㄴ**[을]은 **ㄱ** 아래에 쓰고, ‘**업**’ 자의 **ㅂ**[읍]은 **ㅅ** 아래에 쓰는 것과 같다.
- [267]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 **ㅅ** 爲地, **ㅈ** 爲隻, **ㅊ** 爲隙之類. [정음해례21 ㄱ:3-5_합자해]
- ♣ 첫소리글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낱글자 또는 세 개의 낱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는 이를테면 토박이말의 “**ㅅ**(땅), **ㅈ**(외짝), **ㅊ**(틈)” 따위와 같은 것이다.
- [268] 各自並書, 如諺語 **혀** 爲舌而 **혀** 爲引, **괴여** 爲我愛人而 **괴여** 爲人愛我, **ㅅ** 爲覆物而 **ㅅ** 爲射之之類. [정음해례21 ㄱ:5-8_합자해]
- ♣ 같은 낱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는 이를테면 토박이말에서 “**혀**”는 입속의 혀[舌]이지만 “**혀**”는 ‘당겨[引]’를 나타내며, “**괴여**”는 ‘내가 남을 사랑한다[我愛人]’는 뜻이지만 “**괴여**”는 ‘남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人愛我]’는 뜻이 되고, “**ㅅ**”[覆物]는 ‘무엇을 뒤집어 쏘아’라는 뜻이지만 “**ㅅ**”는 ‘무엇을 쏘다[射]’라는 뜻이 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 [269]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 **과** 爲琴柱, **화** 爲炬之類. [정음해례21 ㄱ:8-21 ㄴ:1-2_합자해]
- ♣ 가운데소리글자를 두 개의 낱글자,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것은 이를테면 토박이말의 “**과**”[거문고 줄을 받치는 기둥(琴柱)], “**화**”[횃불(炬)]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 [270]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 **흙** 爲土, **낫** 爲釣, **닭때** 爲酉時之類. [정음해례21 ㄴ:2-4_합자해]
- ♣ 끝소리글자를 두 개의 낱글자,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것은 이를테면 토박이말의 “**흙**”[흙(土)], “**낫**”[낚시(釣)], **닭때**[닭때, 유시(酉時)]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 [271] 其合用並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정음해례21 ㄴ:4-5_합자해]
- ♣ 이들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첫소리글자, 가운데소리글자, 끝소리글자 모두 같다.
- [272]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 | 魯 **ㅅ** 人 **ㅅ** 之類. [정음해례21 ㄴ:5-7_합자해]
- ♣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쓸 때는 한자음에 따라서 한글의 가운데소리글자나 끝소리글자를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이를테면 ‘孔子 | 魯 **ㅅ** 人 **ㅅ**’ (공자가 노나라 사람)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 [273] 諺語平上去入, 如 **활** 爲弓而其聲平, **돌** 爲石而其聲上, **갈** 爲刀而其聲去, **붓** 爲筆而其聲入之類. [정음해례21 ㄴ:7-8_22 ㄱ:1-2_합자해]
- ♣ 토박이말의 평성·상성·거성·입성의 예를 들면, “**활**”[활(弓)]은 평성이고, “**돌**”[돌(石)]은 상성이며, “**갈**”[갈(刀)]은 거성이요, “**붓**”[붓(筆)]은 입성이 되는 따위와 같다.
- [274]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정음해례22 ㄱ:2-3_합자해]
- ♣ 무릇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이고, 두 점을 찍은 것은 상성이며,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다.
- [275] 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 [정음해례22 ㄱ:3-4_합자해]

♣ 한자말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다.

[276] 諺之入聲無定，或似平聲，如**근**爲柱，**넙**爲脊。 [정음해례22ㄱ:4-5_합자해]

♣ 토박이말 입성은 한결같지 않아서, 때로는 평성과 비슷한 “**근**[기둥(柱)], **넙**[옆구리(脊)]”과 같은 경우도 있다.

[277] 或似上聲，如**날**爲穀，**넙**爲縉。 [정음해례22ㄱ:5-6_합자해]

♣ 또는 상성과 비슷한 “**날**[곡식(穀)], **넙**[비단(縉)]”과 같은 경우도 있다.

[278] 或似去聲，如**몰**爲釘，**입**爲口之類。 [정음해례22ㄱ:6-7_합자해]

♣ 또는 거성과 비슷한 “**몰**[못(釘)], **입**[입(口)]”과 같은 경우도 있다.

[279] 其加點則與平上去同。 [정음해례22ㄱ:7-8_합자해]

♣ 입성에서 점을 찍는 것은 평성·상성·거성의 경우와 같다.

[280] 平聲安而和，春也，萬物舒泰。 [정음해례22ㄱ:8-22ㄴ:1_합자해]

♣ 평성은 편안하면서도 부드러워 봄에 해당되니 이는 만물이 편안한 것과 같다.

[281] 上聲和而舉，夏也，萬物漸盛。 [정음해례22ㄴ:1-2_합자해]

♣ 상성은 부드러움에서 거세져 여름이니, 이는 만물이 점점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

[282] 去聲舉而壯，秋也，萬物成熟。 [정음해례22ㄴ:2_합자해]

♣ 거성은 거세면서도 굳세어 가을이니 만물이 무르익는 것과 같다.

[283] 入聲促而塞，冬也，萬物閉藏。 [정음해례22ㄴ:3_합자해]

♣ 입성은 말소리가 빠르고 막히어 겨울이니 만물이 닫히고 갈무리되는 것과 같다.

[284] 初聲之**ㅎ**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 [정음해례22ㄴ:3-4_합자해]

♣ 첫소리의 **ㅎ**[히]와 **ㅇ**[이]는 서로 비슷해서 토박이말에서는 두루 쓰일 수 있다.

[285] 半舌有輕重二音。 [정음해례22ㄴ:5_합자해]

♣ 반혓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

[286] 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 [정음해례22ㄴ:5-6_합자해]

♣ 그러나 중국 한자음 사전(운서)의 음절 첫소리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며, 또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리를 낼 수 있다.

[287] 若欲備用，則依脣輕例，**ㅇ**連書**ㄹ**下，爲半舌輕音，舌乍附上脣。 [정음해례22ㄴ:7-8_합자해]

♣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입술가벼운소리 글자[순경음자 **빙**]의 예에 따라 ‘**ㅇ**[이]’를 ‘**ㄹ**[리]’ 아래 이어 쓰면 반혓가벼운소리글자[반설경음자 **릉**]가 되니, 혀를 윗잇몸에 살짝 댄다.

[288] • 一起 | 聲, 於國語無用. [정음해례22ㄴ:8-23ㄱ:1_합자해]

♣ • 一가 | 에서 시작되는 소리는 중앙말에 쓰이지 않는다.

[289]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고之類. [정음해례23ㄱ:1-3_합자해]

♣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말에는 드물게 있으나,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하여 나타내려 할 때에는 “기
고” 따위와 같이 쓴다.

[290] 其先 縱後橫, 與他不同. [정음해례23ㄱ:3_합자해]

♣ 이것은 세로로 먼저 긋고 가로로 나중에 쓰는 것으로 다른 글자와 같지 않다.

訣曰 [정음해례23ㄱ:4]

♣ 갈무리시

[291] 初聲在中聲左上

摠欲於諺用相同 [정음해례23ㄱ:5-6_합자해_갈무리시]

♣ 첫소리글자는 가운데소리글자의 왼쪽과 위쪽에 쓰는데
‘ㅎ[히]’와 ‘ㅇ[이]’는 토박이말에서는 서로 같이 쓰이네.

[292] 中聲十一附初聲

圓橫書下右書 縱 [정음해례23ㄱ:7-8_합자해_갈무리시]

♣ 가운데소리글자 열하나는 첫소리글자에 붙이는데
등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첫소리글자 아래에 쓰고 세로로 된 것만 오른쪽에 쓰네.

[293] 欲書終聲在何處

初中聲下接着寫 [정음해례23ㄴ:1-2_합자해_갈무리시]

♣ 끝소리글자를 쓰자면 어디에 쓰는가 하니
첫·가운데소리글자의 아래에 이어서 붙여 쓰네.

[294] 初終合用各並書

中亦有合悉自左 [정음해례23ㄴ:3-4_합자해_갈무리시]

♣ 첫·끝소리글자를 각각 합쳐 쓰려면 나란히 쓰고
가운데소리글자도 나란히 쓰되 다 왼쪽부터 쓰네.

[295] 諺之四聲何以辨

平聲則弓上則石 [정음해례23ㄴ:5-6_합자해_갈무리시]

♣ 토박이말에선 사성을 어떻게 구별하냐고 하니
평성은 ‘활(활)’이요 상성은 ‘돌(돌)’이네.

[296] 刀爲去而筆爲入

觀此四物他可識 [정음해례23ㄴ:7-8_합자해_갈무리시]

♣ ‘갈(칼)’은 거성이 되고 ‘붙(붓)’은 입성이 되니

이 네 갈래를 보아서 다른 것도 알 수 있네.

- [297] 音因左點四聲分
一去二上無點平 [정음해례24ㄱ:1-2_합자해_갈무리시]
♣ 소리에 따라 왼쪽의 점으로 사성을 나누니
하나면 거성, 둘은 상성, 없으면 평성이네.
- [298] 語入無定亦加點
文之入則似去聲 [정음해례24ㄱ:3-4_합자해_갈무리시]
♣ 토박이말 입성은 정함이 없으나 평·상·거성처럼 점 찍고
한자말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네.
- [299] 方言俚語萬不同
有聲無字書難通 [정음해례24ㄱ:5-6_합자해_갈무리시]
♣ 지역말과 토속말은 다 다르니 말소리 있고
글자는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 [300] 一朝/制作俸神工
大東千古開曠隴 [정음해례24ㄱ:7-8_합자해_갈무리시] * / : 줄 바꿈 표시
♣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솜씨로 정음을 지어 내시니
우리 겨레 오랜 역사의 어둠을 비로소 밝혀 주셨네.

6. 용자례(用字例)

- [301] 初聲ㄱ, 如^ㄱ감爲柿, ^ㄱ곶爲蘆. [정음해례24ㄴ:3]
♣ 첫소리글자 ㄱ[기]는 “^ㄱ감(감), ^ㄱ곶(갈대)”과 같이 쓰며,
- [302] ㅋ, 如^우우케爲未春稻, ^콩콩爲大豆. [정음해례24ㄴ:3-4]
♣ ㅋ[키]는 “^우우케(우케/짙지 않은 벼), ^콩콩(콩)”과 같이 쓴다.
- [303] ㅅ, 如^러러술爲獺, ^서서에爲流澌. [정음해례24ㄴ:4-5]
♣ ㅅ[이]는 “^러러술(너구리), ^서서에(성엿장)”와 같이 쓴다.
- [304] ㅌ, 如^뒤뒤爲茅, ^담담爲牆. [정음해례24ㄴ:5-6]
♣ ㅌ[디]는 “^뒤뒤(띠), ^담담(담)”과 같이 쓰며,
- [305] ㅍ, 如^고고티爲藺, ^두두텁爲蟾蜍. [정음해례24ㄴ:6]
♣ ㅍ[티]는 “^고고티(고치), ^두두텁(두꺼비)”과 같이 쓴다.
- [306] ㄴ, 如^노노로爲獐, ^납납爲猿. [정음해례24ㄴ:7]
♣ ㄴ[니]는 “^노노로(노루), ^납납(원숭이)”과 같이 쓴다.

- [307] **ㅂ**, 如 **뿔**爲臂, **벌**爲蜂. [정음해례24ㄴ:7-8]
 * **ㅂ**[비]는 “**뿔**(팔), **벌**(벌)”과 같이 쓰며,
- [308] **ㅍ**, 如 **파**爲葱, **꿀**爲蠅. [정음해례24ㄴ:8]
 * **ㅍ**[피]는 “**파**(파), **꿀**(과리)”과 같이 쓴다.
- [309] **ㅁ**, 如 **뫼**爲山, **마**爲薯蕷. [정음해례24ㄴ:8-25ㄱ:1]
 * **ㅁ**[미]는 “**뫼**(산), **마**(마)”와 같이 쓴다.
- [310] **ㅃ**, 如 **사뱃**爲蝦, **드뵈**爲瓠. [정음해례25ㄱ:1-2]
 * **ㅃ**[베]는 “**사뱃**(새우), **드뵈**(뒤옹박)”와 같이 쓴다.
- [311] **ㅈ**, 如 **자**爲尺, **조히**爲紙. [정음해례25ㄱ:2-3]
 * **ㅈ**[지]는 “**자**(자), **조히**(종이)”와 같이 쓴다.
- [312] **ㅊ**, 如 **체**爲籠, **채**爲鞭. [정음해례25ㄱ:3-4]
 * **ㅊ**[치]는 “**체**(체), **채**(채찍)”와 같이 쓴다.
- [313] **ㅅ**, 如 **손**爲手, **섬**爲島. [정음해례25ㄱ:3-4]
 * **ㅅ**[시]는 “**손**(손), **섬**(섬)”과 같이 쓴다.
- [314] **ㅎ**, 如 **부형**爲鶻鷂, **힘**爲筋. [정음해례25ㄱ:4-5]
 * **ㅎ**[히]는 “**부형**(부엉이), **힘**(힘줄)”과 같이 쓴다.
- [315] **ㅇ**, 如 **비육**爲鷄雛, **부얌**爲蛇. [정음해례25ㄱ:5]
 * **ㅇ**[이]는 “**비육**(병아리), **부얌**(뱀)”과 같이 쓴다.
- [316] **ㄹ**, 如 **무ړ**爲鬣, **어름**爲氷. [정음해례25ㄱ:5-6]
 * **ㄹ**[리]는 “**무ړ**(우박), **어름**(얼음)”과 같이 쓴다.
- [317] **ㄷ**, 如 **아수**爲弟, **너시**爲犒. [정음해례25ㄱ:6-7]
 * **ㄷ**[시]는 “**아수**(아우), **너시**(느시)”와 같이 쓴다.
- [318] 中聲・, 如 **툑**爲頤, **뫏**爲小豆, **뚜리**爲橋, **가래**爲楸. [정음해례25ㄱ:7-8]
 * 가운데소리글자 ㆍ는 “**툑**(턱), **뫏**(팥), **뚜리**(다리), **가래**(가래)”와 같이 쓴다.
- [319] 一, 如 **물**爲水, **발축**爲跟, **그력**爲鷹, **드레**爲汲器. [정음해례25ㄱ:8-25ㄴ:1-2]
 * 一는 “**물**(물), **발축**(발꿈치, 발의 뒤축), **그력**(기러기), **드레**(두레박)”와 같이 쓴다.
- [320] |, 如 **깃**爲巢, **밀**爲蠟, **피**爲稷, **키**爲箕. [정음해례25ㄴ:2-3]
 * |는 “**깃**(둥지), **밀**(밀랍), **피**(피), **키**(키)”와 같이 쓴다.

- [321] ㄱ, 如논爲水田, 톱爲鉞, 호미爲鉏, 벼로爲硯. [정음해례25ㄴ:3-4]
 * ㄱ는 “논(논), 톱(톱), 호미(호미), 벼로(벼루)”와 같이 쓴다.
- [322] ㅌ, 如밥爲飯, 낫爲鎌, 아아爲綜, 사슴爲鹿. [정음해례25ㄴ:4-5]
 * ㅌ는 “밥(밥), 낫(낫), 아아(잉아), 사슴(사슴)”과 같이 쓴다.
- [323] ㄴ, 如숯爲炭, 울爲籬, 누에爲蚕, 구리爲銅. [정음해례25ㄴ:5-7]
 * ㄴ는 “숯(숯), 울(울타리), 누에(누에), 구리[구리)”와 같이 쓴다.
- [324] ㄷ, 如브섬爲籠, 널爲板, 서리爲霜, 버들爲柳. [정음해례25ㄴ:7-8]
 * ㄷ는 “브섬(부엌), 널(널판), 서리(서리), 버들(버들)”과 같이 쓴다.
- [325] ㄹ, 如종爲奴, 고욤爲栲, 소爲牛, 삼도爲蒼朮菜. [정음해례25ㄴ:8]-26ㄱ:1]
 * ㄹ는 “종(종, 노비), 고욤(고욤), 소(소), 삼도(삼주)”와 같이 쓴다.
- [326] ㅍ, 如남상爲龜, 약爲龜髓, 다야爲匭, 자감爲蕎麥皮. [정음해례26ㄱ:1-3]
 * ㅍ는 “남상(남생이), 약(바다거북), 다야(손대야), 자감(메밀껍질)”과 같이 쓴다.
- [327] ㅊ, 如울미爲薏苡, 죽爲飯糗, 슈룸爲雨繖, 주련爲幌. [정음해례26ㄱ:3-4]
 * ㅊ는 “울미(울무), 죽(밥주걱), 슈룸(우산), 주련(수건)”과 같이 쓴다.
- [328] ㅋ, 如옛爲飴餈, 딸爲佛寺, 벼爲稻, 저비爲燕. [정음해례26ㄱ:4-6]
 * ㅋ는 “옛(옛), 딸(절), 벼(벼), 저비(제비)”와 같이 쓴다.
- [329] 終聲ㄱ, 如닥爲楮, 독爲甕. [정음해례26ㄱ:6]
 * 끝소리글자 ㄱ[웁]은 “닥(닥나무), 독(독)”과 같이 쓴다.
- [330] ㅇ, 如굵병爲蟻螿, 올창爲蝻蚱. [정음해례26ㄱ:7]
 * 끝소리글자 ㅇ[웁]은 “굵병(굵병이), 올창(올챙이)”과 같이 쓴다.
- [331] ㄷ, 如간爲筍, 싹爲楓. [정음해례26ㄱ:7-8]
 * 끝소리글자 ㄷ[웁]은 “간(갓), 싹(싹나무)”과 같이 쓴다.
- [332] ㄴ, 如싹爲屨, 반되爲螢. [정음해례26ㄱ:8-26ㄴ:1]
 * 끝소리글자 ㄴ[웁]은 “싹(싹), 반되(반디)”와 같이 쓴다.
- [333] ㅍ, 如섭爲薪, 굽爲蹄. [정음해례26ㄴ:1]
 * 끝소리글자 ㅍ[웁]은 “섭(섭나무), 굽(발굽)”과 같이 쓴다.
- [334] ㅍ, 如범爲虎, 심爲泉. [정음해례26ㄴ:1-2]

♣ 끝소리글자 ㅁ[음]은 “범(범), 심(쌈)”과 같이 쓴다.

[335] 八, 如^ㅈ爲海松, ㄹ爲池. [정음해례26ㄴ:2-3]

♣ 끝소리글자 ㅈ[웃]은 “^ㅈ(^ㅈ), ㄹ(연^ㅈ)”과 같이 쓴다.

[336] ㄹ, 如^ㄹ爲月, ㅂ爲星之類. [정음해례26ㄴ:3]

♣ 끝소리글자 ㄹ[음]은 “^ㄹ(달), ㅂ(별)” 따위와 같이 쓴다.

7. 정인지서

[337]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정음해례26ㄴ:4-5_정인지서]

♣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338]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정음해례26ㄴ:5-7_정인지서]

♣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하늘·땅·사람의 세 바탕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339]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정음해례26ㄴ:7-8_정인지서]

♣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다.

[340]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정음해례26ㄴ:8-27ㄱ:1_정인지서]

♣ 대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341]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鉅鍔也, 豈能達而無礙乎. [정음해례27ㄱ:1-3_정인지서]

♣ 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할 때 막힘이 없겠는가?

[342]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 [정음해례27ㄱ:3-4_정인지서]

♣ 중요한 것은 모두 각각 놓인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43] 吾東方禮樂文章, 倂擬華夏. [정음해례27ㄱ:5_정인지서]

♣ 우리 동방의 예악과 문장이 중화[중국]와 같아 견줄 만하다.

[344]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정음해례27ㄱ:5-6_정인지서]

♣ 다만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345]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정음해례27ㄱ:6-8_정인지서]

♣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346]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정음해례27ㄱ:8-27ㄴ:1_정인지서]

♣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 [347] 然皆假字而用, 或濫或窒. [정음해례27ㄴ:1-2_정인지서]
 ♣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아니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 [348]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정음해례27ㄴ:2-4_정인지서]
 ♣ 이두 사용은 오로지 몹시 속되고 일정한 규범이 없을 뿐이니,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 만분의 일도 소통하지 못한다.
- [349]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정음해례27ㄴ:4-6_정인지서]
 ♣ 계해년 겨울(1443년 12월)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예의’를 들어 보여 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 [350]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정음해례27ㄴ:6-8_정인지서]
 ♣ 훈민정음은 꼴을 본떠 만들어 글꼴은 옛 ‘전서체’와 비슷하지만, 말소리에 따라 만들어 그 소리는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는다.
- [351]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정음해례27ㄴ:8-28ㄱ:1_정인지서]
 ♣ 하늘·땅·사람의 세 바탕 뜻과 음양 기운의 신묘함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 [352]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정음해례28ㄱ:1-2_정인지서]
 ♣ 스물여덟 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 [353]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정음해례28ㄱ:2-3_정인지서]
 ♣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 [354]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정음해례28ㄱ:3-4_정인지서]
 ♣ 훈민정음으로 한문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 [355]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정음해례28ㄱ:4-5_정인지서]
 ♣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 [356] 字韻則清濁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정음해례28ㄱ:5-6_정인지서]
 ♣ 글자 소리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음악 노래로는 노랫가락을 어울리게 할 수 있다.
- [357]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정음해례28ㄱ:6-7_정인지서]
 ♣ 글을 쓸 때에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 [358] 雖風聲鶴唳, 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정음해례28ㄱ:7-8_정인지서]
 ♣ 비록 바람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닭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 [359] 遂命詳加解釋, 以諭諸人. [정음해례28ㄱ:8-28ㄴ:1_정인지서]

♣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

[360] 於是, 臣與集賢殿應教臣崔恒, 副校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臣李塏, 臣李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敘其梗槩.

[정음해례28ㄴ:1-7]

♣ 이에 신이 집현전 응교 최항과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 수찬 성삼문과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와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가지 풀이와 보기를 지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361] 庶使觀者不師而自悟. [정음해례28ㄴ:7_정인지서]

♣ 바라건대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치도록 하였다.

[362]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정음해례28ㄴ:7-8-29ㄱ:1_정인지서]

♣ 그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하 된 자들로서는 감히 밝혀 보일 수 없다.

[363] 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정음해례29ㄱ:1-3_정인지서]

♣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모든 임금들을 뛰어넘으셨다.

[364]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정음해례29ㄱ:3-4_정인지서]

♣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365]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정음해례29ㄱ:4-5_정인지서]

♣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366]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盖有待於今日也欵. [정음해례29ㄱ:5-7_정인지서]

♣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는 지가 꽤 오래 되었지만,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正統十一年九月上澣 [정음해례29ㄱ:7-8_정인지서]

♣ 정통 11년(세종 28년, 1446년) 9월 상순.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정음해례29ㄱ:8-29ㄴ:1-3_정인지서]

♣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씁니다.

■ 토론

“《훈민정음》 해례본 366문장 체제 번역 내용과 의미”에 대한 토론

정수현(호서대)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 번역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번역에서 문장 단위의 번역이 시도된 적은 없었는데, 발표자께서 쓰신 여러 글과 책들을 보았지만 이 발표는 해례본의 문장 수에 주목한 아주 독특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발표자께서는 “해례본의 역주는 단순히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보조 텍스트가 아니다. 물론 보조 텍스트의 기본 성격은 있지만 보조 텍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례본의 가치와 번역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담론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매우 인상깊었었는데, 이 발표를 통해 발표자께서 어떤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듯하여 흥미로웠습니다.¹⁾ 그동안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오신 것을 알고 있기에 연구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연구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없었습니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위해 한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366 문장 체제 번역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독 교육에는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로 이러한 체제 번역이 원문 해석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번역의 1차적인 목표는 직역일 수도 있지만 그다음 차원인 해석의 완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확한 문장 단위로 번역하지 않아서라고 할 수가 있을는지요. 사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지금과 그때의 언어적 쓰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원문 해석의 충실성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의 여러 선학들의 해석을 볼 때 해석의 충실성을 방해하는 것은 문장 차원이 아닌 어휘를 직역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훈민정음 연구의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토론자로서 소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내용을 오독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김슬용(2020),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주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 김슬용(2020: 238)

‘헤-’[泳]의 단어족에 대하여

허인영(인하대)

< 차례 >

1. 머리말
2. ‘헤-’
3. ‘헤X-’형 용언
4. ‘헤-’의 의미 확장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한국어 용언 ‘헤-’의 단어족(word family)과 그 의미의 변화 및 확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어족(word family)은 어떤 단어의 어기 형식과 그것의 굴절 및 파생 형식 및 공통의 어원론적 기원을 갖는 단어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일부는 모어 화자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 글에서 다루는 단어 가운데 ‘철수는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의 ‘헤치-’와 ‘영희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의 ‘헤어지-’를 어원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단어족의 예로 들 수 있다.

김양진(2021: 249)에 따르면 ‘word family’는 ‘단어족(單語族)’ 외에 ‘어족(語族)’, ‘낱말족’으로도 번역되며, 그 외에 ‘단어가족’이라는 번역어도 보인다(김준수 2021, 2022). 중국어에서는 ‘詞族’, 일본어에서는 ‘單語家族’라는 용어가 쓰인다.

한국어학계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기초 어휘, 고급 어휘, 사고 도구어 등의 추출을 위해 단어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신명선 2004; 안경화 2006; 한영균 2006; 양명희 2010; 김한샘 2011).

한국어학 분야에서는 Karlgren 및 藤堂明保와 같은 외국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서재극(1980)을 시작으로 이남덕(1985), 김영일(2008), 김지형(2008) 등의 연구에서 단어족 개념이 사용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정리된 단어족은 김영일(2010)에서 집대성되었다. 최근 김양진(2021)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 구축을 위한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역사비교언어학 및 어원론 관점에서 다양한 단어족을 정리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개별 단어족에 대한 세심한 고찰 및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헤-’와 그 단어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논한 연구는 없었다. ‘헤-’ 관련 비통사적 합성어를 다룬 허웅(1975: 132)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헤잇다, 헤티다, 헤즈다, 헤혀다’ 등과 같은 예에서는 ‘헤-’가 불완전하나마 어근으로 쓰였지만 ‘헤퍼디다, 헤블다’의 ‘헤-’는 접사에 매우 가깝다고 하였다.¹⁾ 또한 ‘헤-’가 ‘헤여디다’

의 ‘헤-’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뜻도 ‘사이가 뜨는 것’이었으리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헤-’와 그 단어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헤-’와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들은 한 단어의 기본 의미가 단어 형성 과정을 겪으면서 의미가 변화하고 확장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잘 보여준다. 한편 ‘헤-’의 단어족에서 나타나는 의미 확장은 범언어적으로도 흔한 패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헤-’의 단어족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피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헤-’

2.1. 현대어의 ‘헤-’

‘헤-’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다음과 같이 동음이의어로 나뉘어 뜻풀이가 되어 있다.

(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헤-’

ㄱ. 헤다¹: 「1」 (물속에 있는 사람이) 팔다리를 움직여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

「2」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다.

ㄴ. 헤다²: 여럿 가운데서 가장 잘난 체하며 제 마음대로 행동하다.

ㄷ. 헤다³: 다시 맑은 물에 넣어 빨거나 씻다

(2) 『표준국어대사전』 ‘헤-’

ㄱ. 헤다¹: 「1」 물속에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를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

「2」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

「3」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다.

ㄴ. 헤다²: 여럿 가운데서 가장 잘난 체하며 마음대로 행하다.

ㄷ. 헤다³: 물에 넣어 흔들어 씻다. 또는 물을 넣어 젖거나 흔들어 씻다. 흔히 세제 따위를 이용하여 한 번 씻은 것을 다시 씻는 것을 이른다.

이들 사전에서는 모두 ‘헤다¹’의 「1」, 즉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헤-’의 기본 의미로 삼고 있다. ‘헤다¹’의 다른 의항이나 ‘헤다²’, ‘헤다³’은 ‘헤다¹’의 「1」의 의미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 한국어 사전에는 이 글에서 다루는 ‘헤-’와 무관한 동음이의어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헤다’와 ‘헤다’가 변화한 형태이다.

(3)

ㄱ. ‘세다’의 방언 (< 헤다)

ㄴ. ‘세다’의 북한어 (< 헤다)

ㄷ. ‘켜다’의 방언 (< 켜다)

1) 奇周衍(1991: 24, 각주 21)에서는 ‘헤뜨-’, ‘헤디르-’, ‘헤부치-’의 ‘헤-’는 접두사처럼 보이는 반면 ‘헤완(왓)-’의 ‘헤-’는 어근처럼 보이지만, 일관성을 위해 ‘헤-’를 어근으로만 분석하였다고 하였다.

2.2. 중세어의 ‘헤-’

중세(15-16세기)의 한글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4)

- ㄱ. 날똥 길 쏘 녀샤 물 헤여 건너샤 세 날웨에 바를에 가시니 <월인석보 22:6b>
 ㄴ. 그뵈 善友太子 | 導師와 햏야 알푼로 길 녀 혼 날웨를 가니 브리 무루페 티거늘 쏘 알푼로 혼 날웨를 가니 브리 모기 티거늘 쏘 알푼로 혼 날웨를 가니 헤여 건나가샤 바를 고대 다드셔니 그 싸히 고른 銀 물애러니(爾時善友太子與盲導師即前進路, 行一七日, 水齊到膝. 復更前行一七, 水齊到頸. 前進一七, 浮而得渡. 即到海處, 其地純以白銀爲沙. <大方便佛報恩經 4>) <월인석보 22:39b>
 ㄷ. 聲聞은 受苦를 슬히 너겨 涅槃애 드로러 홀시 佛法에 녀고 緣覺은 無明인 므스물 그 처 涅槃애 드로러 홀시 佛法에 中間호고 菩薩을 몬져 慈悲로 衆生을 에엇비 너겨 智慧로 布施호며 持戒호며 忍辱호며 精進호며 參禪햏야 우후로 뿌텃 큰 므스물 받죽고 아래로 衆生 濟渡홀시 佛法에 기프니 혼가짓 佛法에 세희 根機 | 달오미 혼가짓 기픈 브레 툃기는 우후로 햏여 나고 므른 가온디만 헤오 象은 물 소글 다 불와 건넌 곤호니라 <십현담요해언해 22a>
 ㄹ. 알푼 濯龍門을 디나갈 제 外家의 安否 무를 사르물 보니 술위는 흐르는 물 곤호며 므른 헤는 龍 곤호며(前過濯龍門上홀시 見外家의 問起居者호니 車如流水호며 馬如遊龍호며) <내훈 2상:51a>

‘헤다’의 「1」에 해당하는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의 용례가 많다. (4)의 예에서 ‘물’이라는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예는 많지 않은데, 맥락상 물에서 헤엄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5)

- ㄱ. 개옴나모 헤오 孝子廬에 오니(披榛햏야 到孝子廬호니) <삼강행실도 효:32b>
 ㄴ. 곧 볼 사르므로 구름 헤오 히를 보며(遂使目之者로 披雲睹日호며) <금강경삼가해언해 1:函序10b>
 ㄷ. 가스물 헤여서 집 안홀 올월오 더위를 자바셔 쉰 머리를 나토라(開襟仰內第 執熱露白頭) <두시언해 10:21b>
 ㄹ. 幕府에 드니를 孫楚인 디 알오 옷가스물 헤여서 鄭僑를 어도라(入幕知孫楚 披襟得鄭僑) <두시언해 20:45b>

(5ㄱ,ㄴ)의 예는 주어의 외부에서 진로나 시야를 방해하는 것(개옴나모, 구름)을 갈라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나타낸다. 주체의 시야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가른다는 점에서 (4)와 공통점이 있다. 한편 (5ㄷ,ㄹ)은 주체의 몸을 가리고 있던 것((옷)가슴)을 열어 드러내는 행위를 나타낸다. (4, 5ㄱ,ㄴ)과 자기지향적인 행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무언가를 가르거나 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6)

- ㄱ. 패초산은 횡역을 글거 허러 골몬 피 흐르느닐 고티느니 여러 히 집 니엿던 서근 새어 나 담 니엿던 새를 하나 저그나 벼티 물외여 세말햏야 므르닐 브토티 빼 업시 햏라 호

다가 모미 두루 허러 곱름뜨리 굿디 아니호야 오새 브터 안즈며 누오미 어렵거든 두서 되만 돛 우희 혜오 아히로 안즈며 누요디 현 디 격거든 므르니 브티라 혹 모밧글호로 현 디 썩호도 도호니라(敗草散 治瘡疹搔成瘡膿血淋漓 用多年盖屋爛草 或盖牆草不以多少曬乾 爲末乾貼無時 若渾身瘡破膿水不絶 粘沾衣服難以坐臥 用二三升攤於席上 令兒坐臥少則乾貼 或用蕎麥粉糝瘡上亦好) <창진방촬요 49ab>

ㄴ. 패초산은 오란 집우희 니엿던 새초를 물로여 세말호여 썩호라. 만일 온몸이 허러 존 물리거든 돛 우희 혜티고 그 우희 안즈며 누이라. 이 프리 서리 눈 비 이슬을 만히 마자 텃디음양지기를 타시니 헐므은 독기를 잘 프느니라.(敗草散, 多年盖屋上爛草, 曬乾細末, 糝之. 若渾身瘡爛, 則攤於席上, 令坐臥其上. 此草, 經霜雪雨露, 感天地陰陽之氣, 善解瘡毒.) <언해두창집요 하:14a>

(6)의 예는 지붕이나 담을 이는 데 사용했던 이엉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을 환자가 눕는 자리 위에 뿌려 펼치는 행위를 나타낸다. ‘혜-’의 기본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데, 유사한 처방이 수록된 『언해두창집요』에는 ‘혜티-’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모인 것을 흩어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중세어 ‘혜-’의 다의는 다음과 같다.

(7)

- ㄱ. 「遊泳」 (물에서) 물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다.
- ㄴ. 「開拓」 앞에 걸리는 것을 좌우로 물리치다.
- ㄷ. 「露出」 속에 든 것을 드러나게 하다.
- ㄹ. 「分散」 모인 것을 흩어지게 하다.

중세어에서 ‘혜-’의 동음이의어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²⁾

3. ‘혜X-’형 용언

3.1. 중세어의 ‘혜X-’형 용언

중세어에는 ‘혜-’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거나 ‘혜-’가 다른 용언 앞에 접두사처럼 결합한 ‘혜X-’형 용언이 다수 존재한다.

3.1.1. ‘혜-+ 강세접미사’ 구성

가장 많은 것은 ‘혜티-’와 ‘혜혀(혀)-’이다. 대표적인 강세접미사인 ‘-티-’와 ‘-혀-’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혜-’가 본래 지니고 있던 다의가 더 강화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혜티-’는 아래 『노박집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을 분리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타동사인 용법으로 쓰인다. 앞서 살펴본 ‘혜엄치다’와 같은 자동적인 ‘혜-’의 용법은 찾아볼 수 없다.

2) 옛말사전류에 등재된 ‘혜-’ 가운데 ‘혜아리다, 생각하다’나 ‘세다, 계산하다’로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의 용례는 탈획이거나 19세기 이후 /케/와 /기/의 발음이 혼동을 일으킨 이후의 것들이다.

(8)

- ㄱ. 撒: 散之也, 撒了 헤티다 <노박집람 단자해:1b>
- ㄴ. 至人에 이서 보건덴 흙 버리며 보도롯 헤툼과로 흥가질 싹르미라(在至人^하야 觀之컨덴 與遺土^하決^하와로 一而已니라) <법화경언해 6:145b>
- ㄷ. 다덜어도 흥디 아니^하며 헤터도 일터 아니^하 싹(觸^하야도 不散^하며 蕩^하야도 不失時^하예) <몽산법어 43ab>
- ㄹ. 바르 모디 그속^하 싹^하 헤터 여러 흰히 스밋게 흥 後에사 헤터 업스리니(直須破開陰隙^하야 使豁然洞達然後에사 散滅^하리니) <능엄경언해 1:107b>
- ㄹ. 子弟 오히러 기피 드러 가느니 關城에 들어슈물 헤티디 몬^하엿도다(子弟猶深入 關城未解圍) <두시언해 5:10b-11a>
- ㅁ. 갈 싸혀 大荒 사흘 가 터 날로 되 물 무를 아스며 盟誓호디 玄冥스 北녀글 헤터 가져 씨곰 우리 님금의 받즈오려 ^하느다(拔劍擊大荒 日收胡馬群 誓開玄冥北 持以奉吾君) <두시언해 5:31b-32a>
- ㅂ. 올 쟈 버르미 버르러 싹르고 갈 쟈 되홀 헤터 기우러 가는 듯^하도다(來纏風颯急 去擘山嶽傾) <두시언해 5:48a>
- ㅇ. 갠 구루미 이페 막^하야 기우린 蓋에 도련^하고 막^하스 브리 階砌에 쁘니 흐르는 브리 거를 헤티놋다(晴雲滿戶團傾蓋 秋水浮階溜決渠) <두시언해 7:31b>
- ㅅ. 굽^하를 어더 音律을 새려 알오 書冊을 헤터 床에 막^하기 호물 아^하다(覓句新知律 攤書解滿床) <두시언해 8:49b>
- ㅆ. 鉢鉢을 덥고 帳을 거더쇼매 다 아^하름다오물 보느니 投壺^하며 書帙이 헤터슈메 물고미 有餘^하도다(杖鉢褰帷瞻具美 投壺散帙有餘清) <두시언해 14:11a>
- ㅇ. 健壯호물 드토미 도로혀 사스미 노름과 막^하니 기픈 브레 떠서 龜鼉의 굽글 헤티놋다 (角壯翻同麋鹿遊 浮深簸蕩龜鼉窟) <두시언해 17:26b>
- ㅊ. 부테 이룰 니르산 아춘 다 사르미 邪見을 너비 헤티시고(佛之所以言此者는 皆爲廣闢人之邪見이오) <금강경삼가해 5:14a>
- ㅋ. ^하마 正見 이시면 般若智를 브러 愚癡 迷妄 衆生을 헤터 各各 제 濟度호디(既有正見이면 使般若智^하야 打破愚癡迷妄衆生^하야 各各自度호디) <육조법보단경언해 중:29b>

‘헤티-’는 한문 원문의 ‘撒, 決, 蕩, 破, 解, 開, 擘, 攤, 散, 闢’ 등에 대응한다. 목적어로는 뽀루지, 사람의 무리, 땅, 개울, 서책, 구멍, 사람의 생각 등 다양한 구체물과 추상물이 등장한다. 공통적으로 대상을 가르거나 여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8ㄷ, ㄷ)의 예는 대상을 가르거나 연다기보다 서책을 상에 흩어지게 하듯이 모인 것을 흩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6)에서 살펴본 ‘헤-’의 예 또한 가루약을 자리에 흩뿌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음은 ‘헤혀(혀)-’의 예이다.

(9)

- ㄱ. 두 꺾이 서르 퍼는 전츠로 모던 번과 業鏡과 火珠와 아릿 業을 헤혀 나토아 對^하야 마초는 여러 이리 잇느니(二꺾이 相陳故로 有惡友와 業鏡과 火珠와 披露宿業^하야 對驗^하는 諸事^하니) <능엄경언해 8:93b>
- ㄴ. 生滅 根元이 이룰 브터 헤혀 나타 모든 十方 十二 衆生을 보디 그 類를 다 ^하리니(生滅根元이 從此披露^하야 見諸十方十二衆生호디 畢殫其類^하리니) <능엄경언해 10:2a>
- ㄷ. 길헛 더운 흘굴 우희여 病人의 빗복 우희 노코 헤혀 흥 굽글 짓고(却掬路上熱土安於病人臍上 仍撥開作一窟) <구급방언해 상:11b>

- ㄷ. 城郭에 나 ㄴ는 ㅍ부리를 보고 榛草를 혜혀 ㄴ는 길 ㅎ 어두라(出郭眇細岑 披榛得微路) <두시언해 9:13a>
- ㄹ. 柳侯 ㅍ가스물 혜혀고셔 ㅍ서셔 나를 보니 ㄴ비치 溫和 ㅎ도다(柳侯披衣笑 見我顏色溫) <두시언해 19:37b>
- ㄹ. ㅍ데 ㅎ갓 ㄴ르물 ㅍ죽 혜틸 ㄴㅎ리오 도로혀 雲霧를 ㅎ 번 혜혀고져 스랑 ㅎ다라(豈但江曾決 還思霧一披) <두시언해 20:50a>
- ㅅ. ㅍ를 혜혀 ㅍ라렛 ㅍ ㄴ품 ㅍ둑 ㄴ도다(似撥火 ㅎ야 覓滄海之浮漚로다) <금강경삼가해 언해 4:28b>
- ㅇ. ㅍ넙 ㅍ리를 혜혀라 ㅍ넛나래 ㅍ느니라(剔起眉毛 ㅎ라 在今日 ㅎ니라) <남명천계송언해 상:27a>
- ㅈ. ㅍ리 혜혀 ㅍ에비소로 비서라(撒開頭髮梳) <번역박통사 상:44a>
- ㅊ. ㅍ를 혜혀 보니 ㅍ 흘러 ㅍ상이며 ㅍ긔 ㄴ득 ㅎ엿거늘(發被視之 ㅎ니 血流滿床席이어늘) <번역소학 9:62a>
- ㅋ. ㅍ를 혜혀 ㅍ쇼매 ㄴ렸 ㅎ구 ㄴ우니(坦腹江亭暖) <두시언해 14:38b>

‘혜혀(혀)-’는 한문 원문의 ‘披, 撥, 開, 剔, 撒, 發’ 등에 대응한다. 목적어로는 과거의 업(業), 생멸 근원 등 추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흙이나 雲霧, 불, 눈썹이나 머리털, 이불 등 구체물이 등장한다. (9ㄷ)은 개암나무를 헤치고 나가는 부분의 한문 원문이 ‘披榛’로 (5ㄱ)과 동일하다. (9ㄹ)의 옷깃을 헤치는 ‘披衣’ 또한 (5ㄷ, ㄷ)에 나타난 ‘披襟’과 거의 유사한 구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혜-’와 ‘혜혀-’가 모두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혜티-’와 ‘혜혀(혀)-’ 외에 ‘혜잇-’과 ‘혜왈-’도 나타난다.

(10) 모로매 이 ㅍ르물 혜이즐 毛質이 ㅍ느니라(會是排風有毛質) <두시언해 8:31a>

‘혜잇-’은 ‘혜-’와 강세접미사 ‘-잇-’의 결합으로 보이는데, 예가 하나밖에 없지만 ‘바람을 가르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開拓」의 의미와 관련되며, 더 많은 예가 나타난다면 ‘혜티-’나 ‘혜혀(혀)-’의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露出」이나 「分散」의 의미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11)

- ㄱ. 우리 두서 잔 수를 머거 목 ㄴ르 ㄴ 혜왈고(咱們喫幾盞酒解渴) <번역노걸대 상:62b>
- ㄴ. ㅎ 상화 ㅎ논 이바디를 ㅎ야 우리 시르물 슬우며 ㅍㅍㅎ ㅍ스물 혜와도되 ㅍ더 ㅎ뇨(做一箇賞花筵席 咱們消愁解悶如何?) <번역박통사 상:1b>
- ㄷ. ㅍ디 내 이 一場愁를 혜와드료(怎剖劃我這一場愁) <박통사언해 중:17b>

‘혜왈-’은 ‘혜-’와 강세접미사 ‘-왈(반)-’의 결합으로 보이는데, 거의 <노걸대>와 <박통사>류 문헌에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생리적인 목마름이나 심리적인 시름·답답함·향수 등을 해결, 해소한다는 의미로 쓰여 ‘혜-’의 기본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혜-’의 다의 중에서는 「開拓」과 관련하여 ‘장애를 물리침 → 문제를 해소함’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1.2. ‘헤-+ 용언 어간’ 구성

‘헤X-’형 용언 중에는 ‘헤-’는 접두사적으로 쓰이고 후행 요소가 의미적인 핵으로 기능하는 예도 있다. 이때는 ‘헤-’의 다의 가운데 「分散」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2)

ㄱ. 그 王을 부르면 妖怪엿 긋거시 헤드라 긋블리도 잇느니(呼其王하면 則妖魅 竄伏하느니라) <석보상절 21:22b>

ㄴ. 긋거시 헤드라 굴허에 어즈러우니(鬼物撤振亂坑壕) <두시언해 16:55ab>

(13)

ㄱ. 새 쥐 蟲식이 놀라 두루 헤든니며(驚諸禽獸四散馳走) <월인석보 20:114b>

ㄴ. 南閻浮提엿 衆生이 짓물 ㄱ몹 가운데 이서 몹겨를 조차 헤든니니 모미 다 데여 브르 닉더니(一切南閻浮提衆生 在灰河中 奔波迸定 遍身焦爛) <월인석보 23:80ab>

ㄷ. 江海에 헤든니니(游江海하느니) <남명천계송언해 상:48b>

ㄹ. 시절의 學者 갓가온 일란 브리고 먼 일에 헤든니며(病世之學者 捨近而趨遠하며) <변역소학 9:19a>

(14) 百姓들히 츠림 못하야 헤조쳐 든더니(國中男女亡走失魄) <석보상절 24:21b>

‘헤든-’과 ‘헤든(든)니-’는 (12ㄱ,ㄴ)과 (13ㄱ,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주어가 ‘흩어져 달아나다’의 뜻을 나타낸다. 한편 (13ㄷ,ㄹ)의 ‘헤든(든)니-’는 그런 의미보다는 ‘유랑’ 내지는 ‘쓸데없이 돌아다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헤대-’, ‘헤덤비-’ 등 현대어의 ‘헤X-’형 용언의 뜻풀이에서 ‘공연히’라는 부사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4)의 ‘헤조치-’는 ‘헤-’와 ‘쫓기다’를 뜻하는 ‘조치(쫓+이)-’가 결합한 것으로 ‘흩어져 쫓기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15)

ㄱ. 여스와 狼과 野干이 시브며 불오며 주거물 너흐러 썩와 고기왜 헤드렛거든(狐狼野干이 咀嚼踐踏하며 嚙齧死屍하야 骨肉이 狼藉거늘) <법화경언해 2:110a>

ㄴ. 주검 너흐러 썩와 고기왜 헤드루믄 法倒를 가즐비시니(嚙齧死屍하야 骨肉이 狼藉은 譬法倒也하느니) <법화경언해 2:111b>

ㄷ. 불로티 들 불근 집 앓궤 녀르미 덩고 이온 나뭇 가지에 고지 헤드렛도다(唱出明月堂前에 九夏煩蒸이오 枯木枝頭에 千花 爛熳이로다) <십현담요해언해 31a>

‘헤든-’은 ‘헤-’와 하향이동 동사 ‘든-’이 결합한 것이다. ‘든-’의 의미는 ‘복수의 작은 물체의 하향이동’인데(신은수 2001; 김미경 2020: 149-152), ‘헤-’와 결합하여 ‘낭자하다’, ‘난만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5ㄱ,ㄴ)은 사체의 뼈와 고기가 낭자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15ㄷ)은 나뭇가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6)

ㄱ. 이튿 나래 남지니 모미 기하며 헤믈어 썩 글희드렛거늘(至日出已, 其夫身體臃脹爛壞, 骨節解散.) <월인석보 10:24a>

ㄴ. 하나흔 根身을 자바 디너 헤물어 허디 아니케 흘씨오(一執持根身, 令不爛壞,) <월인석보 11:52a>

‘헤뜨르-’는 신체가 부패하여 문드러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헤-’는 다의 중 「分散」의 의미와 관련된다. 이러한 ‘헤뜨르-’의 의미는 ‘헤여디-’의 용법과도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

ㄱ. 能者의 비 잡취유물 썰리 호미 브롬 ㄱ특니 물겨를 헤덜어 叉를 들오 드נות다(能者操舟疾若風 撐突波濤挺叉入) <두시언해 16:63a>

ㄴ. 드문 스시로 可히 헤덜어 나면 부으리와 바톱괘 도로 돛글 더레이리라(稀間可突過 蕘距還汚席) <두시언해 17:13b>

‘헤디르-’는 찌르듯이 헤쳐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디르-’가 한문 원문에서 뽀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을 물체의 표면에 꽂아 넣는 ‘刺’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헤디르-’는 진행 방향을 막고 있는 것을 가르고 돌파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헤-’의 「開拓」의 의미와 관련된다.

(18)

ㄱ. 낮바미 두서 百 리 맞기 헤다혀 오니(晝夜奔來數百里之外) <상원사중창권선문 41ab>

ㄴ. 조스르윈 일곳 아니어든 골회 가 노니며 현의 가 헤대혀(서봉사관 헤다혀)(非要事이든 不得遊州獵縣 ㅎ야) <계초심학인문(송광사관) 11a>

(19) 헤뜨느 양이라(皇皇) <소학언해 4:23a>

‘헤다히-’는 ‘헤-’에 ‘다히-’가, ‘헤뜨-’는 ‘헤-’에 ‘뜨-’가 결합한 것으로, 둘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20)

ㄱ. 헤부치느 브롬과 오란 비왜 ㄱ술히 어즈러우니 四海와 八荒에 ㅎ가짓 구루미 同 ㅎ도다(關風伏雨秋紛紛 四海八荒同一雲) <두시언해 12:15b>

ㄴ. 百靈이 구퇴여 흐러가디 묻 ㅎ니 브르미 치운 ㄱ르물 헤부루물 더디 ㅎנות다(百靈未敢散 風破寒江遲) <두시언해 19:25b>

‘헤부치-’는 ‘헤-’와 ‘부치(붓+ 이)-’의 결합, ‘헤불-’은 ‘헤-’와 ‘불-’의 결합으로 바람 따위가 어지럽게 부는 것을 나타낸다.

(21)

ㄱ. 바블 헤젓디 말며(毋揚飯 ㅎ며) <번역소학 4:26a>

ㄴ. 므를 묵기며 브를 뵈호면 그 므리 用과 브리 用괘 곧 오오라 잇고 므를 헤젓거나 브를 헤티면 그 므리 用과 브리 用괘 곧 ㄹ ㅎ느니라(澄之聚之 ㅎ면 其用이 卽全 ㅎ고 攪之散之 ㅎ면 其用이 卽薄 ㅎ느니) <법집별행록 80b>

‘헤젯-’은 ‘헤-’와 ‘젯-’의 결합으로 음식이나 물을 헤치며 젯는 행위를 나타낸다.

3.1.3. ‘헤여디-’

중세어 자료에서 ‘헤티-’와 ‘헤혀(혀)-’ 못지않게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통사적 합성어 ‘헤여디-’이다. ‘헤-’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어 디-’가 결합한 ‘헤여디-’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22)

- ㄱ. 渙然은 어름 노가 헤여딜 씨라 <선종영가집언해 상:47b>
- ㄴ. 王祥이 옷 바사 브리고 어름 뺀고 어두려 허더니 어름미 든득 절로 헤여더 두 리에 뛰어나거늘 가져 오니라(祥이 解衣하고 將剖冰求之러니 冰忽自解호야 雙鯉躍出이어늘 持之而歸호니라) <번역소학 9:24b-25a>
- ㄷ. 어즈러운 물겨리 헤여더 허마 두들글 티느니(亂波分披已打岸) <두시언해 12:25b>
- ㄹ. 쏘 어드워 ㄹ렛는 구루물 부러 헤여디게 허니(復吹陰翳散) <두시언해 12:43a>
- ㅁ. 뜬 구름 헤여디여 외르윈 드리 도드니(決散浮雲호야 孤月이 上호니) <남명천계송언해 상:15b>
- ㅂ. 或 과 ㄹ른 브름과 색른 비와 안개와 이스리 헤여디디 아니호면(或有暴風疾雨霧露不散則) <간이벽온방 1b>
- ㅅ. 흰 돌과 흰 물애 쏘 서르 헤여뎃느니(白石素沙亦相蕩) <두시언해 25:13b>
- ㅇ. 巨渠 ㄹ장 네브터 헤여뎃느니 물 프리 긴 비얌 ㄹ티 드외엿도다(巨渠決太古 衆水爲長蛇) <두시언해 6:47a>
- ㅈ. 물 흐르드시 내 즘모 불여 든니노니 헤여디며 브리여 ㄹ스미 주근 지와 곧호라(洎乎 吾生何飄零 支離委絕同死灰) <두시언해 12:23b>

‘헤여디-’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덩어리였던 것이 따로따로 흩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얼음이 녹아서 사라지거나(22ㄱ,ㄴ), 물결, 구름, 바람·비·안개·이슬 등의 자연 현상이 사라지거나(22ㄷ-ㅂ), 돌·모래, 강 등의 자연물(22ㅅ,ㅇ),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22ㅈ)이 흩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23)

- ㄱ. 허나흔 어운 觸이니 어운 ㅍ히 모매 다와다 ㅅ와 고기와 ㅍ와 헤여딜 ㅅ오(一者合觸이니 合山逼體호야 骨肉血이 潰홀시오) <능엄경언해 8:105b>
- ㄴ. 구리긴과 쇠牀애 등이 누르며 애 물어 ㅍ와 슬괘 헤여디여(銅柱鐵牀애 焦背爛腸호야 血肉이 糜潰호야) <선종영가집언해 상:34b>
- ㄷ. 손뺏 언 瘡이 브스며 헤여디닐 고토디(治手足凍瘡腫爛) <구급방언해 상:6b>
- ㄹ. 바리 드라 헤여디닐 고토디(治足上凍爛生瘡) <구급방언해 상:7b>
- ㅁ. 凍瘡이 갖과 슬괘 헤여디여 알포물 찰디 몬호느닐 고토디(治凍瘡皮膚破爛痛不可忍) <구급방언해 상:7b>
- ㅂ. 브스르미 등의 나 헤여디니와 몬 헤여디니와(癰疽發背已潰未潰) <구급간이방언해 3:25b>

‘헤여디-’의 다의 중 하나는 피부가 짓무르고 문드러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이 의미는 살갓이 터서 갈라진다는 점에서 ‘헤-’의 다의 중 「分散」의 의미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헤르르-’의 용법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24)

- ㄱ. 울히들히 헤여덧고 빗 혀는 놀애 나고 絲管이 수스고 벌 프른 거시 나사오놋다(梟驚散亂棹謳發 絲管啁啾空翠來) <두시언해 13:12b>
- ㄴ. 가며 오며 헐야 防戍호물 엇데 헐암직헐리오 鄴城을 쁘렛다가 헤여둔 이를 뉘웃노라 (那堪往來戍 恨解鄴城圍) <두시언해 13:37b>
- ㄷ. 安慶緒를 鄴城에 圍헐얏다가 잡디 몽고 헤여더 이제드록 往來防戍케 혼 이를 恨홀시 라 <두시언해 13:37b>
- ㄹ. 潼關엿 軍卒이 쳐섬 헤여딜 저기 萬乘이 오히려 믈리드르니라(潼關初潰散 萬乘猶辟易) <두시언해 24:12b>
- ㅁ. 인논 싸해 모딘 도저기 헤여디며(所在之處 惡賊退散) <장수경언해 71a>

‘헤여디-’는 오리(24ㄱ), 병사들(24ㄴ,ㄷ), 군졸(24ㄹ), 도적(24ㅁ) 등 복수의 동물이나 인간이 있던 자리에서 흩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에도 흔히 쓰인다. 이것은 현대어에서 ‘이별’의 의미로 쓰이는 ‘헤어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헤여디-’가 ‘이별’의 의미로 쓰일 때 현대어와 유사한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20세기 들어서의 일로 생각된다.

(25)

- ㄱ. 공부흐든 아히^ㄴ 헐아 사식 돌식 다 헤여져 ㄴ니 <1911 월하가인 5>
- ㄴ. 사름이 다 헤여져 가기를 기다려 지금이야 우리가 집으로 가지 안이 헐느냐 <1912 옥호기연 2>
- ㄷ. 서로 죽은 줄 알딘 저것들을 맞느니 다시 헤여질 마음이 업슬 뿐 아니라 <1912 추월색 107>
- ㄹ. 넉 저 학도를 슴 년을 두고 흠모 흐든 터에 저 학도가 엇던 스람인지도 모르고 헤여 질 것 갓흐면 평칭에 궁금 흐 마음을 풀지 못 홀 것이 니 <1914 안의성 4>

20세기 초까지도 (25ㄱ,ㄴ)과 같이 복수의 사람이 주어로 나타나는 문장에서 ‘헤여지-’가 ‘흩어지다’의 의미로 쓰이는 한편, (25ㄷ,ㄹ)과 같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헤여지-’가 쓰여 현대어와 비슷한 용법을 보인다. (25ㄱ,ㄴ)과 같은 복수 주어의 흩어짐을 나타내는 예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도 실려 있기는 하나, 구어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이다.

3.1.4. 기타

‘헤X-’형 용언 가운데 未審한 것으로는 ‘헤믹-’, ‘헤디-’, ‘헤디오-’, ‘헤듀티-’ 등이 있다. ‘헤믹-’는 현대에도 ‘헤매-’로 남아 활발히 쓰이는 용언이나, ‘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26)

- ㄱ. 길 넬 제 가슴 헤디고(서봉사판 헤티고) 폴 흐느디 말며(經行次의 不得開襟掉臂^{헐며}) <계초심학인문(송광사판) 5a>
- ㄴ. 또 헐 몰며 가슴 헤디고(서봉사판 헤디고) 우음 낙닥 헐야 잡일 니르 고(又況披襟戲笑^{헐며} 亂說雜事^{헐고}) <계초심학인문(송광사판) 12b>

ㄷ. 풍류^ᄒ는 겨집들^ᄒ히 니기 ^ᄒ즈러 옷^ᄒ의 헤디오^ᄒ 추미며 더러^ᄒ븐 거시 ^ᄒ르게 ^ᄒ야든
(乃至令衆被女熟睦 衣袁被露不淨流溫 <『釋迦如來成道記註』 권상(X.75, p.4a)>) <석보상
절 3:22b>

ㄹ. 魔王이 ^ᄒ장 깃거 ^ᄒ오되 ᄒ^ᄒ의 說法을 잘 헤두티과라 ^ᄒ더니(如是魔大歡喜而作是言,
我能破壞優波^ᄒ多說法.) <월인석보 4:20a>

‘헤디-’, ‘헤디오-’, ‘헤두티-’는 모두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어형인데, 한문 원문을 참고하
면 전반적으로 ‘헤티-’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옷^ᄒ을 헤치거나(26ㄱ,ㄴ), 옷을 헤치게
하거나(26ㄷ), 설법을 망치는 맥락(26ㄹ)이다.

‘헤디-’는 한글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기는 하나 ‘디-’를 피동을 나타내는 요소로 보기란
쉽지 않다.³⁾ (26ㄱ,ㄴ)의 『계초심학인문』은 16세기 사찰판으로 판각이 정교하지 않고 두 예
중 하나는 다른 이본에 ‘헤티-’로 나와 있어 더욱 의심스럽다. 한편 (26ㄷ,ㄹ)도 중간본만
남아 있어서 문제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26ㄷ)의 『석보상절』의 예는 옷을 ‘벌어지
게 하였다’는 뜻인데, ‘헤디오-’는 ‘헤디+고’가 ‘헤디오’로 표기될 것을 실수로 ‘헤디오고’라
고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26ㄹ)의 『월인석보』의 예는 마왕이 스스로가 우바국다 존자의
설법을 잘 망쳤다고 말하는 장면인데, ‘헤두라(헤디+오+다)’와 ‘헤티과라(헤티+거+오+다)’
의 혼효일 가능성도 있다.

(27) 얼굴 가^ᄒ조매 아니^ᄒ완출^ᄒ며 헤펠러 호^ᄒ몰 머리 ^ᄒ며(動容貌에 斯遠暴慢矣며) <번역소
학 4:6b-7a>

‘헤퍼르-’는 ‘사람이 거만하고 탐탁지 못함’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 글에서 다루는 ‘헤
-’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8)

ㄱ. 호반이며 용속^ᄒᄒ^ᄒ 관원의 ^ᄒ가지로 우으며 헤썌리는 배 진실로 일로 말미암애니라(武
人俗吏의 所共嗤讟 良由是耳니라) <소학언해 5:108a>

ㄴ. 謗 헐썌릴 방 <훈몽자회 하:29a>

‘헤썌리-’는 ‘헐뜯다’의 뜻으로, ‘헐썌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28ㄱ)의 ‘헤썌리-’
는 제1음절의 성조가 상성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헤-’와는 무관하고 (28ㄴ)의 ‘헐썌리다’
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헐썌리-’는 ‘헐-’[謗]과 ‘썌리-’의 합성어로 보이는데, 후대에
‘헛썌리-’(1880 한불자전), ‘훼썌리-’(1906 경향보감 3:291) 등으로도 표기된다. ‘헤썌리-’
의 ‘헤’는 ‘헐-’의 방언형 또는 /ㄹ/ > /j/와 같은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헛썌리-’
는 ‘헐-’이 물리적인 [壞]의 의미로 썌리면서 ‘헐-’을 ‘헛(虛+入)’으로 재분석하여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훼썌리-’는 ‘헤썌리다’의 ‘헤-’를 ‘훼(毀)’로 재분석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
다(장경준 2019: 207, 각주 27).

중세어에는 ‘X헤-’형 용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중세어에서 용언 어간에 ‘디-’가 직접 붙는 예는 거의 없으며,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병기(2008: 104)에서는 『능엄경언해』의 ‘넘짜-’의 예를 들었으나 이것은 ‘넘+디’로 보기보다는 ‘넘째-’의
이표기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3.2. 현대어의 ‘헤X-’형 용언

현대어에도 적지 않은 수의 ‘헤X-’형 용언이 남아 있다.

헤뜨다: 자다가 놀라다.

헤뜨러지다: 쌓이거나 모인 물건이 흩어지다.

헤뜨리다: 「1」 마구 흩어지게 하다. 「2」 일 따위를 흐지부지 만들다. 「3」 자세 따위를 흐트러지게 하다.

헤트리다: 마구 흩어지게 하다.

헤떡다: 「1」 들어 있는 물건보다 공간이 넓어서 자연스럽게 아니하다. 「2」 일이나 행동이 기대나 상황과 맞지 않아 어색하다.

헤엄치다: 사람이나 물고기 따위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를 젓거나 지느러미를 움직인다.

헤엄하다: 사람이나 물고기 따위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인다.

헤어나다: 힘든 상태를 헤치고 벗어나다.

헤어지다/헤지다: 「1」 모여 있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다. 「2」 사립이나 맺은 정을 끊고 갈라서다. 「3」 뭉치거나 붙어 있는 물체가 따로따로 흩어지거나 떨어지다. 「4」 살갓이 터져 갈라지다.

헤적거리다/헤적대다: 「1」 활개를 벌려 가볍게 저으며 걷다. 「2」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들추거나 파서 헤치다. 「3」 탐탁하지 아니한 태도로 무엇을 자꾸 께적거리며 헤치다.

헤적이다: 「1」 활개를 벌려 가볍게 젓다. 「2」 무엇을 찾으려고 들추거나 파서 헤치다. 「3」 탐탁하지 않은 태도로 무엇을 께적이며 헤치다.

헤적질하다: 무엇을 자꾸 들추거나 파서 헤치다.

헤적헤적하다: 「1」 활개를 벌려 가벼이 저으며 걷다. 「2」 무엇을 찾으려고 잇따라 들추거나 파서 헤치다. 「3」 탐탁하지 아니한 태도로 무엇을 잇따라 께적거리며 헤치다.

헤죽거리다/헤죽대다/헤죽헤죽하다: 가볍게 활갯짓을 하며 걷다.

헤가르다: 헤쳐 가르다.

헤젓다: 「1」 물 따위를 헤치며 움직인다. 「2」 음식 따위를 수저로 헤치며 젓다. 「3」 일 따위를 파헤치며 분란을 일으키다.

헤집다: 「1」 긁어 파서 뒤집어 훑다. 「2」 이리저리 젓히거나 뒤적이다. 「3」 걸리는 것을 이리저리 물리치다.

헤치다: 「1」 속에 든 물건을 드러나게 하려고 덮인 것을 파거나 젓히다. 「2」 모인 것을 제각기 흩어지게 하다. 「3」 앞에 걸리는 것을 좌우로 물리치다. 「4」 방해되는 것을 이겨 나가다. 「5」 안정되거나 정돈된 상태를 흐트러지게 하다.

헤대다: 공연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헤덤비다: 헤매며 덤비다. / 공연히 바쁘게 서두르다.

헤매다/헤매이다: 「1」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2」 갈피를 잡지 못하다. 「3」

어떤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다.

헹구다: 물에 넣어 흔들어 씻다. 또는 물을 넣어 젖거나 흔들어 씻다. 흔히 세제 따위를 이용하여 한 번 씻은 것을 다시 씻는 것을 이른다.

‘헹구다’의 의미는 ‘헤다³’의 의미와 동일하다. ‘헤-’의 기본 의미는 물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다른 사물을 물로 씻는 것, 즉 물에 넣어 움직이게 하는 의미는 ‘헤-’의 사동사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문헌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방언형으로 ‘헤우다’가 있는 것을 보면, 본래 ‘헤-’의 사동사에 /o/이 첨가되어 ‘헹구다’라는 어형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헤다³’은 ‘(담배를) 피우다 > 피다’와 같이 본래는 사동사에서 출발한 단어가 어원에 대한 인식을 잃고 그 자체로 하나의 동사인 것으로 인식된 결과로 생각된다.

아래의 예는 ‘헤-’와 관련이 있을 듯하나 ‘헤-’의 다의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예들이다.

헤무르다: 맺고 끊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무르다.

헤뭉다: 사람이 맺고 끊음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싱겁고 무르다.

헤식다: 「1」 바탕이 단단하지 못하여 헤지기 쉽다. 또는 차진 기운이 없이 푸슬푸슬하다.
「2」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싱겁다. 「3」 일판이나 술판 따위에서 흥이 깨어져 서먹서먹하다.

헤프다: 「1」 쓰는 물건이 쉽게 닳거나 빨리 없어지는 듯하다. 「2」 물건이나 돈 따위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는 버릇이 있다. 「3」 말이나 행동 따위를 삼가거나 아끼는 데가 없이 마구 하는 듯하다.

현대어에는 ‘헤X-’형 용언은 존재하지만 ‘X헤-’형 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어의 ‘X헤-’형 용언은 ‘헬헤다’(‘헤엄치다’의 평북 방언)를 제외하면 거의 다 피동파생접미사가 결합한 용언의 방언형이다.

(29)

ㄱ. 간헤다(간히다), 글헤다, 끝헤다(글히다), 내똥헤다(내똥리다), 넓헤다(넓히다), 디집헤다(뒤집히다), 뚫헤다(뚫리다), 막헤다(막히다), 먹헤다, 묵헤다(먹히다), 문헤다(문히다), 받헤다(받히다), 밝헤다, 불헤다(밝히다), 밟헤다(밟히다), 뽕잡헤다(뽕잡히다), 씹헤다(씹히다), 엷헤다(엷히다), 엷헤다(엷히다), 엷헤다(엷히다), 입헤다(입히다), 잡헤다(잡히다), 적헤다(적히다), 쥐박헤다(쥐어박히다), 처박헤다(처박히다)

ㄴ. 물헤다(물켜다), 실헤다(실켜다)

ㄷ. 불쌍헤다(불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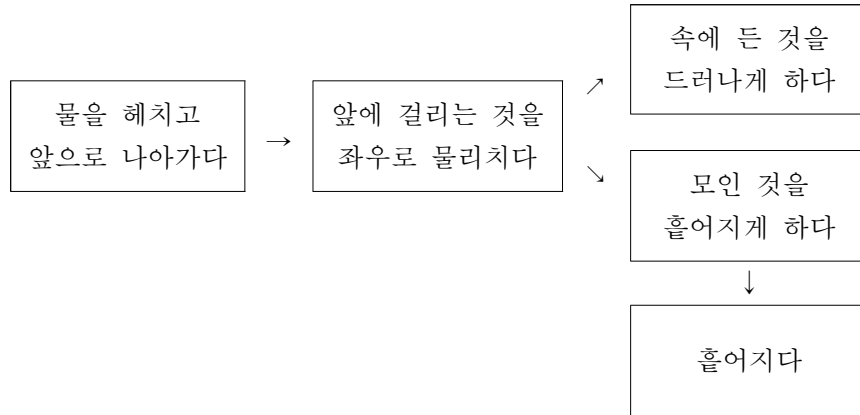
4. ‘헤-’의 의미 확장

이제까지 살펴본바, ‘헤-’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본 의미: 「遊泳」(물에서) 물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다.

확장 의미: 1. 「開拓」앞에 걸리는 것을 좌우로 물리치다.

- 2a. 「露出」 속에 든 것을 드러나게 하다.
- 2b. 「分散」 모인 것을 흩어지게 하다.
- 3. 「分散」 흩어지다.



확장 의미 1이 더 기본적이고 거기에서 헤엄친다는 뜻이 파생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중세어 한글 문헌 자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해-’의 예가 헤엄친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 ‘해-’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헤엄친다는 뜻이 더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어 사전에 나타나는 ‘해-’의 동음이의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다.’는 확장 의미 1에서 물리적인 장애물을 ‘어려운 상황’이라는 추상적인 것으로 은유하면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동음이의어인 ‘잘난 체하며 마음대로 행동하다.’ 또한 확장 의미 1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대로 행동하는 행위 자체가 장애물(주변의 시선 등)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유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해X-’형 단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가 확장되었다.

해왈다: 목마름, 답답함 등을 해소하다.

해뜯다, 해뜯(뜯)니다, 해뜯다, 헤뜨르다의 ‘해-’: ‘흩어지다’의 의미를 지님.

해여치다: 「1」 흩어져 사라지다. 「2」 (살갓이) 짓무르고 문드러지다. 「3」 모여 있던 동물이나 사람이 흩어지다. 「4」 이별하다.

‘해-’의 의미 확장과 유사한 양상은 다른 언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의 ‘해-’와 같이 ‘헤엄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는 현상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언어적 상황을 보면, Kuteva et al.(2019)에도 [SWIM]은 source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어휘화(colexification) 데이터베이스인 ‘CLICS³’에서 [SWIM]이라는 개념과 함께 어휘화된 개념으로는 [FLOAT](93), [SAIL](70), [ROW](31), [BATHE](30), [FLOW](5), [WATER](3), [DIG](3), [WASH](3), [WALK](3) 등이 있다.⁴⁾ [DIG]나 [WALK]와 같은 표현은 해당 언어에서 ‘파헤치다’, ‘헤쳐나아가다’의 의미처럼 쓰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어에서도 ‘헤엄치다’를 뜻하는 ‘泳く(oyogu)’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확장된 예를 찾을 수 있다(『日本國語大辭典』「およ・く」).

4)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공어휘화가 나타나는 언어의 수를 나타낸다.

(30)

- ㄱ. 등산자 등의 용어로, 키가 낮은 소나무 지대나 밀집해서 자란 관목지대를 갈 때, 손발로 가지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 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를 휘청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밀어 헤쳐 지나갈 때의 동작을 말한다.

5. 맺음말

(생략)

■ 참고문헌

- 奇周衍(1991). 「近代國語의 接頭辭 設定의 限界와 基準에 관한 考察: 17, 8世紀 國語資料를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19.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32.
- 김미경(2020). 「하향이동 동사 ‘디다’의 문법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진(2021).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 구축을 위한 시안」. 『우리어문연구』 69. 우리어문학회. 247-282.
- 김영일(2008). 「어형 ‘뚝그[圓(形)]’의 형태변화와 단어족」.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59-274.
- 김영일(2010). 『한국어 단어족 사전』. 서울: 박문사.
- 김준수(2021). 「상고중국어에 보이는 **mi : g(피·핏줄)을 어근으로 갖는 단어가족과 한국어 ‘피’의 상고중국어 차용어 가능성에 대한 논의」. 『중국언어연구』 100. 한국중국언어학회. 1-30.
- 김준수(2020). 「상고중국어에 보이는 ‘폴다’를 중심의미로 갖는 단어가족에 대한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129. 중국어문학연구회. 7-34.
- 김지형(2008). 「‘불’ 관련 어휘의 어원 탐색」.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41-78.
- 김한샘(2011).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단어족 분석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71-95.
- 김현주(2018). 「‘X-를 켜다’ 구문의 등장과 그 환유적 확장」. 『영주어문』 38. 영주어문학회. 5-30.
- 서재극(1980). 『중세국어의 단어족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신명선(2004).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7-264.
- 신은수(2001). 「‘들다’(落)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학회. 53-76.
- 안경화(2006). 「신문 수업용 어휘 목록의 작성 방향」.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61.
- 양명희(2010). 「고급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반교어문연구』 29. 반교어문학회. 141-162.
-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 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병기(2008).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용언’의 상관성」. 『국어학』 53. 국어학회. 87-111.
- 장경준(2019). 「역사 자료 말뭉치의 보완과 활용: 언해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183-218.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 한영균(2006). 「한국어 어휘 교육·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계량적 분석의 한 방향: 어휘 빈도 조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어문학』 94. 119-146.

▣ 토 론

“‘해-’[泳]의 단어족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

성우철(한기대)

이 논문은 지금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해-’와 그 단어족을 대상으로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에 걸쳐 그 의미의 변화 또는 확장 경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어족에 관한 연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와 그 단어족의 의미와 단어 간의 형태적 관계를 밝히는 데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논문의 내용은 연구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와 그 단어족은 ‘해-’의 사용이 축소되면서¹⁾ 단어 간의 형태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어 간의 형태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는 일이 어휘 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음(성우철 2018)을 고려할 때,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해-’와 그 단어족에 관한 연구 성과는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 역시 이 논문의 전반적인 논지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해-’의 기본 의미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는 ‘해-’의 기본 의미를 “물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다”로 파악하고 그 근거로 출현 시기와 문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해-’의 예가 「遊泳」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그러한 예에서 ‘해-’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의 다른 다의, 특히 「開拓」과 「露出」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도 「遊泳」의 그것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선뜻 동의하기에 다소 주저되는 면이 있습니다. 「遊泳」의 예가 처음 등장하는 『월인석보』 권22가 16세기의 중간본이며, 「開拓」의 예가 처음 등장하는 『삼강행실도』 효자도가 세종대의 언어 사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유념할 만합니다. ‘해-’의 다른 다의와 달리 「遊泳」의 경우 해엄을 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만 쓰일 수 있어 사용 맥락이 제한적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물이라는 객체는 정보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생략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출현 시기와 문형 모두 ‘해-’의 기본 의미를 판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세 한국어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해-’의 용례가 그리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으로는 ‘해-’와 형태상 관련을 맺는 복합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합어에서 관찰되는 의미일수록 그 어기의 더 기본적인 의미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이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X-’형 용언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

1) SJ-RIKS 말뭉치에서 ‘해-’의 출현 빈도는 총 20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단독으로 쓰인 예 없이 ‘해어나오-’(10건), ‘해어나가-’(4건), ‘해어가-’(3건), ‘해어오-’(2건), ‘해어다니-’(1건)와 같이 연속 동사 구성으로 쓰인 예만이 확인됩니다.

면 상당히 흥미로운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표 1> ‘혜-+ 강세접미사’ 구성

의미	혜티-	혜혀-	혜잇-	혜왈-
「遊泳」				
「開拓」	○	○	○	△
「露出」		○		
「分散」	○	○		

<표 2> ‘혜-+ 용언 어간’ 구성

의미	혜든(니)-	혜조치-	혜든-	혜뜨-	혜디르-	혜다히-	혜뜨-	혜부치-	혜불-	혜것-
「遊泳」										
「開拓」					○					○
「露出」										
「分散」	○	○	○	○		○	○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용언이 「開拓」이나 「分散」의 의미와 관련을 맺으며 「露出」의 의미와 관련을 맺는 용언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遊泳」의 의미와 관련을 맺는 용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혜-+ 강세접미사’ 구성의 경우 의미상의 편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혜-+ 용언 어간’ 구성의 경우 「分散」의 의미와 꽤 긴밀한 연합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떤 접사가 용언의 어간에서 비롯된 경우 접사로서의 의미가 해당 용언의 더 기본적인 의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위의 표만을 가지고 「開拓」과 「分散」 가운데 어느 한쪽을 기본 의미로 판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開拓」에서 「分散」으로의 의미 변화가 접사화에 따른 의미의 추상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혜-’에서 확인되는 「分散」의 의미는 타동적이지만, 접두사 ‘혜-’에서 확인되는 「分散」의 의미는 대개 반사동적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혜-’의 여러 다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사복 역할을 하는 것이 「開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開拓」을 더 기본적인 의미로 상정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 ‘혜다¹’과 ‘혜다³’의 관계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는 ‘혜다³’의 의미가 ‘혜-’의 「開拓」 의미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開拓」의 의미가 주변의 시선을 비롯한 사회적 장애물을 신경 쓰지 않는 사태를 나타내는 데까지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잘난 체하며 마음대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은유적 확장은 개념적으로는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 ‘혜다³’의 의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일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어에서 물리적 장애물을 극복해 내는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 가운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 변화를 거친 다른 단어를 선택 뜻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적절한 문헌상의 증거나 유사한 사례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혜다³’을 ‘혜다¹’과 관련짓는 일은, 심증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나,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헤-’의 세 번째 확장 의미로 “흩어지다”를 제시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도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도 ‘헤-’가 단독으로 “흩어지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적 용법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두사 ‘헤-’의 의미 또는 ‘헤-’와 형태상 관련을 맺는 복합어의 의미를 확장 의미로 포함시키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접사의 의미를 어디까지 어휘적 의미로 포섭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일부 복합어의 형태 분석에 대하여

3.1. ‘헤여디-’와 ‘헤뜨르-’

이 논문에서는 중세 한국어 ‘헤여디-’의 의미를 크게 “한 덩어리였던 것이 제각기 흩어지거나 떨어지다”, “한 무리로 있던 것이 그 자리에서 흩어지다”, “짓무르거나 문드러지다”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마지막 의미가 다른 두 가지 의미와 꽤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기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헤여디-’를 두 개의 동음이의어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헤여디¹-’은 “흩어지다”를 의미하는 동사, ‘헤여디²-’는 “짓무르거나 문드러지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볼 수 있으며, ‘헤여디²-’는 다시 ‘허러디-’와 기원적으로 관련을 맺는 동원어로 분석됩니다.

‘헤여디²-’를 ‘허러디-’와 관련짓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러디-’는 의미상 ‘헐-[毀]’을 어기로 삼는 합성어로 분석되는데, 중세 한국어 ‘헐-[毀]’은 자음 앞에서는 상성을 취하고 모음 앞에서는 평성을 취하는 유동적 상성 어간이었습니다. ‘허러디-’는 LHH의 성조형을 취하는 동사였다는 점에서 ‘헐-[毀]’과 성조 패턴이 일치하며, ‘헤여디-’ 역시 그 의미와 무관하게 LHH의 성조형을 취하는 동사였다는 점에서 ‘허러디-’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金永鎭(1987)에서는 한국어 음운사에서 산발적으로 관찰되는 /ㄹ/>/j/의 변화와 관련하여 ‘헐어지다>헤어지다’도 같은 음운 변화를 겪은 어형일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세 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허러디-’는 극히 적은 예만이 관찰되며 ‘헤여디²-’는 그보다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어사에서 흔히 관찰되는 고형과 신형의 공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헤여디²-’와 ‘허러디-’의 관련성은 의미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중세 한국어 ‘헐-[毀]’은 자동절에도 쓰일 수 있고 타동절에도 쓰일 수 있는 자타 양용 동사였습니다.¹⁾ ‘헐-[毀]’가 자동절에 쓰일 때의 의미는 논항의 성격에 따라 크게 “부서지거나 허물어지다”와 “짓무르거나 문드러지다”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허러디-’는 문중되는 예가 많지는 않으나 대부분 “허물어져 사라지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허러디-’는 “짓무르거나 문드러지다”의 의미로 쓰인 예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데, 이 논문의 (23)에서 제시한 ‘헤여디²-’의 예는 이러한 의미상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음운 변화를 통해 공존하게 된 두 어형이 본래 하나의 어휘소가 담당하던 의미 영역을 분담하여 표현하게 되는 일은 ‘갓추-’와 ‘감추-’ 등의 다른 동사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헤뜨르-’ 역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헤뜨르-’ 역시 ‘헐-+뜨르-’로 분석되는 합성어 또는 복합어가 /ㄹ/>/j/의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일 가능성을 제

1) 후대형인 현대 한국어 ‘헐-’의 경우 관점에 따라 자타 양용 동사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윤희 2002).

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헤X-’형 용언으로 분류한 단어 가운데 기원적으로 ‘헐-[毀]’과 관련을 맺는 다른 단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헤-’ 자체가 ‘헐-[毀]’과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세 한국어 ‘헤-’의 의미 가운데 특히 대상을 해집어 흩어지게 만드는 일을 나타내는 「分散」의 의미는, 비슷한 시기의 ‘헐-[毀]’이 나타내던 의미와 꽤 큰 유연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²⁾

3.2. ‘헤디오-’

이 논문에서는 (26ㄷ)에 나타나는 ‘헤디오고(LRHH)’을 ‘헤디오-+-고’로 분석하고, ‘헤디오-+-고’가 ‘헤디오’로 표기될 것을 실수로 ‘헤디오고’라고 적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고’는 콧물을 지시하는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가 연결어미였다면 거성불연삼이 적용되어 성조형이 LRLH로 실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헤디오’에서 ‘-고’의 /ㄱ/가 약화한 원인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점은 ‘헤디-’의 어기를 사동사 ‘디-’로 보면 해결될 듯합니다. 사동사 ‘디-’는 평성 어간이었으나, 사동사 ‘디-’는 상성 어간이었으며 /ㄱ/로 시작하는 어미의 초성 /ㄱ/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헤디-(LR)’는 의미상 ‘헤든-(LR!)’과 대등한 구성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³⁾ (26ㄷ)의 ‘헤디-’가 옷가지를 난잡하게 풀어헤치는 일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것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3.3. ‘헝구-’

이 논문에서는 ‘헝구-’를 ‘헤-’의 사동사에 /ㅇ/이 첨가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비슷한 음운 현상을 겪은 다른 단어를 제시하거나 그 동인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론자는 올해 5월 22일 고려대학교 국어사자료연구회 스터디에서 ‘헤우-’가 『규합총서』에 등장한 예를 확인하였으며, 6월 5일에는 같은 문헌에 나타나는 피동사 ‘켜이-(<*꺄-+-기-)’의 후대형 ‘켁기-’가 비슷한 음운 현상을 겪은 예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⁴⁾ 하지만 음운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그러한 음운 현상의 동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동사나 피동사에서 접미사의 초성 /ㄱ/ 앞에 /ㅇ/이 첨가되는 현상에 대해 상술하거나 언급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기타 사소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허용(1975: 132)에서 언급한 용언 가운데 ‘헤츄다, 헤퍼디다’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헤츄다’는 17세기에 간행된 『두시언해』의 중간본에만 실려 전하고 있으나, ‘헤퍼디다’는 『능엄경언해』에 등장하므로 충분히 다룰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X헤-’형 용언은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도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도 그 예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논문의 첫 부분에서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이처럼 ‘헤-’와 ‘헐-[毀]’의 기원적 관련성을 상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세 한국어 ‘헤-’가 평성 어간을 취하였다는 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3) 신은수(2011)에서는 ‘뜯-[落]’을 고정적 상성 어간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 동사는 유동적 상성의 성조 패턴을 보였습니다.

4) 이외에 스터디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피동사 ‘헝기-(<*꺄-+-기-)’도 같은 음운 현상을 겪은 예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ㄷ)의 ‘가스물 헤어서’는 맥락상 몸을 가리고 있던 사물을 물리적으로 열어젖히는 일을 나타내지만, (5ㄹ)의 ‘옷가스물 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맥락상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을 터놓는 일을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헤다히-’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헤-’와 ‘다히-’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때의 ‘다히-’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중세 한국어 ‘다히-’는 크게 “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때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도축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헤다히-’의 의미는 이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결부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14쪽의 “헤-’의 동음이의어’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실린 표제항이 기준이니만큼 “헤다!’의 의항’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문단의 ‘또 다른 동음이의어인’ 역시 “헤다³’의 의미인’이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 참고문헌

- 金永鎭(1987), 「國語의 流音에 대하여」, 『于海李炳銑博士 華甲紀念論叢』, 于海李炳銑博士 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17-136쪽.
- 성우철(2018), 「어휘적 변화의 어휘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은수(2011), 「‘들다’(落)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韓國言語文學』 79, 한국언어문학회, 53-76쪽.
- 장윤희(2002), 「國語 動詞史의 諸問題」, 『한국어어미학』 10, 한국어어미학회, 97-141쪽.
- 허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제4 분과

담화화용론

추론적 상황에 사용되는 ‘-는 게’ 구성에 대하여

박창영(동국대)

< 차 례 >

1. 도입
2. 추론적 상황에 쓰이는 ‘-는 게’ 구문의 정체
3. ‘-는 게’ 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
4. 남은 문제

1. 도입

본고는 한국어의 구어적 발화에서 ‘-는 게’가 사용되는 방식 중 독특한 구문에 주목한다. 한국어의 의존 명사 ‘것’은 명사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절을 이루거나, 분열문을 형성하거나, 연어로서 일반적인 명사의 용법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등,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문을 형성하는 어휘이다.

‘것’이 쓰인 구문 중에는 일반적인 통사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는 유형이 다수 존재한다. 아래의 구문도 일반적인 통사구조로는 설명이 어렵다.

(1) 가. 쑥쑥이는 코가 오뎅한 게 나중에 연예인 해도 되겠다.

나. 벌써 꽃이 피는 게 봄이 온 것 같다.

다. 깡시골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다.

라. 규현이가 도서관에 가는 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마. 서아가 혼자서 옷도 잘 입고 매운 것도 잘 먹는 게 이제 다 컸다.

바. 철수가 작년부터 명절마다 나한테 선물을 보내는 게 드디어 철이 든 모양이다.

사. 사장님이 그 악명 높은 인간을 이사로 정하려고 하시는 게 곧 회사에 피바람이 불 듯하다.

(1)의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나 자동사, 타동사 등에 ‘-는 게’나 ‘-는 게’가 결합한 구성으로, ‘것’을 핵어로 하는 명사구에 조사 ‘이’가 결합한 구문이다. 그런데 후행하는 문장의 구조상, 이 명사구를 보충어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게’를 중심으로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의미상 별도의 명제를 이루는, 즉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절로 인식될 듯하다. 그런데 그 선행 부분에서 절을 구성하는 형식적 표지가 따로 없이 의존 명사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장의 정체와 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추론적 상황에 쓰이는 ‘-는 게’ 구문의 정체

한국어의 의존 명사 ‘것’은 매우 다양한 구문을 형성하는 어휘로, 특히 분열문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분열문은 범언어적으로 전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하나의 명제를 이루는 내용이 계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두 논항으로 쪼개어진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V-ㄴ/는 것이/은 N-이다’의 꼴로 실현되는 형식적 특성을 지닌다(최윤지 2008).

- (2) 가. 수미가 좋아하는 것은 맥주다.
나. 수미가 좋아하는 것이 맥주다.

(2가)와 (2나)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분열문으로 논의되어 온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명사구인 ‘V-ㄴ/는 것’ 형식이 계사를 서술어로 하는 주절의 논항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2)의 문장들은 의미상 ‘수미가 x를 좋아한다’라는 열린 명제를 나타내는 부분과 열린 명제의 변항 x의 값에 해당하는 ‘맥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양분된다. 즉 의미적으로 ‘[... ei ...]-ㄴ 것{은/이} Xi이다’로 해석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분열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연발생 구어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적 완전성을 갖추지 않은 유사 구성이 활발히 쓰인다. 최윤지(2016)에서는 이를 ‘준(準)분열문’이라고 이르고, 특히 그중에서도 분열된 성분이 계사의 보어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절을 이루어 나타나는 문장들을 ‘열린 분열문’으로 다룬 바 있다.(밑줄은 필자)

- (3) 가. 개를 보면서 더 **느끼는 게** 진짜 ... [애는 진짜 하나만 나면 안 돼].
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서면 활동 보고란에:, ... 학개부장님 인사를 놓으시면서, 바꾸세요.]
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 [맥도널 맥도날드화의 모순은 인간의 자발성을 통제한다, // 이진 알겠어요, ...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구요, 그 말을 이해 못하겠다구,]

(3)와 같은 이른바 ‘열린 분열문’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먼저 (3)는 전형적인 분열문과 마찬가지로 ‘V-ㄴ/는 것’이라는 명사구의 형식이 문장의 앞에 놓여 있고, 주절이 그 뒤에 이어진다. 다만 주절의 서술어가 계사가 아니며, ‘V-ㄴ/는 것’의 명사구가 주절의 논항으로 보기도 어렵다.¹⁾ 즉 열린 분열문은 분열문에 비해 일반적인 문장의 형식적 완결성을 지니지 못한다.

한편 의미적 관점에서, (3) 역시 전형적인 분열문과 마찬가지로 ‘것’을 핵으로 하는 구성이²⁾ 열린 명제를 나타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3가)에서 ‘x를 더 느끼다’의 변항 x와 (3나)에서 ‘x를 말씀드리고 싶다’의 변항 x에 대한 의미가 후행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명제로써 구성된다. 즉 변항의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사적으로 하나의 성분으로

1) 이 점에서 (3)의 문장을 발화 실수나 문법적 오류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해영(2005), 남길임(2006), 최윤지(2016, 2017)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와 같은 구성을 단순히 언어적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출현 빈도가 많다. 특히 구어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쓰임이 충분히 유의미할 정도로 발견된다.

2) 최윤지(2016)의 용어 사용을 따라, 이후에는 ‘것’을 핵으로 하는 구성을 ‘것’ 선행 부분, 줄여서 ‘선행 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것’을 중심으로 그 뒤에 놓인 주절의 구문은 ‘것’ 후행 부분, 줄여서 ‘후행 부분’이라고 하겠다.

도출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명제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한 문장 내의 요소로 보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것’ 선행 부분은 후행 부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양태)를 드러내는 의미적 기능을 한다. 또한 ‘것이’ 꼴 외에도 ‘것은’ 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특징일 보인다.

‘열린 분열문’과 형식적으로 유사해 보이나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구조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언적 열린 분열문’도 존재한다((4), 최윤지 2017 참고).

(4) 가. (B가 칠레에서 살았던 경험을 말하면서 특정 향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A: 그거를, 그 엠빠나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음식에도 쎄부야라는 게 들어가는데, ... 그렇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향료더라구. 쎄부야라고.

B: 그럼 우리 나라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마늘:: 냄새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A: **그건, 그런 거랑 조금 틀린 게::, // 그 냄새만 말으면 그~ 굉장히 좋아.**

나. 예 이를 테면 뭐, **선착순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은 뭐.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땐 뭐 박사 과정::하시는 분들은, 아 나 그때는 뭐, 강의하느라고 지방에 가 있었다, 그래서 나 못 했다 그래서 그때 뭐 석사 과정들이 뭐 다 해 버렸으면은,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없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죠.

(4)은 전형적인 분열문과 마찬가지로, ‘V-ㄴ/는 것’이라는 명사구의 형식이 문장의 앞에 놓여 있고, 주절이 그 뒤에 이어진다. 또한 주절의 서술어가 계사가 아니며, ‘V-ㄴ/는 것’의 명사구가 주절의 논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것’ 선행 부분이 열린 명제를 나타내는 것은 맞으나, (4가)에서 ‘x가 조금 틀리다(다르다)’의 변항 x와 (4나)에서 ‘선착순으로 하면 x가 문제가 되다’의 변항 x에 대한 의미가 후행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명제로 구성된다는 점도 (3)와 유사하다. 즉 변항의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사적으로 한 성분이 아닐 뿐더러 한 문장 내의 요소도 아니다.

다만 (4)의 ‘것’ 선행 부분은 후행 부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양태)가 아닌, 선행 발화에 대한 화자의 단언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것’ 선행 부분의 명제가, 담화상 암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명제라는 것을 뜻한다. 즉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지니는 명제가 ‘V-ㄴ/는 것’의 형식으로 문장에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경우 ‘것은’의 꼴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3)과 비교된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ㄴ/는 것이’ 형식의 구성이 또 다른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다. 앞서 제시한 예를 다시 가져와 보자.

(5) 가. **쑥쑥이는 코가 오뚝한 게** 나중에 연예인 해도 되겠다.

나. 벌써 꽃이 **피는 게** 봄이 온 것 같다.

다. 깡시골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다.

라. 규현이가 도서관에 **가는 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마. 서아가 혼자서 옷도 잘 입고 매운 것도 잘 **먹는 게** 이제 다 컸다.

바. 철수가 작년부터 명절마다 나한테 선물을 **보내는 게** 드디어 철이 든 모양이다.

사. 사장님이 그 악명 높은 인간을 이사로 **정하려 하시는 게** 곧 회사에 피바람이 불 듯하다.

(5)의 구문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2)의 분열문과 많이 닮아 보인다. ‘V-ㄴ/는 것’의 명사구의 형식이 문장의 선행 부분에 놓여 있고, 그 뒤에 문장을 완성하는 주절이 놓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직관적으로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의미상 모종의 연결 관계를 지닌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다만 일반적인 분열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많아 같은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먼저 (5)는 주절의 서술어가 계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분열문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V-ㄴ/는 것’의 명사구가 주절의 논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전형적 분열문과는 달리 ‘것’ 선행 부분을 후행 부분에 대한 논항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서로 통사적 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식상 전형적 분열문을 이루지 못한다.

이 점에서 ‘열린 분열문’ 내지는 ‘단언적 열린 분열문’과 형식적으로 닮아 있다. 그러나 (5)는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완전히 구분되는 통사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양쪽 모두가 통사 구조적으로 완전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 분열문과도 구분된다. (2)과 (3), (4)에서 ‘것’ 선행 부분은 변항 x 에 대한 서술어라는 점에서 열린 명제를 이룬다. 그리고 ‘것’ 후행 부분을 이용하여 열린 명제의 변항 x 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구성을 이룬다. (2)의 전형적 분열문에서는 열린 명제에 대한 의미적 보충이 직접적인 성분으로 드러나는 반면 (3), (4)의 열린 분열문에서는 그러한 의미적 보충이 명제적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형식적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본다면 이들 분열문의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의미적 차원에서 하나의 상위 명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5)는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서로 통사·의미 구조적으로 온전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것’ 선행 부분의 변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미상 닫힌 구성을 이루고 있어, 후행 부분의 의미가 선행 부분의 변항을 충족시키는 의미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선행 부분의 통사 구조가 완결되어 있음을 말하는데, 통사 구조적으로 완전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각각 별도의 명제를 온전히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2~4)에서 ‘것’ 선행 부분이나 후행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의미상 더 큰 하나의 명제를 이루는 구성이 상정되는 반면, (5)는 논리 의미적 결여 없이 (5')처럼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을 온전한 두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5)는 커다란 하나의 명제를 ‘분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가. 쑥쑥이는 코가 오뚱하다. 쑥쑥이는 나중에 크면 연예인 해도 되겠다.

나. 벌써 꽃이 핀다. 봄이 온 것 같다.

다. 깡시골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다.

라. 규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마. 서아가 혼자서 옷도 잘 입고 매운 것도 잘 먹는다. 서아가 이제 다 컸다.

바. 철수가 작년부터 명절마다 나한테 선물을 보낸다. 철수가 드디어 철이 든 모양이다.

사. 사장님이 그 악명 높은 인간을 이사로 정하려 하신다. 곧 회사에 피바람이 불 듯하다.

의미적 측면에서 (2)의 전형적 ‘분열문’이나 (3), (4)의 ‘열린 분열문’은 ‘것’ 선행 부분이 변항 x 에 대한 열린 명제를 제시하고, 후행 부분에서는 변항 x 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구성을 이룬다. 그러나 (5)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 구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의 의미 관계를 열린 명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열린 분열문의 의미 구조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5'') 가. x =쑥쑥이는 코가 오뚱하다. x 를 고려하면 쑥쑥이는 나중에 크면 정말 예쁘겠다.

- 나. x=벌써 꽃이 핀다. **x를 고려하면** 내일은 날이 따스할 것 같다.
- 다. x=강시골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 **x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다.
- 라. x=규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x를 고려하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 마. x=서아가 혼자서 옷도 잘 입고 매운 것도 잘 먹는다. **x를 고려하면** 서아가 이제 다 컸다.
- 바. x=철수가 작년부터 명절마다 나한테 선물을 보낸다. **x를 고려하면** 철수가 드디어 철이 든 모양이다.
- 사. x=사장님이 그 악명 높은 인간을 이사로 정하려 하신다. **x를 고려하면** 곧 회사에 피바람이 불 듯하다.

(5'')은 (5)에서 변항 x에 대한 열린 명제를 상정되는 구성이 후행 부분으로 놓이고 그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구성이 선행 부분으로 도입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x를 고려하면'처럼 변항을 유도하는 부분은, '것' 선행 부분이나 후행 부분에서 나타나는 명제의 내부 의미 요소가 아니라 '것' 선행 부분의 명제와 후행 부분의 명제 간의 관계에 따라 생성되는 명제 논리적 의미 요소이다. 즉 이때의 변항 x는 '것' 선행 부분이나 후행 부분의 명제 내부에 변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두 명제 간의 맥락상의 논리 관계에 따라 상정되는 것이다.

의미면에서 '것' 선행 부분이나 후행 부분이 직접적으로 변항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나타내는 각각의 명제가 열린 명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인다. 다시 말해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은 모두 온전한 닫힌 명제를 각각 기술하고, 이 명제 간의 의미적 관계 속에서 '인과' 정도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으로 귀추된다. 그리고 의미상 '것'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모두 온전한 닫힌 명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두 부분이 의미상 구분되어 별도의 명제를 나타낸다는 것은, (5)의 문장을 두 절의 접속으로³⁾ 풀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인다. 즉 형식상 하나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듯하더라도 두 개의 명제로 나뉘는 복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두 명제는 내포적 포함 관계가 아닌 연결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 '-는 게' 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

(5)에서 '것' 선행 부분은 추론적 발화에 대한 근거를, 후행 부분은 추론적 발화의 결론을 나타낸다. (5'')에서 보았듯, 각 문장의 두 명제 중 선행 명제가 후행 명제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고, 후행 명제는 선행 명제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결론을 나타낸다. 즉 선행 명제로서 제시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후행 명제의 상황이나 결과가 도출될 것임을 나타내는 구성이다. 이는 '추론적 맥락'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5)가 '추론적 맥락'에 사용된다는 것은, 후행 부분에 사용된 '-겠-'이나 '-ㄴ 것 같다', '-ㄴ 듯하다', '-지 싶다', '-ㄴ 모양이다', '-나 보다' 등의 양태 표현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추론적 결론의 근거가 되는 '것' 선행 부분의 명제에 제시될 수 있는 상황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듯하다. 일단 지각적 상황이라면 시지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인식한 상황이 모두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3) '접속'이라는 용어는 흔히 '내포'와 대별되어 사용되는데, 용어 '접속'과 '내포'에 대한 함의는 의견에 따라 꽤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함의적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서로 다른 두 명제를 나타내는 구성(절)이 형식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두고 '접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

- (6) 가. 쑥쑥이는 코가 참 예쁜 게 나중에 배우 해도 되겠다. (시각)
- 나. 너는 목소리가 참 좋은 게 가수를 해도 잘했을 거야. (청각)
- 다. 이 꽃은 향기가 참 좋은 게 집에 꽃아 두면 분위기가 살 듯하다. (후각)
- 라. 국이 참 맛있는 게 주방장이 요리를 잘하나 봐. (미각)
- 마. 이 옷은 촉감이 참 부드러운 게 나는 아마 넘보지도 못할 만큼 비쌀 거야. (촉각)

한편 지각적 상황과 같은 직접 증거 외에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명제(hearsay, 傳聞) 역시 ‘-는 게’ 구성을 이용하여 추론적 결론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는 게’ 구문을 추론적 상황에서 결론의 근거로 해석되는 명제에 쓰이는 구문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 (7) 가. 쑥쑥이는 코가 예쁘다는 게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쁠 거야.
- 나. 깡시골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다.
- 다. 사장님이 그 악명 높은 인간을 이사로 정하려 하신다는 게 곧 회사에 피바람이 불 듯하다.

다만 내적 사유를 통해 도출된 결론(introspection, 內省)이나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inference),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reasoning)이 추론적 결론의 근거로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어색하다.

- (8) 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장님이 그 인간을 이사로 정할 것 같은 게 곧 회사에 피바람이 불 듯해.
- 나. *시험 기간에 책도 가방도 없는 걸 보니 규현이가 도서관에 간 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봐.
- 다. *이 시간쯤이면 규현이는 도서관에 가는 게 진화해도 아마 못 받을 거야.

‘-는 게’ 구문은 ‘것’ 후행 부분으로써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결론을 드러내고 선행 부분으로는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만약 근거의 근거가 다시 도출되는 맥락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않게 이해될 수 있다.

한편 (5)에서 해당 구문은 ‘것이/게’의 꼴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것은/건’의 꼴로 실현될 수 없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4)의 ‘단언적 열린 분열문’과도 유사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 (9) 가. (B가 칠레에서 살았던 경험을 말하면서 특정 향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 A: 그거를, 그 엠빠나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음식에도 쎄부야라는 게 들어가는데, ... 그렇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향료더라구. 쎄부야라고.
- B: 그럼 우리 나라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마늘:: 냄새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 A: 그건, 그런 거랑 조금 틀린 {게/#건}::, // 그 냄새만 맡으면 그~ 굉장히 좋아.

나. 예 이를 테면 뭐, **선착순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건}**,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은 뭐.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땐 뭐 박사 과정::하시는 분들은, 아 나 그때는 뭐, 강의 하느라고 지방에 가 있었다, 그래서 나 못 했다 그래서 그때 뭐 석사 과정들이 뭐 다 해 버렸으면은,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없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죠.

- (10) 가. 코가 **오독한 {게/*건}** 나중에 크면 정말 예쁘겠다.

나. 공기가 안 **좋은** {계/*건} 내일은 날이 따스할 것 같다.

다. 철수까지 **온** {것이/*것은} 올 사람은 다 온 듯하다.

라. 구름이 잔뜩 **낀** {것이/*것은} 조만간 눈이라도 퍼붓지 싶다.

마. 갑자기 허리가 **쑤시는** {계/*건} 비가 올 모양이다.

바. 철수가 매운 것도 잘 **먹는** {계/*건} 이제 다 컸나 보다.

(9)의 ‘단언적 열린 분열문’이나 (10)의 ‘-는 게’ 구문 모두 ‘것이/게’의 꼴로 쓰일 수는 있으나 이를 ‘것은/건’의 꼴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 특성이 동일하지는 않다.

(11) 가. A: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마늘 냄새 싫어하는 거랑은 틀린 거야?

B: 어, 그런 거랑 조금 틀린 {계/건} 그 냄새만 맡으면 굉장히 좋아.

나. A: 와, 애 코 오뎅한 것 봐.

B: 그러게. 코가 오뎅한 {계/*건} 나중에 크면 정말 예쁘겠다.

(9가)의 단언적 열린 분열문의 형식은 동일한 문장이 (11가)처럼 지시적 구정보로 쓰이는 경우 ‘것은/건’의 꼴로 실현될 수 있다. 최윤지(2017)에서는 정규적인 분열문과 열린 분열문 모두에서 ‘은/는’ 형과 달리 ‘이/가’형은 절대적·상대적 전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면서, 관형사절 명제가 전제일 때에는 조사 ‘은/는’과 ‘이/가’가 모두 쓰일 수 있음에 반하여, 그것이 비-전제일 경우에는 ‘이/가’만이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9가)에서는 관형사절 명제가 비-전제라는 점에서 ‘이’가 결합한 꼴만 성립할 수 있으나, 상황 맥락을 조정하여 같은 명제가 전제된 상황을 상정하면 ‘은/는’을 쓸 수도 있게 된다. 반면 (11나)의 ‘-는 게’ 구성은 (10가)와 마찬가지로 ‘것이/게’의 꼴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것은/건’의 꼴로 실현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것이’의 꼴로만 사용되는 양상의 이유는 ‘이/가’의 정보구조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함병호(2018)에서는 (12)에 대해 ‘이/가’가 실제 도입의 의미 기능을 하는 예로 풀이하며, 특히 (12나)에 대해 ‘이/가’가 통사적인 주격 기능을 가지지는 않으면서 결합된 성분을 문장에 도입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12) 가. 바로 저 친구{가/*는} 학생회장입니다.

나. 산 좋고 물 맑은 것{이/*은} 여기가 지상낙원이구나.

(12나)의 ‘-은 것이’ 구성은 본고의 ‘-는 게’ 구성과 매우 유사함이 주목된다.⁴⁾

의미 구조적 측면에서 전형적 분열문은 ‘것’ 선행 부분이 화용론적 전제의 역할을 한다. 화용론적 전제는 ‘화용론적 단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Lambrecht(1994: 52)에 의하면 화

4) (11나)가 ‘추론적 맥락’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것’ 후행 부분에 실현된 언어 표현만을 두고 본다면 추론적 맥락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구나’와 같이 ‘새로 앎’의 의미 기능을 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있고 그 앞에는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추론적 맥락’이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이 점에서 꼭 뒤에 ‘-겠-’이나 ‘-니가 보다’ 등과 같이 추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문 안에 포함시킨다.

용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단언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된다.

(13) 가. 화용론적 전제: 문장에서 어휘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 중에서, 그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자가 추정하는 명제.

나. 화용론적 단언: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들 중에서,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로서 청자가 알게 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화자가 기대하는 명제.

(2가)에서 ‘것’ 선행 부분의 명제, 즉 ‘수미가 x를 좋아한다’라는 명제는 발화되는 순간에 이미 청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명제이다. 즉 해당 부분은 화용론적 전제라 할 수 있다. (2’)을 참고할 수 있다.⁵⁾ 특히 (2’나)에서는 ‘수미가 x를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화용론적으로 전제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제가 ‘것’ 선행 부분으로 제시되기 어렵다.

(2’) 가. A: 수미가 뭘 좋아해? B: 수미가 좋아하는 것은 맥주야.

나. A: 맥주는 누가 좋아해? / B: #수미가⁶⁾ 좋아하는 것은 맥주야.

한편 (3)의 ‘개를 보면서 x를 느끼다’, ‘그 다음에 x를 말씀드리고 싶다’ 등의 명제는 담화 상황상 공유되는 정보로서, 이전 담화에서 등장하여 공유되는 정보이거나, 아니면 화자의 감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자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하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역시 화용론적 전제라 할 수 있다.

반면 (4)의 ‘것’ 선행 부분의 명제는 담화 상황상 공유되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조사 교체 현상을 통해 확인된다. 만약 (4)의 단언적 열린 분열문이 단언적 성격을 잃고 (9)처럼 전제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것이/게’ 대신 ‘것은/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는 정보구조적 의미를 표상하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분열문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5)의 추론적 맥락에서의 ‘-는 게’ 구성은 전제적 맥락과 비전제적 맥락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4) 가. A: 이번 여름에 계곡 갔다며? 어땠어?

B: 말도 마.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한 게, 세상에 둘도 없는 천국이더라.

나. A: 이번 여름에 돈내코 계곡 갔다며? 나도 가 봤는데, 거기 물 진짜 좋더라.

B: 말도 마.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한 게, 세상에 둘도 없는 천국이더라.

5) 다만 (2나)의 ‘것이’ 분열문에서도 ‘것’ 선행 부분이 반드시 화용론적 전제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음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B의 발화 중 밑줄 친 문장의 ‘것’ 선행 부분은 오히려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단언에 해당한다. 이는 정보구조적 측면에서의 ‘화제-초점’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A: 나는 맥주가 영 별로더라고.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맥주보다는 소주지.

B: 그래? 나는 맥주 좋은데. 그리고 너 맥주랑 친해져야 돼. 수미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맥주야.

6) 본 발표문에서 ‘#’는 발화 맥락상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임을 보이기 위해 사용한다. 즉 제시된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는 해당 문장 역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보인다. 이와 구분하여, 어떠한 맥락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를 사용한다.

(14가)와 (14나)의 B는 동일한 문장이 화용론적 전제와 단언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용법을 지닐 수 있음을 보인다. 즉 (14가)의 B에서 ‘것’ 선행 부분은 (14가)의 A에 대한 단언에 해당하는 반면 (14나)의 B에서 ‘것’ 선행 부분은 (14나)의 A에서 이미 제시되어 화용론적으로 전제된 명제를 의미한다. 화용론적 전제성이 서로 다른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식이 쓰인 것인데,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쉽게 해석되지 않는 지점이다.

한편 추론적 맥락에 쓰인 ‘-는 게’ 구성은 관형절+‘것’의 형식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명제의 맥락적 의미를 흡수한 명사가 조사 ‘이/가’와 함께 나타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15)를 보자.

(15) 가. 영화는 코가 오뚝한 게 나중에 연예인 해도 되겠다.

나. 영화는 코가, 나중에 연예인 해도 되겠다.

(16) 가. 갑자기 구름이 가득 끼어 오는 게 비가 올 모양이다.

나. 갑자기 구름이, 비가 올 모양이다.

구어에서 (15가)와 (16가)가 각각 같은 의미로 (15나), (16나)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은 ‘코’가 ‘이목구비가 또렷하여 예쁘다’와 관습적으로 밀접히 관련되고, ‘구름’이 ‘비 혹은 눈이 내리는 상황을 야기한다’라는 백과사전적 배경지식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의 쓰임에서, 특정 맥락에서 자주 나타나는 언어 요소 중 일부가 특정 맥락이 나타내는 의미를 흡수하는 일은 흔하게 관찰되는데(박진호 2019 등), 이를 고려하면 하나의 명사가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에도 명사구에는 조사 ‘이/가’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 흥미롭다. 만약 (15나)와 (16나)가 하나의 명사에 특정 맥락의 의미가 흡수되어 하나의 명사로써 명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라면, 이는 ‘-는 것’이라는 명사구로서 추론의 근거에 해당하는 명제를 표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그 뒤에 결합하는 ‘이/가’ 조사에 대한 정체와 용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4. 남은 문제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론의 근거를 나타내는 ‘-는 게’ 구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먼저 이러한 구문이 어떠한 이유로 ‘것’에 의한 명사구의 형식을 취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앞서 (5’)에서 보았듯이, 추론의 근거를 나타내는 ‘-는 게’ 구문은 ‘것’ 선행 부분에 의한 명제와 후행 부분에 의한 명제가 서로 관련되지 않고 구분된다. 즉 하나의 커다란 명제를 분열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명제가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명제의 연결이, 어떠한 이유로 온전한 절의 형식이 아닌 ‘것’에 의한 구의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명제’는 흔히 절로서 드러나는데, 이러한 절이 명사화되었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 표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5’)처럼 두 문장으로 나누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 간의 명제적 관련성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면, ‘-는 게’ 구

문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구문을 이용할 필요 없이 (5'')처럼 명제적 관계성을 명시하면 될 것이다. 만일 한 문장으로 말하고자 했다면 (17)와 같이 표현해도 무방하다.

- (17) 가. 쑥쑥이는 코가 오뚝한 것을 보면, 쑥쑥이는 나중에 크면 정말 예쁘겠다.
- 나. 벌써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내일은 날이 따스할 것 같다.
- 다. 깡시골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다.

(17)에서는 ‘-는 것을 보면’ 정도의 구성을 이용하면 추론의 근거를 나타내는 ‘-는 게’ 구성의 용법과 흡사한 구문을 만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의 표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구문이 형성된 이유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명제를 포장하고 전달하는 방식(strategy)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문숙영 2017 참조).

둘째는 명사화된 ‘-는 것’ 구성에 조사 ‘이’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점도 추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주격 조사 ‘이’의 용법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초점’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논의된다(김민국 2016, 2021 참조). 즉 ‘것’ 선행 부분의 명제를 초점화하기 위해 조사 ‘이’가 쓰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14)에서 화용론적으로 전제된 명제를 나타낼 때도 ‘이’가 쓰여야 한다는 점은, 해당 구문이 초점을 나타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다. 또한 해당 구문은 뒤에 이어지는 추론의 의미론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 김민국(2021), 「한국어 정보구조의 초점」,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1-50.
- 박진호(2019),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의미 연구」, 임지룡 외,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전혜영(2005),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ㄴ 것이’의 화용 의미」, 『국어학』 46, 국어학회, 255-279.
- 최윤지(2008), 「한국어 분열문의 의미 연구: 정보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최윤지(2016),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통사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79, 국어학회, 187-237.
- 최윤지(2017), 「관형사절이 단언을 나타내는 열린 분열문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42,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99-134.
- 함병호(2018), 「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 문숙영(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84, 국어학회, 33-88.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 론

“추론적 상황에 사용되는 ‘-는 게’ 구성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

김민국(경상국립대)

‘산 좋고 물 맑은 게 여기가 지상낙원이구나’와 같은 구문에 대한 관심은 학부 4학년 통사론 수업 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주격조사 ‘이/가’가 주어가 아닌 곳에서도 쓰인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구문에 숨어 있는 신기한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어에서의 ‘준분열문’ 구성이 주목받으면서 해당 구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는 듯했지만 이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준분열문’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시 미궁에 빠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읽으며 어느 하나도 자신 있게 제 나름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추론의 근거

‘전언’도 추론의 근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 (7)의 예는 매우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니(-다고 하니)’와 같은 연결어미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언’이 추론의 근거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 듯하고 ‘-다는(-다고 하는)’과 같은 구성을 통해 ‘전언’임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1) A: 야, 야, 대박. 규현이가 도서관에 가더라.

B: 허허... 규현이도 도서관에 가는 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한편, ‘내적 사유를 통해 도출된 결론,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추론의 근거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추론의 근거가 ‘내적 사유’나 ‘일반적 사실’ 등이 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와 같은 예를 보면, 내적 사유나 일반적 사실도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수는 지금 한창 시험 때인 게, 요새 많이 바쁠 거야.

일류 요리사가 정성을 들여 요리하는 게, 이번 음식은 정말 맛있을 거야.

다시 생각해 보니 영수 생각도 틀린 게, 이제 영수도 한물 갔구나 싶어.

2. 추론적 ‘-는 게’ 구성의 또 다른 특성

추론적 ‘-는 게’ 구성은 ‘근거’를 나타내는 ‘-는 게’와 ‘추론’을 나타내는 후행절의 내용을 서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성립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거’와 ‘추론’이 바뀌어 이루어진 ‘-는 게’ 구성은 최윤지(2017)의 ‘단언적 분열문’과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정보구조적 지위는 바뀌겠지만 최윤지(2017)의 ‘단언적 분열문’도 ‘-는

게'와 후행절의 내용을 바꾸어도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가. 시골 변호사도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어.

→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싶은 게, 시골 변호사도 대통령이 되네.

나. 규현이도 도서관에 가는 게, 내일은 해가 서쪽에 뜰 모양이야.

→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인 게, 규현이도 도서관에 가네.

다. 서아가 혼자서 옷도 잘 입는 게, 이제 다 컸다.

→ 서아도 이제 다 큰 게, 혼자서 옷도 잘 입어.

라. 철수가 이제 나한테 선물도 보내는 게, 드디어 철이 든 것 같다.

→ 철수가 철이 든 것 같은 게, 이제 나한테 선물도 보내네.

(4) 가. A: 이번 여름에는 어디 가면 좋을까? (최윤지 2017의 단언적 분열문)

B: 포항이 무릉도원이자 싶은 게,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포항이 엄청 좋았어.

나. A: 왜 포항을 굳이 추천하니? (이 연구에서의 추론적 상황의 '-는 게' 구성)

B: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포항이 엄청 좋았던 게, 거기가 무릉도원이자 싶어.

3. '-는 게'의 정보구조적 지위

2번 토론 내용을 참고한다면, 추론적 상황에 쓰이는 '-는 게' 구성도 결국 단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5가)와 같이 추론의 내용이 단언이 되느냐(최윤지 2017의 단언적 분열문), (5나)와 같이 근거가 단언이 되느냐(이 연구에서의 추론적 상황의 '-는 게' 구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단언적 분열문'은 후행절과의 관계에서는 또 전제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정보구조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선행 담화 맥락에서는 단언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후행 담화 맥락으로는 전제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5) 가. A: 우리나라가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했을까?

B: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발전했다 싶은 게, 시골 변호사도 대통령이 되었어.

나. A: 뭐가 그리 감격스러워?

B: 시골 변호사도 대통령이 된 게,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발전했다 싶어.

4. 왜 예외적 구문을 쓰는가?

이에 대한 답은 3번 토론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어미를 통해 두 명제 간의 의미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근거가 되는 부분은 종속절에 해당하므로(즉 근문이 아니므로) 정보구조적 지위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것'을 이용하여 절 전체를 명사화하고 단언적 분열문 형식으로 바꾸어 주면 절이 지닌 정보적 지위를 단언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는 게' 구성은 후행절의 전제 역할을 하며 다른 단언이 이어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예외적 구문을 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A: 썩썩이 어디가 그리 마음에 드냐?

B: 썩썩이 코가 오뎅한 게, 나중에 크면 정말 예뻐 거야.

B: *썩썩이 코가 오뎅한 것을 보니, 나중에 정말 예뻐 거야.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예상 쟁점 탐색

신희성(고려대)

< 차 례 >

1. 서론
2. 양태 표현 교육의 종핵과 예비 국어 교사 목소리의 가치
3.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예비 국어 교사 인식 및 실천적 쟁점
4. 결론

1. 서론

그간 양태 표현은 국어학 내에서도 여타 문법 범주에 비해 연구의 출발이 늦은 상태였으며, 그 결과 문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신희성, 2018). 하지만 최근 국어 문법교육에서는 양태 표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는데 강효경(2019), 신희성(2019), 김정은(2021) 등 양태 표현을 중심에 둔 국어 문법교육 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잇따른 발행은 양태 표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이들 연구는 주로 설득하기 장르를 대상으로 삼아 해당 장르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양태 표현 교육 논의들이 사용으로서 언어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문법을 언어 자원으로 바라보려는 의미기능 중심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양태 표현을 국어 문법교육에서 다룸 직하다거나 다뤄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에도 있어 왔는데 이들도 대개 관점의 측면에서 의미기능 중심의 문법교육과 밀접하다.¹⁾ 의미기능 중심 문법교육 담론의 전개에서 양태 표현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양태 표현이 정오(정확성)의 문제가 아닌 적절성의 문제와 더욱 강하게 결부되기 때문이다. 양태 표현은 언어 사용의 상호교섭성이 크게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그 선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된다.²⁾ 다른 문법 범주들의 경우 언어 자원으로선 선택 가능한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반면, 양태 표현은 보다 다양한 어휘문법을 포함하는 동시에 선택 가능한 폭이 넓다. 예를 들어, 주체 높임의 경우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선생님께서 나를 불렀다/선생님이 나를 불렀다”에서처럼 조사와 어미의 실현/비실현이라는 이분법 차원에서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명제에 대한 양태 표현의 경우 ‘인간은 이기적이다/인간은 아마 이

1) 소논문의 예로 신명선(2006), 남가영(2007), 강효경·오현아(2015), 조진수 외(2015), 이창덕(2016), 신희성(2018) 등이 있고 단행본·학위 논문의 일부분에서 다뤄진 예로 남가영(2008), 백금석(2012), 제민경(2015), 노유경(2016), 최경봉 외(2017)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 양태 표현의 위상은 그 자체로 논의의 중심에 놓이기도 하고 문법교육의 특정 관점을 입론함에 있어 예시의 하나로써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저마다 편차가 있다.

2) 이러한 인식은 특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양태 표현 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한국어교육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기적일 것이다/인간은 이기적일 수도 있다/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이다/나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확신한다/인간은 이기적일 것이 틀림없다/인간은 이기적일 확률이 있다/인간은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등 정도의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항이 구축될 수 있다.

2022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문법 영역 개정의 중점 중 하나로 '다양한 맥락에서 실제 사용되는 국어의 역동성'이 꼽히고 있는 만큼(노은희 외, 2022: 35) 앞으로도 의미기능 중심의 관점에 입각한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³⁾ 하지만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일이 문법 수업에서 양태 표현이 적극 다루어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꽤 오랜 시간 문법교육에서 탐구 학습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임영미·오현아(2013)의 진단은 다수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교육 내용이 실제 교실까지 안착하는 데에는 학문 공동체적 합의,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양태 표현 교육의 수업 실현에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국어교육 공동체로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이 중요하게 자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양태 표현 교육 관련 연구들은 대개 학습자의 언어 사용 및 인식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내용화 원리를 도출해 왔다(조진수 외, 2015; 강효경, 2019; 신희성, 2019; 김정은, 2021; 이창덕, 2022 등). 이처럼 학습자의 언어 현상을 바탕으로 둔 논의는 양태 표현 교육이 학습자에게 필요하다는 근거를 견고히 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양태 표현 교육이 실제 교실에서 보다 안정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실행할 교수자가 양태 표현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진정성 있게 공감하는지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이는 양태 표현 교육의 진입을 두고 생길 수 있는 회의적 시각이나 문제적 인식을 해소하는 일과 상통할 것이다.⁴⁾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는 기존의 양태 표현 교육 담론들에서 주요 원리와 핵심 요소를 추출해 교과서상의 가능태로서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실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을 논하기로 한다.⁵⁾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다른 존재로서 어떤 형태로든 간극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바 그 간극에 대한 해결이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초점화한다. 그간 국어교육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전초로 활용한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동일한 대상(교과서, 텍스트 등)을 두고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 축적으로 이

3) 신희성(2022)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설득하는 글에 나타난 양태 표현을 분석하면서 주로 중등학교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양태 표현 교육 논의의 영역을 중등학교급까지 확장하기도 했다. 김정은(2021)도 강효경(2019)나 신희성(2019)가 문어 사용역만 다룬 것에서 나아가 구어 사용역까지 다루었다는 점에서 양태 표현 교육 논의의 확장이라 평할 수 있다.

4) 문법교육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는데 관련한 연구로 김은성(2016), 김윤신(2016), 박형우(2018), 윤천탁(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양태 표현 교육이 담론에서 수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진(豫診)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속에 구현될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학습 활동은 주요한 교육 내용 요소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실제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관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활동을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는 학습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양세희(2017: 66) 역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과 관련해 학습 활동이 "교과서가 실행 가능한 교수 학습의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함을 이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남지에·박혜진(2018: 107)에서는 교과서 학습 활동에 대해 교육과정 상세화의 산물인 동시에 학습자와 만나 수업의 실천적 맥락을 빚어내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부여한 후, 단일하고 이상적이며 가상적인 존재로서의 학습자가 아니라 실제 학습자가 교과서 활동과 만나 복잡한 학습 경험이 창발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할 것인데 이는 양태 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함에 있어 예비 국어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비 국어 교사가 스스로 학습자의 입장이 되어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대해 논평하고, 다시 교수자로 입장을 전환하여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가르칠 상황에 대해 고민한 바들을 살필 것이다. 앞서 장성민(2016: 255)에서는 예비 교사 연구의 의의에 대해 “예비 초등교사는 글쓰기 협력학습에 대한 학습자로서의 경험과 교수자로서의 경험이 공존하는 상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의 간극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언어로 표상하도록 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접근을 통해 본 연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은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대한 예비 국어 교사의 인식으로부터 문법교육(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교육 구현에 있어 예상되는 실천적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내재적이고 부차적인 목적은 예비 국어 교사가 국어 교육 담론의 주체로 자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양태 표현 교육의 중핵과 예비 국어 교사 목소리의 가치

2.1.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중심 원리와 핵심 요소⁶⁾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예비 국어 교사들에게 제공할 학습 활동은 먼저 기존 양태 표현 교육 연구들에서 제시한 핵심 원리와 내용 요소, 활동 예시들을 참고 및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을 다루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의미기능 중심의 문법교육을 관점으로 전체해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며 좁지 않은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양태 표현 교육의 이론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목적이기 보다 이를 실제로 구현함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육 내용 함의성 차원에서 기존 양태 표현 교육 연구들 간 공통되는 부분에 더 주목했다. 교육이 가능태에서 실현태에 가까워질수록 함의성이 낮은 부분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맥락에 보다 구체화된 상황을 부여하고자 양태 표현이 문법 요소 관련 성취기준에 편입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이 기존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문법 요소 관련 학습 활동들과 동질성을 이루도록 고려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과서들이 대개 무에서 유로 창조되기보다 기존 교과서들을 발판 삼아 발전한다는 점에서 양태 표현 교육의 가능태를 보다 개연성 있게 포착해 보려는 의도를 내함하고 있다. 또한 양태 표현 교육이 구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법교육의 문법’과 잘 융화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⁷⁾⁸⁾

6) 본 연구에서 ‘학습 활동’을 논의의 중점에 두고 있는바, 논문의 제목이나 2장 1절의 제목에 ‘양태 표현 교육 구현’ 대신 ‘양태 표현 학습 활동 개발’이 보다 어울려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능태로 존재하는 문법교육 연구의 담론들이 문법 수업에서의 실현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문제들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방향성을 보다 잘 내보이는 표현은 전자라고 보았다. 이는 다시 본 연구가 예비 국어 교사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이유와도 연결되는데 단순히 활동을 개발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문제뿐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추동하려는 교육적 움직임이 실제적 힘을 얻는 과정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본 연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7) 이때의 ‘문법’은 ‘영화의 문법’ 같은 용법에서의 ‘문법’이다.

8) 물론 기존 교과서의 방식과 다소 이질적이라 할지라도 양태 표현 교육의 본령에서 양보될 수 없는 지점도 존재할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쟁점들은 그러한 지점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양태 표현 교육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원리들을 추출한 과정은 그 자체로 보다 상세한 논의의 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본 연구 대상의 명확한 초점화를 위해 최대한 소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최소한 “양태 표현 교육 연구”라는 좁혀진 논의의 장 속에서 (1)의 내용은 합의성이 높은 내용들이다.

(1) 양태 표현 교육의 원리

- ㄱ. 언어 체계와 더불어 언어 사용 과정을 다루는 교육이어야 한다.
- ㄴ. 양태 표현 지식은 선택항을 구축하는 언어 자원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 ㄷ. 양태 표현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준거로 정확성에서 나아가 적절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 ㄹ. 양태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문법교육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바는 언어 현상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다.
- ㅁ. 양태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주체적으로 양태 표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ㄱ)은 (1ㄴ-ㄷ)을 이끄는 대전제이자 관점 혹은 지향이다. 언어가 정적인 체계로서만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사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함을 중요시한 것이다. 신희성(2019)은 언어 현상의 과정성에 주목할 목적으로 ‘언어하기(languaging)’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는 언어 사용 과정의 상호교섭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강효경(2019)은 학습자가 언어 운용 기제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해 자신의 선택항 체계를 보다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양태 표현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상론하기 위해 “설득 목적 글쓰기”를 논의의 울타리로 두는데 이 역시 언어 사용 과정을 중심에 둔 문법교육을 설계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2021)에서 문법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양태 표현”이 아니라 “양태 표현 선택 기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

과정으로서 언어에 주목하는 (1ㄱ)의 관점은 양태 표현 지식이 교수학적으로 전환될 때 수행성이 내재되어야 함을 촉구한다(1ㄴ). 언어 사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문법 지식은 특이나 언어 자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문법 지식’과 ‘언어 자원’은 그 자체로는 둘 모두 동작성이 없는 객체일지라도 언어 사용 과정에서 소용된다는 함의가 보다 직관적으로 읽히는 것은 후자이다. 또한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일은 양태 표현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데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보다 적합한 개념 역시 언어 자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양태 표현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준거와 관련해 공통적인 원리는 ‘적절성(나아가 타당성)’이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1ㄷ). 이는 ‘정확성’에 대한 배타이기보다 정확성에 이은 확장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양태 표현 교육이 언어 사용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행성은 다시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경험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때, 양태 표현 교육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언어 현상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1ㄹ). 이는 문법교육의 지향이 언어에 ‘대한’ 학습에 놓여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원리는 양태 표현 교육이 단순히 특정 문법 범주에 대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문법교육이 지향하는 보다 거시적인 목표로서 메타언어적 활동과 그에 따른 언어적 민감성의 고양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한편, 이 같은 양태 표현 교육의 원리들은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양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자’상을 그리고 있다(1ㅁ). 강효경(2019: 228-229)에서는 “양태 표현들에 대한 문법적 안목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언어를 선택해 나가는 학습자 함양”을 양태 표현 교육의 도달점으로 설정하고 ‘주체적 선택’에 대해 “사회문화적 의미화 방식과 개인의 의미화 방식 전체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의미화 방식이 타인이 어떻게 읽히는지”, “여러 의도들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 또는 양상과

결부”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희성(2019: 199) 역시 양태 표현을 위시한 대인적 기능은 독자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문법교육은 학습자가 선택한 양태 표현이 “어떤 기제로 인해 어떤 의미로 독자에게 가 닿을 수 있는지를 필자가 충분히 주지한 상태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들에게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이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양태 표현에 대한 지식을 상호교섭적으로 형성하고 언어적 주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양태 표현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요소들을 추출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양태 표현 교육의 내용 요소

- ㄱ. 양태 표현의 개념과 성격 알기
- ㄴ.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 구성하기
- ㄷ. 텍스트에 실현된 양태 표현이 내재하는 필자/화자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
(혹은 독자/청자에게 수용되는 표현 효과 파악하기)
- ㄹ. (텍스트의 장르성을 고려하여) 양태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 ㅁ. 적절한 양태 표현 선택에 유의하며, 텍스트 생산해 보기⁹⁾

위 (2ㄱ-ㅁ)은 나름의 단계를 형성한다. 예컨대, 강효경(2019)에서는 양태 표현 교육 내용 수행의 방향을 “[문법 지식 활성화]↔[언어 선택 기제에 따른 언어 운용 방식 탐구]↔[언어 생산]”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희성(2019)은 양태 표현을 포함한 텍스트 대인적 기능 교육 실현의 구도에서 지식/경험/성찰의 교육 층위에 따라 “[대인적 기능의 개념 알기]-[대인적 기능의 어휘문법과 담화의미의 원리 탐구하기]-[텍스트에 실현된 대인적 기능 이해해 보기]-[대인적 기능을 고려하여 텍스트 표현해 보기/동료와의 상호 평가를 통해 대인적 기능 표현 성찰해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양태 표현의 개념(2ㄱ)은 “언어 주체의 주관적,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 범주” (김정은, 2021: 204)로 정의될 수 있다.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2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되는 바는 객관성/주관성의 문제이며, 그 외에도 정도성(고/중/저) 명시성(외재/내재)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2ㄷ)은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였던 (2ㄱ, ㄴ)이 언어 사용의 맥락에 놓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완화’와 같은 화용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2ㄷ)이 언어 사용 맥락에서의 양태 표현에 대한 사실적 이해에 가깝다면 (2ㄹ)은 비판적 이해에 가까운 것으로 이때 적절성의 문제는 단순히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의 이분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창의적 이해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아래 강효경(2019)의 예시 활동 발문들이 참고된다.

예시 1

- 1)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논설문 A와 아래 글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 2) 동일한 주제와 관련해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여러분은 ① 교과서에 있는 A 텍스트와 ② 2에 제시된 텍스트 중 어떤 방식의 글을 쓸 것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2

- 1) 다음 글을 읽고, 각 문장들의 표현과 관련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 봅시다.
- 2) “① 나는 이러한 케이팝의 언어 파괴 현상을 반대한다.”에서 밑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장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문

9) 본 연구에서는 강의 시간의 제한 및 기준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문법 요소 성취기준 단원의 활동 양상 등을 고려해 텍스트 생산(표현)(2ㅁ)은 학습 활동 구현에서 제외하였다.

장을 선택할 것 같나요? 조별로 선택한 문장과 그 이유를 토론해 보며 가장 설득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강효경, 2019: 220-224)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해 보면, 해당 예시 활동은 학습자가 언어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일을 최대한 내재적으로 맥락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있다. “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라면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게끔 하는 지점은 양태 표현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신희성(2019)나 김정은(2021) 역시 유사한 논지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양태 표현 교육의 주요 원리와 핵심 요소, 기존 양태 표현 연구물의 예시 활동들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으로서 <문법> 교과서 개발 상황을 상정한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구안했으며, 다시 이를 문법교육 전공자 2인에게 검토 받은 후 수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3)과 같다.

(3) 양태 표현 학습 활동

가. 양태 표현 개념 설명 텍스트 <지면 관계상 생략>

나. 활동 발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1) 위 글에서 ‘확신하는 정도’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에 주어진 문장들 중 ①~④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 보자.

<보기>

ㄱ.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 / ㄴ. 나는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롭다고 본다. / ㄷ.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확실히 해롭다. / ...

- ① 확신하는 정도가 높고 객관적으로 표현한 문장 / ② 확신하는 정도가 낮고 객관적으로 표현한 문장
 ③ 확신하는 정도가 높고 주관적으로 표현한 문장 / ④ 확신하는 정도가 낮고 주관적으로 표현한 문장

- 2) (A)와 (B)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문장들이 있다. 이 중 두 쌍을 선택하고 각 문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건>에 따라 써 보자.

A	B
<p style="text-align: center;"><상략></p> <p>나는 휴대 전화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휴대 전화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어렵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기도 하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느라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화가 자주 끊기다 보니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가벼운 내용의 대화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략></p>	<p style="text-align: center;"><상략></p> <p>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휴대 전화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어렵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느라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화가 자주 끊기다 보니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가벼운 내용의 대화로 흐르게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략></p>

<조건>

두 문장의 차이를 기술할 때 본문을 참고하여 ‘주관성, 객관성’이나 ‘확신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되 그러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형식의 차이와 연결해야 한다.

- 3) (A)와 (B)를 읽을 독자 중에는 평소 해당 글의 필자가 주장하려는 명제에 동의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독자의 입장에 따라 (A)와 (B)의 글이 어떻게 다른 느낌으로 읽힐지 써 보자.
- 4) 내가 필자라면 (A)와 (B) 중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어떤 글이 더 나은 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자.

(3)의 1), 2)번 활동은 이전의 문법 교과서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요소 학습

활동을 양태 표현에 맞춰 구안한 것이다.

- ㉠ “사이좋게 나눠 먹어.”
- ㉡ “네, 애들아, 얼른 먹자.”
- ㉢ “선생님도 잡수세요.”
- ㉣ “그래, 나도 좀 먹자.”

(1) 위 대화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을 구분해 보자.

[그림 1] 문장의 문법 요소를 판별하는 활동(이삼형 외, 2019: 121)

먼저 1)번은 [그림 1]과 같이 주어진 문장에 어떤 종류의 문법 요소가 실현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수준의 활동이다.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이 추상적인 개념 차원에서만 습득되지 않고 실제 언어 사용 층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판별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문법 요소 성취 기준을 실현한 교과서들은 대개 해당 유형의 학습 활동을 기본 활동으로 실어 왔다.

(1) 다음 문장에서 시간 표현이 쓰인 부분을 표시하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말해 보자.

- 민규는 창문을 다 열고서 청소를 시작했다.
- 도서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그림 2] 문법 요소의 형태를 분석하고 의미와 연결하는 활동(민현식 외, 2019: 167)


한편, [그림 2]에 보이는 활동은 얼핏 [그림 1]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문장의 문법 요소 유형을 판별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문법 요소의 형식을 포착하여 분석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형식과 의미를 연결’한다는 점에 있어 문법교육 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지점이다. 김정은(2021: 210)에서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으로 “다음은 윗글 중 일부 문장의 종결 표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하기 전 표현과 수정 후 표현의 형태적 차이와 의미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자.”와 같은 활동 예시를 보이며, “형식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와도 연동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2)번 활동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안된 것이다.

3), 4)번 활동은 앞서 양태 표현 교육의 내용 요소로 제시한 (2ㄷ, ㄷ)의 반영이다. 3)번 활동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요소의 표현 효과를 파악하기 수월하도록 같은 내용의 글을 두고서 양태 표현을 달리 한 후, 표현 효과를 비교해 보게끔 한 것이다. 이때 ‘효과’를 판단하는 준거로 설득하기라는 목적(장르)도 제시하였다. 간단한 발화나 짧은 텍스트에서 문법 요소를 대조적으로 두고서 표현 효과를 인식하게끔 하는 활동은 최근 문법(국어)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문인데 의미기능 중심 문법교육이 언어에 대한 계열적 접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1 다음 글을 읽고, 혼문장과 겹문장의 표현 효과를 알아보자.

㉠ 눈을 떴다.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맞아. 숙제가 있었지. 나는 급히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폈다. 그런데 숙제가 몇 쪽이었더라.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민수는 알 것 같았다. 민수에게 문제를 보냈다. 그러나 답장이 없었다. 이리다 숙제를 못 하는 게 아닐까?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 눈을 뜨니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9시여서 깜짝 놀랐다.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급히 책상에 앉아 책을 폈다. 그런데 숙제가 몇 쪽이었던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민수는 알 것 같아서 민수에게 문제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나는 이리다 숙제를 못 할까 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림 3] 동일한 내용에 문법 장치를 달리한 두 텍스트의 표현 효과를 대조하는 활동(박영민 외, 2018: 71)

4)번 활동은 기존의 국어 교과서에서 잘 등장하지 않던 유형의 것이면서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1口)에서 언급했듯, 양태 표현 교육 논의들은 대개 주체적으로 언어를 사용(선택)하는 화자를 주요한 교육적 목표이자 인간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나라면 어떤 언어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끔 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문법 교육 과정에서 떠올리는 맥락을 보다 내재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2. 학습자·교수자의 혼성적 정체성을 지닌 예비 국어 교사

예비 국어 교사에 대한 연구는 대개 교원양성과정의 교사교육 차원에서 예비 국어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진단하고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예비 국어 교사 관련 연구의 제목에서 ‘오개념’, ‘어려움’, ‘문제 양상’ 등의 용어를 흔히 볼 수 있다는 점, 문제의식이나 연구 목적에 대한 진술에서 ‘예비 국어 교사를 지도하기 위해서, 국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예비) 국어 교사의 국어교육/수업 역량 신장을 위해서’ 등과 같은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은 교육 실행에 있어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가치가 크다. 다만, 그간 교육개혁의 대상에서 주체로 교사의 역할을 전환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자는 선언이 있어 왔으며(이혁규, 2015; 양영자, 2020에서 재인용) 이 같은 맥락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에 대한 연구 역시 전환의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에 대해 처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국어교육을 함께 일궈나가는 공동체로 적극 포섭하여 제 문제들을 함께 상론(相論) 및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와 후자는 예비 국어 교사 대상 연구의 시사점이 교사교육에 작동하는지 국어교육에 작동하는지로 범박하게 나눠 볼 수 있다. 협력학습에 대한 예비 초등교사의 인식을 살핀 장성민(2016: 281-282)에서 연구의 의의를 자평하면서 “향후 초등교사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협력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집단 구성 방식에 관한 논의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 둘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예비 국어 교사 대상 연구들을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을 목표로 하는 연구와 국어교육에의 시사점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 나누는 일이 이분법적으로 선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실제 한 논문에서 이 둘을 함께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비 국어 교사의 목소리가 지닐 수 있는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망하고 이 같은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예비 국어 교사에 대한 협력적 관점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이 둘을 가름하여 본다.

예비 국어 교사 연구의 국어교육적 유의미성에 대한 인식은 김영란·방상호(2022: 49)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들은 예비교사가 현직교사와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최신의 교육과정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그렇기에 그 인식을 점검하는 일이 국어과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유의미하고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김라연·장봉기(2017: 197)에서는 “학문적, 실제적 합의가 견고하지 못하여 해석과 실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들을 교육할 때”, “개별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존중하면서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기서 양태 표현 교육 역시 해석과 실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속한다.

예비 국어 교사 인식을 살핌에 있어 그들의 혼성적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인 장성민(2022: 100)에서는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오롯이 드러내기보다 교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며 두 정체성 간 내적 협상의 과정을 거쳐 그 인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권태현·김승현(2022: 82-83)에서는 예비 교사 시기에 형성된 수업관이 교사가 되어서도 오래 지속됨을 이유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예비 국어 교사의 인식을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예비 국어 교사가 “교사와 학생의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대상과 주체로서의 인식이 결합하여 좋은 국어 수업을 표상해 내는 일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우신영(2015)는 예비 국어 교사 연구와 관련해 문학교육 연구의 주체와 실천의 주체가 소통하는 국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우신영(2015: 335-337)은 <문학교육론> 강의 수강생이 몇 년 뒤면 문학교육 현장을 만들어 감에 있어 연구자보다 ‘힘센 주체’이기에 그들의 문학교육적 신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문학교육의 방향과 범위, 가능성에 대한 예비 교사 인식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러한 연구들이 “연구자의 관점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경청하여 전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우신영, 2015: 338). 이는 예비 국어 교사가 국어 교육 개신 및 담론 형성의 주체로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이상의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의 혼성적 정체성에 주목해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실체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가’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공 과목인 <문법교육론> 을 수강한 예비 국어 교사들이 생성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강좌 7주차 1차시에 예비 국어 교사들은 모둠을 이뤄 2장 1절에서 제시된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본 후, 학습자 입장 및 교수자 입장 각각에서 논평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과정에서 ‘양태 표현 학습 활동 수행 결과물(M1), 학습자 입장의 학습 활동 논평 기술지(M2), 교수자 입장의 학습 활동 논평 기술지(M3)’가 도출되었다. 7주차 2차시에는 각자 작성했던 논평을 바탕으로 양태 표현이 문법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이 열의 있게 진행되면서 수업 시간이 부족했기에 LMS를 활용해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이 역시 ‘양태 표현 교육을 논의한 LMS 댓글(L)’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은 총 19명의 학생이 4-5명씩 4개조로 나누어 진행했고 그에 대한 토론에는 전체 수강생 58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 중에서도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대해 메타적 인식을 드러낸 M2와 M3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앞서도 기술했듯 예비 국어 교사는 국어교육 공동체 중 학습자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말 그대로 예비 국어 ‘교사’라는 교수자적 특성을 혼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들 자료는 특징적이다. 또한 앞으로 국어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들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를 살피는 일은 양태 표현 교육의 실체화 모색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예비 국어 교사 인식 및 실천적 쟁점

본 연구는 예비 국어 교사가 지닌 혼성적 정체성에 주목하는바, 분석한 자료들 중에서도 혼성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양가적 목소리들을 초점화하여 다룰 것이다. 학습자와 교수자로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보이는 지점들은 특히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둘 사이의 간극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딜레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는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실제적 문제 진단-예상 쟁점 탐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표 지향에도 잘 부합한다. 3장은 크게 양태 표현 자체가 지니는 의미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3장 1절)과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이 지니는 개방적 성질에 대한 인식(3장 2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3.1. 양태 표현의 불확정성과 문법 지식의 표상 방식

흔히 지식 중심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법교육에서는 특히 문법 지식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해 왔는데(심영택, 2004; 주세형, 2005; 남가영, 2007; 신호철, 2014; 고춘화, 2020; 신명선, 2020; 주지연, 2020; 구분관·신명선, 2021 등), 문법 영역의 특수성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교과교육에서 교과 지식이 가지는 본유적 속성은 교육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예비 국어 교사들은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이 다루고 있는 양태 표현 지식의 성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특히 양태 표현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불확정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문법교육이 다루는 지식의 본유적 성질에 대한 주목은 해당 지식이 유의미한 교육 맥락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며, 같은 맥락에서 양태 표현의 불확정성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한편, 고춘화(2020)에서는 정통적 문법 지식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형태소 의미 관련 지식 및 본용언과 보조용언 관련 지식에 대한 개념적 렌즈로 ‘변이’와 ‘전형성’을 추출해 낸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확정성’은 양태 표현 관련 지식의 개념적 렌즈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신희성(2019: 66)에서는 “화자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Lyons(1977: 452)의 전통적인 양태 정의와 “긍정적 극성과 부정적 극성 사이의 불확정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체계기능언어학(Matthiessen et al, 2010)의 양태 정의가 상호보완적임을 언급하면서 후자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때의 불확정성은 시간 표현이 시간성을 담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태 표현이 담지하는 의미 자질이기도 하다. 즉, 본질적으로 양태 표현은 ‘그렇다/하다’와 ‘그렇지 않다/하지 않다’ 사이의 불확정적인 지점의 의미를 표상하는 언어 자원이라는 것이다.¹⁰⁾ 한편, 불확정성은 양태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언어 자원으로 묶일 수 있는 모든 어휘문법의 일반적 성질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양태 표현의 의미 자질로서 불확정성이 다시 여타 문법 범주에 비해 높은 의미적 유연성으로서 일반적 불확정성을 이끈다는 점에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10) 불확정성은 전통적인 양태 표현 연구에서는 ‘실현성/비실현성’이나 ‘사실성/비단언성’ 등으로 언급되어 오기도 했는데(강효경, 2019), 명명의 차이는 있으나 주목하고 있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이는 예비 국어 교사(이하에서 편의상 ‘예비 교사’로 약칭함)들이 1)번 활동을 수행한 결과(M1)에서 잘 나타난다. 여타의 문법 범주들과 달리 양태 표현의 ‘객관성/주관성’이나 ‘정도성’의 의미 간 경계는 보다 불분명하다. 예컨대, 모어 화자에게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과거/현재/미래 중 어느 시간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현재나 미래라고 답할 확률은 낮다. 반면, 1)번 활동의 수행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일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 예비 교사들은 객관적이라고 답하기도 했고 주관적이라고 답하기도 했으며, “인간이 이기적일 가능성은 높다”에 대해서도 확신의 정도가 높다는 답과 낮다는 답이 모두 있었다. 이는 양태 의미에 대해 상호교섭적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4)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모둠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양태 의미 판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한 예비 교사들이 학습자 입장에서 보인 반응이다.

- (4) ㄱ. (M2-나) 1번 문제를 조원들과 함께 맞춰볼 때,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달랐다. 문제를 풀 때에는 확실하다 생각하며 풀었는데, 조원들의 의견을 들으니 그 의견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였고, 이것이 문법/언어의 특성임을 느끼게 되었다.
- ㄴ. (M2-라) 처음에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5명 모두 다른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문법교육에 오늘 활동 내용을 적용한다면 선생님께서 “~라는 표현은 주관성(객관성)이 두드러지고, ~라는 표현은 확신의 정도가 어떠한가”라는 설명을 하시고, 학습활동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수업이 되었을 것 같은데 다른 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수업이 되었습니다.
- ㄷ. (M2-하) 확신의 정도, 그리고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 등을 판단하고 정도와 느낌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작은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4ㄱ)은 양태 표현이 지니는 불확정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문법이나 언어 자체의 특성으로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례이다. 예비 교사 ‘나’의 경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긍정/부정의 가치 판단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반면, (4ㄴ)과 (4ㄷ)에서 예비 교사 ‘라’와 ‘하’는 양태 표현이 결합된 문장의 객관성/주관성이나 정도성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별된 것에 대해 각각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예비 교사 ‘라’는 1)번 학습 활동에서 양태 의미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현상에 대해 재미와 흥미를 느낀 반면(4ㄴ), ‘하’는 애매함과 어려움을 느꼈다(4ㄷ). 이때, 문장의 양태 의미를 판별하는 1)번 활동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어진 문장에 대해 청유문인지 명령문인지를 판별하는 [그림 1]의 활동과 동형으로 설계된 것인데, 해당 부류의 학습 활동은 교과서에서 대개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정도의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상정됨을 고려하면 문장의 양태 의미 판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분명 특기할 만한 것이다.¹¹⁾ 이 연구에서 해당 학습 활동을 수행한 이들은 중등학교 문법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사범대학에서도 국어학 개론 수업 등을 이수한 상태였다.

한편,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4ㄴ, ㄷ)에서 양태 표현의 불확정성에 대해 학습자로서 각각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예비 교사들이 교수자로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친 점이다. 예비 교사 인식에서 학습자/교수자로서의 입장 대립이 표출되는 지점은 장차 실제 교육 현장에서 쟁점적 사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 한편, 아래와 같이 1)번 문항의 설계 의도, 그대로의 반응을 보인 예비 교사 역시 있었다.
 “문장들을 비교해 가면서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확신의 정도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어느 정도는 정립된 것 같다.”(M2-타)

- (5) ㄱ. (M3-라) 1번 문제를 풀며 빈칸의 개수와 제가 생각한 답의 개수가 달라서 가우뚱 했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과 논의해보며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자라면 학생들에게 명확한 답을 정해서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ㄴ. (M3-하) 교수자로서는 정도와 느낌이라는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 존재하고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모국어 화자인 학습자에게 확실히 인지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국어 화자의 언어 민감성과 인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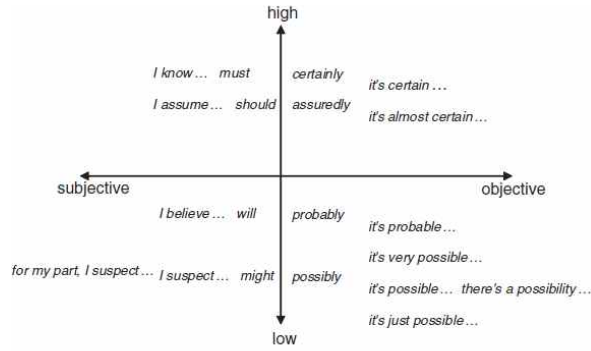
(5ㄱ)에서 예비 교사 ‘라’는 학습자로서는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4ㄴ)을 교수자로서는 명확한 답을 정해서 가르쳐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으로 꼽았다. 이는 개별 학습자로서의 예비 교사 ‘라’가 양태 표현 의미의 불확정적인 면에 흥미를 느꼈을지언정 교수자로서는 다시 일반적인(normal) 학습자 상(像)을 전경화하면서 그들이 통상 명확한 답을 선호할 것이라 상정한 것이다. 또 (5ㄴ)에서 ‘하’ 예비 교사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우려했던 것(4ㄷ)과 달리 교수자 입장에서는 해당 활동이 언어 민감성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정혜승·서수현(2013)에서는 쓰기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면서 예비 교사로서는 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면서도 필자로서 자신의 쓰기 능력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고 인식하는 간극의 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일 개인 내에서도 정체성은 다면적·다층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체성이 집약되어 모이는 집단 간 간극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법 요소가 실현된 문장을 보고 의미를 인식해 내는 활동은 문법 요소 단원에서 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여겨져 왔음을 상기해 보면 그와 동형의 1)번 활동에 대해 보이는 예비 교사들의 양면적 인식은 양태 표현 교육 구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교과서 집필 시 집필진들은 기존의 교과서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조하여 토대를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양태 표현이 문법 요소 성취 기준 내에서 다뤄진다면 1)번과 유사한 학습 활동이 구안될 가능성은 꽤 높기 때문이다. 관건은 (4, 5)에서 1)번 활동의 장점으로 인식된 “작은 뉘앙스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은 유지하면서 “명확한 답”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Martin & White(2003)에서 양태 표현을 기술한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곧 양태 표현 지식을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척도가 있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점을 범주적인 분석에서 등급화된 분석으로 옮길 수 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유형론(typology)에서 위상학(topology)으로의 이동이다. 위상학적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의미의 영역, 그리고 연속체 사이에서 한 의미가 다른 의미에 대해 가지는 근접성에 주목한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한 차원을 다른 차원과 대조하여 배치하고 실현형들을 이미지 내에서 다른 것로부터 멀거나 가깝게 배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태에서 우리는 값과 지향을 연속체로 다룰 수 있으며(고에서 저와 주관에서 객관) 주관성이나 객관성의 정도와 등급화된 값을 고려할 수 있다.

(Martin & White, 200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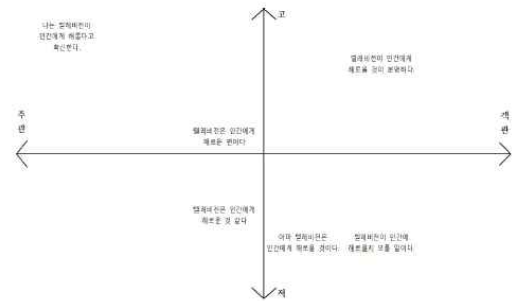
[그림 4] 값과 지향에 대한 위상적 관점(Martin & White, 2003: 17)

어휘의미론에서는 어휘들이 의미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 유형이 선형구조나 격자구조, 위계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 어휘뿐 아니라 문법적 요소들 역시 의미장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표현이 선형구조라면 종결 어미가 표상하는 높임과 문장 유형은 격자구조일 것이다. 대인적 기능의 담화 의미를 다루는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 구축을 꾀한 Martin & White(2005)에서는 양태 표현의 의미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추구하는데 이들은 양태 의미를 읽어 내는 데 있어서 범주적 관점을 등급화된 관점으로 옮기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본다. 여기서 신희성(2019)이 Martin & White(2005)가 다룬 위상학적 관점의 양태 표현 지식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예시한 부분도 참조된다.¹²⁾

1. 다음의 모듬 활동을 순서대로 해 보자.

- 주어진 문장들을 아래 4분면 중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모듬원끼리 토의를 통해 결정해 본다. (아래 4분면의 세로축은 필자가 주장에 확신하는 정도이고 가로축은 문장이 객관적으로 느껴지는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지 여부이다.)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나는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롭다고 본다.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를 줄지 의문이다.
 텔레비전은 인간에 해롭다.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해를 줄 것이 틀림없다.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은 당연히 인간에게 해롭다.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해롭기만 하다.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다.
 나는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롭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다.



- 선생님께서 하나의 문장씩 불러 주면 각 조에서 해당 문장이 4사분면의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지 발표해 본다.
- 조끼리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통해 어느 조가 주장하는 위치가 더 적절할지 결정해 본다.

[그림 5] 양태 표현의 불확정성을 고려한 양태 표현 판별 활동 예시 (신희성, 2019: 234-235)

[그림 5]의 활동은 학습자들이 양태 표현이 결합한 문장의 의미를 판별함에 있어 '객관적'이 아니면 '주관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주관적인지에 보다 골몰할 수 있게 만든다. 위 활동은 학습자들이 문장에 내재한 양태 의미를 판별하

12) 본 연구가 2장 1절에서 학습 활동을 구안할 때 주요하게 참조한 신희성(2019)에 이 같은 활동의 예시가 이미 있었음에도 차용하지 않았던 것은 당초에는 교육 내용 함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타 연구에서는 이 같은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점, 기존 문법 교과서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학습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게 한다는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를 지정하는 유형학적 접근이 아니라 다른 양태 표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는지와 같은 위상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6)에서 예비 교사 ‘가’는 1)번 문항과 관련해 정답이 분명하지 않은 지점을 혼란스럽게 느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문장의 의미를 선택지에 맞게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보게끔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위 [그림 5]의 활동은 이러한 대안 제시에도 상응한다.

- (6) (M2-가) 문제 1번은 사람마다 객관-주관의 정도를 다르게 느끼고 그 기준이 달라서 정답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분명한 하나의 답을 원하는 학습자라면 오히려 혼란을 줄 것 같다. 1~4로 나누기보다 각 문장에 대한 서술로 활동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한편, 노하늘·신희성(2019)에서는 ‘의미 규범’이라는 개념에 기반해 해당 활동을 논평한 바 있기도 하다. 이때 의미 규범은 인간 행위의 동기가 명령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으로 나뉘며, 언어 규범이 형식뿐 아니라 의미에도 존재함을 논증하고 특히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옳은 것과 틀린 것의 경계가 불분명한 이유로 기술적(선택적) 의미 규범의 교육적 필요성이 큼을 주장하였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그림 5]의 활동은 특히 선택적 의미 규범과 관련해 개인 규범과 사회 규범의 사이의 간극을 인식함으로써 개인 언어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고 동시에 언어적 주제 형성의 과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노하늘·신희성, 2019: 1286-1287).

활동 차원에서는 [그림 5]가 1)번 활동의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Martin & White(2003)의 기술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다. 또한 1)번 활동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고 할 경우 애초에 의도했던 기본적 수준의 확인 활동이 되기에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체 활동 구성에서 위치 조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주체적 언어 선택과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개방성 문제

양태 표현 교육이 지향하는 주체적인 언어 선택은 학습 활동의 개방성 문제와 조응한다. 주체적 선택은 자율성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선택의 폭이 폐쇄적인 학습 활동에서는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3), 4)번 활동에 와서 학습자는 텍스트로서 언어뿐 아니라 그를 실현하는 화/청자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4)번 활동의 경우 “내가 필자라면 어떤 글을 쓸 것인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로서 자신의 언어적 정체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자신의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기반해 “무엇이 나은 글인가”라는 질문을 연달아 마주하는 일은 좋은 글의 기준을 미리 정해 주고서 그 기준으로 글을 점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기준에서부터 출발해 좋은 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형성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예비 교사들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반응만을 보였다. 반면, 교수자로서는 긍정적 반응과 더불어 고민되는 지점 역시 함께 있음을 표출했다. 우선 3), 4)번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7) ㄱ. (M2-더) 다른 학우분들과 양태 표현에 대해 건전한 토론을 하면서 양태 표현의 개념이 머릿속에 더욱 각인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A)와 (B) 중 어느 글이 더 나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만 조 내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 있었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많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제 의견을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 ㄴ. (M2-사) 양태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단순히 이론을 학습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이 직접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의미의 차이를 느꼈다. 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더 나은 글이라고 느끼는 게 달라서 신기했다.

글을 왜 “잘” 써야 하는지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양태 표현이 왜 중요한지, 독자가 각자 느끼는 게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8) ㄱ. (M3-파) 재미있었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양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설명 텍스트)와 같은 글을 제재로 선택해 ‘양태’ 그 자체의 정의와 같은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A)와 (B) 두 글(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차이를 비교하게 하면 지식이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더 확실하게 학습자에게 스며들 것 같다.

ㄴ. (M3-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활발한 토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다. 토의를 통해 결국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의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드문 경험이 될 것 같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재가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이들이 글을 쓸 때 본 토의 내용을 떠올리며 보다 적절한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ㄱ)에서 예비 교사 ‘더’는 단언적 어조의 글과 완화적 어조의 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모둠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재조정하”는 상호교섭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7ㄴ)의 예비 교사 ‘사’ 역시 이러한 활동을 단순한 이론 학습에 대응되는 “실질적 배움”으로 인식하고 특히 태도 차원에서 양태 표현의 중요성, 숙련된 글쓰기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8ㄱ, ㄴ)은 교수자 입장의 논평인데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차이를 확인하는 경험에 대해 흥미로울 뿐 아니라 교육 내용의 체득 차원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가치 있게 평가하는 점은 학습자 입장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8ㄱ)의 예비 교사 ‘파’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이 자신의 교수 자원을 확장한 것으로 인식하고 실제 교사가 되어 이 같은 활동을 실행해 보고 싶은 욕구를 표현했으며, (8ㄴ)의 예비 교사 ‘다’는 교실에서 학습자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험에 대해 희소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평했는데 발산적인 학습 활동의 희소성에 대한 판단에는 예비 교사의 중등학교 시절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7, 8)에서 예비 교사들은 “토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활동의 방법론적 측면과 그 가치나 이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적 이점은 동시에 교수자 입장에서의 예비 교사들에게 아래 (9)와 같은 고민을 발생시켰다. 이는 (8)과 대비해 봤을 때 곧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예비 교사 인식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9) ㄱ. (M3-자)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ㄴ. (M3-바) 이러한 활동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본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수자의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ㄷ. (M3-차) 교수자로서 이 활동에 관해 고민해보자면, 가장 큰 질문은 4)번 활동을 어떻게 진행, 마무리해야 하는가?이다. 앞서 1, 2, 3은 비교적 정답이 정해진 활동이었으나 4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답이 정해진 활동들을 계속하다 보니 4의 경우도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자들은 충분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교수자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지, 즉 ‘답은 없는 거야’라고 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대체 ‘좋은 글, 나쁜 글’의 기준이 뭘지 학생들은 혼란이 생길 것 같다. 이에 대해 교수자로서 더 고민해야겠다.

(9ㄱ)에서 예비 교사 ‘자’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중립적인 인식에 가

깝지만 그러한 전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양태 표현 교육 실현의 제한적인 지점을 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9ㄴ)에서 예비 교사 ‘바’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발현되는 교실 장면에서 혼란이 동반될 수 있으리라 문제적으로 예견하고 해당 지점을 통제할 교수자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9ㄱ, ㄴ)은 활동에서 발산된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 점에서는 동질적인 반면 그 몫을 학습자에게 두느냐, 교수자에게 두느냐와 관련해서는 이질적이었다. (9ㄷ)의 예비 교사 ‘차’는 (9ㄴ)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산된 학습자 의견을 종래에는 수렴해야 하는지, 수렴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수렴해야 하는지를 쟁점화하고 있다.

양태 표현 교육에서 개방적인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평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10) ㄱ. (M2-너) 평가 없으니 재밌음. 사실 글의 질을 판단할 때는 근거도 중요하나, 언어적 민감도가 둔감한 사랑의 경우 최초의 “느낌”도 중요하다. 그러니 잘 쓴 글을 스스로 궁구하며, 나름의 양질의 글이 무엇인지 열어 둔 채로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듯함.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요건을 충족하는 갈래별 글쓰기는 양질을 보장해도 자신의 지적 활동처럼 느껴지진 않음.

ㄴ. (M3-너) 평가하기 힘들 듯. 단순히 잘 쓴 글, 못 쓴 글로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기에 고려할 요소가 많음. 교사가 고생해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아닌 A/B/C로 채점하거나 글을 잘 쓰게 하되, 높은 점수의 글을 귀한 프레임에 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10ㄱ, ㄴ)에서 예비 교사 ‘너’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초점에 두고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논평하고 있다.¹³⁾ 먼저 학습자 입장에서는 개방적인 학습 활동에 대해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를 평가의 부재로 인식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지적 활동처럼 느껴지지 않는 여타의 활동과 대척점에 있다고 본다. 이때 여타의 활동이란 흔히 쓰기 수업에서 자기 점검표 형태로 나타나는 루브릭에 기반해 학습자가 스스로의 글이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활동에서 평가 준거는 학습자에게 있어 외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즉, 예비교사 ‘너’는 4)번 활동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잘 쓴 글”, “양질의 글”에 대한 준거를 형성해 보도록 한 것의 유의미성을 학습자 입장에서 높이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10ㄱ). 한편, 예비 교사 ‘너’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지점이 교수자에게는 “힘들”게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는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이기보다 정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나아가 예비 교사 ‘너’는 평가 요소를 상세화하기보다 단순화하는 방식, 혹은 외재적으로 형성된 평가 준거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글이 곧 “귀한” 글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10ㄴ).

2장 1절에서 논한바, 양태 표현 교육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언어 선택에 대한 지향은 핵심적인 교육 원리이다. 따라서 그를 담보하기 위한 학습 활동의 개방성 역시 포기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아래에서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개방성과 관련해 예비 교사들이 문제적이라고 인식한 지점에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를 다룰 것이다. 여기서 세 부분이란 곧 개방적 활동을 통해 발산된 학습자 경험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발산과 수렴의 균형 문제와 위계의 문제, 그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 문제이다. 개방성이 아닌 주체성의 관점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해 볼 수도 있다. 주체적 언어 선택을 지향한다고 할 때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성의 구인에서 자율성(다원성)의 부면이 보다 초점화될 때에는 적절성의 문제가 대립각을 형성하고, 역동성(창의성)의 부면이 보다 초점화될 때에는 전형성의 문제가 대립각을 형성한다.

13) 다만, 여기에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따른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양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글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또 궁극적으로 주제적 언어 선택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실에서 학습자의 역할 역시 주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교수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인바, 조력자로서의 교수자와 관리자로서의 교수자의 대립각을 만드는 것이다.

가. 양태 표현 교육의 방법적 지향 문제: 언어 선택의 자율성/다원성과 적절성

먼저 앞서 살핀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개방성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양태 표현 교육이 학습자의 주제적 언어 선택을 추동함은 곧 스스로 양태 표현의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나는 어떤 양태 표현을 선호하는가?” 혹은 “어떤 양태 표현이 주로 쓰인 글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을 파생시킨다. 또 이러한 물음은 언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준거 탐색을 내재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반면,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학습자가 선호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좋은 글이 되는가?”라는 물음 역시 생겨나게 된다. 즉, 주제성을 확보하려는 지향과 적절성을 지키려는 지향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일찍이 문학교육에서는 해석의 다원성과 적절성의 대립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화두를 다루어 왔다. 먼저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해 예비 교사들이 던지는 질문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인 연구로 정재림·이남호(2014)를 살펴볼 수 있다. 정재림·이남호(2014)에서는 소설교육이 독자를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의미구성, 의미생산의 주체로 격상시키면서 발생한 필연적 문제로 “독자의 모든 해석이 옳은가?”라는 회의적 질문을 제기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도를 논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초등 학습자들이 주로 접하는 문학 작품이 상상의 여지가 많은 소위 ‘느슨한 텍스트’인 것과 달리 중등 학습자들이 주로 접하는 문학 작품은 인과나 개연성이 ‘촘촘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개방적인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해석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들을 내재하고 있기에 학습자 반응의 개방성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재림·이남호(2014)에서 논의 전개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촘촘한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의 개념은 문학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석 사이에 내재하는 인과관계의 긴밀성을 일컫는 것인데 이러한 명명을 빌려와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언어적 정체성에 기반한 자율적인 언어 선택을 추동한다면 이는 비교적 느슨한 활동이 되겠고 맥락이나 조건을 바탕으로 사회 규범에 가까이 접근하여 적절한 언어 선택을 하도록 추동한다면 이는 촘촘한 활동이 되겠다. 3), 4)번 활동은 양태 표현 연구들의 지향에 맞춰 느슨한 형태를 취한 것이고, 이에 대해 예비 교사들은 활동의 느슨함으로부터 나오는 발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을 보인 것인데 정재림·이남호(2014)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4)번 활동은 “촘촘함”의 근거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4)번 활동을 촘촘하게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특히 강효경(2019)의 논의가 유의미하게 참고된다.

명제에 확신이 있는 경우	가치에 대한 필자의 확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독단적이고 단정적일 수 있는 위험)	↔	독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신중한 표현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는 위험)
명제에 확신이 없는 경우	솔직하고 진솔히 자신의 주장의 확신 정도를 보일 것인가 (설득이라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	↔	목소리를 조절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언어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 (솔직하지 못하여 윤리적으로 실망감이 들 수 있는 위험)

[그림 6] 양태 표현의 선택과 관련된 여러 차원의 의도(강효경, 2019: 229)

[그림 6]은 실제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신이 한 축으로 작용하고 필자가 그 확신을 언어 표현의 층위에서 그대로 드러내는지 전략적으로 조정하는지가 한 축으로 작용하여 교차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필자가 명제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독자에게 독단적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완화적인 표현으로 대화적 공간을 확장한다면 스스로 확신을 가진 명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독자에게 설득력 없어 보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다. [그림 6]과 같은 도식 위에서 양태 표현 선택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적절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점과 위험을 동시에 지니는 탓에 정오의 영역을 비껴서 여전히 자율성도 담보하게 된다. [그림 6]을 바탕으로 4)번 활동을 (11)과 같이 보다 촘촘하게 조정해 볼 수 있다.

(11) 양태 표현 학습 활동 4)번의 조정안

- ㄱ. 4) 내가 필자라면 (A)와 (B) 중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어떤 글이 더 나은 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자. (기존 활동)
- ㄴ. 4') 내가 명제에 확신이 있는 필자라면 (A)와 (B) 중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어떤 글이 더 나은 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자.
- ㄷ. 4') 내가 명제에 확신이 없는 필자라면 (A)와 (B) 중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어떤 글이 더 나은 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자.
- ㄹ. 4') 내가 필자라면 주장하려는 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독자를 상정하였을 때, (A)와 (B) 중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어떤 글이 더 나은 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자.

(11ㄴ, ㄷ)은 필자 입장에 대한 추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해야 하는 양태 표현 선택의 폭을 좁혀준다. 한편, (11ㄹ)은 독자의 입장을 조건으로 제시한 조정안이다. (11ㄹ)은 기존의 (11ㄱ)에 비해 3)번 활동과 4)번 활동의 연계성도 높여 준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내가 글 속에 내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를 “내가 주장하려는 명제를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정오로 여겨질 요소가 개입하기 쉽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영역은 (11ㄴ, 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1ㄴ, ㄷ) 역시 별다른 조건 없이 학습자 스스로의 선호와 가치 판단에 기반해 글을 평가할 수 있었을 때 느꼈던 개방성, 자율성의 장점은 다소 열어질 수 있다. 결국 (11ㄴ-ㄹ)은 활동의 개방성을 조정하는 정도에 있어 스펙트럼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석의 자율성과 적절성 사이의 문제는 일찍이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이라는 명명 아래 전개되어 온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이상구(2013: 360)에서는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원리 중 하나로 “텍스트의 의미는 공통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해 있는 독자 집단의 공동 가치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개별 독자가 산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협의 과정(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다.¹⁴⁾ 이상구(2013)의 “정합성 있는 ‘의미’를 산출”하는 일과 정재림·이남호(2014)에서의 ‘적절한 해석’에 다다른 일은 개방적인 학습자들의 발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렴을 꾀한다는 점에서 같은 궤에 놓여 있다. 반면, 수렴을 만드는 무게 중심에 정재림·이남

14) 최미숙(2006) 역시 대화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표방하면서 대화 단계를 독자의 내적 대화, 독자와 독자의 대화, 교사(전문가)와 독자의 대화로 두고 있는데 세 번째 대화는 학습자들이 ‘독자 집단의 공동 가치로서 텍스트 의미’에 도달함에 있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미숙(2006)이 제시한 교사와의 대화에서 핵심은 교사가 “새로운 관점 제시하기”, “좀더 근거 있는 해석의 가능역 설정하기”와 같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수자 역할의 문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호(2014)가 텍스트를 두었다면 이상구(2013)는 공동체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와 관련해 이인화(2013L)가 참조된다. 그는 Fish로부터 출발한 해석 공동체를 원용하며 “해석의 근원이 개별 공동체에 있으며 그 결과 절대적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해석의 전략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이 해석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러한 개념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텍스트, 맥락, 다른 독자들을 중층적으로 고려한 읽기 결과의 타당성, 수용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발전되었”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해석 주체의 위상이 소홀해지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인화, 2013L: 145-146). 개별 해석 주체가 “해석의 자유는 물론이고 권력이나 책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지적은 구성원들끼리의 협의 과정에 대한 경계(警戒)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개별 독자의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논의는 다시 그 과정에서 다시 개별 주체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논의로 순환되는바, 이들은 길항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비 교사들이 체험한 학습 활동은 발산으로 종료되었기에 예비 교사들로부터 수렴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었지만 반대로 수렴으로 끝날 경우 발산에 대한 욕구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인화(2013L: 148-149)는 기존 해석 공동체 개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해석 공동체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면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해석 공동체가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이 아닌 ‘해석 자원(interpretive repertory)’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략의 공유는 곧 해석의 동일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현실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반면, 해석이 자원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되어 해석 공동체의 주체성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는 해석 공동체의 본질이 해석에의 귀일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공유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며,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자기 해석을 조정하거나 변화하는 것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자원의 공유는 곧 자원의 풍부화, 확장이라는 점에서도 이점을 지닌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앞서 (11L-ㄱ)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 다소 부정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표현 의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선택은 해석 공동체 내에서의 해석 자원 공유라는 단계를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효과를 고려한 선택은 자원보다는 전략의 측면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4번 활동이 발산에 이은 수렴을 마련하려고 할 때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이인화(2013L: 151)의 언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탐색하고 다른 해석 주체와 교섭하며 자기 해석을 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서의 성장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개방성 문제는 단순히 양태 표현 선택에 작동하는 인과를 촘촘히 만들어 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는 상호교섭 그리고 뒤이어 자신의 입장을 소결해 보는 과정까지도 필수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인화(2013ㄱ)는 “해석의 다양성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을 때 유의미”함을 전제로 삼아 문학 토론이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개별 독자들의 해석을 공론장에서 펼쳐 보이게 함으로써 해석 간 소통을 통해 자기 해석 및 공동체의 해석 자원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학 토론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국면에서는 화법 영역에서 찬반의 대립이 기본 구도로 설정되는 것과 달리 ‘다름/차이(difference)’의 관점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이인화, 2013ㄱ: 251-252).

이를 앞서 제시한 강효경(2019)의 [그림 6]에 다시 접목하여 생각해 보면 본래는 특정 사분면에까지 인식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사분면에 위치한 동료 학습자들과 조우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라 이해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인화(2013ㄱ: 257)가 문학토론 실천의 핵심적 요소로 객관의 주관화와 주관의 객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독자는 “임의성을 극복하고

개인 및 공동체에 유의미한 해석에 다다”르며, “타당성을 획득한 해석이 다시 독자에게 내면화됨으로써, 또 다른 소통 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한다. 결국 4)번 활동만으로는 양태 표현 교육이 적절히 종료될 수 없는 것이다.

(12) 양태 표현 학습 활동 5)번의 추가안

- ㄱ. 5) 4)번 활동에서 모둠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성찰해 보자.
- ㄴ. 5)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적절한 양태 표현 선택에 유의하여, 설득하는 글을 써 보자.
그리고 쓴 글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를 실시해 보자.

(12)는 이상의 논의를 반영해 5)번 활동을 추가로 제안한 것이다. 추가되는 5)번 활동을 통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공유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된 인식이 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내면화를 소극적으로 이루어 낸다고 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성찰해 보자”와 같은 추가 활동을 제시할 수 있겠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낸다고 할 때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적절한 양태 표현 사용에 유의하며, 설득하는 글을 써 보자. 그리고 쓴 글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동료 평가를 실시해 보자.”와 같은 추가 활동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 양태 표현에만 학습 활동이 과다하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양태 표현이 문법 요소 성취기준에 추가되는 방식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다뤄지기 위해서는 국어교육 공동체 내에서 양태 표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의 구도/위계 문제: 장르의 창의성(역동성)과 전형성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개방성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성취기준 혹은 한 차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의 구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먼저 논점을 잡기 위해 김혜련(2015)의 논의를 살펴보자.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서 완화된 글과 단정적인 글을 대조하고 이들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 보는 활동은 가치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넘어서 비평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김혜련(2015: 161)에서는 ‘비평’에 대한 정의를 문법 영역에서의 양태 표현 교육에 맞춰 조정하면 “실현된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태도를 견지한 상황에서 텍스트의 어휘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언어적 경험과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재진술될 수 있다. 김혜련(2015: 163)에서 확인하고 있듯 최근 제 교과과 교육과정 전반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과 비평적 안목에 대한 강조가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해 있다. 곧 문법교육은 이 관점에서 언어 비평 혹은 담화 관습 비평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담화 관습은 다시 장르 개념과 맞닿는다. 장르 교육 연구에서 교육의 주체적 언어 선택 및 활동의 개방성 문제는 장르의 역동성/창의성과 전형성 간 대립 담론으로 형성되어 왔다. 일찍이 최인자(2000: 29)에서는 국어교육에서 장르 이론을 수용하는 일이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이 향유하는 특정 방식의 설득 방식을 밝혀내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이념을 전제로 하”는지를 해명하게끔 한다고 설명했다. 장르 이론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해 최인자(2000: 29)는 “특정 유형의 텍스트를 설정하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하는 방법적 효율성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써야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가’ 하는 반성적이고 비판적 질문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여기서 질문의 방향이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왜 그렇게 써야 하는가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을 유의미하게 보고 주목한다.

다시 이를 양태 표현 교육에 적용하자면 어떤 양태 표현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왜 그 양태 표현인가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전략이나 효율의 차원에만 국한되어선 안 됨을 의미한다. 특히 최인자(2000: 30-31)에서는 장르가 “역동적 과정과 체계적 결과, 집단적인 유산과 개인적인 전유, 사회적 규정과 개인적 혁신, 관습과 창의적 긴장 속에 존재하는 개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화 주체의 언어 활동 속에서 장르는 반복적인 관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의적으로 혁신된다.”라고 보았다. 종래에 최인자(2000: 45)의 논의는 쓰기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적 반성 능력이 교육과정 이론가, 학습자, 교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어 “특정 장르의 쓰기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동화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쓰기 주체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염려를 포함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본 연구의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대해 역동 및 창의가 전형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임이 간과되어 전형에 대한 충분한 장력(張力)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최인자(2000: 47)는 정재림·이남호(2014)나 이상구(2013)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의 무차별적 수용을 경계하면서 “권력 관계에 의해 ‘선택 혹은 배제’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주변화되고 배제된 장르들을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예시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세대’별 문화 이질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세대별 이질 장르들의 경쟁적 수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희성(2022)가 신희성(2019)의 연구 결과를 원용하며 설득하는 글의 단언적 어조와 완화적 어조에 대한 선호에 세대 차가 있을지를 살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내용이 주목되며, 유사한 관점은 최근 조진수(2022)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관련하여 나온미(2017: 13)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형성과 창의성이 빚어내는 역동적 관계로 인해 장르가 공시적 특성뿐 아니라 통시적 특성도 가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쓰기 교육에서 장르의 역동성 문제는 이후에도 김혜연(2013), 나온미(2017), 이수진(2019)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김혜연(2013: 70)은 장르-기반 접근법과 관련해 전형적 특질을 익히게 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면 이는 관습의 이탈이나 새로운 관습의 생성을 배제하여 결국 관습의 생성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는 장르-기반 접근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⁵⁾ 김혜연(2013: 85-86)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수사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쓰기 교육의 장르-기반 접근법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리하면서 그러한 시도가 “기존의 전형성의 범주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장르적 규칙의 이데올로기를 파헤치고 전복하는 반(反)전형성”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또 그 의의로 “글쓰기의 다양한 시도들을 가능하게 하고 글쓰기 자체의 의미를 메타적으로 생각하게” 함을 들면서 동시에 대안이 미약하고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김혜연(2013)이 제시하는 기존 장르 규칙의 전복이라는 말은 다소 급진적이지만 그렇기에 매력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복이라는 행위는 뒤집을 대상이 공고하게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것이므로 역시나 전형과 역동/창의의 긴장 관계를 학습 활동 내에 충분히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게 된다. 김혜연(2013: 88) 역시 “그러므로 창의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그 대상과 맥락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형성과의 조화를 꾀하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창의적이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라야 ‘창의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화가 결국 위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최인자(2000: 46)는 장르의 역동성이 위계 차원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기성 장르를 수용, 적용하는 단계를 초보적 수준이라 한다면, 이 장르를 비판 및 반성하며 창의적 재구성하는 능력은 발전적 단계로 설정할 수 있기”라고 보았다. 나온미(2017)는 역시 전형과 창의를 위계의 관점에서 보아 “새

15) 다만, 이때 전형성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성이 경직성으로 치닫는 경우를 문제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김혜연, 2013: 75).

로움이나 창의성은 기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의 변용과 해체 융합 속에서 도출되는 변이 형이기 때문”에 전형성과 창의성 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나은미(2017: 28)는 어느 정도 전공 교육을 받은 대학교 고학년들은 전형화의 경험이 많아 자동화된 글쓰기 수행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형성이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필자와 독자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짚었다.¹⁶⁾

이를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접목한다면 문법 요소 성취기준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고등학교 2-3학년 <언어와 매체>/<화법과 언어>에서 2회 등장하는데 전자에서는 해석의 적절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후자에서는 장르적 역동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보는 식으로 양태 표현 교육 내용 실현의 구도를 범박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문법 요소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양태 표현 교육에서 교수자의 정위: 관리자과 조력자, 그리고 동반자

앞서 예비 교사들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수업에서 다룰 경우, 교수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예비 교사들이 자신들의 중등학교 시절 개방적인 국어 수업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예비 교사들이 양태 표현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방법이나 수업의 지형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혜승(2014)에서는 언어와 의사소통의 인간 존중과 협력의 원리에 근거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비단 교육 내용의 강화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차원의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혜승(2014: 30-40)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안내가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교사는 학생을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의 주체로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이미 언어로 삶을 살아가는 실천자임을 이해한다.”와 “교사는 학생이 자신을 의사소통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수업 상황과 학습 과제를 구성한다.” 같은 보다 명확한 언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태 표현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의 보완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필요로 한다. 즉, 교사들이 양태 표현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분명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교육 주체들의 역할이나 관계 설정 등을 보다 상세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주체 중 학습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혜승(2014)의 두 지침이 본 연구에서도 유효하다.¹⁷⁾ 다만, 본 연구는 예비 교사의 인식에 바탕해 학습자 역할뿐 아니라 교수자 역할에 대한 안내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개방성 문제를 장르 교육의 역동성 및 창의성 논의와 연결하여 다루었다. 이때 장르의 전형성과 역동성 및 창의성이 맺는 관계를 위계로 설정해 낼 수 있음을 살폈는데 이는 다시 교수자의 역할 변화로도 이어진다. 박태호(2008: 163-164)에서는 학생중심, 활동중심의 수업을 강조한 교육개혁의 와중에 ‘비계설정,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학습’을 소홀히 취급하게 되면 ‘교사의 안내나 조력’이 결여 및 그에 따른 ‘국어 수업의 명료성’ 저

16) 나은미(2017: 23)의 “장르를 둘러싼 문제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글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은 주체적 언어 선택의 문제가 장르의 전형 및 역동의 관계와 연결됨을 재확인시켜 준다.

17) 정혜승(2014)의 지침이 본 연구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은 예컨대 이런 지침이다. 정혜승(2014)이 제시하는 학습자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치롭게 인정되는 기능이나 능력에 미숙한 초심자로 보일 지라도, 학교 밖 실제 삶에서 학생들은 이미 언어로 원하는 것을 얻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한 협상에서 좀처럼 지지 않는 ‘능력자’로 보는 인식은 예비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무언가 온전한 도달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교대가 명시적인 국어 수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교사주도↔상호주도↔학생주도’의 수업 흐름 속에서 교사는 점차 전문가에서 촉진자→상담자→참관자가 되며 반대로 학생은 참관자에서 출발해 부분 참여자→초보자→전문가가 된다. 김주환(2022)에서도 문식성 교수법을 점검하면서 점진적 책임 이양 모형이 국내에서 현시적 교수법으로 잘못 알려진 맥락을 면밀하게 짚어 내고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¹⁸⁾

점진적 책임 이양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 양태 표현의 개념을 학습하는 순간 교수자는 전문가이자 안내자였다가, 학습자들이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양태 표현의 형식과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촉진자가 되고, 양태 표현의 표현 효과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상담자, 양태 표현 선택의 주체성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만으로는 본 연구가 중심에 두고 있는 학습 활동의 개방성 속에서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바가 있다. 이는 점진적 책임 이양의 모델이 교사가 어떤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능이나 행위의 습득을 교육적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양태 표현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어떻게(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이다. 이수진(2019: 125) 역시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교과서의 예시문 분석, 미완성 글을 두고 교사와 학습자의 협동적 쓰기, 학습자의 주도적인 글쓰기로 이어지는 절차” 내에서 책임 이양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학습자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창의성의 저해는 주체성의 결여와도 긴밀하다는 점에서 점진적 책임 이양 모델의 수용은 양태 표현 교육에도 우려되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학습자가 가치 판단의 준거를 충분히 내면화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예비 교사들이 4)번 활동 혹은 양태 표현 학습 활동 전체를 끝맺음하는 단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조금은 다른 국면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김혜련(2015)이 국어 교실의 구도를 그림에 있어 생태주의 관점을 취하는 지점이 본 연구와 맞닿아 있다. 김혜련(2015)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육적 소통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위계가 동등하지 않은 교육 현상이 참여 주체의 자율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한 정혜승(2005)의 논의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러한 태생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Whitehead가 인간관계의 철학에 생태적으로 접근한 점을 수용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텍스트의 독자라는 동등한 입장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때 이들이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전제로서 학습자는 유기체적 존재로서 지위를 부여 받는데 이는 발산, 수렴의 관계를 고민하는 본 연구에 유의미한 단서를 던져준다. 주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유기체적 존재로서 학습자는 비평 교육에서 교사·교실·텍스트·작가·독자·시대 현실과 맺는 관계의 층위와 양상에 따라 자기(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경험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맥락) 체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며 텍스트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평균 독자로

18) 한편, 국어교육에 있어 생태주의적 관점을 주창하는 고희성·김혜숙(2013: 202)에 역시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을 대조하면서 전자에서는 “조력자로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소통”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교수가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참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한 차이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희성·김혜숙(2013: 190)은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총체적 인식론’과 ‘관계적 세계관’ 내에서 교육 주체로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관계 속의 공존과 상호작용은 “자기 갱신과 자기 초월”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서 학습자의 비평 능력은 어느 특정 순간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태적 조건과 그에 따라 해석과 평가의 준거가 축적되면서 형성된다. 물론 학습자에게 이미 형성된 가치가 다른 해석자나 해석 공동체의 준거와 평가를 통해 강화되거나 혹은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경험마저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 유기체적 존재로서 학습자는 자신을 형성해온 시간과 공간,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된 규범과 준거에 따라 텍스트를 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존재로서 학습자는 비평 교육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놓여 있는 삶의 문맥에 대한 인식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김혜련, 2015: 176-177)

앞서 예비 교사들은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을 접한 학습자들이 ‘좋은 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할 것’을 우려했는데 김혜련(2015)의 논의는 그러한 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서번은 화이트헤드의 창조성을 자자와 일자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합생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일자’는 진실로 새로운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과정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되풀이된다”라고 보았는데 이들이 무한한 순환의 과정임을 인지한다면 구태여 마무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김혜련, 2015: 176).

본 연구는 김혜련(2015)의 논의에서 비롯된 ‘동반자, 공동 행위 구성자’로서 교수자와 ‘촉진자, 조력자’로서 교수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¹⁹⁾ 전자로서 교사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치 역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습자와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둘은 어느 한 쪽이 옳은 것이라기보다 상황, 그리고 교수 지향에 따라 교수자가 유동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학습자가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 언어 사용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단순하게 상정해 보자. 양태 표현의 개념과 언어 자원으로서의 선택항을 익힌 학습자는 텍스트의 대조를 통해 동일한 내용도 양태 표현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어조를 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 독자로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는 조력자로서의 교수자가 필요하다. 교수는 우선은 단언적 어조의 텍스트를 선호하는 학습자에게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주 단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와 같은 질문으로 학습자의 주체성이 다양한 선택지를 안 상태, 즉 자율적 상태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조력자,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자기 갱신을 거친 학습자는 서번의 말을 빌리자면 다시 이접의 존재로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교수는 “○○는 단언적인 텍스트를 선호했고, □□는 완화적인 텍스트를 선호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와 같은 발화를 통해 양태 표현의 주체적 선택 및 그를 통해 담화 관습을 가꾸어 나가는 동반자이자 공동 행위 구성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교수는 학습자와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공유를 유지하여 자칫 본인 입장으로서의 유인이 되지 않게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수자가 조력자를 넘어서 동반자, 공동 행위 구성자로 존재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는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사회과 및 도덕과에서는 소위 ‘쟁점 중심 토론 수업’, ‘논쟁 문제 토론 수업’에서 교수자가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를 의제로 활발하게 논의해 왔다. 특히 손병노(2018)는 교수자 역할 설정 논의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립각을 이루는 ‘중립적 의장(neutral chairman)’으로서의 교사 역할과 ‘참여적 공정형(committed impartiality)’으로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입장들을 깊이 있게 살펴서 결국 양자 모두가 딜레마적인 지점이 있음을 짚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립적 의장과 참여적 공정형, 즉 가치 판단에 있어 교수자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19) 고희성·김혜숙(2013: 209-211)이 생태학적 관점의 통합 문법 교수·학습의 예시로 제시한 부분에서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소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모둠 속에서의 협력’과 ‘모둠 간의 협력’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라는 지시는 고희성·김혜숙(2013)이 설정하는 촉진자, 조력자로서의 교수자 역할을 보다 명시적으로 잘 보여 준다.

문제는 다음의 딜레마를 지닌다.²⁰⁾ 먼저 중립적 의장으로서 교사 역할은 1960년대 말 Stenhouse가 제안했으며 “교사의 전통적 권위로 인한 교화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최대화하려는” 지향을 지닌다. 이때 ‘전통적 권위로 인한 교화의 위험성’은 전형에 대한 강조가 내재한 위험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적 공정형으로서 교사 역할은 교사의 중립 지향에 대항하고자 했던 Kelly에 의해 1980년대에 옹호되었으며, 교사가 학습자들의 시민적 성장을 조력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합당하게 가지게 하려는 목표의식을 가진다. 참여적 공정형에 대한 논의들은 대개 중립적 의장에 대한 비판을 발판 삼아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주요한 비판들을 살펴보면 먼저 Bailey(1971, 1973; 손병노, 2018: 7-8에서 재인용)는 중립적 의장으로서 교사가 역할하는 교실은 종국적으로 쟁점의 해결을 합리성, 객관성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현안이 되는 쟁점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에 대해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혹은 Elliot(1973; 손병노, 2018: 8-9에서 재인용)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진리와 합리성의 가치에 헌신해야 하는 교육의 상황에서는 교사가 그러한 가치에 무관심하게끔 만드는 중립적 역할이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손병노(2018: 12-14)에서는 무엇을 선택하지 않음 역시 궁극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것으로서 특정 가치에 대한 교수자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행위 역시 일종의 가르침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실의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학생들의 자유로운 견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결정권을 격려하는 교수자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바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중립적 교사 개념의 제안 이면에 “교화에 대한 우려, 교사의 과도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염려, 학습자의 합리성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내재해 있음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바름·정문성(2020)에서도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이들이 수업 상황에 따라 역할을 조정함을 확인했다. 그는 교수자가 논쟁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은 회피이며, 이는 종래에 학생들의 상대주의적·회의주의적 태도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또 참여적 공정형을 지향하게 될 때 참여적 공정형의 핵심이 교수자가 자신의 견해를 숨기지 않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교수자 자신의 것보다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입장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을 문제적으로 보았다. 교수자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학습자에게 그것을 주입하는 것을 별개로 본다면 학습자가 “논쟁문제에 대한 숙의와 토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개방된 교사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바름·정문성, 2020: 191-192).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황과 교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상황 모두 지양하면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중립적 의장이든 참여적 공정형이든 주요한 문제의식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덕규범이나 지식의 전수”보다는 “인간의 자율성과 비판능력의 증진, 고유한 인격을 추구하는 것”에 있기에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전숙경, 2009: 203-204). 전숙경(2009: 205-206)은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성격을 논하면서 의사소통에서의 대등함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개방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고 또한 포용의 관계라는 점에서 교사는 “학습자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험을 함께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같은 지점을 고려하여 정혜승(2014)과 같은 식으로 양태 표현 교육의 교수·학습 시 교수자 역할을 안내할 문구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이하 중립적 의장과 참여적 공정형에 대한 정리는 손병노(2018)에서 가져온 것이다.

- (13) 교사는 스스로가 학생들과 함께 담화 관습을 구성해 나가는 동반자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안내자이자 조력자이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만들어 나가는 국면에서는 동등한 한 명의 담화 공동체로서 교사 개인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그간 축적되어 온 논의들에 기반해 양태 표현 교육을 실현할 학습 활동을 구안해 보고, 예비 국어 교사의 목소리를 빌려 해당 활동의 실현 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의 출발점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 문법 요소 성취기준에의 통합을 상정하여 학습 활동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양태 표현 교육이 내재하고 있는 지향이 기존 문법 요소 교육과 동질적인 모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는 양태 표현 지식의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짚었다. 또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언어 선택을 추동하기 위해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이 개방성을 띠게 되었을 때,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방법 차원에서 다원성과 적절성의 대립을 살폈고, 위계 차원에서 창의성과 전형성의 대립을 살폈으며, 교수자 정위 차원에서 관리자에서 나아가 조력자, 조력자에서 나아가 동반자의 구도를 살폈다.

본 연구에서 살핀바, 양태 표현 학습 활동과 관련해 예비 국어 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지점은 곧 보다 근본적으로 문법교육 나아가 국어교육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제 문제들을 촉발시킨다. 주체적으로 언어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천착뿐 아니라 기저의 문법교육관에 대해 서로가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어느 순간에 완결되는 것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오가는 진자 운동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작은 소결을 내려 보자면 이성영(2018)이 “때가 되었다. 우리 교육이 이제 개성교육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고 한 목소리를 대립되는 길항 관계들 속의 나침반으로 삼음이 어떤가 하는 정도이다.

한편, 본 연구는 그간 예비 국어 교사에 대한 연구들에서 방법론을 타당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논의되었던 예비 국어 교사 인식이 국어교육 개선의 주요한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의 자기 연구 혹은 예비 국어 교사와 국어교육 연구자의 협력 연구 등이 보다 이상적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효경 (2019). 설득 목적 글쓰기의 양태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효경, 오현아 (2015). 문법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내용 구성 가능성 탐색: -잖아(요), -거든(요)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3, 79-111.
- 권태현, 김승현 (2022). 국어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과 인식 연구. **교원교육**, 38(5), 79-106.
- 고춘화 (2020). 문법 지식의 개념적 이해를 위한 설계. **국어교육학연구**, 74, 29-54.
- 고희성, 김혜숙 (2013). 생태학적 관점의 통합 문법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7, 187-224.
- 김라연, 장봉기 (2017). 융합독서의 개념 및 시행에 대한 예비 국어교사들의 인식 분석. **우리말연구**, 50, 171-202.
- 김영란, 방상호 (2022). 국어 교과에 특징에 대한 중등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어교육학회 제293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변혁적 역량을 향한 (한)국어교육의 생태계: 학생**, 47-68.
- 김윤신 (2016). 국어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연구. **언어학**, 74, 25-50.
- 김은성 (2016). `국어 문법 교사`와 문법 교육. **문법 교육**, 28, 1-23.
- 김정은 (2021).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 (2022). 문식성 교수법으로서 점진적 책임 이양 모형(GRR)의 재조명: 직접교수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63, 45-74.
- 김혜련 (2015). 생태주의 비평 교육의 지향: 국어과 중심 통합적 비평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문학교육학**, 46, 159-194.
- 김혜연 (2013). 작문교육 연구의 지평: 전형성과 창의성의 문제. **작문연구**, 18, 63-104.
- 나은미 (2017). 장르에 대한 이해와 대학의 <사고와 표현> 교육 설계. **사과와 표현**, 10(3), 7-38.
- 남가영 (2007). 문법교육의 "지식의 구조" 체계화 방향. **국어교육**, 123, 341-374.
- 남가영 (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유경 (2016). 완화적 표현(Hedge) 교육 내용 연구: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은희, 정혜승, 민병곤, 서수현, 서영진, 김현정, ... 박소영 (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C 2022-2).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노하늘, 신희성 (2019). 의미 규범의 문법교육적 재개념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1279-1309.
- 민현식, 신명선, 오현아, 이지은, 안장호, 조진수, 박진희 (2019). **언어와 매체**. 서울: 천재교육.
- 박태호 (2008). 수업의 명료성과 국어 수업 사례. **국어교육**, 125, 163-192.
- 박형우 (2018). 문법 영역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 68, 303-333.
- 백금석 (2012). 국어 양태 구문의 사용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 의존명사 '것'을 포함한 양태 구문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민, 박형우, 김지영, 박경희, 김기열, 김영민, ... 조성만 (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천재교육.
- 손병노(2018). 쟁점중심 사회과 토론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중립적 교사 역할의 재음미. **사회과수업연구**, 6(2), 1-18.
- 신명선 (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151-181.

- 신명선 (2020). '문법 지식'의 성격과 교육. **국어교육**, 168, 151-192.
- 신호철 (2014). 교육 내용으로서 문법 지식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교육**, 15, 75-94.
- 신희성 (2018). 양태 범주의 문법 교육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시론. **국어교육학연구**, 53(4), 5-47.
- 신희성 (2019).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대한 문법교육적 연구: 언어하기 관점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희성 (2022).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설득하는 글에 나타난 양태 표현 사용 양상: 주장과 근거를 담은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80, 95-137.
- 심영택 (2004).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문법 교육의 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1, 355-390.
- 양세희 (2017). 문법 교과서의 학습 활동 유형 변화 양상 분석: 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3, 65-96.
- 양영자 (2020). 교사 저서에 나타난 교사론의 질적 내용 분석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7(1), 31-60.
- 우신영 (2015). 문학교육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연구: <은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0(4), 334-368.
- 윤천탁 (2019). 문법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반영한 문법 교육의 개선점 탐색.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039-1057.
- 이바름, 정문성 (2020). 사회과 논쟁문제 토론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52(3), 187-212.
- 이상구 (2013). 반응중심 문학교육과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기본 관점과 교육 내용 비교 고찰. **문학교육학**, 40, 333-362.
- 이수진 (2019). 장르 중심 쓰기교육의 실행 현황과 과제: 초등 쓰기교육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43, 111-139.
- 이인화 (2013₁).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94, 249-280.
- 이인화 (2013₂).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실천 방향: 생태 공동체로서의 해석 공동체를 모색하며. **국어교육연구**, 32, 133-162.
- 이창덕 (2016). 국어 화자입장(speaker stance)의 화용적 표현 체계에 대하여. **화법연구**, 41, 247-269.
- 이창덕 (2022). '-은/는/을 것 같다' 남용 개선을 위한 국어 양태 표현 체계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73, 207-232.
- 임영미, 오현아 (2013). 문법 탐구 학습 과정에서의 중등 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 양상 탐색. **새국어교육**, 97, 415-449.
- 장성민 (2016). 예비 초등교사의 글쓰기 협력학습에 대한 인식: 동료지도의 작문 워크숍에 대한 은유 분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30, 253-287.
- 장성민 (2022). 독서 교육에 대한 예비 국어교사의 요구 분석: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의 주관성 유형 분류. **독서연구**, 64, 9-46.
- 전숙경 (2009).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연구**, 45, 199-220.
- 정재림, 이남호 (2014).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71, 237-261.
- 정혜승 (2014). 스마트 교육 시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언어와 의사소통의 인간 존중과 협력의 원리에 근거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9(1), 5-49.
- 정혜승, 서수현 (2013).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327-360.
- 제민경 (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진수, 노유경, 주세형 (2015).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것 같다’에 대한 문법교육적 고찰. **새국어교육**, 105, 217-245.
- 주세형 (2005). ‘내용’과 ‘방법’으로서 국어지식 영역의 역할. **한국초등국어교육**, 27, 241-270.
- 주지연 (2020). 문법지식의 불확정성과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73, 153-184.
- 최경봉, 김윤신, 이동석, 주세형(2017). **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육론**. 서울: 창비교육.
- 최미숙 (2006).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227-252.
- 최인자. (2000). 장르의 역동성과 쓰기 교육의 방향성. **문학교육학**, 5, 27-52.
- 최형용, 강영준, 권태윤, 박재연, 박종오, 소신애, ... 임요한 (2019). **언어와 매체**. 서울: 창비
- Martin, J. R., & White: R. (2003). *The language of evalua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양태 표현 교육 구현의 예상 쟁점 탐색”에 대한 토론

김병건(건국대)

“기존의 양태 표현 교육 담론들에서 주요 원리와 핵심 요소를 추출해 교과서상의 가능태로서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실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을 논하는” 이 논문은 꼼꼼하고 탄탄한 논의의 전개로 국어교육에 양태 표현 교육을 구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논문이라 생각된다.

토론자는 몇 가지 고려되면 좋을 것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안 사항은 ‘양태 표현 교육의 원리 → 양태 표현 교육의 내용 요소 → 양태 표현 학습 활동’으로 이어지는 양태 표현 교육의 구현과 관련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양태 표현 교육 구현에 있어 예상되는 실천적 쟁점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양태 표현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다양한 맥락에서 실제 사용되는 국어의 역동성’의 교육적 실현으로 생각하는 듯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명료한 기술이 포함되면 좋을 듯하다.

둘째, “적절성”이라는 개념이 보다 구체적이면 좋을 듯하다.

적절성은 텍스트의 맥락적 속성과 관련 있다. 그래서 적절성이 ‘(2) 양태 표현 교육의 내용 요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3) 양태 표현 학습 활동’의 ‘(3) ... 독자의 입장 ...’을 설명하며 ‘설득하기라는 목적(장르)’라는 맥락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맥락이 어떻게 적절성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논문의 설명대로라면, ‘설득하기’라는 특정 장르에서는 어떤 양태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3) ... 독자의 입장 ...’을 (2ㄷ) ‘표현의 도’와 (2ㄷ) ‘적절성’의 반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적절성’과 관련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1) 아마도 000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거 같아요.

(1)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실/수업’이라는 테너(tenor) 맥락을 설정해 보자. 이것이 선생의 발화라면 적절한가, 아니면 학생의 발화라면 적절한가? 양태 표현의 적절성은 평가하기 힘든 영역으로 보인다.

양태는 대인적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적 장치 중 하나로, 이것으로 우리는 힘과 연대, 친밀도, 태도와 판단 등을 해석할 수 있다. ‘(2) 양태 표현 교육의 내용 요소’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표현 효과 파악하기)’가 이런 관점에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1)을 보면, 학생의 발화라면 양태 표현은 자신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선생이라면 양태 표현은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거의 관계가 없지만 상호작용자 간의

불평등한 힘 또는 빈번하지 않은 접촉에 대한 상호작용자의 인식에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적절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셋째, ‘(3) 양태 표현 학습 활동’에 ‘객관적/주관적 느낌’에 대한 판단 활동이 있다. [그림 4]와 [그림 5]를 통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1)과 같은 인식 양태의 표현이 있는 문장을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2) ㄱ.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롭다고 **확신한다**.

ㄴ.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분명하다**.

‘객관적/주관적’이라고 본 [그림 5]의 두 예문은 (2)처럼 나(I)를 생략하면 객관성/주관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우리말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윤리교육

한말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한말연구학회(이하 '이 학회'라 함)의 건전한 연구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편집위원회와 심사 위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며, 이에 따른 일들을 관장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말연구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함)을 비롯하여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이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서약) ① 이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 이 규정 발효 시점의 회원은 이 규약을 따르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준수 의무

제1절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5조(표절 금지) ① 연구자는 투고, 제안, 수행 결과 보고나 발표 등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지 않는다.

제6조(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조 및 변조 금지)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부정 행위 금지) 연구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부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명목상 저자 불인정)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바지한 연구에 대해서만 글쓴이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바지한 바가 없는 연구에 대해 자신을 글쓴이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10조(공동 연구 저자 표시) 공동 연구의 경우 글쓴이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직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의무

제11조 (투고자 존중)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엄정·공정한 집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심사 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을 선정할 때에 학술 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나이, 개인적인 친분 등을 고려하여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심사 위원 비공개)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글쓴이에게 심사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의무

제15조(성실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본인이 심사자로서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제16조(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글쓴이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글쓴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부정 의혹 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이미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표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선의의 표절 예방) 심사위원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심사 대상 논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글쓴이에게 알려 선의의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9조(비밀 보장) ①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때까지 글쓴이와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글쓴이의 동의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20조(설치) 이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21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인 총무이사와 출판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당연직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기록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22조(역할)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2.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수행한다.
3. 연구 부정 행위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4. 연구 부정 행위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나 학회의 회장 또는 연구윤리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시행 지침

제24조(심의 요청 및 위원회 소집) ①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에게 알리고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심의와 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심의 요청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⑥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결과 보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 및 심의 내용
2.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3. 심의 절차
4. 심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5. 심의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절차
6. 윤리규정 위반의 정도

제27조(징계 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접수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발표를 취소한다.
 3. 학회의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일정 기간 발표를 금지한다.
 4. 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5. 학회의 가입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6. 주의 또는 경고 서면을 발송한다.
- ③ 징계 결과는 심의 요청자와 윤리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즉시 알린다.
- ④ 위반 사항은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한다.

제5장 규정 개정

제28조(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바로 공고하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2007.11.29.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